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손혁상, 곽재성, 박보기, 허태욱

2012. 7

연구책임자

손 혁 상

▸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현)
-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현)
-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정책자문위원 (현)
-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
-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위원장

▸ 주요 연구실적

- “국제규범 내재화와 정치환경: 스웨덴·독일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 제30권 1호. 2012
- “What Matters in Determining Korean ODA Allocation: An Empirical Analysis on Bilateral Aid Since 1991,”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5호. 2011
-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관계 연구: OECD DAC 회원국의 NGO지원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7권 4호. 2011
- “On Divergent Tracks? The ODA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n Comparis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제12권 1호. 2011
-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1호. 2010
-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제18권 2호. 2008

공동연구원

곽 재 성

▸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학연구원장 (현)
- 경희대학교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Green Planet” 기획위원장 (현)
-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위원 (현)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 (현)
- 미주개발은행(IDB) 무역통합국 Specialist
- 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 주요 연구실적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2
- “효과적인 민관협력 ODA 모델구축,” 한국국제협력단. 2011
- “국제개발컨설팅 사업기반 조성방안,” 기획재정부. 2011
- “Changing nature of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 ECLAC). 2010~2011
- “Dynamics of Asia-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중남미연구』, 제27권 2호. 2009

박 보 기

▸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주요 연구실적

-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관계 연구: OECD DAC 회원국의 NGO지원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7권 4호. 2011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1
- “한국국제협력단 NGO지원사업 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 2010

허 태 욱

▸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주요 연구실적

- “수원시 환경수도(저탄소녹색도시)로의 전환과 환경거버넌스,” 『아세아연구』, 통권 147호. 2012
- “The Compatibility between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제16권 3호. 2011
- “Exploring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제15권 3호. 2011

<u>연구보조원</u>

김 남 경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원
김 소 위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원
서 진 희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원
유 미 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내용 ····· 7
   가. 연구목적 ····· 7
   나. 연구내용 ····· 8
3. 연구전략 및 방법 ····· 9
   가. 연구전략 ····· 9
   나. 연구방법 ····· 11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 18

1. 기후변화 ODA ····· 18
   가.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 18
   나. 기후변화 ODA와 녹색ODA ····· 21
2.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PPP) ····· 24
   가. 민관협력(PPP)의 배경 및 개념 ····· 24
   나. 전략적 CSR과 민관협력(PPP) ····· 26
3. 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와 분석틀 ····· 29
   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 ····· 29
   나. 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 ····· 35
   다.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틀 ····· 37

Ⅲ.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PPP 정책 분석: 미국, 덴마크, 독일 ····· 40

1. 미국 USAID ····· 40
   가. PPP 개념 및 역사 ····· 40
   나. 사업방식 ····· 42
   다. 기후변화 PPP ····· 55

1) 섹터별 사업 구분 ····· 57
2) 지역 및 국가별 사업 구분 ····· 60
3) 파트너 수 및 사업기간에 따른 분류 ····· 63
4) GDA 섹터별 분석 ····· 64
가) 농업 ····· 65
나) 에너지 ····· 73
다) 산림 ····· 80
라) 수자원(물) ····· 85
마) 교통 ····· 92
바) 기타 ····· 98
2. 덴마크 Danida ····· 107
가. PPP 개념 및 역사 ····· 107
나.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 108
1) Business to Business Program (B2B) ····· 112
2) 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IPD) ····· 113
다. 기후변화 PPP ····· 114
1) Landfill Gas to Energy ····· 117
2)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 117
3) Sustainable Design ····· 118
3. 독일 GIZ ····· 119
가. PPP 개념 및 역사 ····· 119
나. 사업방식 ····· 120
다. 기후변화 PPP ····· 128
4. 소결: 3개국 비교분석 ····· 130

Ⅳ. 기후변화 대응 PPP의 분야별 수원국 현지 사례분석 ····· 135

1. 사례조사 개요 ····· 135
2. 에너지 분야 ····· 137
가. Grameen Shakti (방글라데시) ····· 137
나. PAKLIM-OSRAM (인도네시아) ····· 139

다. REEEP (솔로몬군도) ····· 141
3. 물(수자원) 분야 ····· 143
가. JHUCCP (인도네시아) ····· 143
나. Clean Water for Communities (베트남) ····· 145
다. WADA (가나) ····· 146
4. 산림(녹지) 분야 ····· 148
가. GFTN (인도네시아) ····· 149
나. IPAC (방글라데시) ····· 151
다. SLP (인도네시아) ····· 153
라. 자연재해대응사업 (베트남) ····· 155
마. HONDA 조림사업 (베트남) ····· 155
5. 농업 분야 ····· 156
가. AMARTA (인도네시아) ····· 156
나. IRRI-CSISA (방글라데시) ····· 159
다.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 (베트남) ····· 161
라. GHPPP (가나) ····· 163
6. 교통 분야 ····· 164
가. ITDP-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방글라데시) ····· 164
7. 기타 분야 ····· 166
가. CBEP Ⅱ (가나) ····· 166
나. PSES (방글라데시) ····· 168
8. 소결: 수원국 현지사례 비교분석 ····· 169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PPP 현황 ····· 173

1. 국내 PPP 사업 ····· 173
가. 개요 ····· 173
나. 현황 분석 ····· 174
다. 특징 ····· 177
2. 민간 참여주체의 PPP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 179
가. 민관협력 사업의 장단점 ····· 179

나. 사업 발굴 및 역할 분담 ····· 183
다. 기타 고려사항 ····· 187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PPP ····· 190
가.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 ····· 190
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특징 ····· 194
4. 소결: 기후변화 대응 PPP 활성화에 있어 시사점 ····· 198

VI. 기후변화 대응 PPP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200

1. PPP 정책 인프라 조성 ····· 202
2. 기후변화 대응 PPP의 사업유형 ····· 205
3. PPP 사업 프로세스 ····· 211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220

○ 참고문헌 ····· 223

○ 부록 ····· 230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 231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 231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 233

2. USAID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GDA 사업 섹터별 자료 ····· 236

가. 농업 ····· 236
나. 에너지 ····· 247
다. 산림 ····· 250
라. 물 ····· 253
마. 교통 ····· 256
바. 기타(생물다양성, 에코투어리즘, 역량강화, 인지제고 등) ····· 257

3. Danida 기후변화관련 PPP 사업 ····· 262

4. GIZ 기후변화관련 PPP 사업 ····· 263

5. 기후변화 관련 PPP 국제기구 현황 ····· 266

가. 세계은행(WB) ····· 266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 278
다. UN환경계획(UNEP) ····· 290

6. 해외 현지조사 사례의 국가별 PPP 사업 지역 ····· 296

가. 인도네시아 ····· 296
나. 베트남 ····· 297
다. 방글라데시 ····· 298
라. 가나 ····· 298

- 표 목차 -

<표 1-1>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주요내용 ····· 12
<표 1-2> 연구방법 2: 해외사례조사 주요내용 ····· 12
<표 1-3> 연구방법 3: FGI 주요내용 ····· 13
<표 1-4> 연구방법 4: 그룹간담회 주요내용 ····· 14
<표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 ····· 15
<표 1-6> 주요 연구일정 ····· 16
<표 2-1> 한국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발전 ····· 19
<표 2-2> 녹색성장 3대 요소 및 내용 ····· 20
<표 2-3>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분야 ····· 32
<표 2-4> 기후변화대응 분야 및 정책적 활용사례 ····· 34
<표 2-5> 기후변화대응 PPP 관련 GDA 분야별 가이드라인 모델 ····· 35
<표 3-1> IDEA의 4가지 민간부문 협력형태의 특징 ····· 43
<표 3-2> 기업의 협력 목적 ····· 44
<표 3-3> GDA 파트너십 가이드라인 ····· 45
<표 3-4> GDA 11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사업모델 ····· 46
<표 3-5> 1999~2007년 GDA 프로젝트 지역, 파트너, 기간 통계 ····· 54
<표 3-6> GDA 지원분야 ····· 55
<표 3-7> 개별 섹터별 사업 구분 ····· 57
<표 3-8> 기타 영역 사업구분 ····· 58
<표 3-9> 크로스 커팅 프로젝트 포함 섹터구분 ····· 59
<표 3-10> 파트너 수 분석 ····· 63
<표 3-11> 농업 분야 GDA 사업 유형 10가지 모델 ····· 65
<표 3-12> 에너지 분야 GDA 사업 유형 6가지 모델 ····· 73
<표 3-13> 산림분야의 GDA 사업 분류 ····· 80
<표 3-14> 수자원(물) 분야 GDA 사업 유형 5가지 모델 ····· 85
<표 3-15> 교통 분야의 GDA 사업 분류 ····· 92
<표 3-16> 기타 부문의 GDA 사업 분류 ····· 99
<표 3-17> UN 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 ····· 107
<표 3-18>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추진 단계 ····· 110

〈표 3-19〉 B2B Environment 내용 ····· 115
〈표 3-20〉 B2B Environment 사업 분야 구분 ····· 116
〈표 3-21〉 B2B Environment 사업별 내용 ····· 116
〈표 3-22〉 민간부문과의 기본 협력 형태 ····· 120
〈표 3-23〉 독일 PPP 선정 기준 ····· 121
〈표 3-24〉 develoPPP.de 유형 ····· 122
〈표 3-25〉 PPP에서의 GIZ의 역할 ····· 127
〈표 3-26〉 develoPPP.de 프로젝트 - 기후변화 분야 구분 ····· 129
〈표 3-27〉 USAID, Danida, GIZ의 PPP 추진 유형 ····· 130
〈표 4-1〉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 사업 사례 개요 ····· 136
〈표 4-2〉 에너지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37
〈표 4-3〉 물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43
〈표 4-4〉 산림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48
〈표 4-5〉 농업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56
〈표 4-6〉 AMARTA I 과 AMARTA II 사업 주요특성 비교 ····· 158
〈표 4-7〉 교통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64
〈표 4-8〉 기타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 166
〈표 4-9〉 기후변화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 ····· 170
〈표 5-1〉 2011년 KOICA PPP 현황 ····· 175
〈표 5-2〉 2012년 KOICA PPP 현황 ····· 176
〈표 5-3〉 2010~2012년 KOICA PPP 참여 기관 현황 ····· 177
〈표 5-4〉 2010~2012년 KOICA PPP 수행 지역 ····· 177
〈표 5-5〉 2010~2012년 KOICA PPP 사업 기간 ····· 178
〈표 5-6〉 2010~2012년 KOICA PPP 예산 규모 ····· 178
〈표 5-7〉 국내 PPP 사업의 장점에 대한 기업의 견해 ····· 180
〈표 5-8〉 국내 PPP 사업의 장점에 대한 NGO의 견해 ····· 180
〈표 5-9〉 국내 PPP 사업의 단점에 대한 기업/NGO의 견해 ····· 181
〈표 5-10〉 KOICA의 PPP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82
〈표 5-11〉 환경분야 CSR 사업의 효과성 ····· 183
〈표 5-12〉 국내 PPP 사업발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 184
〈표 5-13〉 환경 분야 CSR 사업수행 계기 ····· 185

〈표 5-14〉 국내 PPP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 ····· 186
〈표 5-15〉 환경 분야 CSR 확대에 대한 기업의 견해 ····· 188
〈표 5-16〉 환경분야 CSR 확대에 대한 NGO의 견해 ····· 189
〈표 5-17〉 기후변화 대응 관련 KOICA PPP 현황 ····· 190
〈표 5-18〉 기후변화 대응 관련 KOICA PPP 참여 주체 현황 ····· 194
〈표 5-1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KOICA PPP 파트너십 현황 ····· 196
〈표 6-1〉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민관협력 사업유형 ····· 207
〈표 6-2〉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 210
〈표 6-3〉 주요 공여국의 PPP 파트너십 구성기준 ····· 214
〈표 6-4〉 미국과 독일의 PPP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 216
〈표 6-5〉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 221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목표 ····· 7
〈그림 1-2〉 연구전략 및 방법 ····· 10
〈그림 2-1〉 PPP사업 관련 기업의 역할에 관한 모형 ····· 28
〈그림 2-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분야 ····· 30
〈그림 2-3〉 기후변화 저감·적응·통합 분야 범주 ····· 31
〈그림 2-4〉 기후변화대응 PPP 분야 ····· 36
〈그림 2-5〉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틀 ····· 37
〈그림 3-1〉 GDA의 개념- 비즈니스와 개발의 접점 ····· 41
〈그림 3-2〉 USAID의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력형태 ····· 44
〈그림 3-3〉 USAID의 민간 부문과의 ‘초기 미팅’을 위한 ‘지침’ ····· 49
〈그림 3-4〉 GDA의 기업참고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 51
〈그림 3-5〉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APS) 신청 절차 ····· 52
〈그림 3-6〉 개별 섹터별 사업 구분 ····· 57
〈그림 3-7〉 기타 영역 사업구분 ····· 58
〈그림 3-8〉 크로스 커팅 프로젝트 포함 섹터구분 ····· 59
〈그림 3-9〉 섹터별 예산 지원 비율 ····· 60
〈그림 3-10〉 지역 별 사업 구분 ····· 61

<그림 3-11> 지역별 예산 지원액 ····· 61
<그림 3-12> 지역별 예산 지원액: MIDAS 제외 ····· 62
<그림 3-13> 파트너 수에 따른 분류 ····· 63
<그림 3-14> 사업기간에 따른 분류 ····· 64
<그림 3-15> 사업기간 별 분석 ····· 69
<그림 3-16> 파트너 별 분석 ····· 69
<그림 3-17> 지역별 분석 ····· 70
<그림 3-18> 사업기간 별 분석 ····· 76
<그림 3-19> 파트너 수 별 분석 ····· 77
<그림 3-20> 지역별 분석 ····· 77
<그림 3-21> 사업기간 별 분석 ····· 81
<그림 3-22> 파트너 수 별 분석 ····· 81
<그림 3-23> 지역별 분석 ····· 82
<그림 3-24> 사업기간 별 분석 ····· 87
<그림 3-25> 파트너 수별 분석 ····· 88
<그림 3-26> 지역별 분석 ····· 88
<그림 3-27> 사업기간 별 분석 ····· 93
<그림 3-28> 파트너 별 분석 ····· 94
<그림 3-29> 지역별 분석 ····· 94
<그림 3-30> 사업기간 별 분석 ····· 100
<그림 3-31> 파트너 수 별 분석 ····· 100
<그림 3-32> 지역별 분석 ····· 101
<그림 3-33> B2B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내용 ····· 113
<그림 3-34> IPD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내용 ····· 114
<그림 3-35> 독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파트너십 유형 ····· 122
<그림 3-36> 아이디어 경쟁부문 진행과정 ····· 123
<그림 3-37> develoPPP.de의 지원 분야 ····· 124
<그림 3-38> PPP 사업 추진 유형 ····· 133
<그림 4-1>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SHS) 설치 현황 ····· 139
<그림 5-1> KOICA PPP사업 프로세스 ····· 197
<그림 6-1> GDA의 기업참고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 203

〈그림 6-2〉 혁신적 민관협력 예산 운용방식 ····· 204
〈그림 6-3〉 기후변화 대응 PPP의 단계적 시행 과정 ····· 209
〈그림 6-4〉 PPP 수행절차 및 시행일정 ····· 212
〈그림 6-5〉 발굴형 민관협력 사업추진 프로세스 ····· 220

- 박스 목차 -

〈박스 3-1〉 농업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67
〈박스 3-2〉 에너지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74
〈박스 3-3〉 수자원(물)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86
〈박스 3-4〉 전략적 동맹 사례: 아프리카 면화 사업 ····· 125
〈박스 3-5〉 독일 PPP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 126
〈박스 6-1〉 PPP 교육훈련 프로그램 ····· 202

- 약 어 -

ACDI/VOCA	Agricultural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Volunteers in Overseas Cooperative Assistance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MARTA	Agribusiness Market And Support Activity	
AMORE	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	
APS	Annual Program Statement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
BCA	Business Consult Africa	
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BKMEA	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BMP	Best Management Practice	최적관리기법
BMVBS	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OP	Base of the Pyramid	
BRECDA	Barangay Renewable Energy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BRT	Bus Rapid Transit	
B2B	Business to Business	
B2C	Business to Consumer	
CAAC	Clean Air Action Corporation	
CADEFOR	Amazonian Center for Sustainable Forest Enterprises	
CAI-Asia	Clean Air Initiative for Asia Cities	
CBEP	Community-Based Ecotourims Project	
CEDP	Cassava enterprise development project	
CEFACOM	Center for Research Family Health & Community	
CEMS	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System	연속측정시스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I	Conservational International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국제옥수수・밀연구소
CONIC	Community Owned, private funded, Nature Interpretation Center	
COSPE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erging Countries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기관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원조 목적 코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별협력전략
CSIAS	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	
CSPA	Certified Sustainable Products Allianc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I	Development Alternatives Inc.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국제개발청
DED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독일개발공사
DEG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 gesellschaft	독일투자개발공사
DIESEL	Developing Integrated Emission Strategies for Existing Land	
DIV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개발 혁신 벤쳐
DOE	Department of Energy	필리핀에너지담당기구
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EDTA	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EF	Eurasia Foundation	
ENV	Environmental measure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ESP	Environmental Services Program	
EU	European Union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 인증제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글로벌개발연대
GhG	Greenhouse Gas Credits	온실가스 크레딧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GETF	Glob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Foundation	국제환경기술재단
GFTN	Global Forest and Trade Network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IZ	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TZ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독일기술협력공사
HLF-4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세계개발원조총회
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EA	Innovation and Development Alliances	
IED	Integrated Energy Design	통합에너지디자인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국제축산연구소
IPAC	Integrated Protected Area Co-management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D	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I4EI	Institut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JHUCCP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	존스홉킨스 공공보건대학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센터
KKDA	Nkhotakota District Assembly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FG	Landfill gas	매립지 가스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IDAS	Additional Investment for Sustainable Alternative Development Program	
NCRC	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er	자연보전 연구센터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RECA	National rural electrification alliance	
NSP	Nishorgo Support Projec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ADCO	Planning and Development Collaborative International	
PAKLIM	Policy Advic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EMS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PFAN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PIC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PIN	Project Identification Note	
PMC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PMC	Projet Management Company	개발사업관리회사
PMESCOs	Pacific Micro Energy Service Companies	
PPA	Public Private Alliance	민관협력연대
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SES	Promo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PSP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RA	Rainforest Alliance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EEP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SENCE	Supporting Environmental and Community through Ecotourism	
SHS	Solar Home System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SFCCC	San Francisco Clean Cities Coalition	
SPREAD	Sustaining partnership to Enhance Rural Enterprise and Agribusiness development	
SUCCESS Alliance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	
TIST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LC	Total Land Care	

USAEP	United States-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미국아시아환경프로그램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UNGC	Global Compact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글로벌콤팩트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WADA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WB	World Bank	세계은행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세계경제개발위원회
WESM	Wildlife and Environmental Society of Malawi	
WI	Winrock International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재단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녹색 ODA의 부각과 녹색성장[1)]

최근 대외원조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연계되어 녹색 ODA(Green ODA)가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2일에 폐막된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Rio+20)[2)]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경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동 회의에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3)]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녹색 ODA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녹색 ODA 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을 천명했을 뿐 아니라[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의 국제기구 전환도 이루어졌다.[5)]

국제적으로는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브란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이 탄생한 이후 인류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1992년에 처음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 92)에서 '아젠다 21'의 채택, 2002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1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빈곤, 물, 위생 등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

---

1)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개념과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녹색ODA, 환경ODA, 기후변화ODA에 대한 엄격한 개념구별을 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다. 녹색ODA개념에 관한 보다 구체적 논의는 <제2장 1절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참조.

2) RIO+20은 UN 주도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인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이다. 1992년 첫 회의가 리우에서 열린지 20년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의미이며, 2002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회의를 RIO+10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3) 2012년 6월 20일에 개최된 Rio+20 개막식 중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4) 2012년 6월 21일에 개최된 Rio+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5) Rio+20 개막식 직후 개최된 부대행사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 협정 서명식이 15개국의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GGGI는 이번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OECD DAC은 2002년에 '리우협약의 개발협력 통합(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사막화라는 리우협약 과제를 빈곤 퇴치라는 개발의제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었으며, 2006년에는 '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6] 가이드라인, 2009년에는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으로의 통합: 정책지침(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A Policy Guidance)'[7]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ODA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0년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조응하여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지원책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과 국내 녹색성장 연계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 ODA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이어진 환경 담론을 토대로 환경 ODA의 개념을 확장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자원·에너지 외교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에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해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8] 이후 녹색성장을 기초로 정책담론을 재구성하고 있으며[9] , 환경과 경제의 윈-윈(win-win)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생태효율성과 탄소집약도를 높이는 성장 방식 및 녹색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3대 요소로는 첫째, 견실한 성장 및 에너지·자원 사용량 최소화, 둘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 셋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제시되었다.[10]

---

6) OECD DAC의 환경관리지침에 대한 정리는 권율 외. 2009.『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조.

7) 이 보고서는 개발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및 조언을 제안하는 정책지침서로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임소영. 2010. "OECD/DAC ENVIRONET(환경과 개발 네트워크)의 기후변화와 개발 논의 동향".『국제개발협력』. 제2호. pp. 36~40을 참조.

8) 2008년 8월 15일에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9)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

○ 녹색 ODA와 민간 재원

Rio+20에서 천명된 우리 정부의 입장과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은 2008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녹색 ODA 확대 방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 ODA 확대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이 동시에 제기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아젠다가 장기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시공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녹색 ODA 자금의 조달에 있어 민간재원이 새로운 재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민간재원의 중요성은 2002년의 UN개발재원국제회의(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몬테레이 회의)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지난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OECD DAC High Level Forum 4, HLF-4) 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2002년의 UN 몬테레이 회의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MDGs 달성, 빈곤감소, 사회적 조건 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개발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와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몬테레이 합의에서는[11] 민간재원을 활용한 빈곤감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이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에 있어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영역은 재정혁신, 국내 금융시장 심화 및 국내 금융 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국내 재정자원을 동원하고,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민간자본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 재정 및 무역 시스템에서의 민간부문의 기여는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11년 11월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는 결과문서의 제목을

10) 녹색성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47#0000.

11)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는 혁신적 재원개발을 위해 ① 개발을 위한 국내재정자원동원, ② 개발을 위한 국제재정자원 동원(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민간자본), ③ 개발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④ 국제재정·기술협력 증진, ⑤ 대외부채탕감, ⑥ 국제금융·재정·무역시스템의 일관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라고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남남(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민관협력의 중요성과[12] 함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식으로 민관협력(PPP)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 구체적으로는 기업협회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개발 정책의 계획, 이행 단계에서의 민간부문 참여,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 개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촉진, 민관 상호발전을 위한 민관 부문 대표자들의 참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14]

○ 녹색 ODA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

이와 같이 국제개발에서 민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효과성 높은 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PPP 사업 방식과 활성화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USAID의 민관협력 사업 분야인 Global Development Alliance(이하 GDA) 자금규모가 연간 2억 달러에[15] 이르며, GDA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CSR과 연계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6]

국내에서도 ODA에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중기지원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관협력 규모를 대폭 확대할[17] 예정인 바 이에 따라 구체적이

12)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11. HLF4 Outcome Document: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5, 8항. p.2.
13) Ibid. 10항. p.2.
14) Ibid. 32항(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p.10.
15) http://www.oecd.org/document/49/0,3746,en_2649_34447_50484145_1_1_1_1,00.html
16)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업으로 Coca Cola가 물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WADA)가 있다.
1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5년까지 10배 확대(‘10년 90억원→’15년 900억원)하고,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중기지원계획(2011-2013)에 의하면 2013년까지 KOICA 예산 중 민관협력 예산의 비율을 현 2%에서 5%로 확대한다.

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KOICA에서도 민관협력실을 중심으로 2010년에 PPP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고, 현재 글로벌 CSR을 브랜드로 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다.[18)]

국내 PPP 사업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PPP 모델 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와 함께 기존의 IT, 직업훈련 등을 넘어 기후변화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PPP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공학에서 인류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성을 제공하고, 전 지구적 이슈로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활용 및 설립이 가능하며, 신성장 분야에 대한 신흥시장 진출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녹색 ODA의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속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기업의 전략적 CSR과 연계하여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녹색 ODA와 PPP의 연계 흐름과는 달리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원조체제의 빈곤감소 정책과 실행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인 Reality of Aid는 2011년에 발표된 보고서를[19)] 통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PPP에 대한 우려와 실제 진행된 물 분야의 PPP 실패 사례를 통해 민간 영리기업과의 협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공공 기관의 배타적 혹은 독점적 영역이었지만, 현재 PPP로 명명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영리단체와의 협력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수익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는 가난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20)] 나아가, PPP는 더 많은 자원을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자원에 투자하고 배분할 뿐이며, 이는 더 많은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와 MDGs 달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그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18) 국내 PPP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5장을 참조.
19) The Reality of Aid. 2011. PPP: Private Gains, Public Costs.
20) Ibid .p.8
21) Ibid. p.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는 민간재원의 유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발전과 기업의 전략적 CSR을 끌어내고, NGO 등 민간 부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PPP의 수행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녹색 ODA는 환경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 창출, 물・에너지・폐기물 등 관련 녹색기술의 발전과 황폐된 산림 복구를 통한 지구환경개선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녹색 ODA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인력과 경험을 구축하고 축적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대책 관련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분야별 필요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따른 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녹색 ODA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지원 분야와 방법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명확한 정책적 입장 제시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한국의 산업진출과 자원확보를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환경 이해를 실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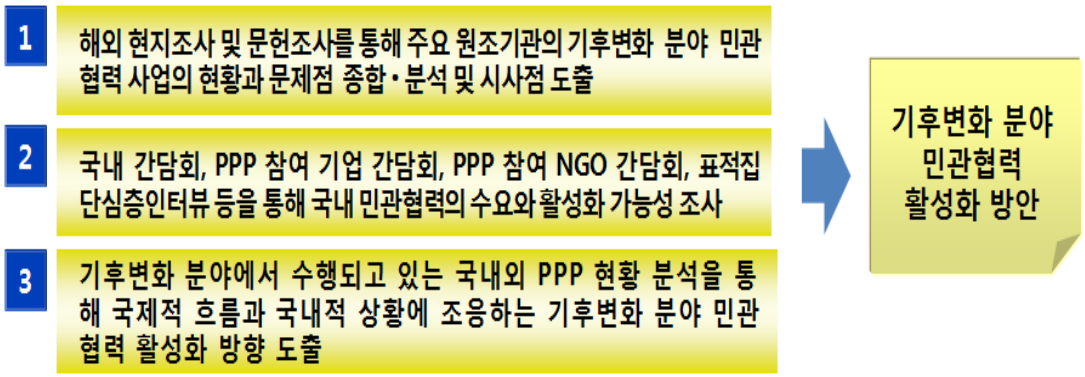
이렇게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녹색 ODA와 PPP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각 국가와 국제기구별로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CSR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KOICA의 PPP 사업의 활성화와 PPP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녹색 ODA 분야의 민관협력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PPP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선진공여국의 다양한 민관협력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업, 시민사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민간 부문과 효과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녹색 ODA 전략 및 모델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가. 연구목적

이러한 연구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사업 전략과 구체적 사업 수행 현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주요 협력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사업 사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덴마크 등 선진원조기관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에 집중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PPP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후변화 분야의 PPP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해본다.

셋째, 기후변화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선진공여국과 한국의 PPP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적 흐름과 현황, 국내 현황을 총괄하여 국제적 흐름과 국내적 상황에 부합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실현가

능하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과 함께 본 연구는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사회의 변화, 정부 및 민간 부문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관계와 역량을 포함한 종합적 맥락 속에서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효과적인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주체인 정부 뿐 아니라 기업, NGO, 전문 연구자 등 민간부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대외원조의 질 제고와 보다 발전적인 민관협력 모델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이러한 목적 하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 ODA, 환경 ODA, 기후변화 대응 ODA 등 혼재되어 있는 개념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정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의 종합적인 분석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 ODA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국제적 흐름에 대한 고찰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련된 제 논의들을 종합하여 구체적 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민관협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민관협력현황을 고찰하여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한국의 민관협력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독일, 덴마크의 원조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PPP의 정책방향, 가이드라인, 특징 등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함의를 찾아보았다. 또한 미국의 민관협력 사업 분야인 GDA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체적 분야와 지역,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셋째, 민관협력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과 미국의 GDA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PPP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사업 모듈, 즉 사업발굴, 재정지원방식, 현지사업 수행주체, 파트너십의 유형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국내 민관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에 있어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PPP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참여한 주체들과의 간담회, 현재 시행 중인 국내 PPP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기업 CSR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의 PPP 실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PPP 중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징과 사업모듈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의 기후변화분야의 민관협력 현황과 미국 GDA의 구체적 사업 현황 분석, 국내 PPP와 관련된 상황 분석 등을 종합하여 기후변화 분야 PPP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3. 연구전략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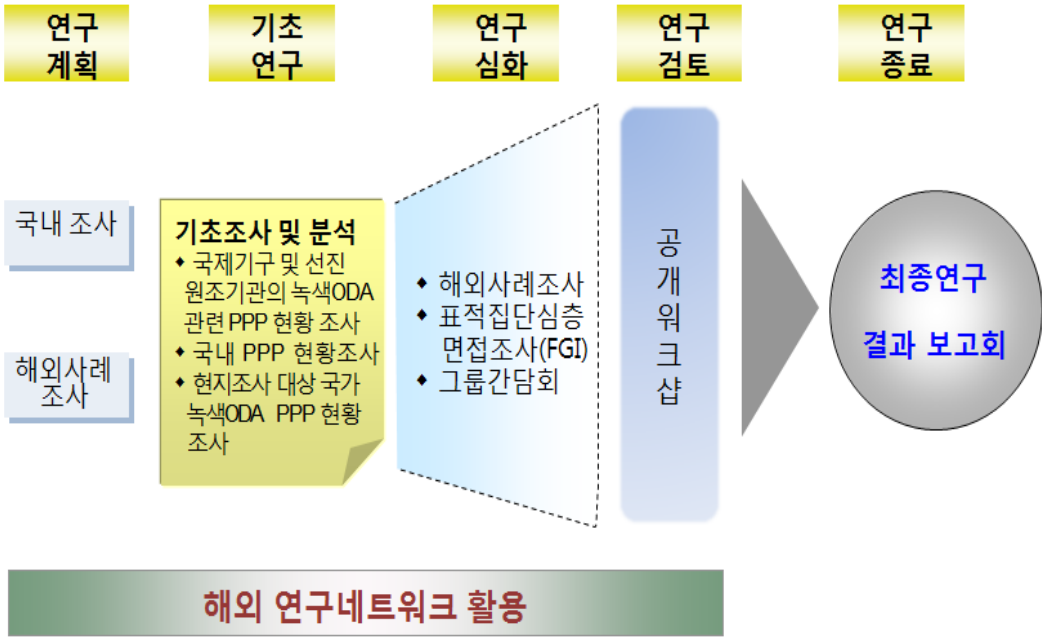
가. 연구전략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물을 심화·발전시키고,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집성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적 ·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민관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 NGO, 학계 등 다양한 민간부문 관계자들과 정부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이는 주요 전문가 집단, 실무자 그룹 등과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민관 협력 당사자 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성하여 연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개념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 연구전략 및 방법



연구과정에 있어서는 기초문헌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연구심화, 연구검토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는 단계적 연구를 추구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검증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할 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연구과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 NGO, 학계 관계자들과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구단계에서는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의 기후변화 분야의 지원현황과 민관협력 사업과의 연계, 국내 민관협력의 현황, 해외조사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의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 ·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심화단계에서는 기초연구단계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기후변화와 민관협력이 연계된 주요 사례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해외사례조사와 국내 민관협력 관계자들, 기후변화 분야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정부 및 KOICA 관련자, 학계 관계자, 자문위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례, 국내 현황 조사 및 심층 분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검토단계에서는 공개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효과적

인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여 최종연구결과물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의 주요 주체인 KOICA와 기업, 실제 사업의 수행주체가 될 수 있는 개발NGO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집성하는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이는 이와 같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 흐름, 국내 현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 그룹간담회, 공개워크샵 등 다섯 가지 방식의 조사방법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선진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의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사례와 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조사 ·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조사 지역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선진원조기관의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문헌을 조사하였다. 특히 민관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분야인 GDA(Global Development Alliance)의 프로젝트 중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1-1>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주요내용

구분	국제기구	주요원조기관	GDA
주요 내용	• UNEP, WB, ADB의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 사업 전략, 원칙, 수행방식 등에 대한 조사	• USAID, Danida, GIZ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 사업 전략, 원칙, 수행방식에 대한 조사 • USAID, Danida, GIZ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분야 PPP 사례조사	• GDA 프로젝트 중 환경으로 분류되는 220개의 사업 추출 및 조사 • 220개의 사업을 섹터별, 지역별, 기간별, 행위자별, 예산별로 분석하여 환경 관련 PPP의 특성 분석

2) 해외사례조사

해외사례조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사례의 조사 ·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해외 기후변화 분야 PPP 사례의 실제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분야 민관협력 활성화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USAID 사업 관계자들과 민관협력사업 분야인 GDA(Global Development Alliance)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에 대한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GDA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덴마크의 Danida, 독일의 GIZ의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표 1-2> 연구방법 2: 해외사례조사 주요내용

구분	미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주요 내용	• USAID의 GCC(The Global Climate Ch-ange)와 GDA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민관협력 사업 현황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USAID의 GDA 프로그램의 실제 수행현황 조사 AMARTA(농업) The Community “LOVE WATER”	• USAID의 GDA 프로그램의 실제 수행현황 조사 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농업)

	• 주요 인터뷰 대상 GCC/GDA 관계자 WWF Technoserve RA(Rainforest Alliance)	Program(물) Responsible Asia Forestry and Trade (산림) Livable Communiti -es Initiative(교통) • Danida, GIZ의 녹색 ODA PPP 사례조사	Community Owned, private funded, Nature Interpretatio -n Center(산림) • Danida, GIZ의 녹색 ODA PPP 사례조사

3)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

기초문헌조사와 해외사례조사 이후 수행된 표적집단심층인터뷰는 국내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증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업방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특히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 민관협력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CSR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GO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초연구 및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심층 연구주제에 따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3> 연구방법 3: FGI 주요내용

구분	주요 대상	기업	NGO
주요 내용	• NGO: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가운데 환경전문 단체로 등록된 11개 단체 중 국내 PPP 사업 참여 단체 및 국제기구의 한국위원회 등을 제외한 5개 단체 • 환경 분야 CSR을 수행하는 기업	• 환경 분야 CSR 수행 계기 • 사업발굴 및 모니터링, 평가 방식 •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 • 환경 분야 CSR 확대에 대한 전망 • KOICA PPP여부 및 참여에 대한의견	• 사업 발굴 및 지역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 체계 • 사업효과성 및 해당 기업과의 협력확대 여부 • 환경분야 CSR 확대에 대한 전망

4) 그룹간담회

그룹간담회는 해외조사와 기초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국내외 기후변화 분야의 민관협력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는 내용에 따라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의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현재 KOICA의 PPP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녹색 OD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실제 기후변화분야의 민관협력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1-4> 연구방법 4: 그룹간담회 주요내용

구분	기업	NGO	KOICA
주요 내용	• PPP와 기업 CSR의 차이 및 장단점 • PPP 사업 발굴 및 지역 선정 등 사업 방식의 특징 • PPP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 PPP 사업 내용 및 사업 지역 선정에 있어서 기업과의 협력 정도 • PPP와 민간단체지원 사업의 차이 및 장단점 • 기업, NGO의 역할 • PPP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	• PPP에 대한 전반적 평가 • PPP의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 분야 PPP 방향에 대한 의견 • PPP에서 KOICA, 기업, NGO의 역할에 대한 의견

5) 공개워크샵

공개워크샵은 기후변화분야의 민관협력에 대한 인지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CSR-PPP의 수요층인 민간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워크샵은 그동안의 연구내용에 기반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CSR 및 PPP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PPP 사례”, “ 기후변화 대응 국내 PPP 사례”, “EACP(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소개와 기후변화 대응 PPP의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팀, 국내 PPP 사업 수행주체인 기업 관계자, KOICA 관계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본 워크샵에는 기후변화분야 민관협력에 관심을 가진 기관들, 연구자 그룹,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외 주요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 사업의 수행주체들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표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

구분	내용
문헌조사	• 선행연구결과물 관련 자료 활용 및 추가 자료 조사 • 주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분야 PPP 사업현황 조사 :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 선진원조기관의 기후변화분야 PPP 사업현황 조사 미국(USAID), 덴마크(Danida), 독일(GIZ) • 해외조사 대상 국가 현황 및기후변화분야 PPP 사업 기초조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미국의 GDA 프로젝트 중 환경 관련 사업 전수조사
해외사례 조사	• USAID, Danida, GIZ의 환경 분야 및 PPP 담당부서 관계자 인터뷰 •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에서 시행 중인 환경 분야 PPP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표적집단 심층인터뷰 (FGI)	• 국내 기업의 환경 CSR 사업담당자 • 국내 기업과 환경 CSR을 수행하는 NGO의 사업담당자
그룹 간담회	• KOICA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업 • KOICA 민관협력사업 수행 NGO • KOICA 관계자
공개 워크샵	• CSR-PPP의 수요층인 민간기업 및 수행기관 •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학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워크샵 개최

6) 주요 연구일정

이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진행단계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반부 연구는 기초문헌조사와 해외방문조사를 중심으로, 후반부 연구는 전반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간담회, 표적집단심층인터뷰, 공개워크샵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우선 기초문헌조사와 해외방문조사를 통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분야 민관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단계에 따라 수행된 주요 연구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6> 주요 연구일정

기간	항목	내용
1월 30일 ~ 2월 8일	해외조사: 미국	• 현재 가장 활발하게 PPP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USAID의 사업 수행모델과 실제 수행 현황 조사 • USAID와 협력하여 PPP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 나타나는 파트너십 구축 사례 조사
2월 19일 ~24일	해외조사: 인도네시아	• GDA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사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Danida와 GIZ에서 수행하고 있는 PPP사업의 모듈을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인터뷰 대상자 USAID, Danida, GIZ 관계자 USAID AMART 프로젝트 담당자 WWF Indonesia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Center 삼익악기
2월 26일~ 3월 1일	해외조사: 방글라데시	• GDA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사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Danida와 GIZ에서 수행하고 있는 PPP 사업의 모듈을 파악하고 국내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인터뷰 대상자 USAID, Danida, GIZ 관계자 IPAC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4월 16일 ~5월 10일	국내 PPP 참여기업 그룹간담회	• 국내 PPP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 • 국내 PPP 사업 참여경험에 기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국내 PPP 참여 NGO 그룹간담회	
	표적 집단 심층인터뷰: 환경분야 CSR 수행기업	• 환경분야 CSR 수행내용 및 국내 PPP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 견 수렴
	표적 집단 심층인터뷰: 환경분야 CSR 사업 수행 NGO	

5월 3일~ 4일	연구팀 워크샵	• 문헌 및 해외조사, 국내 인터뷰 결과 종합정리 및 분석을 위한 연구팀 내부 워크샵
5월 22일	중간보고회	• 연구결과 중간 보고
6월 14일	공개워크샵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CSR 및 PPP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PPP 사례”, “ 기후변화 대응 국내 PPP 사례”, “EACP(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소개와 기후변화 대응 PPP의 추진방향” • 기후변화분야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
6월 24일 ~25일	연구팀 워크샵	• 공개워크샵 결과 반영 및 정책제안안 검토를 위한 연구팀 내부 워크샵
7월 7일	연구팀 워크샵	•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팀 내부 워크샵
7월 11일	KOICA 관계자 인터뷰	• 연구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후 변화분야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7월 26일	최종보고회	• 연구결과 최종보고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1. 기후변화 ODA

가.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오늘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0년간 한국 6대 도시 평균기온 1.7℃ 상승, 폭염·열대성 질환에 의한 인명 피해 증가, 한대성 어종 어획량 급감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직접적으로 기온, 강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 농업과 식량안보, 인간건강과 거주, 생태적 재화와 서비스, 경제의 각 분야에 2차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21세기 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 약 800조원(8,194억$)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사전대비와 시행착오의 최소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위기관리대책 마련과 이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등한시 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에 관해서는 1993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준하고, 2002년 10월에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받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결국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부속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수행 중에 있다.

범정부적인 기후변화대책은 1999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3년 단위로 수립·시행되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과 제2차 종합대

책(2002-2004년),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 등 총 4차례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부터는 그동안의 기조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22] 각 시기별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1>에서 보여준다.

<표 2-1> 한국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발전

시 기	주요 내용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1999-2001년)	• 17개 과제(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논리 개발,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 추진 • 111개 세부실천계획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 흡수원 확대 등) 추진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2002-2004년)	• 3대 부문(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및 협력유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추진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2005-2007년)	•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으로 구분 • 기반구축에서는 협상 대응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D/B 등의 사업 추진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는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에너지부문의 사업과 건설/수송/임업/농축산/폐기물 부문의 각종 사업 추진 • 기후변화 적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수집,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의 사업 추진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2008-2012년)	•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과의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 이행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방침을 강화 • 5대 부문(협상대응, 온실가스 배출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정책 구분하여 사업 추진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contents.archives.go.kr)

22)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577 (접속일자: 2012년 5월 7일)

2008년부터 현 정부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더해 경제성장을 추가한 새로운 개념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본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UNESCAP(UN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저탄소,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진보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정의되고 있다.[23] 한국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충을 넘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24] 녹색성장의 3대 요소는 ① 견실한 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자원사용량 최소화, ② CO_2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③ 신성장동력 개발로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각 세부내용 및 목표를 가진다.

<표 2-2> 녹색성장 3대 요소 및 내용

3대 요소	내용
•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사용량은 최소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중심 변화)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_2 배출 등 환경부화를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CO2 배출규제 ·저탄소·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출처: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pp. 2-5.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현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위기(기후변화로 상징)와 자원 위기(고유가 등으로 표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의의와 중요

23) 인터넷 주소: www.unescap.org/esd/environment/lcgg/index.asp (접속일자: 2012년 5월 20일)
24)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pp. 2-5.

성이 강조되고 있다.[25] 녹색성장에서는 특히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청정에너지 및 생산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 2009년 12월에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정책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 지침을 망라하는 것으로, 기존의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안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나. 기후변화 ODA와 녹색ODA

공적개발원조(ODA)에서 환경 관련 원조는 1990년대 지구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증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 원조의 녹색화가 진행되어 왔다.[26] 즉,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의 브란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되고, 1992년 Rio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대외원조의 녹색화 방향이 더욱 조명받게 되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기후변화 대응 체제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27] 더불어 기후변화는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식량 안보, 자원 확보, 사회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원인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관련 치사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8]

---

25)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제13권 1호. p. 195-196.
26) Hicks, Robert L., Bradley C. Parks, J. Timmons Roberts, and Michael J. Tierney. 2008. Greening Ai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7) 김귀곤 외.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7.
28)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제13권 1호. pp. 189-190.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저개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보건, 토지이용과 환경 등과 같은 삶의 기본권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농업이나 어업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빈곤감축 등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빈번한 자연재해는 개발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개발도상국의 경우 낮은 GDP, 높은 빈곤율, 제도적 · 경제적 · 기술적 · 재정적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29)]

환경원조는 이러한 지구 및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원조는 환경오염 현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화된 그러나 공통된' 책임을 나누는 체계로써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30)] 환경 분야의 국제원조는 1980년대 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건수와 공여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관련 ODA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 DAC(Development A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방안으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여국은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환경과 개발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이슈의 주류화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31)]

한편, 녹색 ODA의 개념이나 사업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개념인 녹색성장(Green Growth)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OECD는 '녹색성장을 향하여(Towards Green Growth)'라는 보고서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하여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면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환경 자산이 지속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성취하려면, 성장 및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주는 투자와 혁신을 촉매 시켜야 한다'[32)]고 정의하였다. 덧붙

29) 강연화. 2009.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ODA**". 『국제개발협력』. 제4호. p. 120.
30) OECD & 환경부. 2010. 『OECD 환경정책 논의동향』. p. 24.
31) Ibid. pp. 3-5.

여 OECD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이행의 핵심사항으로는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의 녹색화에 직접적 결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평등에 대한 우려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함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3)]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는 '일반원조의 녹색화 (Greening ODA)'에 대해 '녹색지원 비중이 낮은 분야에 친환경적인 사업요소를 가미하여 경제·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세부 이행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34)] 여기서 원조사업의 녹색화는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개도국에서는 녹색분야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녹색 ODA의 수요 발굴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하고 녹색 개발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의 공동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5)]

한편 KOICA는 녹색 ODA 사업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36)] 구체적으로, 녹색 ODA 사업이란 ①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②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사용 및 배출을 감축하거나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사업, ③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 ④ 기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정의한다.[37)]

---

32)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p. 7.

33) 국내의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다. 동 기본법 2조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한다.
인터넷 주소:http://oneclick.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543&ccfNo=1&cciNo=1&cnpClsNo=1 (접속일자: 2012년 7월 20일)

34)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ODA 발전 방안: 녹색ODA 정책 이행점검' 2012년 5월 2일 제 17차 녹색성장위 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자료 p. 12. 참조

35) '녹색금융확대 및 조직 확충, 녹색원조 강화, 지속가능 녹색성장 견인한다' 2012년 5월 2일 제 17차 녹색성장위원 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자료 p. 4. 참조

36) 임소영. 2012. 『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pp. 38-39.

37) Ibid. pp.39.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ODA 중에서 국제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위생 및 환경문제 관련하여 환경보호, 종다양성, 공해 및 수질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를 'Green ODA'로 간주하기도 한다. [38] 최근 녹색ODA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기존의 '녹색 ODA는 주로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녹색성장 ODA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인프라 산업 및 생산 역량강화 등 다른 분야도 모두 포함' 하는 주장도 있다.[39]

그러나 아직 한국의 녹색ODA 담론은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그린 ODA, 녹색 ODA, 환경 ODA, 기후변화 ODA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녹색 ODA라고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 및 KOICA는 기후변화가 환경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녹색 ODA를 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위한 개발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0]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녹색ODA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자 하며, 기후변화ODA와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PPP)

가. 민관협력(PPP)의 배경 및 개념

20세기의 국제개발의 주된 흐름이 공적자금을 활용한 대외원조였다면, 21세기에는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더욱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같은 한정적인 참여자 이외에 기업과 재단 등 민간부문의 참여자들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공여자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1] 국제개발에 있어 기존의 공적 재원에 새롭게 민간 재원이 결합하는 민관협력 사업이 떠오르면서 PPP의 개념이 탄생하였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PPP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신력과 민간의 효율성이 결합되는 시너지

38) Kim, Soyeun. 2009. "Trans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reening of Japan's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pp. 119-121.
39) 강성진 외. 2011. Green Growth: Global Cooper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p.13, p.37.
40)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제13권 1호. p. 196.
41)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3-5.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 몬테레이에서 열린 'UN 개발재원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는 개발자금 확보와 국내외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개혁의 강조와 함께 개발재원이 원조자금 외에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금 동원, 민간투자와 무역촉진 등의 수단을 통해 확충되어야 함을 결의하였다.[42)]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은 고용창출, 소득향상, 역량개발, 조세수입 증가를 가져오므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었고, 기존의 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관협력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PPP는 개발재원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간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재원 흐름 중에서 공적 자금(양허성 및 비양허성)의 비중이 1990년에 8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34.1%로 감소하였다.[43)] 이렇듯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 재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PPP에 대한 중요성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OECD는 PPP에 대해 정부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민간 파트너의 수익 목적이 일치할 수 있는 형태로 민간 파트너가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 파트너간의 협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44)] PPP는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PPP는 혹은 P3로 불리기도 한다. PPP는 한국에서는 민관(民官)파트너십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민은 민간기업(및 시민사회단체)을 의미한다.[45)]

결국 종합적인 의미로 PPP는 정부 주도 하에 민간영역의 참여자들, 특히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대체를 형성하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위험과 책임, 그리고 자원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46)] 이는 각 국가

42)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PPP와 개발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파트너십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pp. 4-6.
43)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3.
44) OECD. 2006. Promoting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 OECD.
45)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4-6.
46) Utting, Peter. & Zammit, Ann.. 2006. Beyond pragmatism : appraising UN-business

내에서 행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인프라에 관한 민관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영역에서의 PPP사업에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미이다. 개발영역에서 이를 개발공공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유상원조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여, 무상원조의 경우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자선적 기금의 유입을 통한 사업수행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47)]

나. 전략적 CSR과 민관협력(PPP)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은 범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헌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시장 및 유통망 개척이라는 상업적 이익효과로 인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업의 CSR을 통해 기업들의 원조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 및 민관협력(PPP)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48)]

CSR 관련한 논의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져 왔다.[49)] 첫째는, 윤리적 의무 (moral obligation)로 도덕적인 의무가 절대적인 명령인 반면, 기업들이 내려야 하는 사회적 선택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기준들, 이해관계, 비용과 같은 문제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써 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하게 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피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셋째는, 기업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로써 CSR을 영업허가 측면에서 보는 매우 실용적인 관점으로, 기업이 그들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구별해내고, 그 이슈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기업 명성관리로 CSR 접근법은 기업의 명성 측면에서 전략적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

partnerships.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47)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5-6.

48) 최민경. 2008. "국제개발원조와 Public Private Partnership. 『국제개발협력』 2008-1. p.66.

49) Porter and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pp. 2-4.

그러나 위의 네 가지 논의들 중 어떤 것도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영상의 난제들에 대해 충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항들은 기업과 사회간의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적인 약점을 보인다.[50]

이러한 측면에서 CSR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CSR 관련 논의의 방향이 개별 기업의 전략과 활동에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라머(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에 의하면, 이를 위해 ① 기업과 사회간 교차점 파악(Identify the point of intersection), ② 기업의 사회적 핵심이슈 창출(Creating a corporate social agenda), ③ 사회적 이슈 선별(Choosing which social issues to address), ④ Inside-out Linkgage(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연계)와 Outside-in Linkage(외부 사회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계) 방법의 통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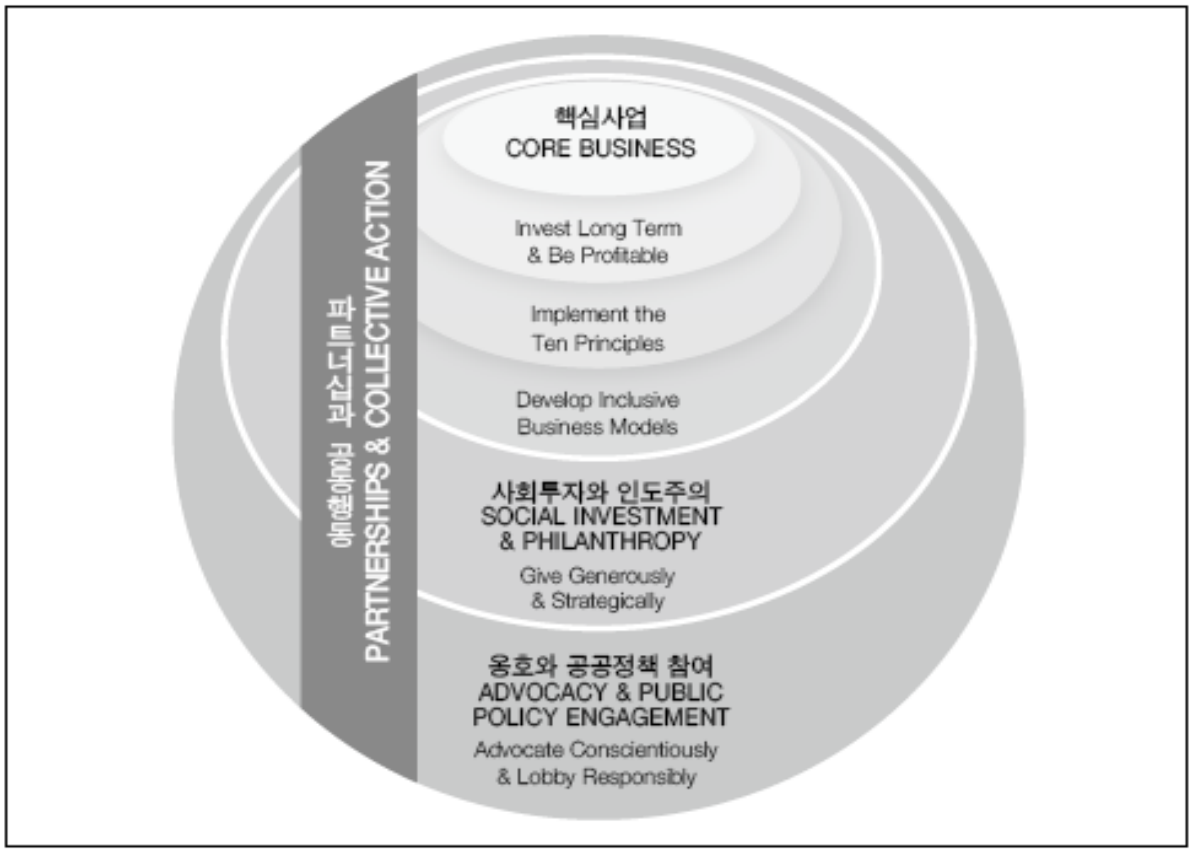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CSR 전략들을 통해 기존의 소위 '반응적(responsive) CSR',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로섬 접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strategic) CSR'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52] 전략적 CSR은 단순한 사회공헌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CSR을 바라보는 것으로, Inside-out 과 Outside-in 의 두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투자함으로써 공통의 가치를 풀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53]

이와 같은 전략적 CSR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PPP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UNGC(Global Compact)에서는 CSR 논의를 보다 실용적으로 해석하여, 기업은 핵심사업(core business), 사회투자와 인도주의(social investment and philanthropy), 옹호와 공공정책 참여(advocacy and public policy engagement)의 방법을 통해서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1>).[54]

---

50) Porter and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p. 4.
51) Ibid. pp. 6-8.
52) 인터넷 주소: http://nceo.tistory.com/20 (접속일자: 2012년 6월 20일)
53) Porter and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pp. 9-10.

<그림 2-1> PPP사업 관련 기업의 역할에 관한 모형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p. 29; UNGC. 2010a. A Global Compact for Development. New York: UNGC. p. 5. (재인용)

이러한 진일보한 기업의 전략적 CSR과 민관협력사업의 연계는 'PPP 2.0 시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5]

한편, 기업의 CSR은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 분야의 사업에서 개발원조 PPP사업을 통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및 운영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민간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관(官)에서 부족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민간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과 기술의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개발원조사업 과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pp. 28-29.
55)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newsroom (접속 일자: 2012년 6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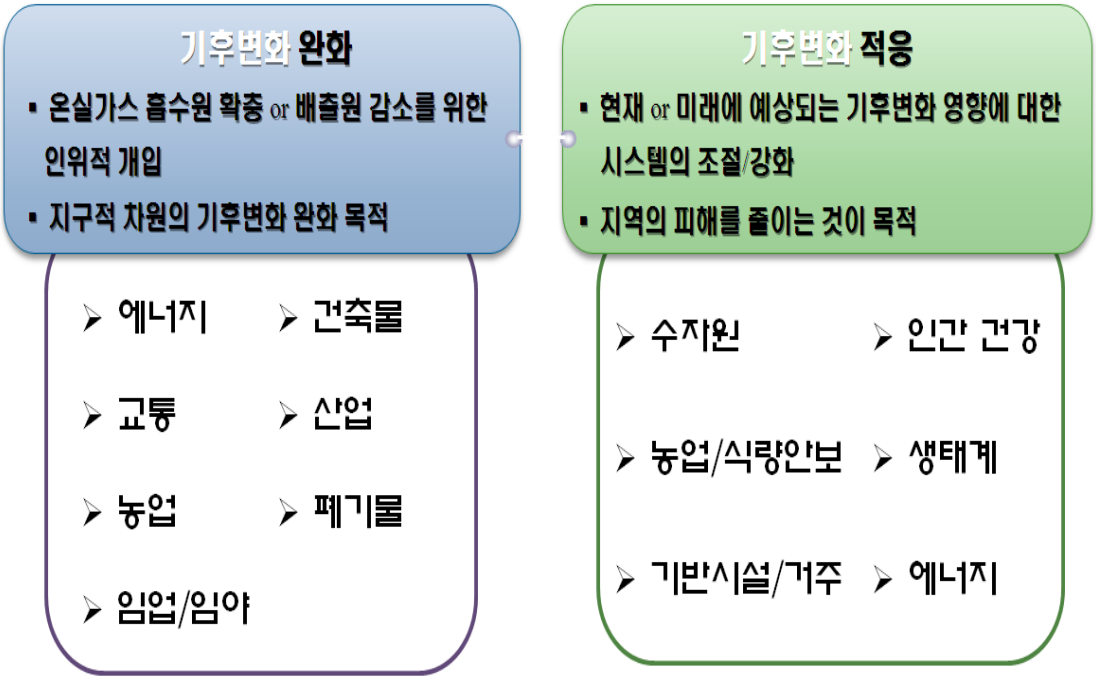
3. 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와 분석틀

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접근은 크게 저감(Mitigation)정책과 적응(Adaptation)정책으로 구분된다.[56] 기후변화 저감정책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저감 또는 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책, 행동계획 및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것으로,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가 목적이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현재 및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조절 및 이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57]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 저감 및 적응 분야는 아래 <그림 2-2>과 같이 대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완화정책에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지원 등), 교통(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증진 등), 건축물(저에너지 그린홈 지원 등), 산업(공해 저감 장치 도입 등), 농업(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그린농업 등), 임업・임야(조림산업 확대 등), 폐기물(폐기물 최소화 지원 등) 분야 등이 있다. 적응정책은 수자원(우수 재이용 등의 수자원 효율적 이용 등), 농업 및 식량안보(토지관리 향상 및 다품종 경작 강화 등), 기반시설・거주(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 등), 인간 건강(기후변화로 인한 보건대책 등), 생태계(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응 전략 등), 에너지(에너지 배분 기반시설 강화, 에너지원 다원화 등) 분야를 포괄한다.

56) 저감 및 적응 정책에 더하여 통합(Integration)정책을 넣을 수 있다. 통합 분야에는 교육 및 훈련, 기후변화 인식 증진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57) IPCC. 2007. IPCC 4th Assessment Report. pp.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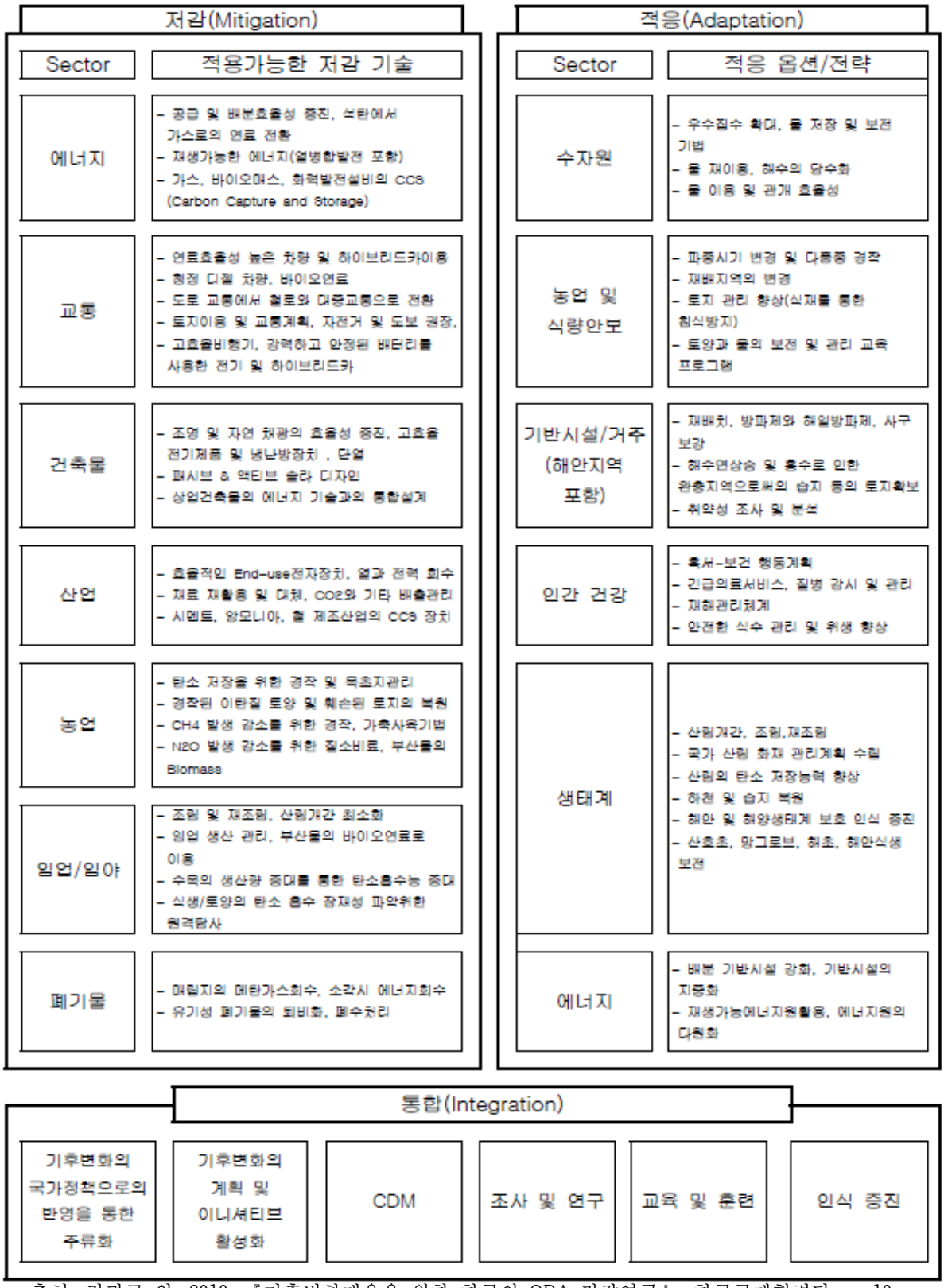
<그림 2-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분야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대응 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분야, 그리고 이에 더해 통합(integration) 분야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범주 및 부문에서의 특징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IPCC 제4차 평가보고서(2007)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와 같이 저감, 적응, 통합이라는 각 분야의 부문(sector)들이 대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감 분야에는 에너지, 교통, 건축(물), 산업, 농업, 임업・임야, 폐기물 부문이 포함되고, 적응 분야에는 수자원, 농업 및 식량안보, 기반시설・거주, 인간 건강, 생태계, 에너지 부문이 포함된다. 또한 통합 분야에는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기후변화 계획 및 이니셔티브 활성화,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훈련, 인식 증진 등이 들어간다. 더불어 위의 <그림 2-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감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저감 기술 및 적응 분야에서의 적응 옵션・전략들의 유형이 구분된다.

한편, 최근에는 완화와 적응 관련 정책들을 기존과 같이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통합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감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연 및 인간시스템이 당면한 위험은 적응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3> 기후변화 저감·적응·통합 분야 범주



출처: 김귀곤 외.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10.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저감(Mitigation)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홍수, 가뭄, 이상기후 등)의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ation)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58]

이러한 기후변화대응 이슈는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저감과 적응의 각 요소별로 적용되는 것보다 수원국의 국가개발 정책 및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통합되어 다른 분야의 정책과 면밀하게 상호연계 되고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59]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적응과 완화의 상호관계를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화, 적응과 완화 간 상쇄 혹은 시너지 효과, 적응과 완화를 위한 프로세스와 결과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완화와 적응이 연계된 연구 및 정책 사례에 대해 적응과 완화 연계 매트릭스를 제시한다.[60] 매트릭스에서 다루는 사례 중에 완화와 적응에 모두 관련된 사례를 골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2-3>에서 시너지 분야 및 내용을 나열한 것과 같이 에너지, 녹색건축 및 도시설계, 물관리,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 산림관리와 지역발전으로 이뤄진다.

<표 2-3>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분야

시너지 분야	내 용
에너지	낙후지역(섬, 농촌 등) 분산형 재생가능너지 시스템을 통한 적응능력 향상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조림 확대 및 산림보전 유도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녹색건축 및 도시설계	도시 열섬완화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동시에 적응 전략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건물의 적응 방안은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
물관리	물 절약 기술은 가뭄 적응능력 향상 및 물수요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유역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	도시 농업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 중장기 적응능력 향상

58) 고재경. 201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통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 17-20.
59) 김귀곤 외.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1-3.
60) Klein, A.-M., Vaissière, B. E., Cane, J.H., Steffan-Dewenter, I., Cunnigham, S. A., Kremen, C., Tscharntke, T. 2007. "Importance of pollinators in changing landscapes for world crop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p. 274.

	생태농업은 온실가스 저감 및 농업생태계 보전, 마을 역량 강화
	농업의 메탄저감대책이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
산림관리와 지역발전	공동체에 의한 산림관리는 산림 보존/복원, 탄소 저장과 동시에 지역에 실질적 이익을 창출

출처: 고재경. 201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통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 79-81. (재구성)

한편 우리의 경우 각 지자체 수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부문별 전략들이 도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전국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을 100% 수립할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2010년도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부문별 전략들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8개 부문, 즉 건물, 산업, 수송, 폐기물, 산림/녹지, 농업, 친환경에너지, 시민참여로 이뤄진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 기준들을 통해 다음 <표 2-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완화 및 적응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 활용 사례들을 도출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4> 기후변화대응 분야 및 정책적 활용사례

분 야	기후변화완화 정책 특성	기후변화적응 정책 특성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미활용 에너지 활용 • 공공 및 민간시설에 태양광(열), 지열 보급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에너지 공급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율 개선 •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물 (수자원)		• 연중 강수량 변화 전망 분석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및 수해 관리 시스템 강화 • 유역관리 및 취약 지역 안정적 물공급 강화 • 물 순환 이용 촉진 및 구조개선
산림 (녹지)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및 관리 (탄소중립숲 조성 등) • 도시 탄소흡수원 확충 및 관리 • 도시 녹화를 통한 열섬 완화	• 산림 생태계 다양성 보전 기반 구축 • 산림 훼손지 복원 및 생태계 연계망 구축 • 산림재해 예방능력/체계 강화
농업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농업 확대 및 기술 개발 • 바이오매스자원의 에너지화 & 신재생에너지의 농업 이용	• 농업환경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재해 경감 •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농업생산시스템 전환
폐기물	• 폐기물 발생의 원천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활용 및 산업 육성)	•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도시계획 (교통)	• 도시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너지효율성 기준 강화) • 그린홈, 그린빌딩 확대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관리	•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목표 추구 •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교통 수요관리의 적극적 추진

출처: 고재경. 201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통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 65-67. (재구성)

나. 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

현재 기후변화 대응 관련 ODA 및 PPP 사업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또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USAID와 같은 선진공여기관의 부문별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업을 포함한 민간수요의 필요에 부응하고 적실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 사업 분야를 7개 부문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GDA의 사업 유형 검토 및 한국의 PPP 사업의 현재 및 미래 역량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GDA의 부문별 가이드라인(Sector Guide)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 중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에너지, 물(수자원), 농업이다. 이러한 분야들의 PPP 사업을 위해 제안되는 모델 또는 사업방향성은 다음 <표 2-5>과 같다.

<표 2-5> 기후변화대응 PPP 관련 GDA 분야별 가이드라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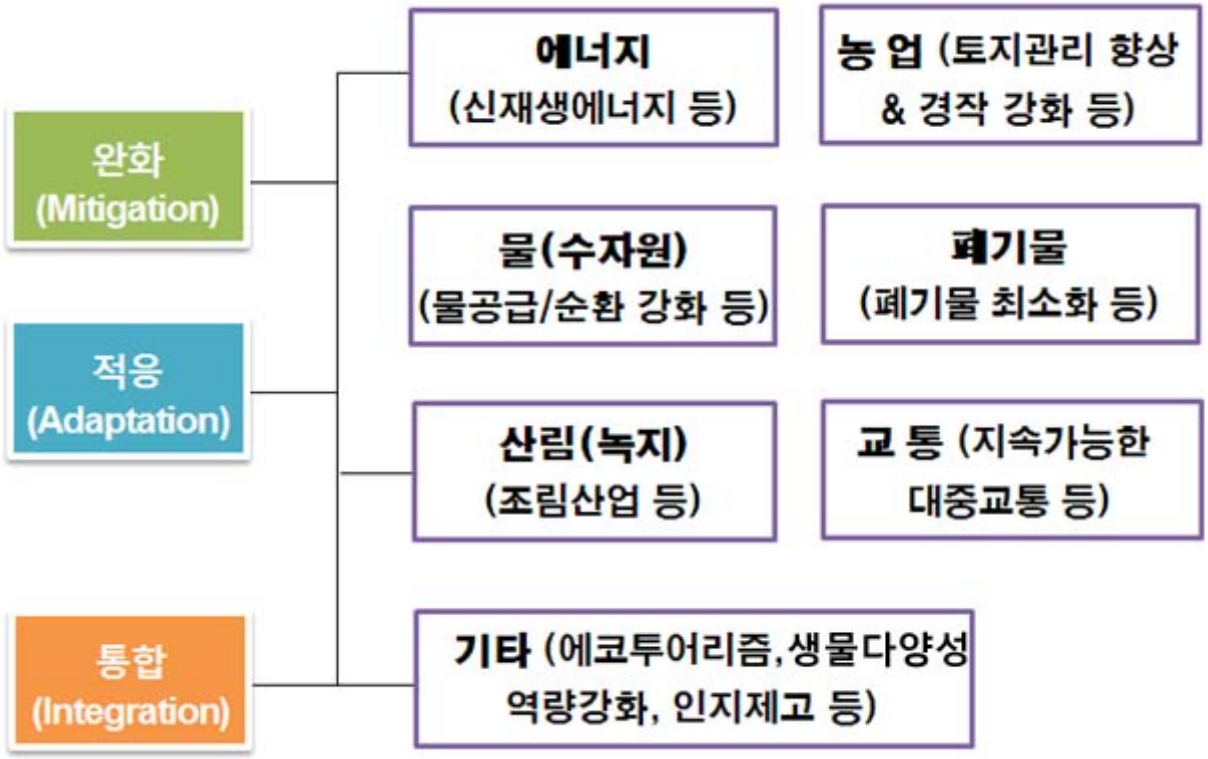
분 야	사업 모델 및 방향성
에너지	• 청정 에너지 확대 • 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 사업 관련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 조성 • 에너지 분야 전문가 훈련・교육
물 (수자원)	• 물 관련 생산, 기술, 서비스를 위한 시장 확대 및 시장 기반 접근 확대 • 기업 경제활동 및 산업활동에서 물관리 개선 • 빈곤층(Base of the Pyramid)의 빈곤문제 개선 •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 증대 • 혁신과 개혁 확대 및 개선된 환경 조성 등
농업	• 시장 진입 확대 • 가치 체인(value chain) 향상 • 과학 기술력의 적용 • 재배사(자)와 협업체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자본 투자(진입)의 확대 등

출처: http://idea.usaid.gov/gp/building-alliances-sector-guide-series (재구성)

이와 같은 기후변화대응 PPP 분야와 관련된 현재 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완화와 적응(및 통합) 정책들의 분류 기준들을 종합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PPP 사업 부문을 다음의 <그림 2-4>와 같이 간추려 정리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논의된 부문들에서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GDA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 사업 분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적응·통합 정책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PPP 분야를 에너지, 물(수자원), 산림(녹지), 농업, 폐기물, 교통, 기타(에코투어리즘, 생물다양성, 역량강화, 인지제고 등)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4> 기후변화대응 PPP 분야



다.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틀

〈그림 2-5〉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틀

<table>
<tr><th rowspan="2">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th><th rowspan="2">사업발굴</th><th rowspan="2">재정분담</th><th colspan="4">파트너십 구성방식</th><th rowspan="2">평가</th></tr>
<tr><th colspan="2">공여(donor) 파트너십</th><th>TYPE</th><th>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th></tr>
<tr><td></td><td></td><td></td><td>공통</td><td>기타 행위자</td><td></td><td></td><td></td></tr>
<tr><td>에너지</td><td rowspan="3">공공 제안</td><td rowspan="3">공공>민간</td><td rowspan="2">공여국 정부 (공공) + 기업</td><td rowspan="2">수원국 정부</td><td rowspan="2">I</td><td>비영리</td><td rowspan="2">원조기관 내부평가</td></tr>
<tr><td>물(수자원)</td><td>영리컨설팅</td></tr>
<tr><td>농업</td><td rowspan="3">공여국 정부(공공) + 자선적 기금</td><td rowspan="2">수원국 기업</td><td rowspan="2">II</td><td>공여국기업</td></tr>
<tr><td>폐기물</td><td rowspan="3">민간 제안</td><td rowspan="3">공공=민간</td><td rowspan="2">국제기구</td><td rowspan="2">III</td><td>국제기구</td><td rowspan="2">전문기관 위탁평가</td></tr>
<tr><td>산림</td><td rowspan="3">공여국 정부(공공) + 기업 + 자선적 기금</td><td rowspan="2">혼합</td><td>혼합</td></tr>
<tr><td>교통</td><td rowspan="3">공공 공모</td><td rowspan="3">공공<민간</td><td rowspan="2">IV</td><td rowspan="2">혼합</td><td rowspan="2">혼합</td></tr>
<tr><td>기타</td></tr>
</table>

앞에서 설정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사업의 7가지 분야를 기초로 해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틀은 그림 <2-5>과 같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선진공여기관의 PPP사업실행 방식과 현지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사업을 사업발굴, 재정분담, 파트너십 구성방식,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발굴은 공공 제안, 민간 제안, 공공 공모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공공 제안은 각 국의 원조기관이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나 지향하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등을 고려해 이미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기관이나 사업 수행 역량 및 관심을 가진 민간 기관에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민간 제안은 이와 반대로 민간 기관에서 먼저 사업의 컨셉과 개략적인 내용을 준비하여 원조기관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실행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공모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선정, 수행하는 것이다.

재정분담은 KOICA의 PPP 사업에서 매칭 비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민간 및 공공 기관이 동일하게 재정을 분담하는 경우, 공공 기관이 더 많이 분담하는 경우, 민간 기관이 더 많이 분담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파트너십 구성방식의 경우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먼저 실제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여 파트너십과 사업지역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시행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공여 파트너십은 다시 공통요소로 세 가지를 설정하는데 공여국의 공공기관과 기업, 공여국의 공공 기관과 자선적 기금, 공여국의 공공 기관과 기업 및 자선적 기금이 결합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요소에 기타 행위자로 구분되는 수원국의 정부, 수원국의 기업, 국제기구가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와 이들과 함께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이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의 4가지가 결합되어 특정 타입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여국 정부와 기업이 재원을 투입하고, 수원국의 정부가 사업 수행을 위한 제원 투입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참여한다면 공여 파트너십은 Type Ⅰ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행 파트너십은 해당 사업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으로 비영리 기관, 영리 컨설팅 기관, 공여국 기업, 국제기

구, 그리고 이들 중 둘 이상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의 경우 원조기관 내부평가, 전문기관 위탁 평가,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원조기관 내부평가란 실제 평가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투입되더라도 평가 과정의 전체적인 운영을 원조기관에서 맡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기관 위탁평가는 원조기관에서 컨설팅 회사나 학계, 전문가 집단 등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합형은 하나의 사업 평가에 원조기관 내부평가와 전문기관 위탁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PPP 사업 분석을 위해 위와 같이 사업발굴부터 평가까지의 사업 수행방식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 조사사례 및 국내사례의 구체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Ⅲ.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PPP 정책 분석: 미국, 덴마크, 독일

본 장에서는 주요 양자간 원조기구의 일반적 PPP 현황과 기후변화 분야의 PPP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PPP 현황은 각 기관이 정의하는 PPP의 개념 및 역사, 사업추진방식, 사업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집중분야 등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분야의 PPP사업에 관해서는 기관별 전략과 실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접근방식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한국 개발협력의 PPP 발전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대상은 현재 비교적 PPP 사업을 활발히 시행중인 미국, 덴마크, 독일의 양자간 원조기관인 USAID, Danida, GIZ이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등 국제기구는 인프라 중심의 재정지원(차관, 보조금, 보증 등)과 기술지원 형태의 PPP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무상형태의 PPP에서는 제외하였다.[61]

1. 미국 USAID

가. PPP 개념 및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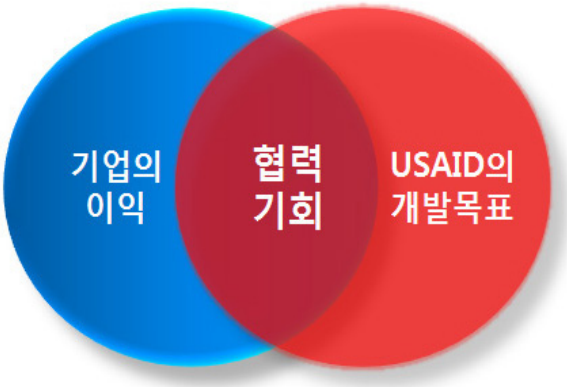
USAID에서 PPP란 민간 기업이나, NGO, 재단 등 다양한 협력체와의 일대일 협력 또는 그 이상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2001년 5월 USAID는 국제개발원조에 민간부문의 ODA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관협력연대(Public- Private Alliance, PPA)개념을 도입하였다. 당시 국무부장관 콜린 파월(Colin Powell)이 PPA 개념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하였고, 2002년 1월부터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협력사업인 글로벌개발 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파월 장관은 GDA 프로그램을 공적-민간부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외원조 활동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USAID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로 구

61) 국제기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62]

USAID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ODA를 융합하여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PPP를 운영한다. 2001년부터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브랜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 확대된 프로그램인 IDEA (Innovation and Development Alliances)내로 이를 편입하였다.[63] IDEA는 개발에서의 혁신(innovation)과 파트너십을 통해 좀 더 빠르고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및 담당 부서, 사무소 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유연한 특징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3-1> GDA의 개념- 비즈니스와 개발의 접점



출처: 인터넷주소 <http://idea.usaid.gov/gp/about-gp>

이전까지 USAID의 개발협력이 일방적인 원조 자금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2001년 이후 GDA를 통해서는 민간기업, NGO, 대학, 연구기관, 재단 등과 보다 확대된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USAID는 민간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주체들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성, 자원, 창조적 역량을 대외원조와 연계시켜 개발과제를 명확히

62) 손혁상 2012.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사업(PPP) : 미국 USAID의 GDA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제 1호. 한국국제협력단. p. 52.
63) Ibid. p. 21.

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자금과 인적 자원, 지식 정보 제공,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나. 사업방식

2011년에 확대된 USAID의 IDEA (Innovation and Development Alliances)는 4가지의 민간협력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 혁신 벤쳐(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DIV),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s), 지역의 지속가능성(Local Sustainability), 모바일 솔루션(Mobile Solution)' 으로 분류된다.

개발 혁신 벤쳐(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DIV)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 기업으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기존의 프로젝트를 더 새롭고 혁신적으로 또는 더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사업이다. 공모된 아이디어가 적은 비용으로도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선택된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컨셉 증명 단계(the proof of concept phase), 프로젝트를 한 국가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단계,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초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자들은 각 단계에서 경쟁해야 한다.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s)은 기존의 GDA가 IDEA 안에 편입된 것을 통칭하며, 초국가 또는 지역기업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관협력 형성을 목표로 하며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 비정부기구, 재단, 협회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개발목표와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Local Sustainability)은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의 비정부 기구 등 사업 수행 단체들과의 정보공유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공여자 입장인 기업과 민간 참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동 프로그램은 현지 수원국의 행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고차원적인 접근을 한다.

모바일 솔루션(Mobile Solution)은 개발성과를 내기위해 효과적이고 잠재적

인 방법인 모바일 뱅킹을 기반으로 중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64]

<표 3-1> IDEA의 4가지 민간부문 협력형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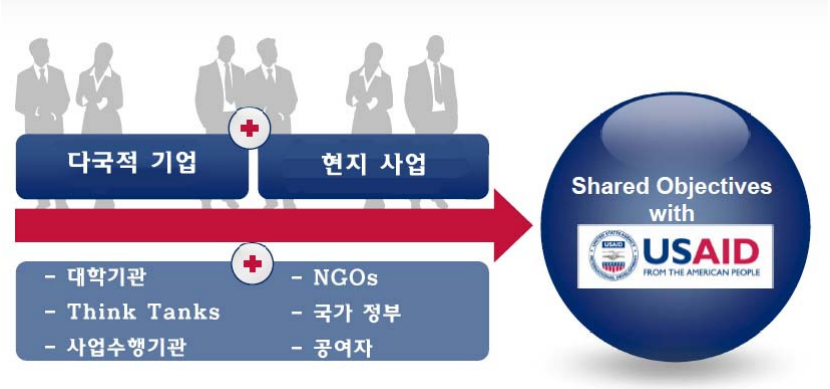
기본협력형태	특징
개발 혁신 벤쳐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 아이디어 공모・채택 • 아이디어에 자금 지원 • 단계별 컨셉 증명 단계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s	• GDA가 편입된 부서, 기존의 GDA와 동일 • 분야 관계 없이 기업, 비정부기구, 재단, 협회 등 다양한 참여자
지역의 지속가능성 Local Sustainability	• 수행 단체들과의 정보공유 • 수원국의 행위자들 지원 • 현장 중심
모바일 솔루션 Mobile Solution	• 모바일 뱅킹 기반

사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개발 혁신 벤쳐(DIV)'는 아이디어 채택사업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Local Sustainability)'은 수원국의 행위자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 '모바일 솔루션(Mobile Solution)'은 수원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뱅킹에 관한 특정한 카테고리의 사업이다.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s)'은 기존의 GDA를 통칭하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GDA로 통용되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65] USAID의 GDA는 전통적인 미국의 무상원조의 유형이며 다양한 사례가 풍부하다는 장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USAID의 IDEA 내에서도 특히 GDA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GDA는 USAID의 기본적인 진행방식으로 정부, 기업, NGO 및 국제기구 등 민간의 한 파트너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파트너 구성에는 미국의 기업, NGO, 대학기관을 비롯하여 수원국 정부, 수원국 NGO, INGO 등 공여국과 수원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통상 USAID와 민간기업 1개 이상, NGO 1개 단체 이상의 3자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가장 높은 제도화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PP를 운영하고 있다.

64)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office-innovation-organizations (접속일자: 2012년 3월 17일)
65) 본 연구에서도 '글로벌파트너십'이란 용어 대신 널리 사용되는 GDA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림 3-2> USAID의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력형태



출처:USAID 홈페이지 <http://gda.usaid.gov/>

이들은 각기 재원과 위험 부담을 공유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간 기업이 USAID와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는 현지의 시장 지향적 접근을 고려한 측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리 될 수 있다.

<표 3-2> 기업의 협력 목적

협력 목적	비고
Business Drivers Markets	• 시장 지향적 접근 • 기업의 도전 • 리스크 감소 • Value Chain • 국제적 공급망: 아웃소싱 및 생산 • 현지 비즈니스 행위자와의 관계 구축
CRS Drivers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 홍보 • 가시성 • 자선활동

출처:USAID 홈페이지 <http://gda.usaid.gov/>

민간파트너십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자들 간의 신뢰, 평등, 권한, 포용성, 파트너십 조정, 공동의 이익 ,투명성 등의 7가지 원칙에 따른다.

<표 3-3> GDA 파트너십 가이드라인

원칙	주요 내용
행위자들 간의 신뢰	각기 다른 목적과 동기, 문화 및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선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평등	행위자들의 금전적 기여 및 단체의 크기 및 중요도에 상관없이 논의에 있어서 모두 평등한 입장을 유지함.
권한	협력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권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효과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행위자들의 권한을 설정함.
포용성	각 이해당사자들의 관점 및 요구를 처리하고, 협력의 각 개별 진행단계에서 각 당사자들의 기대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 포용성이 필요함.
파트너십 조정	협력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적절히 조정하고 결합시켜야 함. 또한 각 협력 개별 단체의 목적 및 관심과도 일치해야 함.
공동의 이익	협력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해당 협력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가장 이상적인 협력은 각 행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넘어서, 개별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는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파트너십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함.
투명성	개방성과 투명성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함. 이는 정보의 공유 및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고 및 회계처리와 같은 공식적인 형식 외에도 만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음.

출처:USAID 홈페이지 <http://gda.usaid.gov/>

특히 USAID는 11개 분야별 ‘섹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파트너들이 PPP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USAID에서 설정한 농업, 에너지, 수자원(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경제성장과 무역, 교육, 긴급구호, 보건, 소액금융분야, 노동력 향상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분야마다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기존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GDA의 사업 사례를 매칭시켜 민간 파트너가 GDA에 참여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간파트너가 GDA 사업에 참여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밝히고 있다.

<표 3-4> GDA 11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사업모델

분야	사업모델
농업	• 시장 접근 능력 향상 • 기업의 가치 사슬 향상 • 과학 기술 적용 지원 • 생산자간의 협동 및 네트워크 강화 • 자금 접근성 확대 • 농업 생산성 회복 지원 • 환경 친화적 생산 지원 • 식량안보 증진 • 관개시설 개선 및 수자원 관리 향상 • 관련 정책 개선 지원
에너지	•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 에너지 접근 향상 • 에너지 자금 지원 • 에너지 정책 형성 지원 • 에너지 분야 전문가 양성 지원 • BOT 기반의 에너지 사업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굿 거버넌스 지원 • 지방정부 강화 • 법률 강화 • 공공 안보 협력 • 미디어와 기술의 활용 •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강화 • 노동기준 강화 • 인신매매 금지
경제성장과 무역	• 무역과 투자 • 제품,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지원 • 기업의 발전 지원 • 재정서비스 지원 • 개발금융 파트너십 • 분쟁과 구호 이후의 경제성장
교육	• 교육기술 • 학교선정 • 학교시설 건설 및 보수 • 장학금지원 • 교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호	• 재난계획에서의 기업협회 참여 • 기업/기관의 역량 활용 • 기업 기부의 통합 • 집단 이주민에 대한 관여 • 지역 특화에 기반한 기업 이익의 조성

보건	• 빈곤층에 도달 • 민간부문 강화 • 업무현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강화 • 보건에서의 ICT 활용 • 전문지식과 역량강화 공유
소액금융지원	• 재정접근 • 제품과 서비스 접근 •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설립 • 분쟁이후의 소액금융 • 가치 체인으로의 소상공인 통합
수자원(물)	• 물과 관련한 생산품,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 • 기업 경제적 활동 및 여러 민간섹터산업 부문에서의 수자원 관리증진 • BOP 계층을 위한 빈곤완화 • 인도적 구호 활동 지원 • 프로젝트의 혁신 및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형성
채광산업	• 지방재정 및 서비스 관리,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 강화 •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 지역경제개발펀드, 지역경제 다양성 기반의 경제성장 • 에너지 효율, 배기가스 감축, 산림관리 등 환경적인 고려 • 기초교육, 직업교육 증진 • 갈등 완화 • 농업 및 식량 안보 • Social Needs Fund의 설치
노동력 향상	• 제조업 기반의 협력 • 단일 회사 협력 • 커뮤니티 기반 협력 • 청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협력 • 갈등, 재난, 비상사태로부터의 회복

○ 재정지원

미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자금의 80%는 NGO와 대학, 각종사회기금재단,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주자와 같은 다양한 민간자금으로부터 나온다. 전체 예산의 20%만이 정부의 공적 ODA 자금이고 나머지 80%가 민간자금이기 때문에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개발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66] 또한 사업 재원의 재정비율은 일반적

66) 이태주. 2006.『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다중적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한국국제협력단 포럼 발표자료).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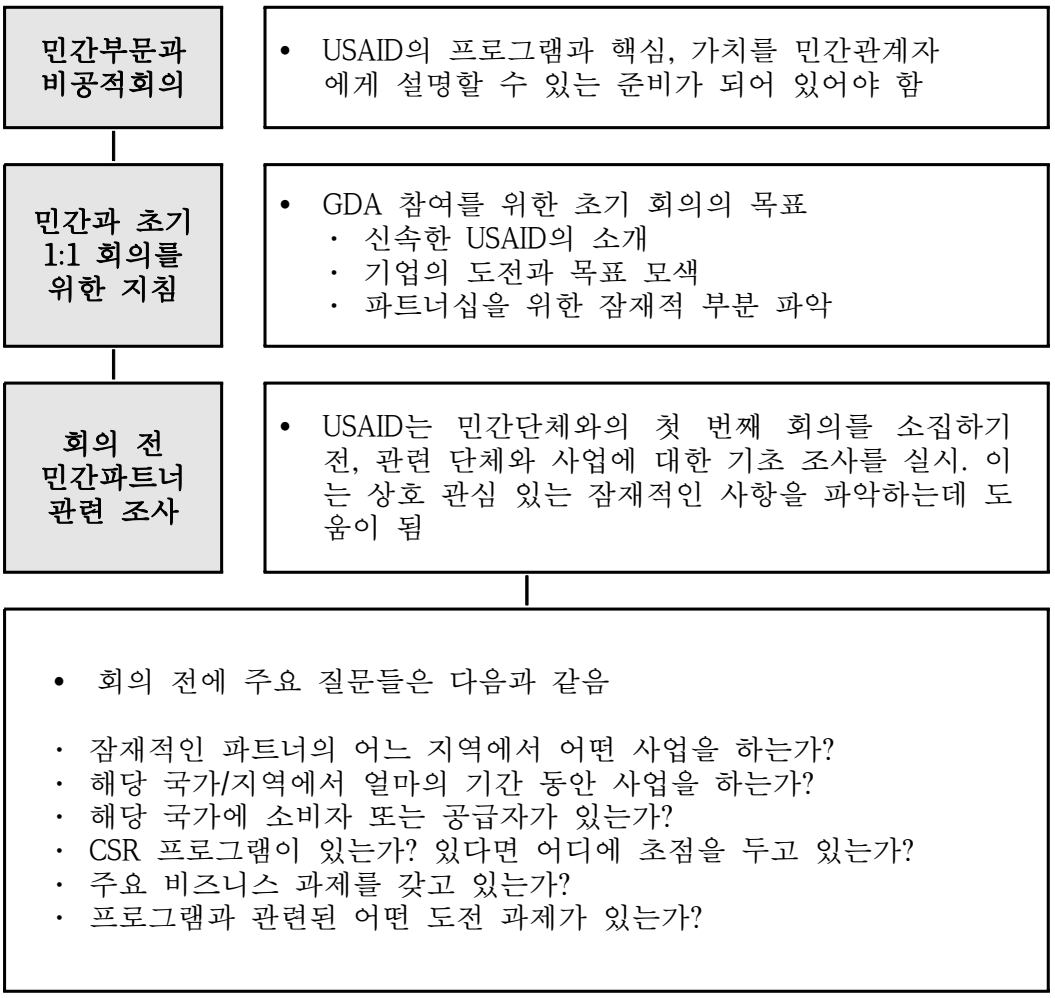
으로 50:50으로 정해져 있지만, 파트너와 사업에 따라 예산분담의 유연성이 실현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가 향후 PPP를 활성화하여 추진할 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에 대한 기여는 현물, 기술 및 지적재산 지원 등도 가능하고 각 섹터 별로 지원 방법에 차이가 있다.

○ 사업발굴

기업을 포함한 연구소, 재단, 비영리단체 등의 민간파트너와의 협력은 공모 방식이 없이 협의를 통한 MOU로 이루어지며, 사업 발굴의 주체도 다양하다. 즉, USAID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NGO와 논의하는 하향식(Top-down)인 '공공제안' 형태와 특정한 비영리기관 등의 민간이 아이디어를 USAID에 제안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채택이 되는 상향식(Bottom-up)인 '민간제안'형태 그리고 USAID와 현지 수원국 정부의 협력형태인 '정부간 공동제안' 등이 있다. 이처럼 사업의 성격과 파트너 형태에 따라 사업 발굴 유형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SAID의 PPP사업에서 사업발굴의 방법 또한 일정한 틀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전반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USAID는 컨퍼런스와 정기적인 미팅을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걸쳐서 파트너 혹은 사업 발굴을 모색해오고 있다. 민간기관들이 파트너를 발굴하는 방식은 ① 비즈니스 네트워킹 또는 사교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민간 단체 홍보 및 관계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② 기업 간 공식적인 초기 입문 회의, ③ USAID에서 열리는 민간분야의 아웃리치 모임, ④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민간부분단체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이와 같이 발굴 절차에서도 역시 유연성 및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3> USAID의 민간 부문과의 '초기 미팅'을 위한 '지침'



출처: USAID 홈페이지 <http://gda.usaid.gov/>

USAID는 잠재적인 파트너에게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부분 참여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USAID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IDEA의 GDA 담당부서는 민간 부문과의 '초기 미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지침'을 갖고 있으며, 이는 위 <그림 3-3>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USAID는 유사한 과제를 해결한 사례와 이전 정보에서의 파트너의 잠재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USAID는 파트너십 형성에 앞서 사전조사 및 잠재적인 가능성 모색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이드라인 협력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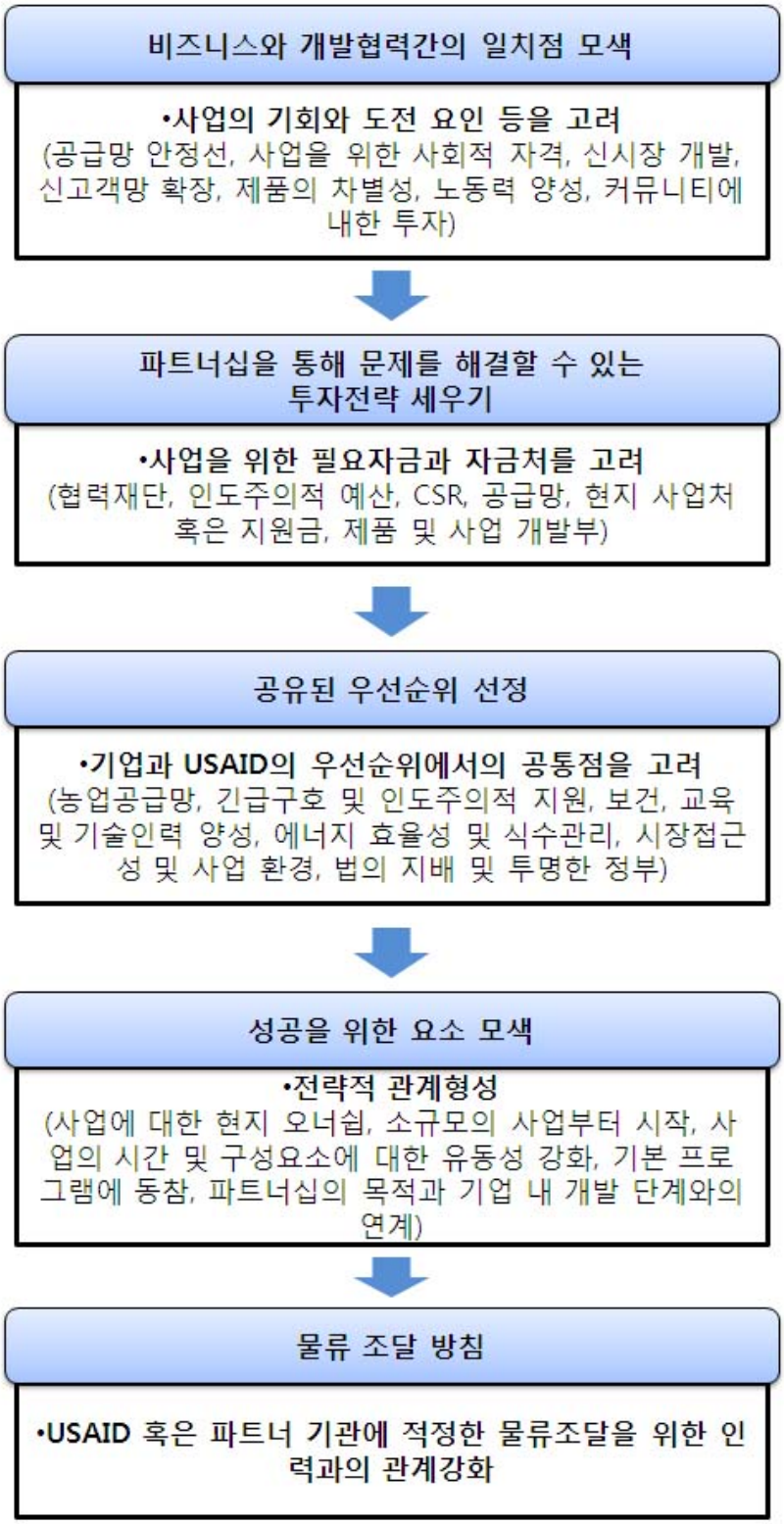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GDA는 파트너십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중요한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자간의 연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재원(자금, 기술, 전문지식)의 동원을 강조한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약 86개의 USAID의 현지지역사무소와 협력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발전략 목표를 가지고 GDA를 추진하도록 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현지지역사무소가 없는 국가가 사업 대상이면, 신청자는 해당 국가를 맡고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지역사무소 또는 USAID 본부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USAID의 중점분야인 식량안보, 기후변화, 보건사업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기여하거나 물, 교육, 기술혁신과 같은 다른 기관의 우선순위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연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상품・서비스・기술에 대한 현지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같은 직접적인 개발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며 이 모든 사업은 포괄적은 기술적,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67]

기업참고용 단계별 가이드라인으로는 개발목표 준수, 비즈니스와 개발협력간의 일치점 모색,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전략 확립, 공유된 우선순위를 선정, 성공을 위한 요소 찾기, 물류 조달 방침 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7)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Private_Sector_Partnership_Invitation_2012.pdf (접속일자: 2012년 6월 24일)

<그림 3-4> GDA의 기업참고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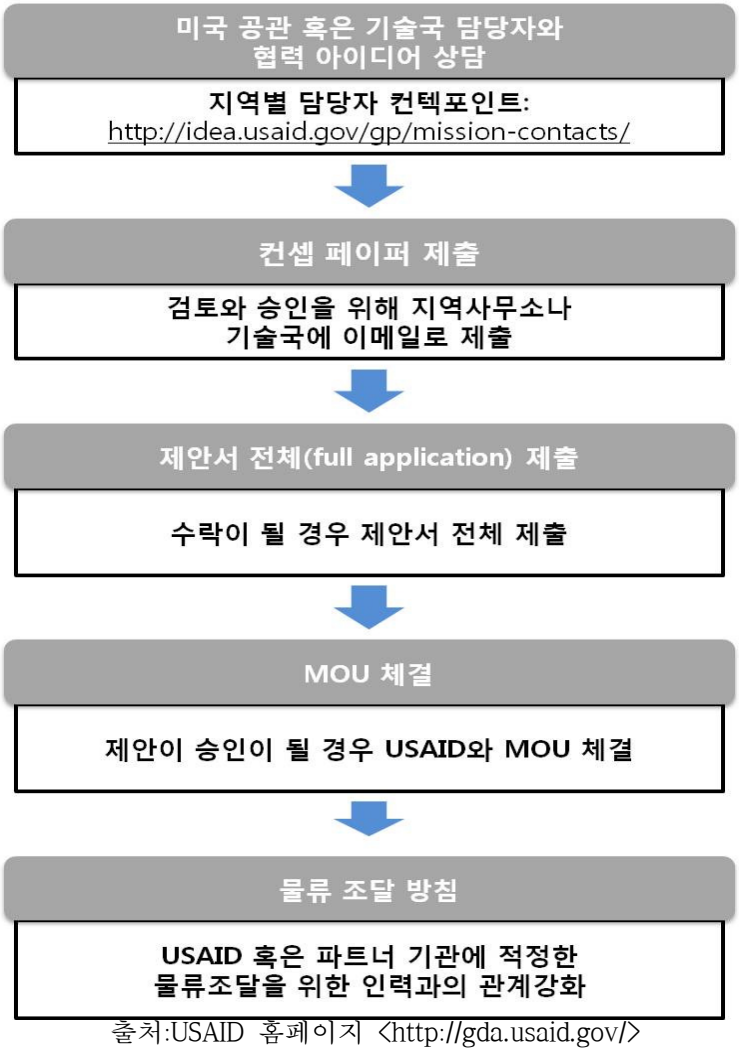


출처: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사업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39.을 바탕으로 재구성

○ 파트너십 단계

USAID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파트너십은 우선, 파트너가 USAID의 워싱턴 본부에 접촉을 하고, 해당 파트너와 USAID의 관심 있는 사업, 우선순위, 기회 등을 가늠하여 공동의 목적을 정의, 재원의 가능성을 타진 한 후, 잠재적인 시너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리뷰하게 된다. 그 후 파트너십 프로그램 활동을 디자인 하게 되면 협력,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한다. 그리고 MOU 체결 후 프로젝트 시행하는 과정으로 파트너십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Annual Program Statement, APS)를 제출하는 신청 절차에는 네 가지의 주요 단계가 있다.

<그림 3-5>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APS) 신청 절차



출처:USAID 홈페이지 <http://gda.usaid.gov/>

그 외 지역사무소 또는 기술국은 APS에 의거하여 부록을 발급하며, 부록에는 구체적인 개발 목표와 협력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와 기술국이 GDA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에 따라 이를 지원 할 것이란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응하여 제안된 협력단체는 연간 프로그램 정책제안서 안에 있는 조건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8]

○ 모니터링 평가

USAID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 사업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수집하며 세부 정보수집에는 각 지역 사무소에 따라 절차와 횟수에 차이가 있다. USAID는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성과 결과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부차원의 조사관을 직접 현장에 보내 사업을 모니터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결과 평가 조사관'과 '과정 평가 조사관'이 나누어 시행을 하며 결과 평가는 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과정 평가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파트너 대상자가 사업효과성에 실패할 경우, 문제점을 모색하며 이에 대한 파트너의 트레이닝을 다시 하고 실패가 반복 될 경우 사업파트너에서 제외하는 특징이 있다.

USAID는 독립적인 GDA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참여 민간 기업들은 특정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하지 않으나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사업이익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USAID 의 GDA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무형의 기업이익을 창출 해 왔다고 평가된다. USAID는 정부재원에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경제성장, 수원국 민간부문 강화, 보건 및 환경, 교육, 기술이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PPP는 미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기구 또는 해당지역의 민간기업, 재단 또는 단체와 협력하며[69] 환경 ODA 사업 관련 총 4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해 매년 약 1억 9천 5백만 달러의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약정해 왔다. 이 민관협력연대

68)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gp/aps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69)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organization/gp/overview (접속일자: 2012년 2월 15일)

의 파트너는 USAID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물자제공, 경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품 또는 상품개발, 프로젝트 설계, 지적 자본 제공,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USAID의 전문성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제공받는다.[70]

USAID의 운영 분야는 농업, 민주주의,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긴급구호, 보건, 소액대출 및 소규모 자영업, 위생 및 수자원, 인적자원 개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USAID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GDA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도 이래 약 290개의 연대(alliance)를 형성하였고(USAID 약 11억 달러, 파트너의 기여는 37억 달러 이상), 339개의 기업과 89개 단체와 협력을 하였다.[71]

<표 3-5> 1999~2007년 GDA 프로젝트 지역, 파트너, 기간 통계

지역	비중	파트너 수	비중	기간	비중
아프리카	26.9%	1개	28%	1~3년	70%
아시아	11.9%	2~5개	42%	4~6년	20%
유럽	4.9%	5~9개	14%	7년 이상	3%
중남미	13.6%	10개 이상	11%	알 수 없음	7%
기타	42.4%	알 수 없음	6%		

출처: USAID. 2007.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p. 41.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GDA 프로젝트의 기간, 파트너 수, 사업 지역에 대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GDA 프로젝트의 70%는 1~3년의 단기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7년 이상을 지속해 온 프로젝트도 3% 정도 있었다. GDA 프로젝트에 참여한 파트너의 수를 보면, 2~5개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사업이 42%로 가장 많고, 1개의 기관과만 협력하는 경우도 28%에 달하였다. GDA가 실시되는 지역은 아프리카가 26.9%로 가장 많으며, 중남미가 13.6%, 아시아가 11.9%를 차지하였다.[72]

---

70) 인터넷주소: http://www.kiep.go.kr/skin.jsp?mode=viewjoin&grp=koipe&bid=Pool0205&num=181312 (접속일자: 2012년 2월 15일)

71) 최민경. 2008.『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 Model』(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연구회 발표자료). p.19.

72) 523개의 GDA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를 통해 이루어진 통계 자료임. 출처: USAID. 2007.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표 3-6> GDA 지원분야

지원 분야	비중
경제성장과 무역	26%
보건	13%
환경	13%
농업	13%
교육 및 훈련	10%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8%
HIV/AIDS	4%
기타(IT, 인도주의지원, 에너지 등)	13%

출처: USAID. 2007.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p.41.

또한 GDA 프로젝트의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가 26%로 가장 많으며 보건, 환경, 농업이 각각 13%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 및 훈련,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GDA가 이루어졌으며, 긴급구호, 소액 대출 및 소규모 자영업, 위생수,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진행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장 및 무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현지의 수출 역량을 목적으로 PPP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지원방식은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과 기존의 GDA에 새로운 파트너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해 오고 있다.

다. 기후변화 PPP

USAID의 기후변화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PPP사업은 주로 GD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보전, 산림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중남미 사업이 많은 편이고 섹터별로는 농업, 보건의료, 수자원 개발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생태보전, 산림, 인증제도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GDA 시행 결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사업 수익성을 높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p.41.

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면서 수용 가능한 시장 개척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GDA의 기후변화 분야 현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점적으로 농업, 에너지, 산림, 수자원, 폐기물, 교통 및 기타 영역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GDA 공식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009년 12월에 최종 업데이트 된 전체 GDA 프로젝트들이 농업, 인도적 지원, 민주화와 거버넌스,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및 직업교육, 에너지, 환경, 가족계획, 보건, HIV/AIDS, IT 등의의 11가지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기후변화 및 환경과의 대응성을 고려하여 GDA의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에 속하여 있는 전체 프로젝트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농업, 에너지, 환경 등의 3개 분야에 있는 사업은 약 250여개로 파악 되었으나, 사업 가운데 파트너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되었다. 또한 파트너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 행위자가 아닌 정부 기관이 파트너로 제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제외되었다. 데이터베이스 분석상 특징으로는 2000년대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같은 형식 하에 다른 파트너들로 구성하여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과 다국가 프로젝트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로 대상국가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다른 사업으로 분류시킨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USAID의 데이터 분류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USAID의 2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20개의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 파트너 수, 섹터, 지역 및 국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다만 예산(LOP)의 경우 예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 및 다양한 섹터를 아우르는 크로스 커팅 이슈를 제외한 190개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1) 섹터별 사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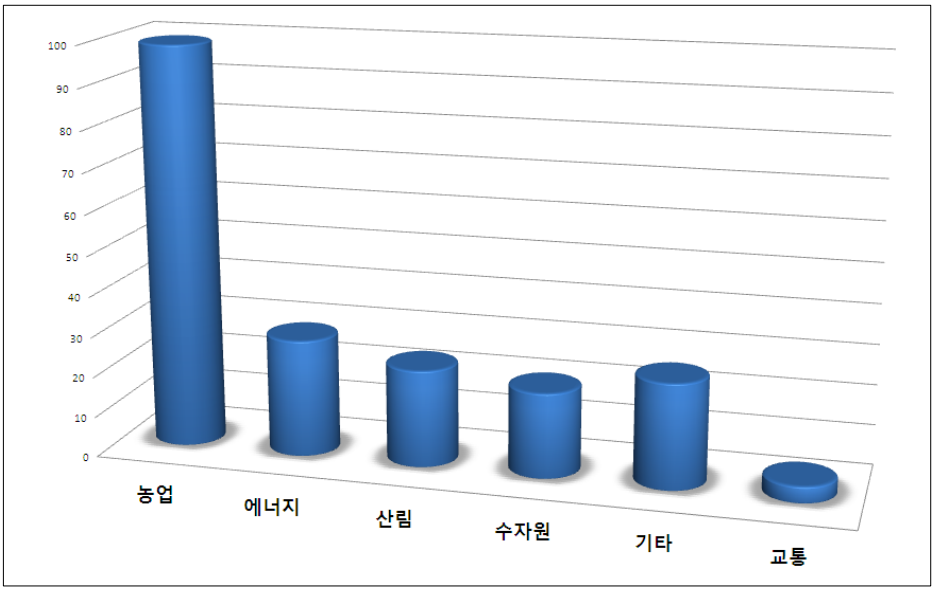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의 복합적인 특성상, 한 프로젝트에 두세 가지 특징이 포함된 크로스 커팅 이슈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위해 단독 섹터 및 크로스 커팅 이슈 프로젝트 사업 구분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의 분석 영역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를 총망라하는 농업, 에너지, 산림, 수자원, 폐기물, 교통(수송, 대기오염, 인프라) 영역,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인지제고 및 에코투어리즘 등의 새로운 개념을 아우르는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GDA 프로젝트의 분석 가운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여섯 개 섹터에 대한분석이 진행되었다. 6가지의 단독 섹터 프로젝트별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3-7> 개별 섹터별 사업 구분

영역	농업	에너지	산림	물	기타	교통	계
사업 수	99	29	24	21	26	4	203

<그림 3-6> 개별 섹터별 사업 구분



개별 섹터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농업 프로젝트가 전체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농업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후변화 및 사막화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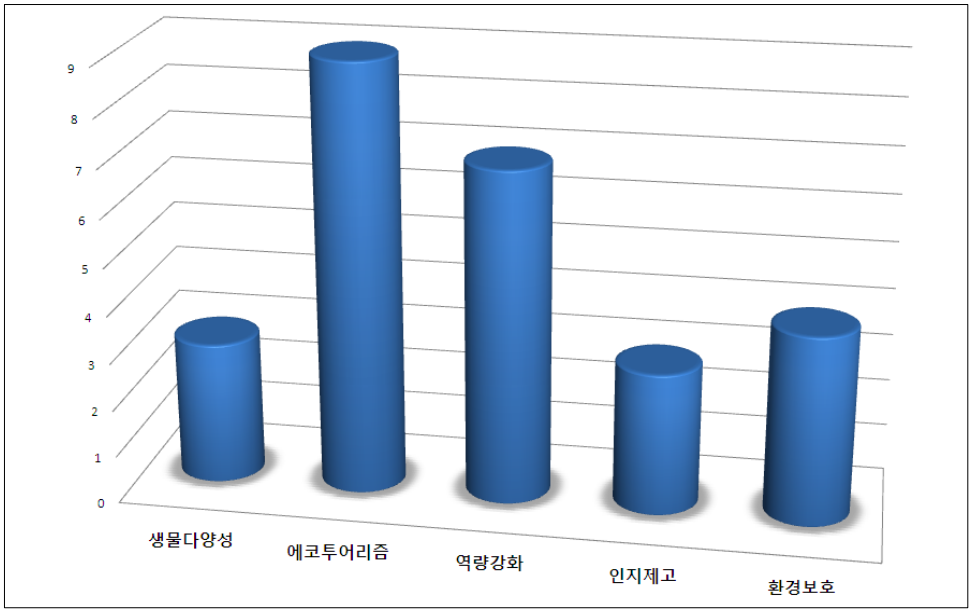
생산량이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개별 사례들의 분석 결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 NGO들과 USAID의 협력 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에 이어 에너지, 산림, 수자원(물) 등의 사업이 개별 섹터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사업영역이 농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선적 차원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관련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표 3-8〉 기타 영역 사업구분

영역	생물다양성	에코투어리즘	역량강화	인지제고	환경보호	계
사업 수	3	9	7	3	4	26

〈그림 3-7〉 기타 영역 사업구분



기타 영역의 사업은 크게 생물다양성 보존, 에코투어리즘, 역량강화, 인지제고, 환경보호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의 경우 농업 및 산림 등 큰 섹터들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에코투어리즘 등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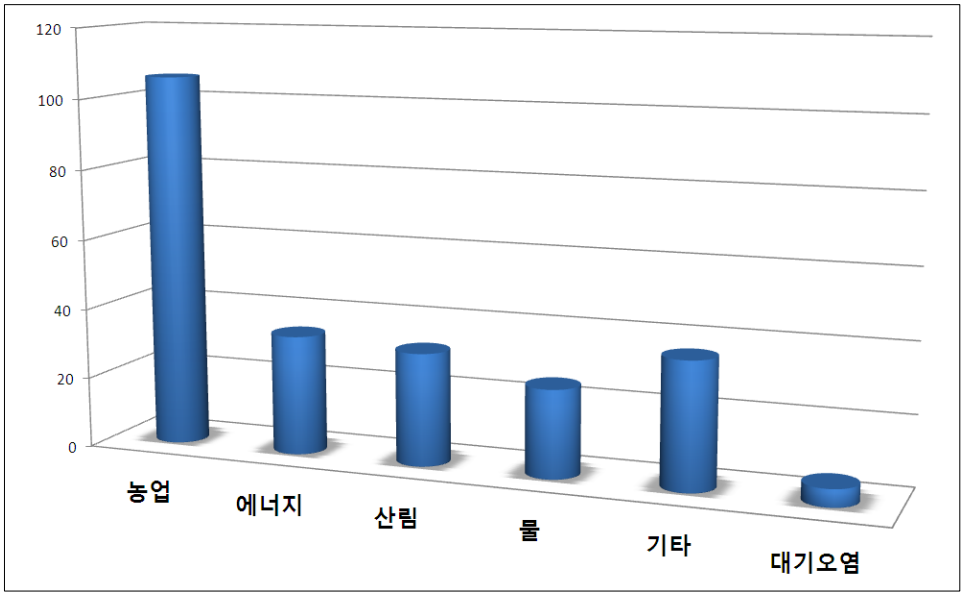
에서 기타로 구분되었다. 기타영역 가운데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에코투어리즘'에 관한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크로스 커팅 이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중복 집계한 데이터는 <표 3-9>, <그림 3-8>과 같다. 개별 섹터 분석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으나 농업 프로젝트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수자원과 산림 및 기타 영역의 비중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림과 수자원 및 기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단독으로 수행되지 않고 다른 관련 분야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다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성격을 반영한다.

<표 3-9> 크로스 커팅 프로젝트 포함 섹터구분

영역	농업	에너지	산림	물	기타	대기오염	계
사업 수	106	34	32	25	36	5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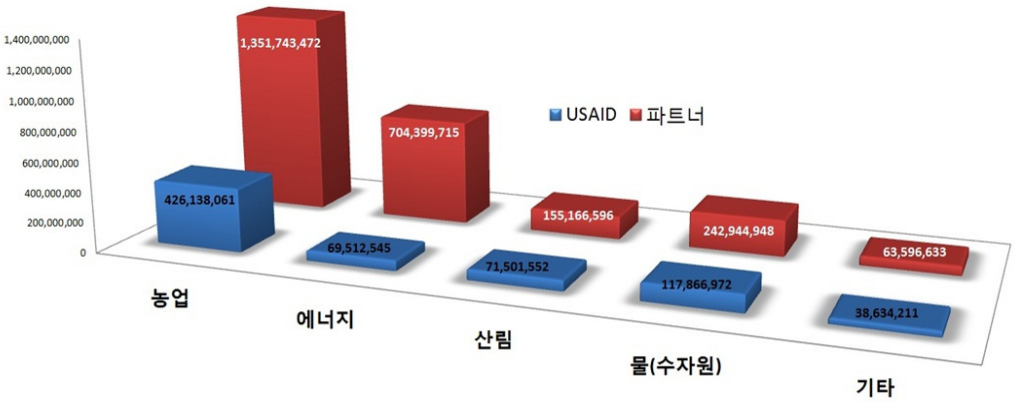
<그림 3-8> 크로스 커팅 프로젝트 포함 섹터구분



<그림 3-9>는 각 섹터별 예산 지원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의 중복집계를 피하기 위해 단독 섹터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USAID와 파

트너들의 예산 지원은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USAID는 농업과 수자원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파트너의 경우 농업 이외에 에너지 섹터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USAID의 약 10 배에 달한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섹터별 예산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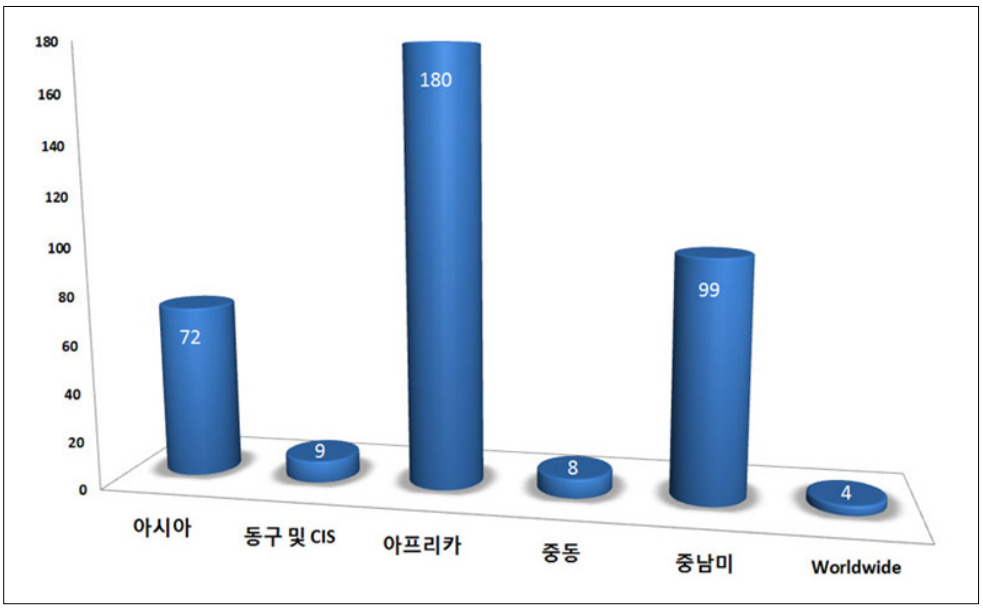


	농업	에너지	산림	물(수자원)	기타
USAID	426,138,061	69,512,545	71,501,552	117,866,972	38,634,211
파트너	1,351,743,472	704,399,715	155,166,596	242,944,948	63,596,633

2) 지역 및 국가별 사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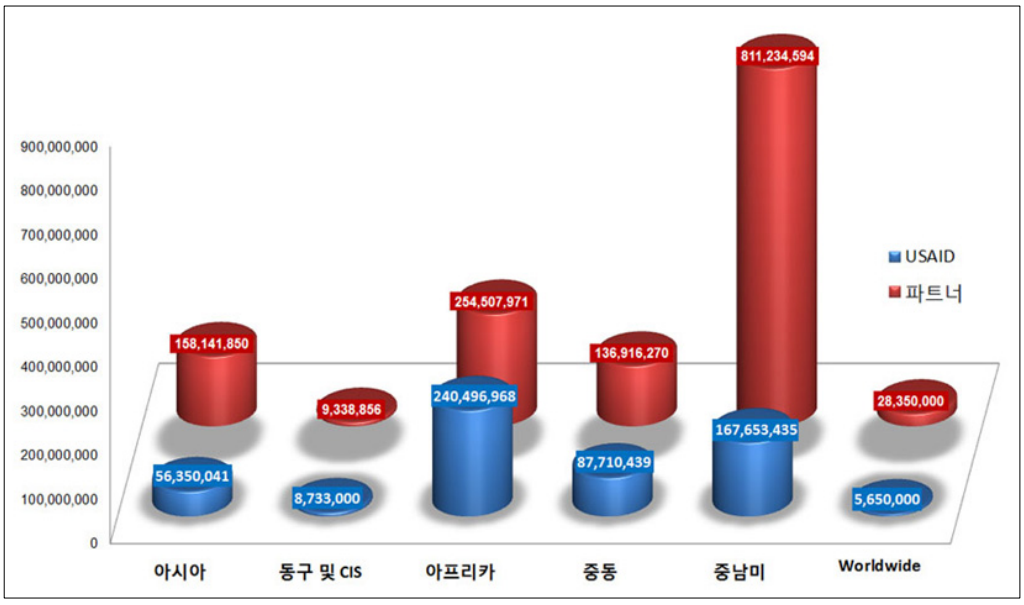
<그림 3-10>은 국가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을 KOICA의 사업 지역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21), 케냐(15), 우간다(14), 가나(13), 나이지리아(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지역 별 사업 구분



USAID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의 경우,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아시아, 중남미 대상 사업들과 비교하면 아프리카 대상 프로젝트들은 여러 국가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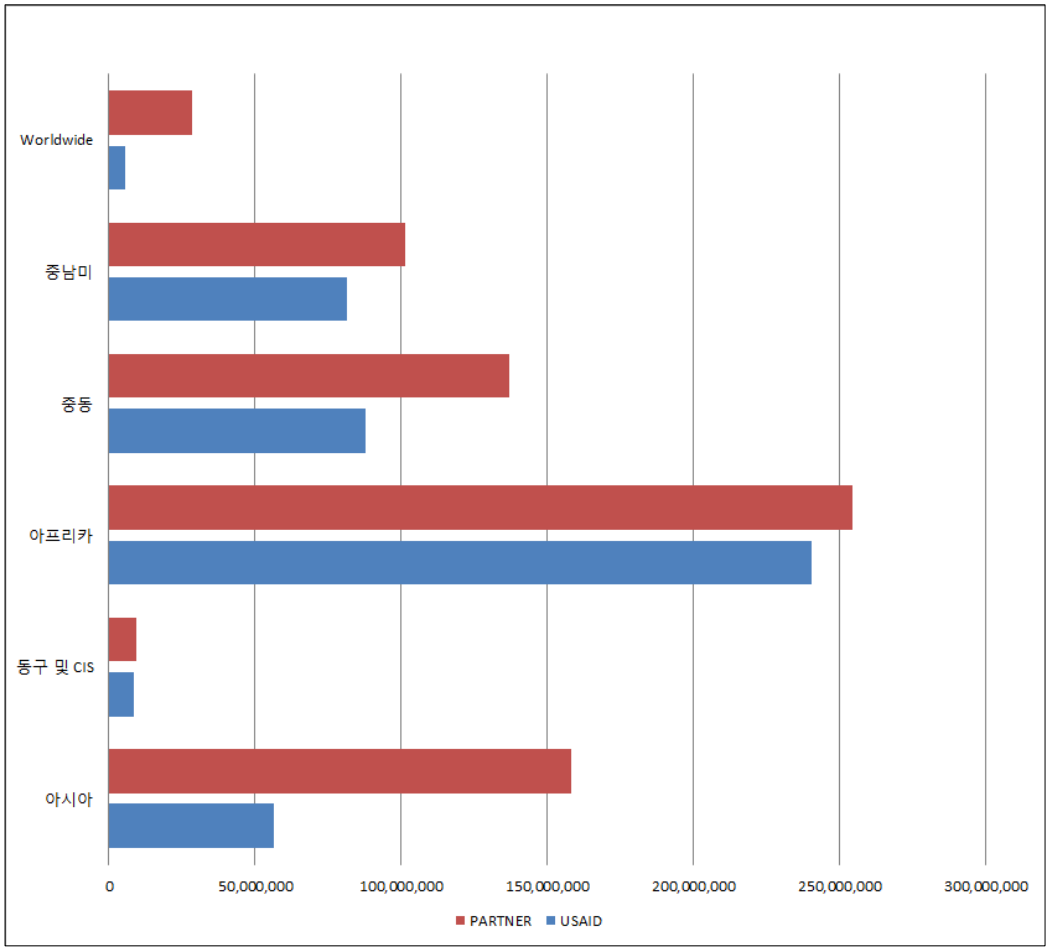
<그림 3-11> 지역별 예산 지원액



<그림 3-11>의 지역별 예산 지원액은 프로젝트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의 수는 많으나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USAID와 파트너의 총 사업비에서 중남미는 51%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MIDAS 프로그램의 예산이 예외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MIDAS(Additional Investment for Sustainable Alternative Development Program) 사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마약 관련 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을 농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자립하도록 돕는 대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이다. MIDAS는 USAID가 8천 6백만 달러, 7개의 파트너들이 7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거대 프로젝트이고, 이를 포함할 경우 지역별 프로젝트 수와 지원액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MIDAS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지역별 예산 분포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2> 지역별 예산 지원액: MIDAS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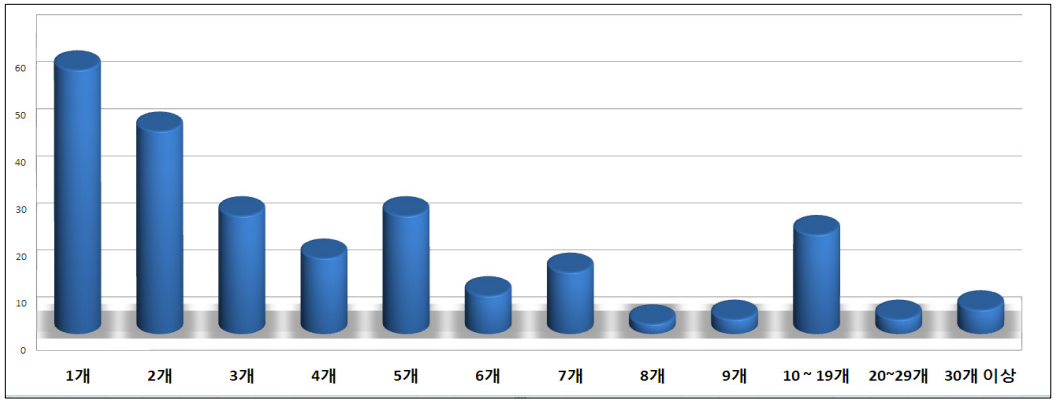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USAID와 파트너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파트너들의 기여도가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USAID보다 파트너들의 지원이 더 많다.

3) 파트너 수 및 사업 기간에 따른 분류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약 56% 정도의 사업이 3개 이하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또 약 25%의 사업은 단독 파트너와 함께 수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USAID의 예산이 백만 달러가 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림 3-13> 파트너 수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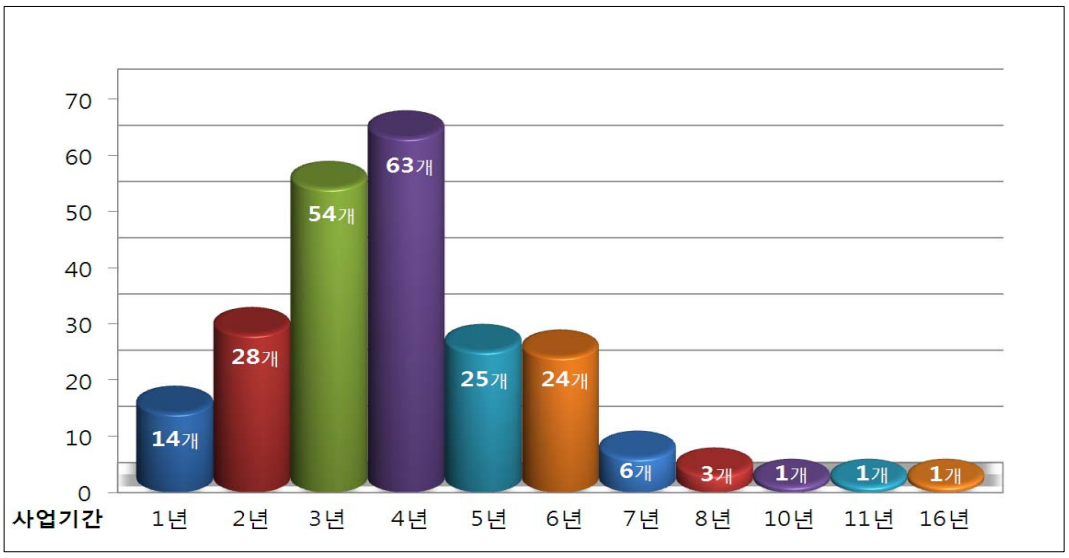


<표 3-10> 파트너 수 분석

파트너수	1	2	3	4	5	6	7	8	9	10~19	20~29	30~	계
사업수	56	43	25	16	25	8	13	2	3	21	3	5	220

한편 5개 이상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약 36%에 달하는 것은 국제기구 및 NGO 뿐만 아니라 연구 단체, 재단, 기업 등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GDA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기구 및 기업이 직접적인 공여자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예산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림 3-14> 사업기간에 따른 분류



사업 기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2~6년 동안 행해지는 중장기 사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6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 3~4년간 사업을 진행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4) GDA 섹터별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GDA 일반 현황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농업, 에너지, 산림, 수자원(물)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농업, 에너지, 수자원(물)의 3개 분야는 GDA 섹터가이드를 참고하여 USAID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모델과 대표사례 리스트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73]

73) 폐기물 분야는 해당되는 GDA사업이 없는 관계로 제외되었고, GDA 섹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섹터별 사업을 유형화하였다. 섹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는 각 프로젝트의 성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가) 농업

GDA의 농업 분야 가이드에서는 10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 모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의 유형 및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농업 분야 GDA 사업 유형 10가지 모델

유형	상세내용	대표사례	
		프로젝트	사업내용
시장 접근 능력 향상	농업 생산품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가 통한 시장 접근 능력 향상	Milk collection Alliance	유제품 생산자들 대상으로 위생교육 진행, 관련 기업들의 공급원으로서의 기준 충족 (잠비아)
		Brazil's responsible sourcing program	커피 수출을 공정무역 방식으로 진행.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브라질)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농업 생산품의 가치사슬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지원 및 업그레이드	Cotton Sector GDA - Dunavant Uganda Ltd	분쟁지역에 면화 산업을 개발, 본국으로 귀환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자금지원 (우간다)
		Keyna horticulture development program	농업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캐슈넛 생산량 증대 및 품질 향상 (케냐)
과학 기술 적용 지원	과학 영농 기술 적용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재해 방지	Arcadia biosciences	가뭄 및 병충해에 강한 종자 개발 및 지원 (인도)
생산자간의 협동 및 네트워크 강화	생산자 간의 정보 및 기술 공유 통한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 지원	Sustaining partnership to Enhance Rural Enterprise and Agribusiness development (SPREAD)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 형성 통해 농민간의 교류 확대 증진 및 파트너 기업 (SC johnson)의 효과적인 기술 협력 관계 형성 (르완다)
		Cabinda agribusiness development alliance	지역 농민 단체 역량 강화 지원 통한 농업 생산품 판매 루트 확대 (앙골라)

자금 접근성 확대	소액 금융 확대 통한 개별 농민들 자금 접근성 증진	Proagro Angola	개별 농민 및 사업체 대상으로 자금지원 서비스 확대 (앙골라)
농업 생산성 회복 지원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황폐화 된 지역 회복 지원	Agriculture Development Partnership	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에 최신 농업 기술 지원 및 농민 생산 기술 교육 진행, 판매 루트 형성 통한 시장 접근성 증진 (스리랑카)
환경 친화적 생산 지원	환경 친화적 생산 기술 지원 통한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	Cocoa sustainability alliance	자금 지원 및 농민 교육 통한 환경 친화적 생산 확대 지원 (코트디부아르)
		Certified sustainable product alliance	인증시스템 적용 통한 유기농 목재, 바나나, 커피 생산 지원 및 시장 접근성 확대 (라틴아메리카)
식량안보 증진	안정적이고 적정한 식량 공급 확보 지원	Cassava enterprise development project (CEDP)	Cassave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 생산품 질병 저항력 강화 통한 농업 생산자 임금 향상 (나이지리아)
관개시설 개선 및 수자원 관리 향상	수자원 관리 능력 향상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WADA)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공급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African market garden alliance	농업 생산 기술 지원, 종자 지원 및 관개시설 개선 통한 농업 생산품 품질 향상 (부르키나 파소, 가나)
관련 정책 개선 지원	농업 분야의 굿 거버넌스 위한 관련 정책 형성 지원	West Africa seed alliance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농업 종자 교역 및 등록 간소화 정책 지원

농업 분야 파트너십의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는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과 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다. 적합한 파트너 모색을 위해 USAID가 제시하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박스 3-1> 농업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1. 어떤 식품 회사들이 농업 생산품의 품질 저하 및 생산량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최대 생산량 이하로 생산하는 지역 농가 회사들이 있는가?

2. 어떤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생산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산업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생산자 조합이나 사업자 조합이 존재하는가?

3. 농업 가치 사슬 또는 농업 생산품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가치사슬에서 여성 및 청소년의 역할을 무엇인가

4. 어떠한 회사에서 농업분야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원은 BOP (Base of the Pyramid) 계층의 필요를 고려한 것인가?

5. 어떠한 투자회사들이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농업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가?

6. 지역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어떠한 농업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가? 어떠한 영역 및 이슈들이 농업 관련 서비스에 해당 되는가?

7. 글로벌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농업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적응시키는 주요한 기회들은 무엇인가?

8. 해당 지역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 파트너십이 존재하는가?

9. 고용인들에게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할 만한 대기업들이 주변에 존재하는가? (이 기업 또한 지역 농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0. 공여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다른 계획들이 특정 농업 생산품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집중되어 있는가? (이 경우 정부 또는 관련 민간 기업, 단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11. 전통적인 생산물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12.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의 주 수입원은 무엇이며 영세 농가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74]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파트너를 선정한 후,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요소가 강조된다.

첫째, 민간영역과의 활발한 교류이다. 이는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과의 모임을 자주 가질수록

74)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Agriculture_Guide.pdf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의 목적과 참여 기업의 관심사가 중첩되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자 조합과의 만남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 및 시장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앙 또는 지역정부와 같은 공공 행위자들과의 만남은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아이디어 및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성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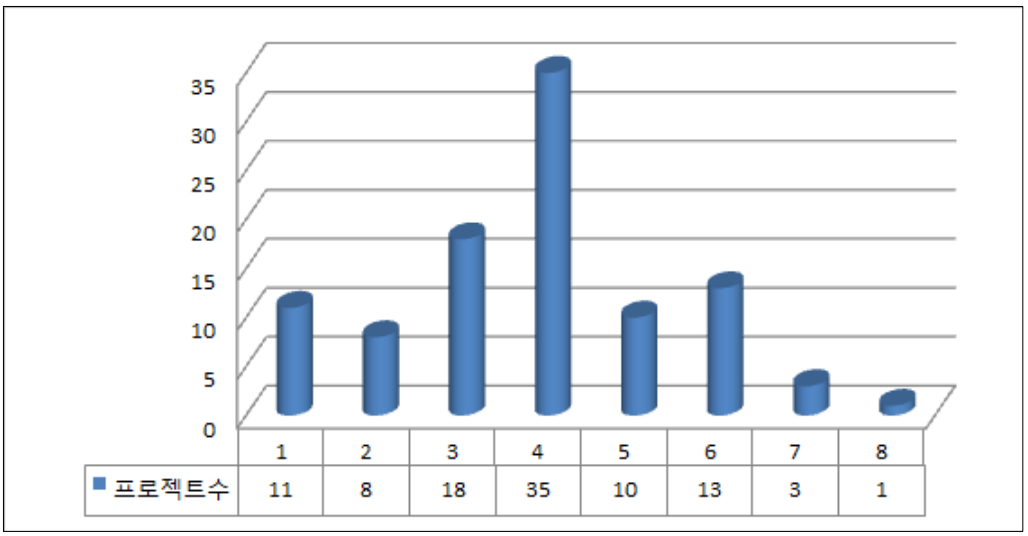
둘째, 기후변화는 농업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소이므로, 예상 가능한 기후변화의 모델을 분석하고, 이것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해당 파트너십이 교육, 자금지원, 평가, 연구 등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에 기여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USAID는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농업 프로젝트에서도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기술 및 지식전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파트너십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도시나 외곽 지역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필요에 대한 개별적 파악이 요구된다. 활동 지역에 따라 운송 조건, 에너지 접근, 시장 접근, 대체 소득, 오염 및 소비자 생활 패턴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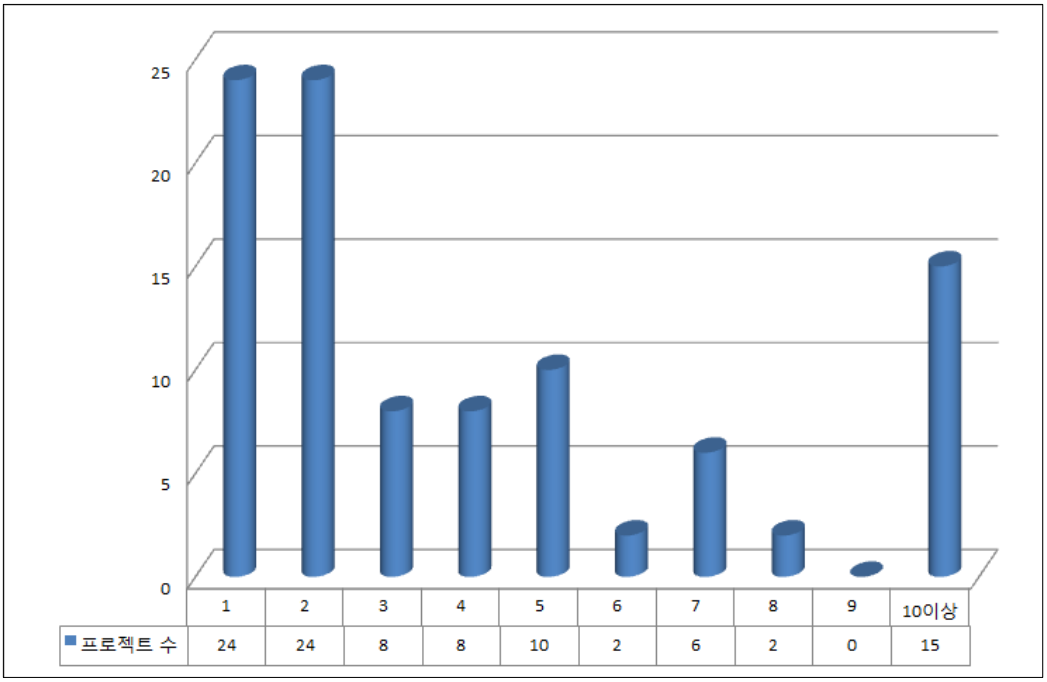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USAID GDA의 농업 분야 프로젝트는 99개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기간별, 파트너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5>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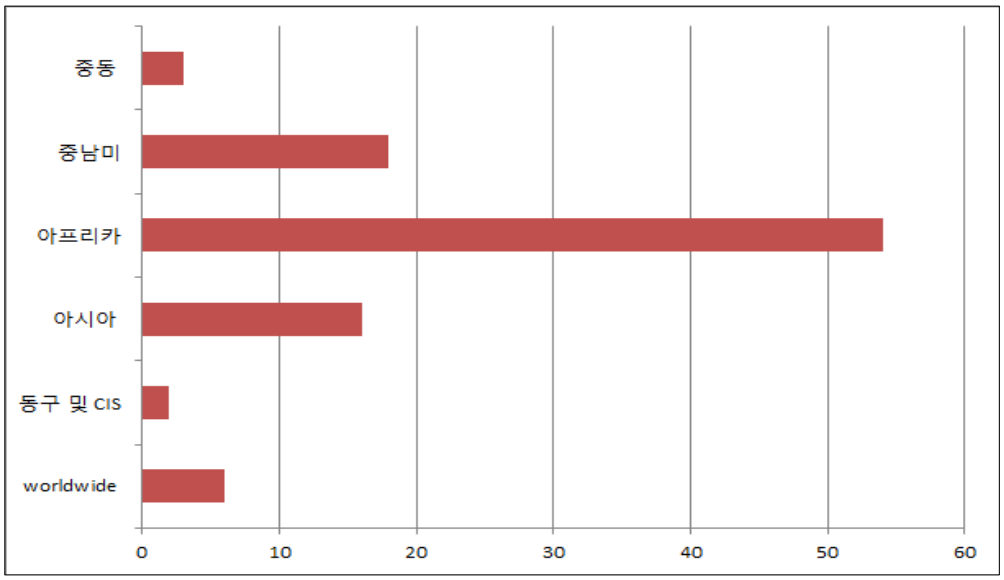
프로젝트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농업 분야의 특성상 3년 이상 수행되는 프로젝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섹터의 사업들의 경우 1~2년 동안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의 비중이 20%대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농업프로젝트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파트너 별 분석



파트너의 경우 2개 이하의 파트너를 가진 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NGO를 통한 농민 역량강화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3-17> 지역별 분석



지역의 경우 아프리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USAID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요한 파트너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대표 사례

사업명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TIST)	
기간	5년 (2002-2006년)	
국가	케냐	
분야	농업(산림)	
파트너	재정분담	USAID
		Clean Air Action Corporation(CAAC)
		Dow Chemical Company Foundation
	사업시행	Institut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I4EI)[75]
예산(LOP,$)	USAID	1,167,500
	Partners	1,234,834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IST)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무심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10년 간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으며 보건, 교육, 영양 및 연료 효율성 이슈를 포함하여 관련 행정 구조의 틀을 만들어왔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산림 벌채, 가뭄, 질병 및 기아의 파괴적인 영향 방지이다. TIST는 케냐를 비롯하여 인도, 탄자니아, 우간다와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실행되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민 그룹의 역량 강화,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76] 소규모 농민 그룹은 TIST 프로그램을 통해 나무 심기, 지속 가능한 농업방식을 구현하고, 사업에 참여한 농부들은 현지 전문가로 인정된다.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은 종묘 생산, 수종 장소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업 결과에 따라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한다.[77] 동 사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 및 온실 가스 크레딧 (Greenhouse Gas credits, GhG)의 판매를 통해 소규모 그룹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과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USAID와 Clean Air Action Corporation (CAAC)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컨설팅 역할로 참여하고, Dow Chemical Company Foundation이 참여한다. 또한 미국에 기반을 둔 NGO로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 그룹과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일부 기금을 지원하는 Institut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I4EI) 도 파트너로 참여한다. I4EI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78] I4EI는 CAAC와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한다. CAAC는 기술과 파일럿 프로젝트, 모니터링, 개발방법에 약 1천 1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다.[79]

---

75) 인터넷 주소: http://www.tist.org/tist/docs/I4EI%20EXEC.%20SUMM%20rev%20110505.pdf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76) 인터넷 주소: http://gda.usaid.gov/alliances/detail.asp?s=SVHTWWJYBVBXBPDSHGDMHRBQYLYTQYNT&id=468&t=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77) 인터넷 주소: http://www.cwhonors.org/viewCaseStudy.asp?NominationID=178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78) 인터넷 주소: http://www.i4ei.org/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79) 인터넷 주소: http://kenya.usaid.gov/programs/economic-growth/1016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공여국	기업	Clean Air Action Corporation (CAAC)
	NGO	Institut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I4EI)
	재단	Dow Chemical Company Foundation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TIST는 지난 30년 동안 알려진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확대 가능한 사례로 입증되었는데 이는 교육의 접근, 인터넷 기반의 관리, 보고, 행정 및 감사 프로세스로 인한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산림의 부문별한 벌채로 인한 손실과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일부 잘못된 농업의 관행이 토지를 황폐화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 농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에 기반한다. 또한 온실 가스 크레딧(Greenhouse Gas credits , GhG)의 판매를 통해 참여자들이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참여자들은 나무심기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HIV/AIDS와 같은 질병에 대한 원인에 대한 교육, 예방 장려, 환자에 대한 배려있는 치료 권장과,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집 안에서의 장작 사용을 줄이고 연기가 적은 효율적인 스토브 사용을 장려한다. 또한 ‘Head and hands’라는 새로운 물 처리 방식에 관한 평가, 휴대폰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의 GDA사업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모델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의 경우 기술 및 자금 지원과 함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3-12> 에너지 분야 GDA 사업 유형 6가지 모델

유형	상세 내용	대표 사례	
		프로젝트	사업 내용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새로운 에너지 기술 및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lliance	풍력발전 시설 및 기술 지원 (불가리아)
		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 (AMORE)	태양열 시설 및 하이드로 시스템 지원 (필리핀)
		Market initiative for advanc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le green business development alliance	온실가스 측정 및 인벤토리 시스템 지원 (인도)
에너지 접근성 향상	기본적 경제 활동 및 사회적 필요 위한 에너지 접근성 향상 지원	National rural electrification alliance (NRECA)	농촌 지역 및 저개발 지역 거주민들에게 전기 지원 (도미니카 공화국)
		Sustainable Energy Use Alliance	슬럼가의 에너지 불법 사용 차단 및 각 가정에 에너지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제공
에너지 자금 지원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적용 및 투자 위한 자금 지원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PFAN)	환경 친화적 사업 및 영세 투자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글로벌)
		Solar finance capacity building alliance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

			기 위한 금융기관 종사자들 교육 (인도)
에너지 정책 형성 지원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제 관련 지원	West africa gas pipeline	사하라 이남 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대상국의 국가 간 협정 및 조약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 (베냉, 토고, 나이지리아, 가나)
		Energy utility partnership project	에너지 분야 규제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글로벌)
에너지 분야 전문가 양성 지원	신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갖춘 인력 양성 지원 (대개 독립 프로젝트 보다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진행됨)	Grameen shakati & Nishorgo fuel wood energy reduction	농촌지역 여성들에 기업가 정신 함양 통한 태양열 에너지 시설 보급 및 운영 지원
BOP시장의 에너지	청정에너지 위한 소액 금융 지원 사업	대표적 사례 없으나 차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USAID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를 선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스 3-2> 에너지 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1. 해당 지역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된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존재하는가? 또는 인근 지역 또는 국가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할만한 에너지 이슈가 존재하는가?
2. 전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지역의 다른 경제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가?
3. 기후변화가 해당 국가의 에너지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한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할 만한 기회가 있는가?
4. 해당 지역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가 존재하는가?

5. 해당 지역에서 파트너십 및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연구기관이 이미 민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가?

6. 파트너십에서 누가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인가? 민감 행위자들이 이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재단 또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7.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이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8. 소규모 사업자 및 기업가들이 관여되어 있는가? (대개 이들이 큰 기업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80]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파트너를 선정한 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가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많은 활동들은 에너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로젝트 실행 지역에서의 기후변화가 에너지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이 기후변화 저감 및 완화와 관련하여 교육, 자금지원, 연구 등에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확실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탄소 배출권 및 상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행위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초국가적, 섹터별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의 사업들은 크로스 커팅 이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실행 지역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근 지역 및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영역의 참여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열린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영역 행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기관의 개발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혁신적 기술의 도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를 활성화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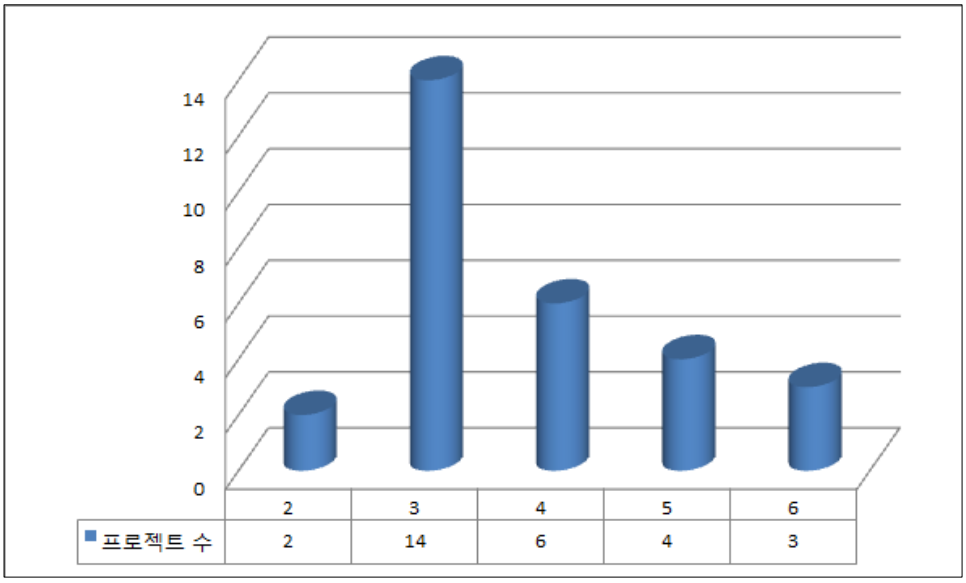
80)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Energy_Guide.pdf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특히 새로운 기술 및 전문 지식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USAID의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였다.

여섯째,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의 활용이다.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기존 프로젝트를 확대시켜 에너지 요소를 결합시킬 경우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행위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유사하게 기존에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파트너들을 고려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행위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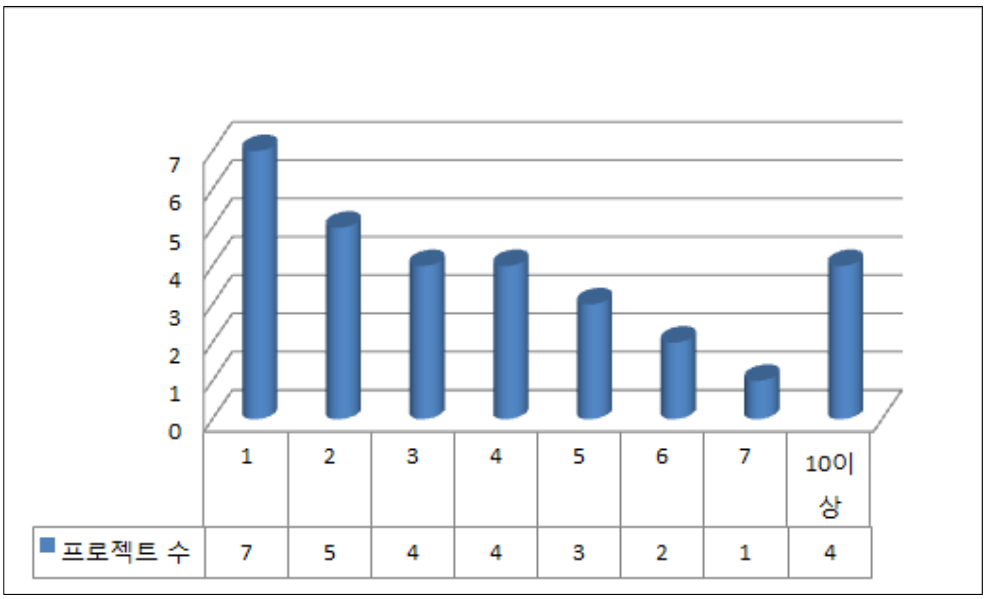
전체 분석 대상 데이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총 29개이며, 사업기간, 파트너 수, 지역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8>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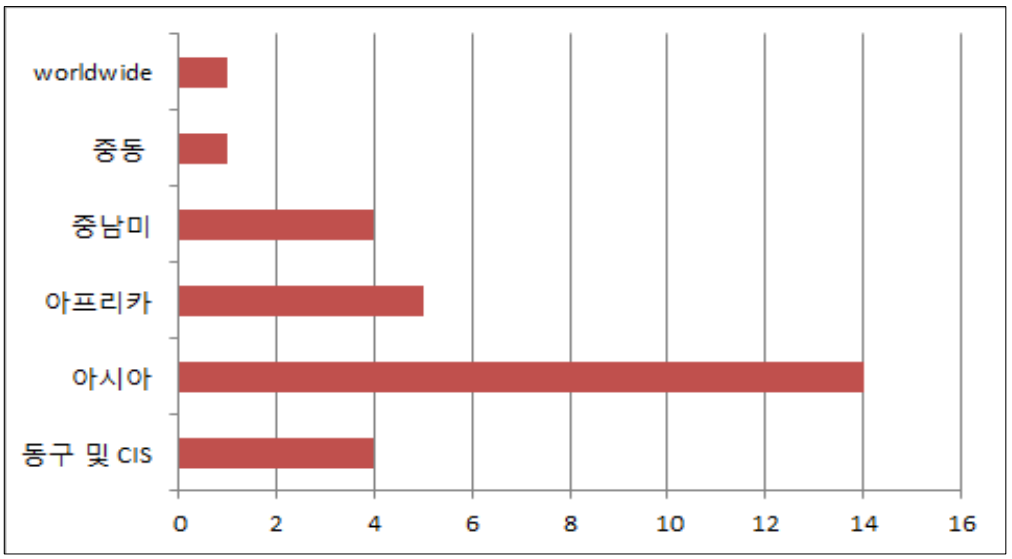
분석 대상 가운데 1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14개 프로젝트가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파트너 수 별 분석



농업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파트너 수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10개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13%로 나타난다.

<그림 3-20> 지역별 분석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동구 및 CIS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 지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 대표사례

사업명	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AMORE) Program[81]	
기간	5년 (2002-2006년)	
국가	필리핀	
분야	에너지	
파트너	재정분담	USAID
		Mirant Philippines Foundation
		SunPower Corporation
		필리핀 에너지국 (Philippine Department of Energy, DoE)
	사업시행	Winrock International
예산(LOP,$)	USAID	9,990,202
	Partners	5,067,656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필리핀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삶의 질이 낮고, 많은 수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소외지역이다. 이 지역의 프로젝트는 태양광이나 마이크로하이드로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통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삶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있다. USAID가 기존에 민다나오에서 진행하고 있던 인구 및 보건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여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USAID는 전국적인 전력화를 위하여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에너지 담당 기구 (Department of Energy, DOE)와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왔으며 에너지국의 경우 본 프로젝트에는 민다나오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여국 기업 Sunpower Corporation[82]은 태양광 발전 기술 및 관련 장비를 생산

81) 인터넷 주소: http://amore.org.ph/uploads/pdf/AMORE-Program-Phase-3-BROCHURE.pdf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하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술 업체로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금 및 관련 장비를 제공하며 CSR 차원의 목적을 구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Mirant 필리핀 지부[83] 역시 중요한 민간 파트너로서 자금지원을 담당하였다. 실제적인 운영은 Winrock International[84]이라는 개발 NGO가 담당하였으며,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NGO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이다.

공여국	기업	SunPower Corporation
		Mirant Philippines Foundation
	NGO	Winrock International
수원국	정부	필리핀 에너지국 (Philippine Department of Energy, DoE)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해당 프로젝트는 민다나오에서도 가장 소외된 남쪽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미 해당프로젝트를 통해 약 13,000 가정이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게 되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된 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Barangay Renewable Energy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BRECDA) 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더불어 에너지의 공급과 함께 각 지역(마을)의 BRECDA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 마을 공동체 이상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한 기술 및 장비 지원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자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는 3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전력공급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기술의 상업화와 전력공급의 지역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차 프로젝트에는 코카콜라, 인텔, 말레이시아 재단 등

82) 인터넷 주소: http://us.sunpowercorp.com/about/ ;http://www.sunpowercorp.kr/about/history/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83) 인터넷 주소: http://en.wikipedia.org/wiki/Mirant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84) 인터넷 주소: http://www.winrock.org/about_us.asp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과 같은 새로운 민간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었고 꾸준한 성공을 통해 4년 단위로 후속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결사체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지역 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연계되었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 전력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Mirant)과 미래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Sunpower Corporation)이 참여하여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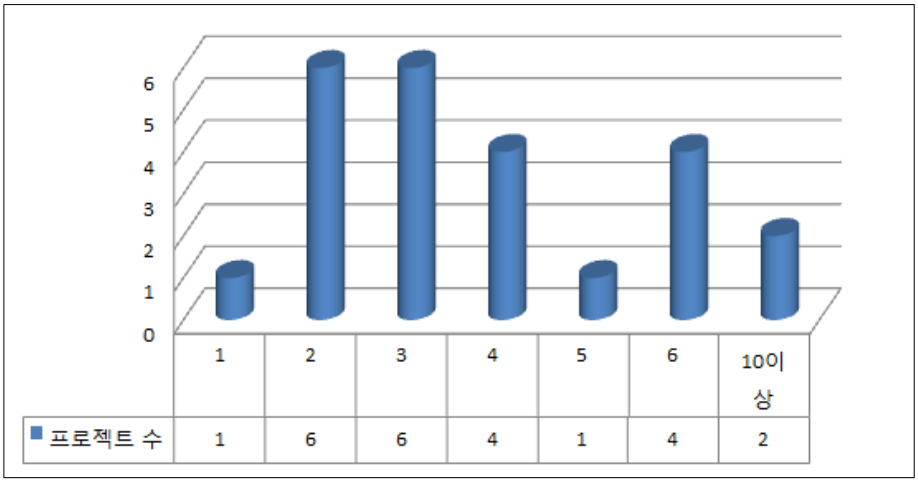
산림 프로젝트의 경우 불법 목재를 감소시키고 생산물의 품질 향상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인증시스템의 도입의 방식과 나무심기의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농업 생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업 프로젝트의 모델 분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3> 산림분야의 GDA 사업 분류

유형	상세내용	대표사례	
		프로젝트	사업내용
산림 보전	산림 구역 보호 및 보전활동	Conservation of the Tapyta Private Reserve	Parana Atlantic 숲 보전(파라과이)
생산물 인증 시스템 도입	생산물 인증 시스템을 통한 품질 개선 및 농가 소득 증진	Certified Forests and International Markets	목재 및 과일과 같은 생산품에 인증시스템을 도입 및 다국적 기업의 벨류체인에 포함(볼리비아, 브라질, 멕시코, 페루)
목재 생산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불법목재 감소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최소화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	목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및 지역기반 산업 발전 지원(볼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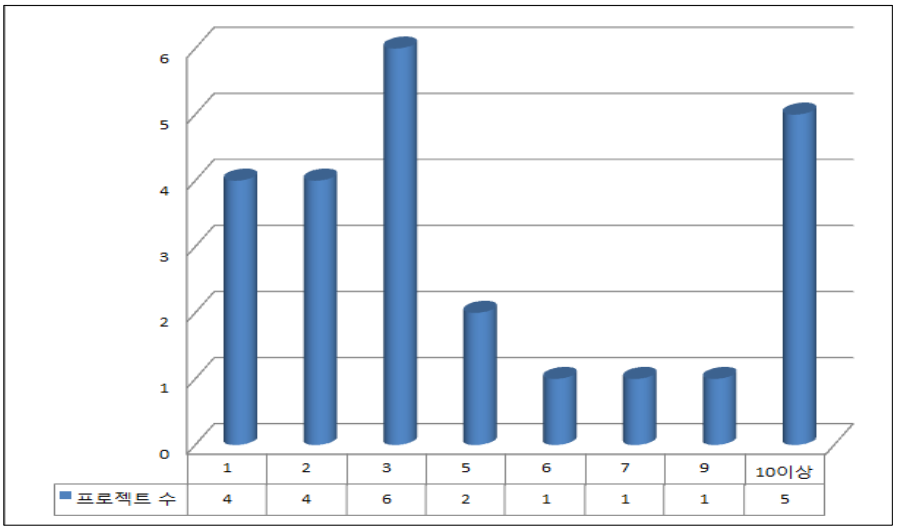
산림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는 24개로 사업기간별, 파트너 수,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1>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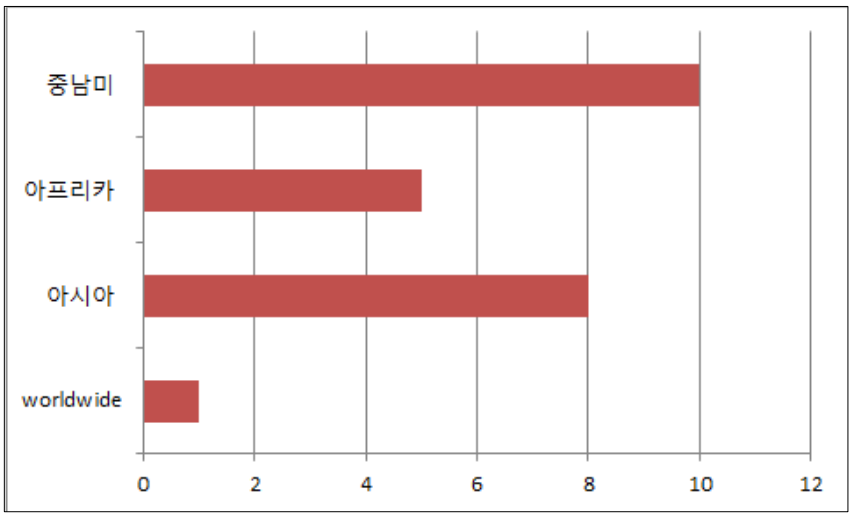
<그림 3-22>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산림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단기, 장기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2> 파트너 수 별 분석



파트너 수의 경우는 1-3개의 파트너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에 약 60퍼센트에 해당하지만, 10개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프로젝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지역별 분석



산림의 지리적 분포 및 자연환경의 특성상, 중동 및 동구 CIS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열대우림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중남미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대표사례

사업명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	
기간	5년 (2004-2008년)	
국가	볼리비아	
분야	산림	
파트너	재정분담	USAID/Bolivia
		USAID/LAC/ENV
		Fundación PUMA
	사업시행	Amazonian Center for Sustainable Forest Enterprise (CADEFOR)
		Group Tahuamanu S.A.
예산(LOP,$)	USAID	4,725,000
	Partners	3,775,000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볼리비아의 산림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산림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USAID는 이러한 풍부한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굿 거버넌스,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따라서 산림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연계 향상 및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참여도 중시되고 있다.

USAID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역커뮤니티, 지역, 국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국가자원 관리 및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며 산업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USAID는 볼리비아에서 산림관리, 생물종다양성・보호지역 관리, 깨끗한 생산, 기후변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는 민간영역이니셔티브로서, USAID 볼리비아, USAID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의 환경팀(USAID/LAC/ENV), Group Tahuamanu, Fundación PUMA, Amazonian Center for Sustainable Forest Enterprises (CADEFOR)가 참여한다. 프로젝트는 총 5년 동안 2004-2006년의 첫 단계, 2006-2008년의 두 번째 단계로 진행되었다. 총 비용 850만 달러 중 472백만 5천 달러는 USAID가 부담하고, 나머지 377백만 5천 달러는 파트너 행위자들이 부담하였다.

CADEFOR는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의 산림 영역 보호를 위해 2000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산업과 시장을 통합하고, 아마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5] 목재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는데 본 프로젝트에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Wood Processing Center 사업은 목재 가공 시설 및 판매・유통 과정에서 목재 폐기물발생, 소음 및 공해 등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문제가 예상되었다. 볼리비아의 민간기업인 Group Tahuamanu는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

85) 인터넷 주소: http://www.cadefor.org (접속일자: 2012년 5월 15일)

Fundación PUMA는 볼리비아와 미국 간의 Programa Empresa Iniciativa de las Américas (EIA)의 기존 관리 기관인 Fondo Nacional para el Medio Ambiente (FONAMA)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민간 재단이다. EIA의 행정적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 생산품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추가적 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또한 볼리비아의 전역에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Fundación PUMA는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 프로젝트에서 지역 커뮤니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가능하게 만들고 원활한 목재 제공을 담당하였다.[86]

공여국	**정부**	USAID/Bolivia,
		USAID/LAC/ENV
수원국	**기업**	Group Tahuamanu S.A.
	민간기관	Fundación PUMA
		Amazonian Center for Sustainable Forest Enterprise (CADEFOR)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본 사업은 볼리비아의 Pando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이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수준의 낙후된 지역이다. 풍부한 산림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시장 부족, 목재의 낮은 가격, 원거리 가공센터로의 높은 운송비, 불법 채벌, 낮은 인식 등의 요인으로 외부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USAID는 볼리비아의 민간기업 및 NGO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목재수집센터와 목재가공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의 목재생산체인을 강화하고, 시장 접근성 향상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 파트너들은 산림부문 사업에 필요한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직접 목재를 구매하고 유통기능, 가공기능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향후 볼리비아에 이와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는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가진다.[87]

86) 인터넷 주소: http://www.fundacionpuma.org (접속일자:2012년 5월 15일)
87) 인터넷 주소: http://www1.usaid.gov/locations/latin_america_caribbean/environment/IEEs/bol ivia/

라) 수자원(물)

수자원(물) 분야에서의 GDA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모델로 유형화 될 수 있다.

<표 3-14> 수자원(물) 분야 GDA 사업 유형 5가지 모델

유형	상세내용	대표사례	
		프로젝트	사업내용
물과 관련한 생산품,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	개발 프로젝트에 저비용의 적정기술 도입 지원 통한 프로젝트 효과성 증진 및 기술 생산자 지원	Safe drinking water alliance	P&G의 응집제와 소독제의 판매 촉진하면서 위생 교육 실시 (아프리카, 아시아)
		Water SHED alliance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생상품 및 서비스 전달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테스트 및 적용 (아시아)
기업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수자원 관리 증진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이뤄지는 물 사용과 관련해 효율성 증진, 오염 방지 및 완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한 전반적 활동 지원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증진 및 보존, 빈곤층의 수자원 및 위생시설 접근성 증진 지원, 수자원의 생산적 이용 확대(글로벌)
BOP 계층을 위한 빈곤완화	기업의 빈곤 완화 활동 통하여 장기적으로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 육성	West Africa water initiative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및 위생 서비스 제공 위한 파트너십 형성 (가나, 말리, 니제르, 부르기카파소)
		the international H2O collaboration	주민 역량강화 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위생 프로그램 지원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 필리핀)
인도적 구호 활동 지원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수자원 관련 시설 및 기술 지원	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사례로 대표 사례 선정 불가	

IEE04_45.pdf (접속일자: 2012년 5월 15일)

프로젝트의 혁신 및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형성	민간 기업 참여 통한 최신의 접근방법 및 모범 사례 도입	Glob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with Soap	비누사용에 대한 교육 및 옹호활동 진행(글로벌)
		Water links	수자원 생산 파트너십(Water operator partnership) 증진 통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지원 (글로벌)

수자원 분야 프로젝트에서 파트너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스 3-3> 수자원(물)분야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1. 프로젝트 진행 예상 지역에서 수자원을 기업의 생산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나 지역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2. 어떠한 회사들이 수자원과 관련한 상품 또는 기술을 지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가? (펌프, 파이프, 정화시설, 개인 위생시설 등)
3. 어떠한 회사들이 수자원의 품질 및 양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 이러한 회사들이 그들의 친환경적 경영 및 규제형성에 관하여 협조하는 것에 긍정적인가?
4. 어떠한 자선 단체 및 재단이 해당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들이 수자원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5. 수자원 영역에 관련되어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있는가?
6.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수자원과 관련된 서비스 및 기술 등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기관들이 USAID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가? [88]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첫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자원 이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극적인 이슈들은 정부나 지역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파트너십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88) 인터넷 주소: http://idea.usaid.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Water_Guide.pdf (접속일자: 2012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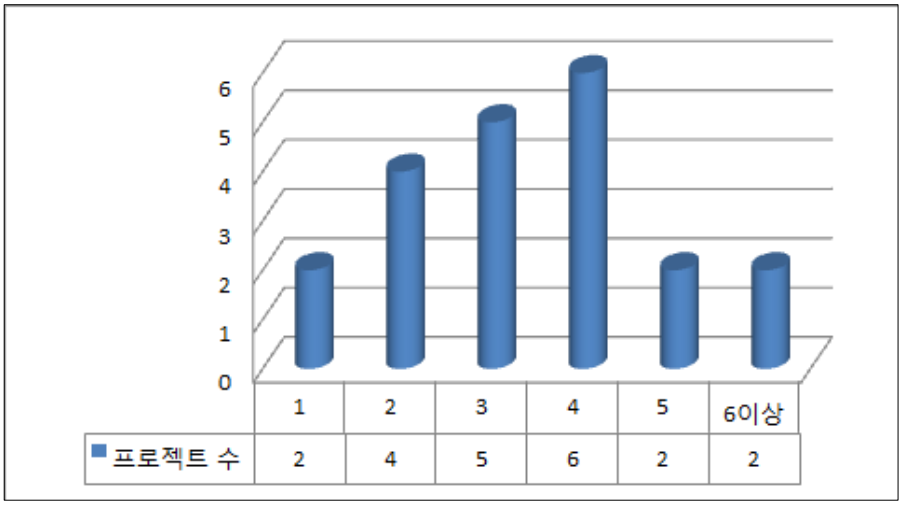
둘째, 공공재에 해당하는 수자원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 및 갈등 해결, 자금 관리 등의 굿 거버넌스의 유무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보건 및 위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적절한 수자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동 및 운반과정에서 오염되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운반 또는 저장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넷째,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개발 전략 및 빈곤 감소 전략과 해당 프로젝트가 조화되는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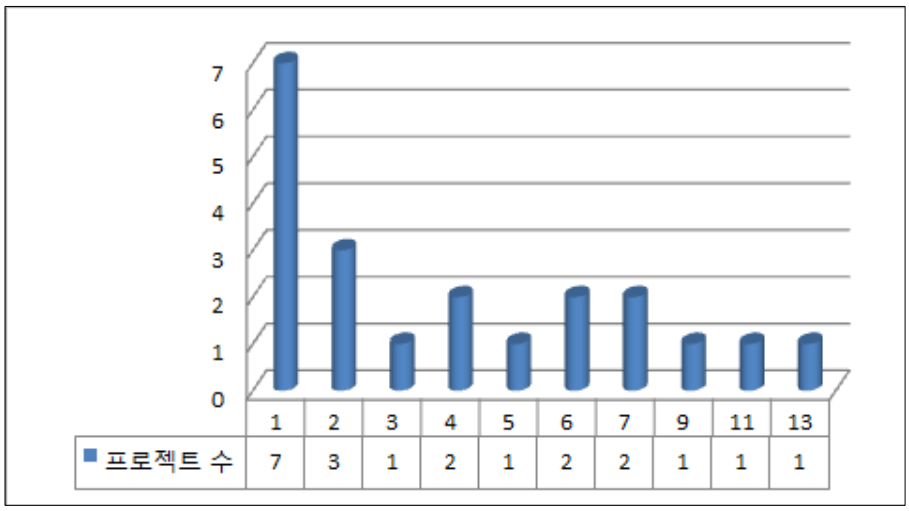
수자원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는 총 21개이고, 사업기간별, 파트너 수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4>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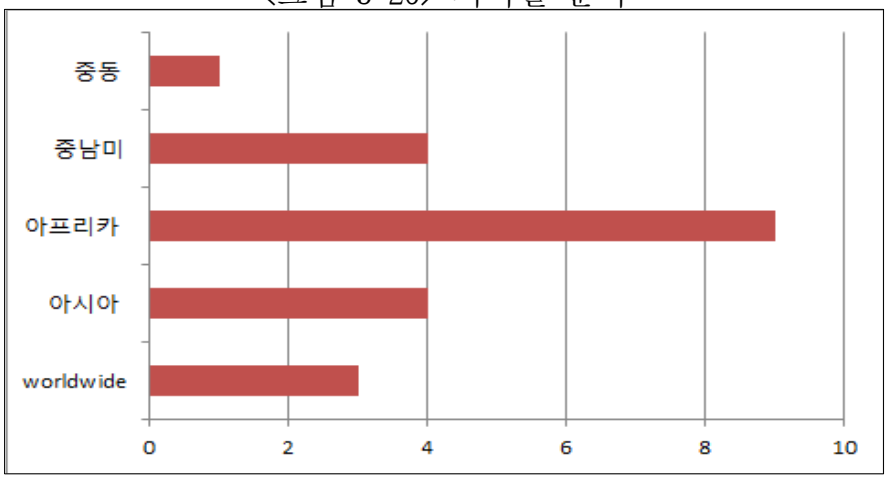
농업 및 산림 등의 프로젝트와 비교하였을 때 수자원 프로젝트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9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3-25> 파트너 수별 분석



파트너 수의 경우 가장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 프로젝트가 지역개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자원 프로젝트의 경우 보건 프로젝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여러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6> 지역별 분석



수자원 분야의 사업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이니셔티브 아래에 다양한 대륙의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지구적 사업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① 대표사례

사업명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Chia Lagoon Watershed	
기간	5년 (2004-2008년)	
국가	말라위	
분야	물	
파트너	재정분담	USAID
		Norwegian Government
		IITA/SARRNET
		COMPASS II
		CIMMYT
		Bunda College and the Bean-Cowpea CRSP Project
		World Fish Center
		NASFAM
		Chitedze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Cheetah Ltd.
		Eco-Products Ltd.
		Appropriate Technology and Training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ATTIGA)
		Lakeside Resorts
		Farmer’’s World
		Opportunity International Bank of Malawi
	사업시행	Washington State University
		Total Land Care
		Agricane Malawi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erging Countries (COSPE)
		Business Consult Africa (BCA)
		Wildlife and Environmental Society of Malawi (WESM)
		Nkhotakota District Assembly (KKDA)
예산(LOP,$)	USAID	2,074,852
	Partners	2,712,042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이 사업은 Chia Lagoon 지역의 하천수가 모이는 분수령을 관리하는 것인데, Chia Lagoon 분수령 유역의 광범위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Nkhotakota 시의회 (Nkhotakota District Assembly, KKDA)가 제안하였다. 이 사업은 특히 통합 커뮤니티 기반 접근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 자원, 수자원, 산림 등의 활용과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89]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작물의 다양성과 저비용의 관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산품의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를 추구한다. 둘째,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개선한다. 셋째, 농산물과 천연 자원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농촌 기업의 개발 기회를 창출한다. 넷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모니터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한다.[90]

이 사업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Washington State University)와 Total Land Care(TLC), 그리고 Nkhotakota 시의회 (KKDA)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커뮤니티와 NGO, 기업들이 협력하였다.[91] 워싱턴주립대학교는 연구를 주도하며, 관리와 행정을 담당하고, 현지에서의 프로그램은 지역 NGO인 Total Land Care(TLC)가 진행하였다. Nkhotakota 시의회(KKDA)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요 파트너인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erging Countries(COSPE)는 커뮤니티 동원 및 역량강화, Business Consult Africa(BCA)와 AgriCane Malawi는 사업관리 및 시장평가, Wildlife and Environmental Society of Malawi(WESM)는 자연 보존과 환경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

89) Total Land Care. 2009. PROFILE: CHIA LAGOON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p.4. (인터넷 주소: http://www.totallandcare.org/LinkClick.aspx?fileticket=EQJcuSN4sR0%3d&tabid=77&mid=414) (접속일자: 2012년 5월 18일)

90) Chia Partner Alliance. 2008. CHIA LAGOON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FINAL REPORT. p.1.

91) Total Land Care. 2009. PROFILE: CHIA LAGOON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p.1. (인터넷 주소: http://www.totallandcare.org/LinkClick.aspx?fileticket=EQJcuSN4sR0%3d&tabid=77&mid=414) (접속일자: 2012년 5월 18일)

공여국	정부	USAID Malawi
		Norwegian Government(네덜란드)
	기업	COMPASS II(미국)
		Eco-Products Ltd.(영국)
		Lakeside Resorts(미국)
	기타 민간기관	Washington State University
		CIMMYT(멕시코)
		World Fish Center(말레이시아)
수원국	정부	Nkhotakota District Assembly(KKDA)
	기업	IITA/SARRNET
		Cheetah Ltd.
		Farmer’s World
		Opportunity International Bank of Malawi(OIBM)
		Agricane Malawi
		Business Consult Africa(BCA)
	민간기관	NASFAM
		Chitedze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Total Land Care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erging Countries(COSPE)
		Wildlife and Environmental Society of Malawi(WESM)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이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Committee, PMC)와 프로젝트이행위원회(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PIC), 그리고 Community Committees(CCs) 등 3개의 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대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현지 NGO가 관리 및 사업 이행 등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지 NGO들과 마을 커뮤니티, 시장과 연합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파트너로 협력하였다.

사업의 특징은 지역의 분수령 관리를 위한 물 분야 사업이지만, 분수령은 산림과 천연자원, 농업과 어업 등 다양한 환경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환경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업 지역의 수자원 및 천연자원 관리는 토양 퇴화, 물고기의 다양성 및 수 감소, 천연식물 저하, 수질 및 수량 감소, 현지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사

업을 통하여 천연 자원과 물고기 관리가 개선되었으며, 천연자원 관리는 45개 마을에서 733가구가, 지역 어업은 12개의 커뮤니티 위원회의 831명의 구성원과 17개 마을의 143개 어업 관련 업체들이 관여하였다. 또한 산림과 작물 다양성, 그리고 기업 개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92]

또한 다양한 민관기관들이 협력하여 통합된 전략으로 수요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참여 기관 중 대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리와 행정을 담당하였고, 실제 사업의 수행은 현지 NGO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지 사업은 하나의 NGO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 전문 NGO와 농업 및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93]

마) 교통

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GDA 프로젝트들은 모두 대기오염과 방지 및 완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분석되는 교통 프로젝트는 4개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도시화 사업의 향후 중요성을 인지하여 개별 섹터로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4개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15> 교통 분야의 GDA 사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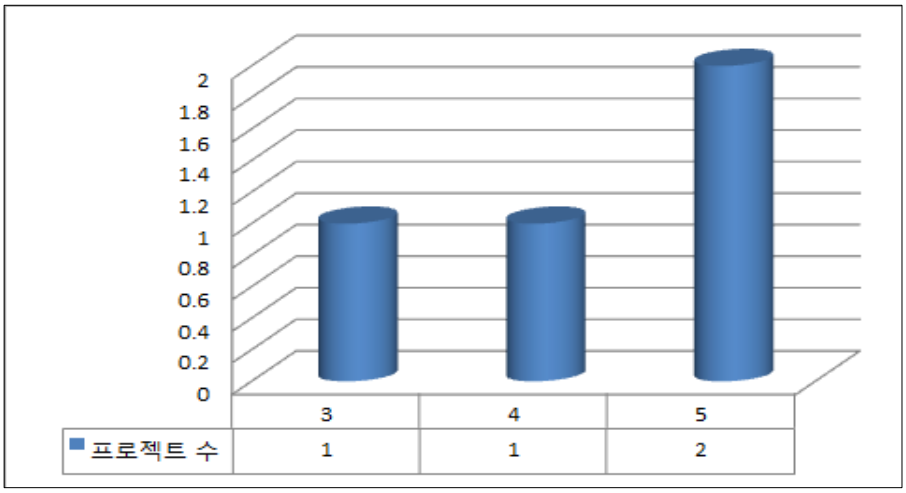
유형	상세내용	대표사례	
		프로젝트	사업내용
대기오염 완화	대중교통 정책 개선 및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도시내 교통 혼잡도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 (인도)
		Kathmandu Electric Vehicle Alliance	전기자동차 사용 증진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네팔)

92) Chia Partner Alliance. 2008. CHIA LAGOON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FINAL REPORT. p. 1.
93) Ibid. p. 70.

		Air Pollution Reduction in Land Transport Sector	대기오염 물질 및 공기질 개선 (스리랑카)
		Developing Integrated Emission Strategies for Existing Land (DIESEL) Transport Alliance	디젤엔진의 오염문제 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개선 및 기술적 대안 마련 (태국, 아시아)

이 프로젝트들의 사업기간별, 파트너 수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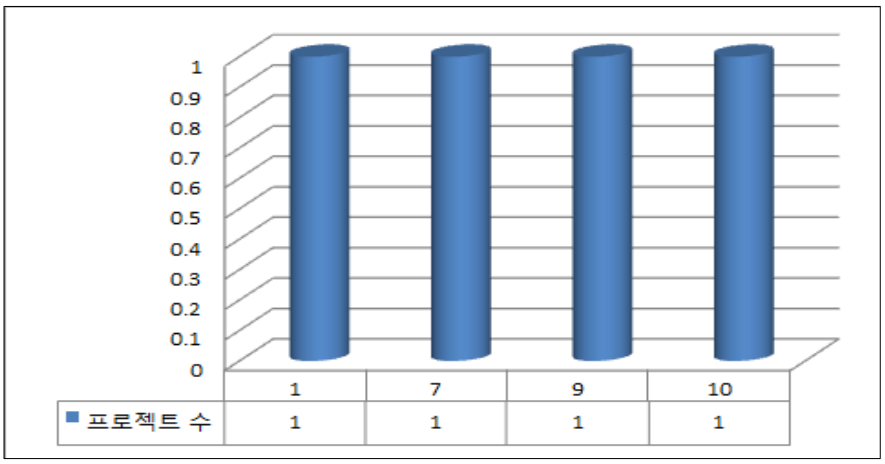
<그림 3-27>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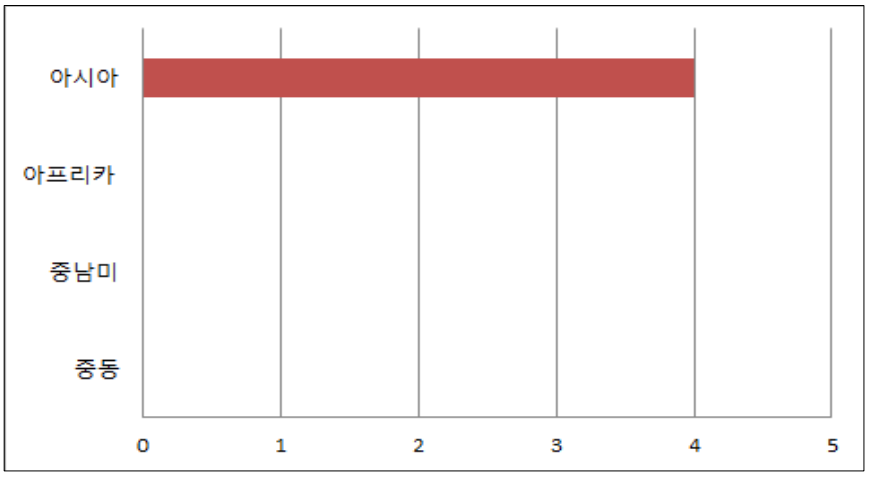
대기오염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과 결과 측정이 오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단기 사업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트서 수의 경우 세 프로젝트에서 7개 이상의 많은 파트너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기오염 및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자동차 업계와 같은 산업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8> 파트너 별 분석



<그림 3-29> 지역별 별 분석



지역별 분포의 경우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 및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미 매년 오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할 정도로[94]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USAID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과 함께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Clean Air Initiative를 설립하였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94) 인터넷 주소: http://cleanairinitiative.org/portal/aboutus (접속일자: 2012년 7월 10일)

① 대표사례

사업명	Developing Integrated Emission Strategies for Existing Land (DIESEL) Transport Alliance	
기간	3년(2004-2006년)	
국가	태국	
분야	교통	
파트너	재정지원	USAID
		Planning and Development Collaborative International(PADCO)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World Bank
		City Government of San Francisco
		Government of Thailand
		Manufacturers of Emission Controls Association
		Thai Bus Business Association
		Anti-Air Pollution Foundation
	사업실행	Clean Air Initiative for Asia Cities(CAI-Asia)
		Pollution Control Department(Government of Thailand)
예산(LOP,$)	USAID	500,000
	Partners	4,946,962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이 사업은 USAID와 United States-Asia Environment Partnership (USAEP)에 의해 제안되었고, 방콕의 디젤 사용 차량들의 특정 유해 배출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태국 정부 및 지방기관 차원에서 정책 개선 및 기술 반영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5]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디젤 운송동맹에 대한 통합적인 방출전략을 세우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교통 문제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인 디젤 차량 오염 배출 감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식 기반의 도구(tool) 제공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적 지침 제공 방안 등을 구축하였다.

95) Clean Air Initiative for Asia Cities(CAI-Asia) 인터넷 주소: http://cleanairinitiative.org/portal/node/518 (접속일자: 2012년 7월 10일)

주요 파트너로 USAID와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과 미국의 컨설팅 기업인 Planning and Development Collaborative International(PADCO)의 재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City Government of San Francisco)와 교통 및 대기 전문 NPO인 Manufacturers of Emission Controls Association(MECA)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태국 정부의 교통 · 대기 부서와 태국 버스 비즈니스 협회(Thai Bus Business Association), 관련 NGO인 Anti-Air Pollution Foundation 등 태국 현지 기관들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아시아 지역의 도시 대기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국가 네트워크인 Clean Air Initiative for Asia Cities(CAI-Asia)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국제기구,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UN과의 협조 하에 도시 교통 및 대기 오염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② 협회 참여 유형

사업명	Kathmandu Electric Vehicle Alliance(KEVA)	
기간	5년(2002-2006년)	
국가	네팔	
분야	교통	
파트너	재정지원	USAID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DANIDA)
		European Union(EU)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nrock International(WI)
		the San Francisco Clean Cities Coalition(SFCCC)
		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EDTA)
	사업실행	Planning and Development Collaborative International(PADCO)
		Winrock International(WI)
예산(LOP,$)	USAID	967,624
	Partners	2,671,553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USAID의 'Clean air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네팔 카드만두 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네팔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수명이 다한 자동차 및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심각한 대기오염 및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네팔에서의 대기오염 개선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산을 위한 한계점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2)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과 기술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기오염 개선 및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라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 범위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이 참여하여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 및 관련 기술 및 사업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활동이 진행되었다.[96]

해당 국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개발NGO인 PADCO가 본 프로젝트를 USAID에 제안하였고, 이후 다른 파트너들의 참여를 통해 Alliance 가 결성되었다.[97] USAID를 비롯하여 EU,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 KEVA를 통해 직접적으로 펀딩을 담당하였으며, 처음 프로젝트를 제안한 PADCO 및 Winlock international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시 및 자동차 협회인 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역시 본 프로젝트의 재정분담을 일부 담당하였으나 이러한 재정지원적인 측면보다는 정책 제안 및 지원 등의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공여국	정부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국제기구	European Union(EU)
	기업	Planning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PADCO)
	민간기관	City Government of San Francisco
		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수원국	NGO	Winrock International

96) 인터넷 주소: http://cleanairinitiative.org/portal/node/746 (접속일자 2012년 6월 12일)
97) Keva. 2003. Keva annual report for 2003. 2p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정부, 원조기관 및 지역 NGO, 산업계, 협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참여하였고, 따라서 네팔의 당시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 및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라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뿐 아니라 대기 오염의 영향 하에 있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진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과정에서의 상당한 조율 및 조정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정부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한동안 사용이 중지되었던 전기 버스를 재활용하는 등 직접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협회(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가 직접 참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네팔의 시장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협회가 단순한 이익단체로써 잠재시장을 개척하려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네팔의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네팔의 산업계가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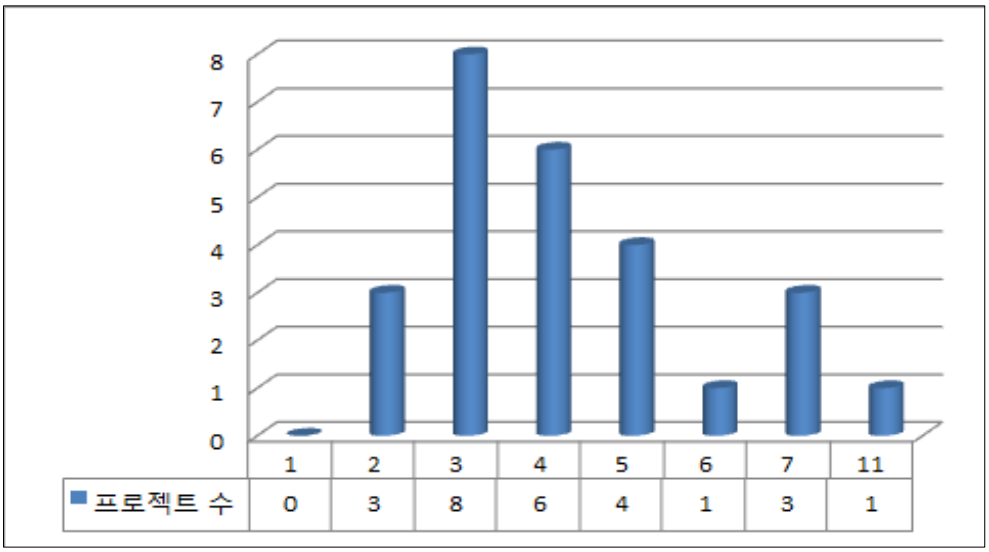
기타 분야의 GDA 사업은 총 43개인데, 생물다양성 보전, 에코투어리즘, 역량강화, 환경보호의 4개 부문의 목적으로 사업을 유형화할 수 있다.

<표 3-16> 기타 부문의 GDA 사업 분류

목적	상세내용	대표사례	
		프로젝트 명	사업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기금 마련 및 네트워크 형성	Simandou Alliance	광산 개발 산업이 해당 지역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최소화(기니아)
에코투어리즘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 육성 통한 환경 보호 및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	Supporting Environmental and Community through Ecotourism (SENCE)	지역산업 역량강화 통한 에코투어리즘 지원(스리랑카)
역량강화	기후변화 예측 등 GDA 4개 구분에 특정하게 해당하지 않는 이슈에 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진행	Climate Change Tracking Alliance	위성 기반 기후변화 예측 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환경보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Cordillera Azul National Park Phase Out Activity	Cordilera 지역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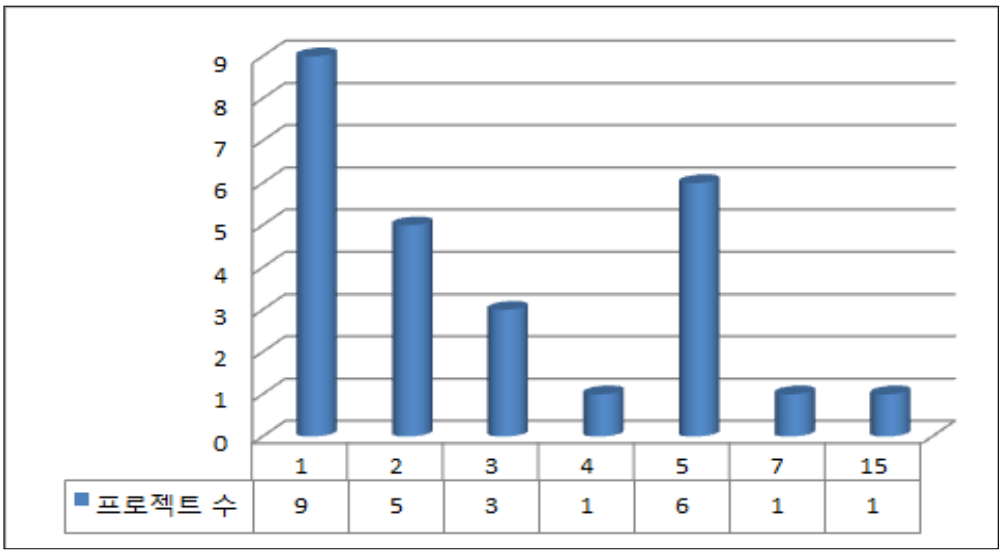
기타 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농업, 산림 등의 GDA 섹터와 관련이 있으나,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 위의 4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기타 분야 사업의 사업기간별, 파트너 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30> 사업기간 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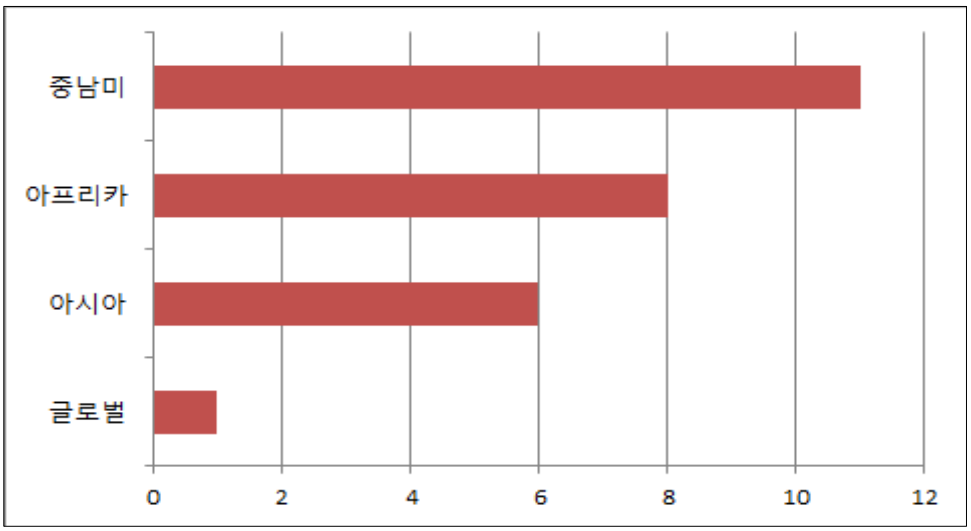
사업기간의 경우 다른 섹터의 프로젝트와 같이 3-5년 기간의 프로젝트가 가장 일반적이다. 6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는 교육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역량강화 및 에코투어리즘 섹터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1> 파트너 수 별 분석



파트너 수를 분석한 결과, 단독 파트너와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주 내용이 교육, 인지제고 등으로 이루어 질 경우 단독 파트너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32> 지역 별 분석



기타 영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남미 사업은 역량강화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시아 지역은 에코투어리즘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① 크로스 커팅 이슈

사업명	Nicaragua Forestry, Agriculture, and Ecotourism Alliance	
기간	5년 (2006-2010년)	
국가	니카라과	
분야	농업, 조림, 에코투어리즘	
파트너	재정분담	USAI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UNDP-Global Environment Facility
		Kraft Foods International
		Mitsubishi Foundation
		Roy A. Hunt Foundation
	사업시행	Rainforest Alliance
예산(LOP,$)	USAID	3,657,415
	Partners	6,100,000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이 사업은 기후변화 이슈의 복합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과도 관련되는 크로스커팅(cross-cutting)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파괴로 인한 자원의 감소 및 식량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생태계 파괴 및 생물 다양성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영역에서의 기후변화 사업 역시 개별 분야에서의 접근 보다는 다양한 이슈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을 알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은 1)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규모의 기업과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와 수입 증진, 2) 해당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 3) 생물다양성 보전인데, 이는 농업, 조림 이슈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을 접목시킨 것이다.[98] 이 사업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던 Rainforest Alliance가 USAID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적 접근을 꾀하게 된 것으로 자금지원에 있어 USAID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도 참여하였다. 미주개발은행은 2008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Mitsubishi사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Mitsubishi사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Kraft food International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커피와 같은 농업 생산물을 국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루트를 형성하였으며, 스타벅스 등이 PPP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세계시장 판매용으로 구매한 것과 같이 이들 생산물을 공급체인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있던 UNDP는 Small Grants Program을 통한 자금 지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Roy A. Hunt Foundation도 자금지원을 하였다.[99]

이렇게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NGO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각 중점분야에서 사업을 이끌어 내고,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결합되어

98) Rainforest Alliance. 2010. Nicaragua Sustainable Forestry, Agriculture and Tourism Alliance(NIFATA) Final Report. p. 3.

99) 인터넷 주소: http://www.eco-index.org/search/results.cfm?projectID=1110 (접속일자: 2012년 6월 6일)

사업 초기에 계획되었던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2800만 달러가 파트너들로부터 확대지원 되었다.

공여국	기업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Kraft Foods International
		Mitsubishi Foundation
	국제기구	UNDP-Global Environment Facility
	NGO	Rainforest Alliance
		Dutch Volunteers Service(SNV)(네덜란드)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영국)
	재단	Roy A. Hunt Foundation
수원국	기업	Banco del Exito(BANEX)
		Nicaragüuita Tour
		Small, and Medium Tourism Enterprises (CANTUR)
	NGO	TECUILCAN
	민간기관	Instituto Nicaraguense de Turismo(INTUR)
		Nicaraguan Network of Rural Community Tourism(RENITURAL)
		FENACOOP
		FENIAGRO
		Association of Small Hotels(HOPEN)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최근 20년 동안 관광산업이 점차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동시에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개발이라는 큰 목적 하에 관광, 농업, 조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NIFATA 사업은 '따로 또 같이'의 형태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었다.

1) 니카라과에서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 및 현황 분석, 2) 호텔 및 가이드 등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훈련, 3) 1:1 분석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개선방안 지원, 4)지

역 은행(BANEX)의 참여를 통한 자금 지원, 5) 에코 라벨링과 홍보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100] 해당 사업은 지역의 관광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약 1,400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 친화적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생물권 보호, 관광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현재 니카라과의 관광청과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농업 및 조림 사업의 경우, Rainforest Alliance가 USAID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시행하였던 Certified Sustainable Project Alliance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니카라과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등재된 Bosawás Biosphere Reserve를 비롯하여 삼림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목재와 광물 채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보호 및 운영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미비하였다.[101] 따라서 동 사업에서는 역량강화 및 지역 민간 파트너 참여와 투자 증진, 에코 라벨링과 품질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세계식량기구(FAO)와 니카라과 산림청이 공식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 및 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방지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102]

이 사업에서의 시사점은 USAID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던 NGO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함으로써 특별한 시행착오나 어려움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초과달성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성공은 니카라과 정부의 관심을 끌어 산림청 및 관광청과의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을 통해 일본 Mitsubishi사가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은 PPP 사업에서 국제기구가 다른 행위자들을 끌어들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00) Rainforest Alliance. 2010. Nicaragua Sustainable Forestry, Agriculture and Tourism Alliance(NIFATA) Final Report. p.6-7.
101) Ibid. p.15.
102) Ibid. p.19.

② 역량강화

사업명	Environmental Compliance Capacity Building Program	
기간	6년 (2005-2010년)	
국가	카자흐스탄	
분야	역량강화	
파트너	재정분담	USAID
		The Eurasia Foundation (EF)
		A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사업시행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ENU)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UNM)
예산(LOP,$)	USAID	483,000
	Partners	757,000

○ 사업 배경 및 파트너 분석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농업, 제조업이나 오일과 가스 같은 원료 생산 등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무기제조 및 시험 시설과 발전소 등 구 소련의 유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본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이 지역에서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잘 훈련된 환경 엔지니어 및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된 환경관리자 및 엔지니어 교육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 및 권한, 운영은 전적으로 유라시아 국립대학에 맡겨져 수원국의 기관에게 오너십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뉴멕시코 대학이 커리큘럼 구성 등의 학위 운영과정을 보조한다. 학위는 환경적 전문성과 기술성을 교육하기 위한 2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뉴멕시코의 교수진들이 유라시아 국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USAID, The Eurasia Foundation(EF), AES,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은 본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USAID와 AES는 유라시아 재단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학자들이 뉴멕시코 대학에 방문하여 학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하였다.[103]

공여국	국제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기업	AES
	민간기관	The Eurasia Foundation(EF)
		The University of New Mexico(UNM)
수원국	민간기관	Eurasian National University(ENU)

○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적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교육 프로젝트와 달리 환경 관리자 및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형 고등교육 프로젝트로서 해당 국가가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후원자들이 유라시아 재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혜국의 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그 지속가능성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존의 교육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3) Tim J. Ward 외. 2007. 'Development of the Masters of Science Degre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Engineering at the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Kazakhstan: A Global Partnersh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education: Portugual(발표자료)

2. 덴마크 Danida

가. PPP 개념 및 역사

덴마크의 개발협력은 민간부문활성화를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두며,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빈곤감소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꼽는다. PPP의 전반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통하여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104] 더욱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CSR과 투자기회 확대 및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PPP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PPP는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의 인권, 노동기준, 환경, 투명성 및 반부패에 해당하는 10가지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05]

<표 3-17> UN 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

가치기준	원칙	내용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노동기준 labor standards	3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수범한다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Danida의 PPP 프로그램은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Danida는 세 가지 방식으로 민관협력을 추진

104) Danida. 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pport Facilities i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Danida. p. 5.
105) Ibid. p. 4.

하는데 이는 Danida Business Contracts, Danida Business Finance, Danida Business Partnerships이다. 덴마크의 경우 Danida가 유·무상 원조를 함께 진행하며, 민관협력에서도 이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추진되는데 전자의 DB Contracts와 DB Finance가 조달, 차관, 보조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원조에 속하며, 후자인 DB Partnerships은 무상원조 형태의 PPP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B Partnerships을 중심으로 Danida의 PPP 사업을 분석할 것이며, 사업 선정 기준, 조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듈과 함께, 기후변화분야의 PPP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Danida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하여 파트너 국가[106]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 지역 파트너에게 덴마크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현지 빈곤층의 노동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Danida는 Business to Business(B2B)와 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IPD)를 운용하며 두 기업 간의 협력 혹은 기업, NGO, 연구기관, 지역정부와 함께 하는 혁신적인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 B2B와 IPD를 통합하여 현재는 Danida Business Partnerships(DBP)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는 DBP 예산이 100만 DKK이상인 모든 파트너 국가의 'Business Development Profile' 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 대사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며,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 이 보고서에는 파트너국가의 개발정책 및 민간영역개발전략이 포함되며, Danida가 선정한 개발 우선순위 등이 실린다. 뿐만 아니라 개발효과성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상업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영역과 분야에 대해 소개되어 있어 자국 기업들에게 PPP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6) 현재 26개국이나, 향후 감소될 예정.
인터넷 주소: http://um.dk/en/danida-en/activities/countrie s-regions/partner-countries/ (접속일자: 2012년 5월 9일)

○ 파트너십 선정 기준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DBP의 전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어떻게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업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107]

또한 각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 중 1-3개를 만족시키도록 요구된다. 이는 ①지역파트너의 경쟁력 강화, ②녹색기술의 사용 증가 및 외부환경보호 개선, ③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접근을 통한 가치 부가, ④식량안보 강화, ⑤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개선, ⑥지역경제통합 강화 이다.

○ 파트너십 구성 기준

DBP는 최소한 하나의 덴마크 기업과 개발도상국(현지) 파트너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덴마크 측 파트너는 덴마크 민간 기업으로, 핵심 비즈니스 가치 및 경쟁력이 파트너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재정능력 및 관리적·인적 전문성을 가지고 명확한 실적과 믿을만한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의 파트너는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경험을 갖추고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들 주요 파트너 이 외에도 필요시 '보완적 파트너'의 개념으로 다수의 덴마크기업, 현지기업,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파트너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도 다른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하고자 하는 파트너십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요 파트너, 즉 덴마크 기업과 현지파트너가 Danida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며, 반드시 'DBP 지원 일반 조항(General Conditions for Support under DBP)'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파트너는 동시에 보완적 파트너들이 동일한 일반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다.

---

107) Danida. 2012.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pp.2-3;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46.

보완적 파트너들은 주요 파트너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복사본을 대사관에 제출한다.[108]

<표 3-18>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추진 단계

단계	활동	지원 금액	기간
준비단계 (Preparation Phase)	• 파트너 선정 • 견학 • 예비투자 미팅 • 관련 연구 • 워크샵 • 비즈니스모델 초안	• 총 예산의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함. 그 금액이 75만 DKK를 넘지 않음.	1년 내
실행단계 (Implemetation Phase)	• 기술지원 및 훈련 • 파트너십 설립에 따른 비용 • BoP 타깃 활동 지원 • 혁신적인 접근방법 • 환경적 개선	• 총 예산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함. 그 금액은 500만 DKK를 넘지 않음.	3년 내

○ 파트너십 단계

파트너십은 준비단계(Preparation Phase)와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로 나뉘어 진행된다. 준비단계는 파트너십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그 목적으로 하며, 파트너 선정을 위한 초기 접촉부터 향후 실행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파트너십 및 비즈니스 모델 형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그 지원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시장분석, 집중연구,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개발효과성 평가, 트레이닝 및 기술원조 등 다양한 역할을 들 수 있겠다.

준비단계는 1년 내로 완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로서 실제 운용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모델이 도출되어야 한다. Danida는 이 단계에서 총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데, 총 금액은 최대 75만 DKK을 넘지 않는다.

실행단계에서의 목적은 비즈니스 모델에 명시되어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Danida는 실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지원 및 트레이닝, 파트

108) Danida. 2011.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nd Support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Danida. p.4-7.

너십 설립에 필요한 비용, BOP(Base of the Pyramid), 혁신적인 접근법, 환경적 개선 등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다.

Danida는 실행단계에서 최대 5백만 DKK 금액 이내에서, 총 비용의 최대 50%까지를 지원하는데, 지원비용은 앞서 준비단계에서 이미 지원했던 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다. 단, 예외적인 대규모 파트너십이거나 지역 파트너십일 경우 그 금액이 1천만 DKK까지도 가능하다. 실행단계는 3년 내로 완성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에 명시되었던 개발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모든 단계에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컨설턴트의 활용이 가능한데, 컨설턴트 선정은 파트너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컨설턴트는 파트너십의 주요 파트너로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외부 컨설턴트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파트너로서 참여할 경우에는 보완적 파트너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컨설턴트 활용에 드는 총 비용의 최대 30%까지 덴마크 대사관 측에서 상환한다.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파트너기업이 제공한다.[109]

○ 파트너십 지원 및 평가 과정

파트너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요구사항들은 DBP 홈페이지 혹은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파트너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식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에 앞서 'Partner Eligibility Form'과 'Partnership Eligibility Form'을 작성하여 덴마크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2주 내에 파트너 및 파트너십에 대한 기준과 국가 Business Development Profile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파트너십에 한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10] 이후 파트너십 탐색,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Danida 및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109) Danida. 2011.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nd Support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Danida. pp. 9-14.
110) Ibid. pp. 15-17.

○ 모니터링 및 평가

Danida Business Partnership 사업들의 보고 및 모니터링은 덴마크 대사관과 파트너십 참여 행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파트너십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기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각 세부 단계가 마무리 될 때마다 대사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경우 덴마크 대사관이 직접 행한다.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번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된 결과를 확인, 사업 실행의 과정을 평가한다.[111]

1) Business to Business Program (B2B)

B2B 프로그램은 덴마크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 간의 장기적인 사업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Danida는 덴마크의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이 덴마크의 기술과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덴마크의 기업들과 연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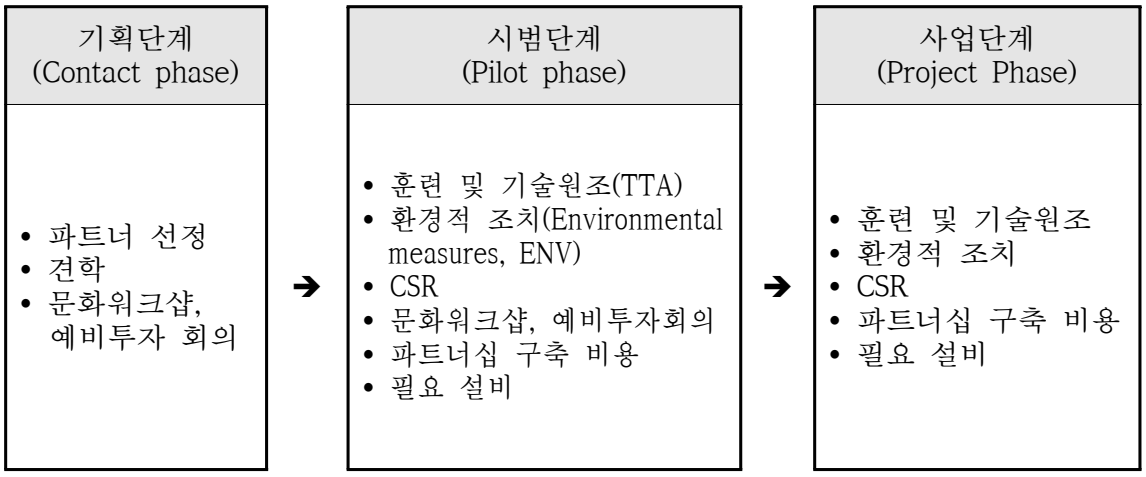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Danida의 개발목표와 일치하고, B2B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실행된다는 조건을 갖추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업 및 산업에 개방되어 있다.

B2B 지원 가능 국가는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 볼리비아, 부르키나 파소, 이집트, 가나, 케냐, 말리,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과,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이다. B2B 아래의 환경 분야 지원 프로그램인 B2B Environment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된다.

사업은 기획 단계, 시범 단계,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에서 Danida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템플릿에 지원서, 보고서 및 상환요청서(request for reimburs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11) Ibid. pp.18-19.

<그림 3-33> B2B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내용



2) 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I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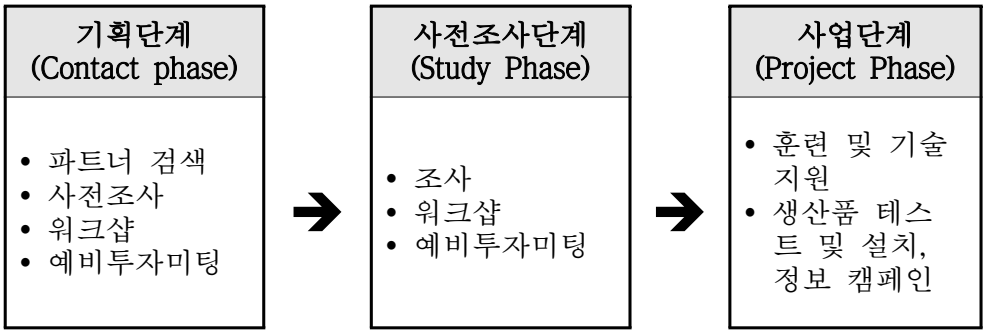
IPD는 기업의 전략적인 CSR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극빈층(Base of the Pyramid, BoP)의 자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 형태를 통한 원조와 경제적인 지원은 UN 글로벌컴팩트와 MDGs의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IPD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국가는 중점국가(focus countries)와 비중점국가(non-focus countries)로 구분된다. 중점국가의 경우, 덴마크 대사관이 참여기업에게 보다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점 국가와 차이가 있다.[112]

IPD는 B2B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각 단계별 Danida의 지원내용은 다음의 <그림 3-34>과 같으며, 참여기업들은 관련 지원서, 보고서 및 상환요청서 제출이 요구된다.

112) 중점국가: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이집트, 가나, 케냐,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비중점국가: 베닌, 부탄, 부르키나파소, 말리, 네팔, 잠비아.

<그림 3-34> IPD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내용



IPD 프로그램은 'Strategic CSR facility'와 'BoP facility'로 구성된다. 우선 '전략적인 CSR 사업'은 근로자, 그들의 가족, 지역커뮤니티, 더 넓게는 사회 구성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파트너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UN글로벌컴팩트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 기업의 기존 사업영역과도 일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거나,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적인 CSR 활동이 IPD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된다.

Danida가 BoP활동을 통하여 지원하는 파트너십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혁신'을 발달시키며 최빈곤층의 사람들이 겪는 가장 열악한 분야들을 포함한다. 이는 UN의 MDGs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빈곤층을 생산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포함시키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소득・고용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기반접근법을 활용한다.

다. 기후변화 PPP

Danida의 기후변화 분야 PPP는 B2B Environ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2011년 8월 이후 Danida Business Partnerships의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의 환경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급격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해결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Danida의 PPP 지원체제 변화를 통해 기존의 내용은 유지하되 파트너십 형성이 보다 유연해지고, 각 진행단계가 단순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본래 이 프로그램은 2010년 7월까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서 적용되었으나, 덴마크 정부의 새

로운 개발협력 전략에 따라 2012년 내에 중국에서의 프로그램은 종료될 예정이다.

Danida는 덴마크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간 장기적인 환경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 선정, 비즈니스 계획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장기 비즈니스 계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파트너십 모델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성향을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파트너십의 개발영향기준은 고용창출과 지역사회에의 긍정적인 영향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3-19> B2B Environment 내용

단계	내용	지원 금액
준비단계 (Preparation Phase)	• 파트너선정 • 기초현장방문 • 파트너십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최대 75만 DKK • 총 예산의 75% 까지
실행단계 (Implementation Phase)	• 기술원조 • 현지 파트너 스텝 훈련 • 파트너십 구축 • 환경적 개선	• 최대 500만 DKK • 총 예산의 50% 까지

B2B Environment는 준비단계(Preparation Phase)와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로 구분된다.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는 파트너선정, 기초현장방문(introductory visits),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실행단계에는 기술원조, 현지 파트너 스태프 훈련, 파트너십 구축, 환경적 개선 등이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총 예산의 75%까지 지원가능하며, 이는 최대 75만 DKK이다. 준비단계가 성공적일 경우에만 실행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총 예산의 50%까지, 최대 500만 DKK를 지원받을 수 있다. Danida는 모든 사업에서 덴마크 기업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적합한 현지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파트너십이 결정된 후에는 본 프로젝트 시작 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끔 재정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 B2B Environment의 집중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

공급 및 처리, 고형폐기물 관리이다.[113] 2009년에 처음 도입된 터라 비교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Landfill Gas to Energy,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Sustainable Design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각 프로그램의 기후변화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20> B2B Environment 사업 분야 구분

분야	사업 명
에너지	•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 Sustainable Design
폐기물	• Landfill Gas to Energy

Landfill Gas to Energy의 경우 파트너십 참여 회사끼리 합작회사를 만들 만큼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나, 나머지 두 프로젝트는 기초조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파일럿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개수는 많지 않지만, Danida가 목표로 하는 덴마크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의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1> B2B Environment 사업별 내용

사업명	내용	참여기업	
		현지	덴마크
Landfill Gas to Energy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기술이전	PT Gikoko Kogyo, Panca Bhakti Utama	GasCon ApS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 소프트웨어 기반의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이전	PT Hyprowira Adhitama	Weel & Sandvig
Sustainable Design	• 에너지효율적인 그린빌딩 건축에 필요한 기술 이전	PT Pandega Desain Weharima	ag5 A/S

113) 인터넷주소: http://um.dk/en/danida-en/activities/business/partnerships/b2b-programme/b2b-environment/ (접속일자: 2012년 4월 2일)

1) Landfill Gas to Energy

Landfill Gas to Energy 프로젝트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해 주고, 안전과 공공보건과 관련한 지역정부 관료의 역량강화, 지속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배출할 수 있는 관리능력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은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LFG)에 갇혀있는 메탄가스의 분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기술로서 기후변화대응 상품이다.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PT Gikoko Kogyo Indonesia는 Pontianak, Bekasi, Palembang, Makassar의 지방과 BOT, BOO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강수량과 매립지에서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 때문에 LFG 추출 시스템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덴마크 기업인 GasCon ApS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0년 5월에 90만 DKK규모의 파일럿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GasCon이 추출시연을 포함한 프로그램 디자인, 실내 · 현장 실습 등을 주도하였고, 이후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Gikoko는 여기서 전수받은 기술과 디자인, 노하우를 다른 도시의 매립지에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2010년 말까지 추가로 296만 DKK를 지원받았다.

2011년 5월에는 Gikoko와 GasCon이 합작벤처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향후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양국에서의 트레이닝과 기술 원조를 통하여 기술이전 과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2)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프로젝트는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미국의 기준을 준수하는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가진 덴마크기업이 인도네시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PEM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하는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전통적인 연속측정시스템(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System, CEMS) 만큼 정확할 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들이 준수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복잡한 설치과정이나 까다로운 보수유지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덴마크 기업 Weel&Sandvig은 이 기술을 현지기업인 Hyprowira Adhitama에 전수해주었으며, 초기 파일럿 단계를 통하여 PEMS 기술을 테스트하고, 정부 관료와 잠재적 클라이언트에게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명하였다.

Danida는 이 과정에서 현지 방문을 통한 파트너 선정부터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파일럿 단계에서 99만 4천 DKK를 지원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트레이닝과 기술원조에 집중되었고, 탄소배출 모니터링 과정에 해당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현지기업인 PT Hyprowira Adhitama는 오일, 가스, 전력생산, 펄프 및 재지 분야에 고객층을 가진 기업으로 필터생산자로써 참여하는데,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모니터링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3) Sustainable Design

Sustainable Design은 건물의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연간 평균 7%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겨우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이룰 정도이다. 정부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과 보전을 우선순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생태기반 도시를 구성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 비영리단체인 Green Building Council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장잠재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파트너십은 덴마크 건축회사인 ag5 A/S와 현지 건축회사인 PT Pandega Desain Weharima(PDW)가 참여한다. 각 회사는 통합에너지디자인(Integrated Energy Design, IED)-그린빌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ag5는 에너지효율적인 빌딩을 디자인하는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PDW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현지에서 사용가능한 재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였다.

Danida는 파트너십 초기단계에서 필요했던 수차례의 현지방문(contract trip)의 비용인 17만 5천 DKK를 지원하였고, 그 다음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는 총 78만 1천 DKK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12개월간 진행되는 파일럿단계는 ag5가 PDW에게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트레이닝과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3. 독일 GIZ

가. PPP 개념 및 역사

독일은 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의 참여가 MDGs 등 개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기업의 CS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영역과의 개발파트너십인 PPP에 중점을 둔다.[114]

독일의 PPP는 민간부문과의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자원, 전문성, 관리능력을 포괄하는 계약이다. BMVBS(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는 PPP를 장기적 계약에 기반을 둔 민관의 상호 협력으로 정의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목적을 두며, 필요한 자원은 민관 공동으로부터 투입된다. 위험부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자에게 분배되며, PPP를 통하여 공공부문은 엄격한 공적 예산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115] 독일은 PPP를 자선사업이라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민간파트너는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16]

독일의 개발협력에서 PPP는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와 Private Sector Participation(PSP)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자는 국가 기간 인프라의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보통 에너지, 전기통신, 운송 및 수자원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후자는 공공 사회 인프라로서의 교육과 보건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다.[117]

PPP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독일 BMZ(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을

114)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MZ. p. 4.
115) PwC. 2011. PPP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 an overview and approach. GIZ. p. 11;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MZ. p. 10.
116) GTZ. 2011. Guidelines for iPPPs – Indonesia. GTZ. p. 5.
117)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MZ. pp. 9-10.

통하여 공공-민간영역의 해외 활동을 연결시키고, 협력을 통하여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인적자원, 시간,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는 PPP 프로그램의 10주년을 맞아 'develoPPP.de'로 명칭을 바꾸었다.[118] 지금까지 70여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30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활동하였다.

나. 사업방식

독일 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과의 협력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BMZ는 협력의 기본적 형태를 소규모의 재정지원 혹은 공동재정부담 형식,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 민간부문과의 개발파트너십 구축, PPP, 민간 및 공공자원의 동원 및 조합, 개발도상국 내의 민간투자를 위한 재정적·상담 서비스로 구분한다.[119] 그리고 각 범주별로 하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공·민간협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3-22> 민간부문과의 기본 협력 형태

기본협력형태	구체적 형식/모델 (예시)
소규모의 재정지원 혹은 공동재정부담	• 자선·후원 • 사회적, 생태적 후원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과정 • 제도적 대화 • 관계자의 플랫폼 (CSR 라운드테이블) • 다분야간 네트워크 • 협회
민간부문과의 개발파트너십 구축	• 아이디어경쟁으로 구축된 개발파트너십 • 전략적 동맹 • 라운드테이블
PPP	• 성과기반 서비스 계약 • 결과중심원조 • 관리계약 • 양도 • 계약, syndicated financing • BOT, BOOT, DBO • 민영화, 세일 • 상업은행을 통한 credit line • 사적펀드관리
민간 및 공공자원의 동원 및 조합	• 다양한 위험이 내재된 구조화된 펀드 • 보험 • 출자자본 참여

118) 인터넷주소: http://www.gtz.de/en/leistungsangebote/2362.htm (접속일자: 2012년 3월 25일)
119)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BMZ. p. 6.

	• 마이크로파이낸스 은행의 새로운/추후 투자 • 자본시장개발 • 대규모 공동파이낸싱계약
개발도상국내의 민간투자를 위한 재정적・상담 서비스	•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투자 위한 재정지원

출처: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BMZ. p.6.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민간파트너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개발목표를 준수할 것과 민관행위자의 상호 보완, 보조, 민간부문을 통한 기여,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한 파트너 선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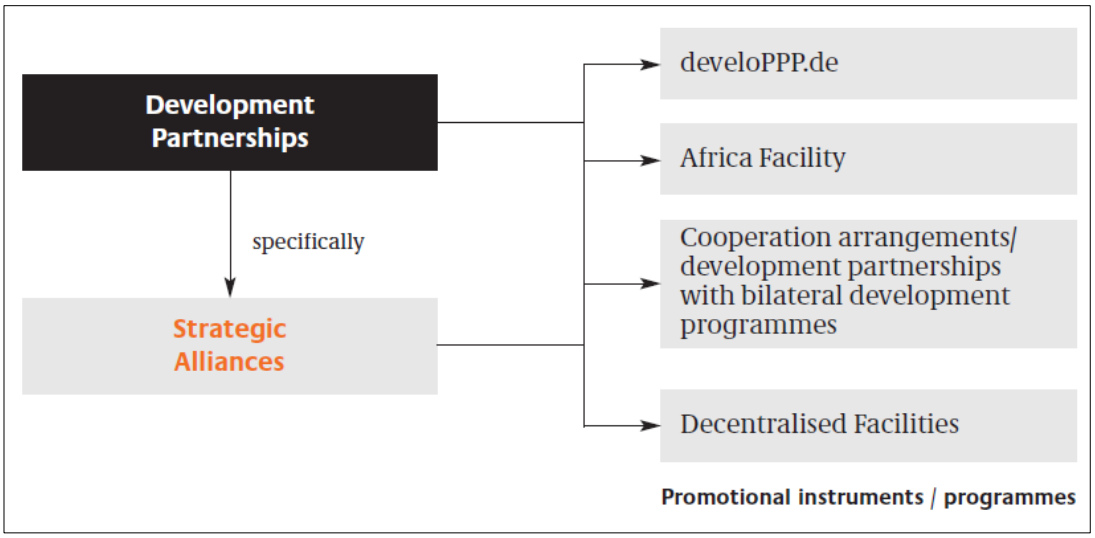
<표 3-23> 독일 PPP 선정 기준

기준	내용
개발목표지지 compatibility	• 프로젝트의 목표가 개발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보완 complementarity	• 민관 행위자가 서로 보완하여 낮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더욱 빠르게 협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보조 subsidiarity	• 기술협력을 통한 참여는 민간파트너가 공공파트너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만 가능함. 즉, PPP에 참여하는 민간의 역할은 회사의 기본적 비즈니스 활동을 뛰어넘는 투입(input) 만을 포함함.
민간부문의 기여 Contribution	• 민간은 반드시 최소한 총비용의 50%정도의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 또는 현물로의 기여를 해야함
공정한 경쟁 fair competition	• GTZ는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기업에게 PPP 기회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파트너 선정 과정을 가져야 함

출처: GTZ. Guideline for iPPPs - Indonesia. GTZ. p.6.

본 연구에서 다루는 PPP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공공파트너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관일 경우와, 두 번째는 공공파트너가 개발도상국의 정부부처 혹은 정부원조기관일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은 develoPPP.de의 경쟁과정을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 BMZ의 지역 기금(facility), 기술협력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유형은 협력모델의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개발도상국의 정부부처, 정부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은행,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5〉 독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파트너십 유형



출처: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MZ. 9.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민관협력의 형태는 'develoPPP.de'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develoPPP.de'는 앞서 언급한 경쟁형태의 PPP와 전략적 동맹형태의 PPP를 포괄하여 진행된다. BMZ가 재정을 지원하며, DEG(독일 투자개발공사), GIZ(독일기술협력공사), sequa(국제개발·직업훈련재단)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MZ는 develoPPP.de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 활동이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일 및 유럽 기업을 지원한다.

〈표 3-24〉 develoPPP.de 유형

유형	내용	비고
develoPPP.topic	독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에 민간의 개입을 지원	하향식
develoPPP.innovation	주요 분야 이외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지원	상향식
develoPPP.alliance	장기간에 걸친 다자간 참여의 joint 프로젝트	전략적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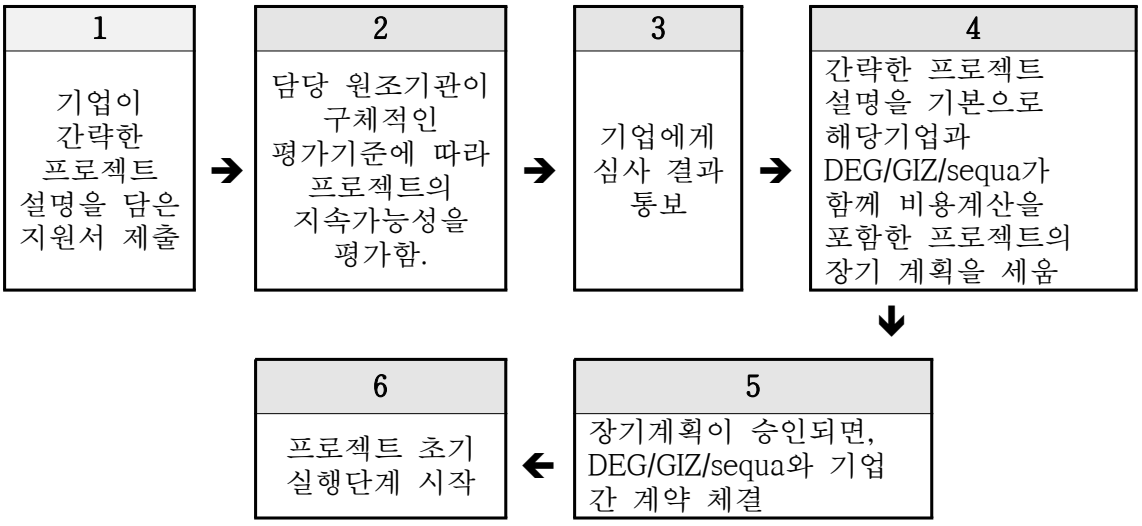
develoPPP.de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develoPPP.topic과 develoPPP.innovation은 아이디어 경쟁(ideas competition)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develoPPP.alliance는 전략적 동맹으로서 장기간·다자간에 이루

어지는 파트너십이다.

develoPPP.topic은 DEG, GIZ, sequa이 선정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이 되며(top-down), develoPPP.innovation은 정해진 분야 이외의 모든 혁신성, 창의성을 가진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bottom-up).

DEG, GIZ, sequa는 일 년에 수차례 아이디어 경쟁을 열어 사업을 선정한다. 현재 DEG는 에너지, 자원, 기후보호, GIZ는 수자원, 농업분야 사업(agribusiness)프로젝트, 종 다양성 보호, sequa는 직업훈련, 교육 및 자격취득(qualification)의 핵심 경쟁력을 겨룰 수 있는 유형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사업은 최대 19만3천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제별 공모 및 오픈된 공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독일의 개발협력이 민간영역으로부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36> 아이디어 경쟁부문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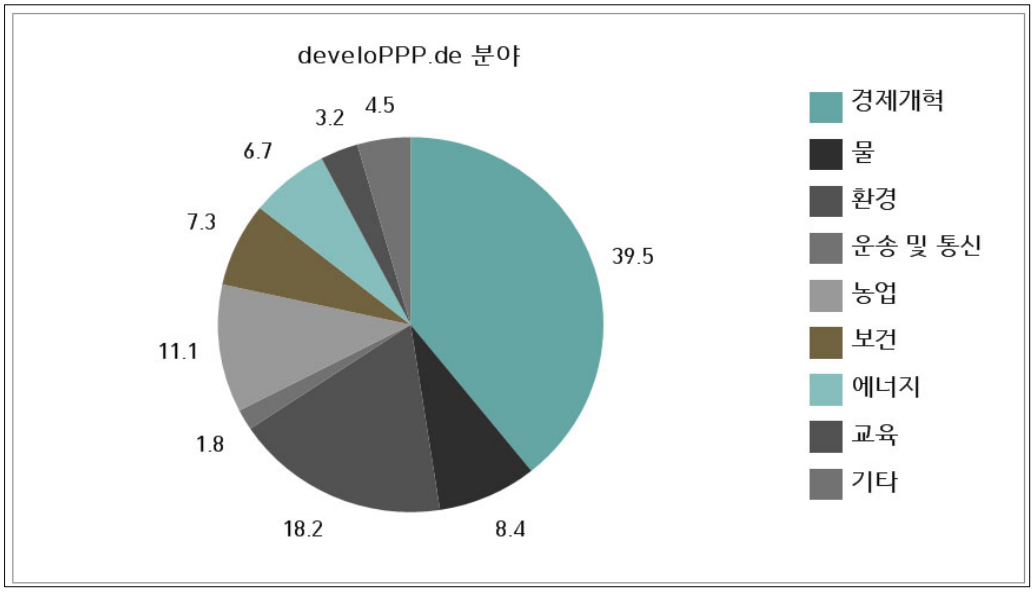
출처: BMZ. 2011. develoPPP.de-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GIZ. p.9.

파트너 선정은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 재정지원 가능성,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보장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최소한 10명 이상의 고용인, 해당분야에서의 3년 이상의 경력 및 1백만 유로의 자금회전력(turnover), 현지 국가에서의 장기간 사업적 계획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 스탭구성, 내용면에서 프로젝트의 실현시킬 책임을 져야 하며, 이렇게 갖추어진 파트

너십은 3년 내로 마무리 짓되, 추후에는 기업이 혼자 지속시켜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120]

develoPPP.de의 지원 분야는 경제개혁 (39.5%)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환경(18.2%), 농업(11.1%), 물(8.4%) 등의 순서이다.

<그림 3-37> develoPPP.de의 지원 분야



출처: develoPPP.de 홈페이지 http://www.developpp.de/en/sectoraldistribution.html.

develoPPP.alliance는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으로서, 다수 행위자의 참여, 다수의 실행국가, 대규모 투자 등의 성격이 특징이다. 또한 개별 기업의 영역을 벗어나는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개선 문제를 다루며, 보통 광범위한 지역 혹은 부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과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영향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공공재원이 제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적 동맹의 선별은 정성적 기준 7개와 정량적 기준 3개 중, 정성적 기준 6가지를 만족시키고, 최소한 2개의 정량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정성적 기준은, ①지침이 되는 프로젝트일 것(beacon project), ②구조 형성 효과(structure-building results), ③다수의 민간파트너의 참여, ④광범위한 영향, ⑤혁신, ⑥프로젝트를 유사모방 할 수 있어야 하며, ⑦전략적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량적 기준은 ①초지역적인 디자인

120) BMZ. 2011. develoPPP.de-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GIZ. p. 9.

일 것, ②최소 2개 민간파트너의 참여, ③총 규모가 75만유로 이상일 것이다. 전략적 동맹의 예로는 개발도상국에 사회적, 생태학적 기준을 소개하는 이니셔티브인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4C)와 아프리카의 면화 사업 PPP인 ‘Cotton Made in Africa’를 들 수 있다.[121]

<박스 3-4> 전략적 동맹 사례: 아프리카 면화 사업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약 2천만 명의 사람이 면화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국제적 면화가격이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지급이 종종 연기되는 바람에 소작농들은 좋은 품질의 울(wool) 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면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업 화학약품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 때문에 농부들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하였다.

2005년 Otto Group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Cotton made in Africa’ 사업은 이러한 면화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소작농들의 수입원을 보장하며, 생산성 향상 및 건강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섬유산업 무역업자 동맹은 최소한의 사회적 생태계적 기준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Otto Group이외에도 다수의 섬유 기업들, DEG, GIZ, 독일 기아구조기구(Deutsche Welthungerhilfe), WWF, 아프리카 면화 생산자 등이 참여하였다. DEG는 develoPPP.de 펀드와 함께 해당 이니셔티브를 공동재정지원하며, 면화 재배와 가공과정에 투자를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는데에 기여하였다.

부르키나파소와 잠비아에서는 DEG의 파트너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파일럿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출처: BMZ. 2011. develoPPP.de –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GIZ. p. 6.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PPP는 다양한 목적, 분야, 내용 및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의 성과를 최대화시키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점검사항을 내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GIZ는 PPP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을 제시한다. 다음의 <박스 3-5>는 독일 PPP프로젝트의 체크리스트로, 제시된 총 24개 항목 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과 프로젝트 실행 시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21) 인터넷 주소: http://www.developpp.de. (접속일자: 2012년 3월 25일)

〈박스 3-5〉 독일 PPP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프로젝트실행주체	• 민간영역과의 장기적인 계약관계 체결에 대한 공공관료의 의지이해 • 정부 관료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 실행 경험이 있는지 프로젝트 팀의 관련된 경험 및 교육경험 평가 • 프로젝트 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규명
프로젝트	•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장과 수요 규명 • 공공과 민간이 프로젝트 시행 시 수반될 위험을 공평하게 부담하는지 • 예상되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프로젝트 전체 규모 평가 • 핵심 PPP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PPP 모델을 발전시킴 • PPP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될 특정 서비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역 및 공공 관료의 목표 규명 • 입찰 평가를 위한 기준 설립 • 프로포절 평가를 위한 기준 설립 • 투명성과 반차별을 보장하는 원칙 설립 • 출구전략 설립

출처: GIZ. 2011. PPP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 an overview and approach. GIZ, BMZ. p. 45.

이러한 develoPPP.de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은 앞서 언급하였듯 GIZ(독일기술협력공사), DEG(독일투자개발공사), sequa(국제개발직업훈련재단)이다. 각 기관은 develoPPP.de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IZ는 2011년 기존의 독일개발원조기구(DED), 독일기술협력공사(GTZ), InWEnt-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이 통합된 기관으로 연방정부 소유의 공기업 성격을 띤다. GIZ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분야에서의 독일정부를 지지하는데 PPP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업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GIZ의 주요 업무는 파트너들의 프로젝트 계획과 전략 수립을 돕고, 파트너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국제협력행위자간의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트너국가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역시 GIZ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PPP프로젝트에서는 기술이전, 직업훈련,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환경・사회적 기준에 대한 소개 및 인지제고,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표 3-25> PPP에서의 GIZ의 역할

성격	역할
환경 및 사회 기준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 정책형성자와 기관 등에 관련 있는 환경기준 및 사회 기준에 대한 인지제고 • 산업환경보호에 대한 훈련 • 국제적 환경 및 사회 기준 소개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 새로운 생산 테크닉 및 기술 소개 • 지역 직업훈련시스템 강화 • 전문성 및 관리직 인적자원 향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industry	• 개도국의 공급자와 계약자 자격부여 • 지역 트레이너 훈련 • 무역협회 및 기타 엄브렐라 조직 지원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Competence-building in agriculture	•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배 기술, 지속가능한 현장 관리, 생태적으로 가능한 병충해관리, 다양한 재배기술 및 곡물저장 기술 훈련 • 생산자협회 및 기업 훈련 지원 • 마케팅 노하우 전수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 현지 기업에 새롭고, 친환경적인 기술 도입 지원 • 연구 및 교육기관 촉진 • 파일럿 기금 지원
재정서비스 Financial Services	• 은행권 훈련 제공 • 금융기관을 위한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사회 이니셔티브/사회 서비스 Social Initiatives/social services	• 건강보험스킴 소개 • 피고용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메디컬케어 시스템 도입 지원

출처: GIZ http://www.gtz.de/en/leistungsangebote/2596.htm

DEG는 1962년 설립된 독일정부 소유의 개발은행 그룹인 KfW Bankengruppe의 회원으로 1999년부터 BMZ자금으로 개발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의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를 담당하는 기본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개발협력에서는 개발과 비즈니스 관점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양립가능한 성격을 띄어야한다.

PPP에서는 파트너국가들에서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차관, 중간층금융(메자닌 파이낸싱, mezzanine financing), 자지분참여(equity participation), 보증 등의 수단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매 단계에서 개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sequa(국제개발직업훈련재단)는 비영리기업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개

도국 및 체제전환국가에서의 직업훈련 증진을 목표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직업훈련, 교육 및 자격취득을 들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코칭(coaching)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민간영역발전, BMO(Business Membership Organization)의 역량강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전문가 파견, 직업교육 및 훈련 이라는 다섯 가지 비즈니스 성격이 포함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develoPPP.de 메커니즘 내에서는 비즈니스개발서비스, 민간영역촉진, 해외무역증진, 정책대화, 지역 경제발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sequa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보통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 민간기업, BMO이다.[122]

다. 기후변화 PPP

독일의 기후변화 분야의 PPP는 develoPPP.de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5>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은 PPP 수행에 있어 환경, 농업, 물, 에너지 등의 기후변화관련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develoPPP.de에서 아이디어경쟁부문 공모에서 제안하는 주제들은 ①직업훈련, 트레이닝, 인적자원개발, ②그린시티-도시환경보호, ③농촌발전, ④천연자원, ⑤자연보전 및 기후보호. ⑥에너지, ⑦민간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123] 이 중 4가지 분야[124]가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독일이 수행했던 약 3천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 중, 현재 develoPPP.de에서 공개하고 있는 23개의 프로젝트의 정보를 취합하였다. 그 중 기후변화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에너지, 물(수자원), 산림(녹지), 농업, 폐기물, 교통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표 3-26>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기후변화 분야 사업은 총 16개로 농업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물, 에너지 순이다. 또한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기타 카테고리에는 다섯 가지의 사업이 속하는데, 이는

122) BMZ. 2011. develoPPP.de –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GIZ. pp. 12-14.
123) 아이디어경쟁부문공모는 <http://www.developpp.de/en/current_ideas_competition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속일자: 2012년 4월 30일)
124) 4가지 분야: 그린시티-도시환경보호, 농촌발전, 자연보전 및 기후보호, 에너지

대부분 교육 및 인지제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플라스틱, 금속, 나무 가공 및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오염 감소에 효과적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전수해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농업분야의 프로젝트들은 보통 농업 상품 및 품종에 대한 인증제 실시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 및 기술을 전수해주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소득증대 뿐만 아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에너지 분야는 태양열에너지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이 포함되며, 물 분야에는 수자원처리 시설, 물 순환이용 시설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

〈표 3-26〉 develoPPP.de 프로젝트 - 기후변화 분야 구분

분야	사업 명
에너지	• Solar Energy for Madagascar • Energy for India (biogas plants)
물	• German technology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 Composting plant opens up market opportunities • Water treatment plants for Mexico
농업	• Certified sha nut products from Mali (인증) • Indian organic spices (교육, 가공공장설립 등) • Organic Farming in Cote d’ lvoire (인증제 및 교육) • Strategic alliance “cotton made in Africa” • Quality Honey from Vietnam (교육)
교통	• the future of Megacities
기타	• Eco-friendly plastics from Brazil (플라스틱 제조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 • Quality wood and metal from Belarus (금속 및 나무 가공 과정 시의 측정 및 시스템 제공, 교육) • Community center for Kenyan flower farmers (교육, 보건 등)

기타분야에 속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지제고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화훼,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목재 가공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4. 소결: 3개국 비교분석

지금까지 주요 양자간 원조기구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히 기후변화에서의 PPP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현재 비교적 PPP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을 받는 USAID의 GD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덴마크 Danida와 독일 GIZ의 PPP는 차관, 보증금 지원 등의 유상원조 유형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상원조 PPP형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표 3-27> USAID, Danida, GIZ의 PPP 추진 유형

기관	사업발굴 특징	재정지원방식 (매칭비율)	파트너십유형	기후변화 PPP 집중 분야	기타
USAID	• 민간제안 • 공공제안 • 공동협의	유연함	• 정부, 기업, NGO 3자 이상	• PPP 11개 우선순위 영역 중 농업, 에너지, 환경 포함	• 회의, 워크샵 등 통해 민간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컨셉페이퍼 활용, 프로젝트 설계는 민관이 함께 발전시킴
Danida	• 공동협의	유연함	• 덴마크 및 현지 기업 각 1개씩.단, 필요한 경우 보완적 파트너로 참여 가능 (수 제한 없음)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업 및 산업 가능.단, DBP Environment는 인도네시아에 국한됨	• PPP 통한 비즈니스목표 명시 • 파트너십 탐색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 지원 • Business Development Profile 작성해 실행 가능한 PPP사업들 소개
GIZ	• 민간제안 • 공공제안 • 전략적 파트너십	분담 비율에 대한 코멘트 없음. 단, 최대 19만 3천유로까지 지원 가능	• 다수의 파트너 참여 가능	• 우선분야 선정 없음. 에너지, 물, 산림, 농업, 폐기물, 교통 등 포함됨	• 사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기업의 재정능력 꼼꼼히 확인함 • GIZ, DEG, sequa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짐

우선, USAID의 GDA는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PPP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GDA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재단, 협회 등 여러 민간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ODA를 융합하여 기업의 이익 및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SAID는 PPP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비즈니스 네트워크, 회의,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민간행위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PPP사업을 발굴하는 행위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제안, 공공제안, 정부-민간 공동협의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다채로운 파트너십과 사업의 유형을 보인다.

사업 예산 분담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파트너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 수산업, 환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SAID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파트너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anida는 Danida Business Partnerships을 통하여 PPP사업을 추진하며 덴마크 기업과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과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조성할 있게끔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DBP 프로그램의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역에 관해서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Business Development Profile'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의 시장현황 및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PP사업에 관심있는 덴마크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현지기업과의 미팅을 주선하기도 한다.

Danida의 PPP사업은 자국 기업 및 현지기업 1개씩의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기업, NGO, 재단, 대학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이 상업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기업의 CSR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anida는 단순한 사업 재정지원을 넘어 연구, 워크샵, 예비조사 현장방문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것은 사업의 준비단계를 철저히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DBP의 모든 사업은 준비단

계와 실행단계로 구분되는데, 준비단계의 경우 일종의 시범사업(pilot)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성과 등을 가늠한 후에야 실제 실행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 PPP의 성공도가 높아지게 된다.

독일의 PPP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자원, 전문성, 관리 능력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PPP는 BMZ의 주관 하에 develoPPP.de라는 이름으로 GIZ, DEG, sequa에 의해 공동 수행된다. 각 기관들은 민간파트너들에게 직업훈련, 관련정보 인지제고, 기술이전, 파일럿기금 지원, 현지 노하우를 통한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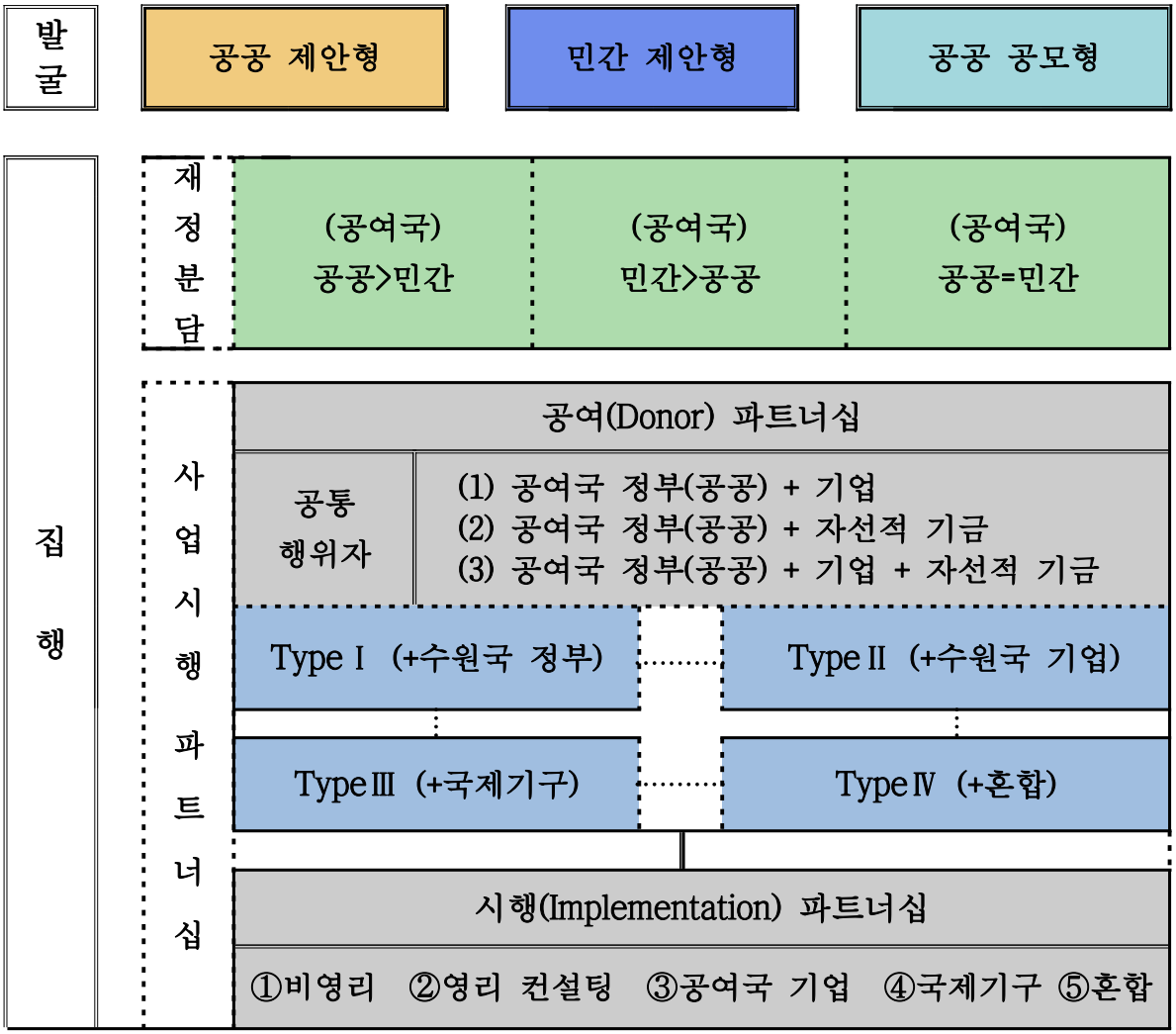
사업 발굴은 민간제안, 정부제안, 공동협의방식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각 기관이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들 중 연간 비정기적인 공모가 진행되며, 이외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서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대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는 편이다. 또한 사업 지원 첫 단계에서는 간단한 컨셉 페이퍼만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민간파트너와 각 기관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사업 참여에 있어 민간파트너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개별 공여국들은 개발협력분야에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혁신적 재원으로서 민간파트너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공통된 PPP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 NGO,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USAID, Danida, GIZ는 모두 민간행위자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에게 사업 가능성 및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사업발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민간제안, 공공제안, 공동협의의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간제안과 공공제안의 경우에도 가장 첫 단계에서는 파트너에게 컨셉페이퍼 제출만을 요구하고, 선정 이후 민관이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그림 3-38>는 USAID, Danida, GIZ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PPP사업의 추진 모형을 발굴과 실행을 기준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는 다른 개발협력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38> PPP 사업 추진 유형



PPP 사업의 발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여국 원조기관의 공모를 통해 민간행위자(공여국 또는 수원국기업)가 경쟁을 통하여 참여하는 '공공 제안형'이다. 이것은 원조기관이 설정한 우선순위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정기·비정기적으로 공모를 내어 가장 실현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민간주체가 공여국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

형’이다.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업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원조기관과 기업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공공협의형’이다. ‘공공협의형’은 ‘Chicken or Egg’라는 기존의 PPP 사업 발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데, 많은 경우 컨퍼런스, 비즈니스 회의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집행은 크게 재정분담과 사업시행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사업 참여 주체들이 분담하는 정도에 따라 공공 행위자가 총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민간행위자가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비율을 분담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공공행위자와 민간행위자는 공여국과 수원국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사업시행 파트너십은 우선 공통 참여자로서 공여국 정부를 기본으로 기업과 자선적 기금의 참여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①공여자로서 기업만이 참여하는 경우, ②자선적 기금만이 참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③기업과 자선적 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기본적 프레임워크로 둘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에 따라 ①수원국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Type Ⅰ), ②수원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Type Ⅱ), ③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경우(Type Ⅲ), ④여러 파트너가 참여하는 경우(Type Ⅳ)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Implementation)파트너십은 ①NGO, ②영리컨설팅, ③공여국 기업, ④국제기구, ⑤여러 파트너가 실행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이렇듯 PPP 추진 유형은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사업발굴과 재정지원, 사업실행 등을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과 민간의 협의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앞선 주요 원조기관의 PPP사업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실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유형이 발전해가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4장 해외현지조사 사례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Ⅳ. 기후변화 대응 PPP의 분야별 수원국 현지 사례분석

1. 사례조사 개요

제 4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7개 부문인 에너지, 물(수자원), 산림(녹지), 농업, 폐기물, 교통, 기타(에코투어리즘, 생물다양성, 역량강화, 인지제고 등)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례, 특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에서 계획 및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 사업들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 · 분석한다.[125]

이들 국가들의 PPP 사례들은 서론의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PPP 사업을 활발히 시행중인 미국, 덴마크, 독일의 양자간 원조기관인 USAID, Danida, GIZ의 사업 지역(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특정 수원국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지원방향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ODA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협력전략(CPS)[126]을 통해 현재 유무상 통합협력전략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등 3개 국가를 함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아래 <표 4-1>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 기후변화대응 분야(에너지, 물(수자원), 산림(녹지), 농업, 교통 등)의 민관협력(PPP)사업 사례들을 보여주고, 사업 지역과 공여국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공여국 주체로서 미국의 USAID가 다수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분석 사례는 에너지 분야와 물(수자원) 분야가 각 3개씩, 산림 분야 5개, 농업 분야 4개, 그리고 교통 분야 및 기타 분야가 각 1개씩 포함되어 있다. 각 분야별 사업명과 사업 주체 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25) 본 연구팀이 현지 인터뷰조사를 시행한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지역의 PPP 사례들과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조사한 나머지 지역의 PPP 사례들 간에 분석 및 내용의 깊이와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126) 한국 정부는 원조 효과성과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26개 중점 협력국에 대한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 사업 사례 개요

분야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지역(수원국)	공여국
에너지	1) PAKLIM-OSRAM	인도네시아	독일
	2) 그라민 샥티	방글라데시	미국 (USAID)
	3) REEEP	솔로몬군도	REEP (본부 비엔나 소재)
물 (수자원)	4) JHUCCP	인도네시아	미국 (USAID)
	5) Clean Water for Communities	베트남	미국 (코카콜라 등 다국적 기업)
	6)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가나	미국 (USAID, 코카콜라 등)
산림 (녹지)	7) GFTN	인도네시아 등	미국 (USAID) 및 다국적기업
	8) IPAC	방글라데시	미국 (USAID)
	9) SLP	인도네시아	미국 (USAID)
	10) 자연재해 대응사업	베트남	일본 (JICA, 대학 등)
	11) HONDA 조림사업	베트남	일본 (JICA, 대학), 기업 (HONDA) 등
농업	12) AMARTA	인도네시아	미국 (USAID)
	13) IRRI	방글라데시	미국 (USAID)
	14) SUCCESS	베트남	미국 (USAID), WCF
	15) GHPPP	가나	미국 (USAID), 대학, 기업, INGO 등
교통	16) ITDP	인도네시아	미국 (USAID)
기타	17) CBEP II	가나	다국적기업 (Barclay 등) 및 NGO(NCRC 등)
	18) PSES	방글라데시	독일 (GIZ)

2. 에너지 분야

<표 4-2> 에너지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그라민 샥티	USAID 등 지원 그라민 샥티 수행	농촌 지역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증진 & 지역사회 역량 발전
PAKLIM-OSRAM	독일 & 인도네시아 정부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로조명 사업
REEP	REEP & 솔로몬군도정부	도서지역 에너지시설 공급 및 설치

가. Grameen Shakti[127] (방글라데시)

1) 사업의 배경

그라민 샥티 사업은 방글라데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 동부, 인도 및 미얀마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48,000km^2 정도로 한반도의 2/3 넓이에 해당한다. 인구는 2011년 현재 약 1억 6천만 명에 달하며 수도인 다카(Dhaka)에는 공식 통계상 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적으로는 열대 몬순 지역이다.[128]

방글라데시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145kWh로 세계에서 가장 낮게 집계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국민의 40%만이 일반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접근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총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음식조리와 조명에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의 분뇨, 나무, 대나무가 음식 조리의 주 연료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조리 시 발

127) 인터넷 주소:
http://gda.usaid.gov/alliances/;
http://www.unep.or.kr/;
http://www.theuntoday.com/attachment/cfile23.uf@134DBE3D4E8CFC310EFC84.pdf (접속일자: 2012년 2월 1일), 한바란 외. 2010.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128)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생하는 오염된 공기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침이나 천식 같은 질병을 겪고 있다.

한편, 지형적으로 방글라데시는 태양광 에너지 이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조량이 많고 태양열이 뜨거워 7~8월 우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시간당 6.5㎾의 태양복사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129] 또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청정개발체계(CDM)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전력문제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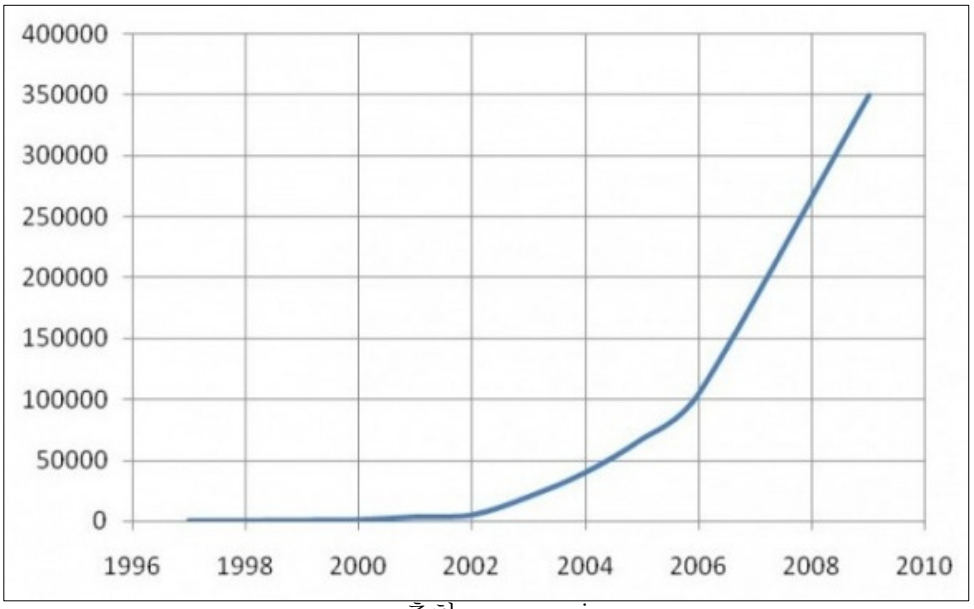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그라민 샥티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소액대출)의 효시가 된 그라민 은행의 자회사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인데, USAID의 지원으로 Grameen Shakti & Nishorgo Fuel Wood Energy Reduction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라민 샥티는 그라민은행에서 얻은 소액금융의 경험을 살려 농촌지역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증진 및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역량 발전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료나 전기기구의 사용 대신 태양광기술을 이용한 시장기반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2007년까지 110,000개 이상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Solar Home System)를 설치하였고, 특히 엔지니어나 훈련 분야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제에도 기여하였다. 현재 750만 명의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외원조 자금을 기반으로 2012년까지 총 100만대의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29) 인터넷 주소: http://pdp.kw.ac.kr/new/participation (접속일자: 2012년 2월 1일)

<그림 4-1>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SHS) 설치 현황



출처: www.reein.com

이와 같은 그라민 샥티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공여국/원조기관에 직접 민간 주체(그라민 샥티)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형' 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으로 미국 USAID 에서 상당한 부분의 재정 지원을 전담(특히 사업 초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공여(donor) 파트너십은 공통 주체(actor) (3) 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 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나. PAKLIM-OSRAM (인도네시아)

1) 사업의 배경

PAKLIM(Policy Advic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은 독일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력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1,904,000km^{2}로 한반도의 8.5배에 달하는 넓이의 국토를 가지고 있고,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해 있다. 총 인구는

2011년 현재 2억 4천6백만에 이르며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에는 약 912만 명(2009년)이 거주하고 있다.[130]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4,200불 정도이며,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4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업이 38.3%, 제조업 12.8%로 이뤄져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부존자원과 2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노동력이 경제적 강점으로 뽑히며,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빈부격차가 큰 것이 약점으로 여겨진다.

PAKL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향한 지역의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적절한 예산, 경제 수단 및 지침과 함께 동반되는 기후변화 전략 및 정책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보전 증진 및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발전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및 기준을 갖추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PAKLIM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감축 행동계획(NAMAs) 틀 속에서 이러한 정책 및 기준들을 정비하고 집행한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PAKLIM-OSRAM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LED 가로조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국가감축 행동계획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AKLIM은 인도네시아의 저탄소발전에 있어 민간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세계적인 조명 시스템 기업인 OSRAM과 협력하여 에너지 분야 PPP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OSRAM은 방전 램프, 일반 조명용 램프, 자동차용 램프, 반도체 생산용 램프 등을 생산하고, 지멘스(Siemens)의 자회사로 본사는 독일 뮌헨에 위치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LED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성 및 발전을 이루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PPP 사업을 통해 PAKLIM과 OSRAM은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의 온

130)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pp. 3-5.

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델로서 에너지 효율적인 가로 조명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PAKLIM-OSRAM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공여국 및 원조기관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공공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공여(donor) 파트너십은 공통 주체(actor)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에 수원국 정부가 협력하는 유형인 Type I 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공여국 기업이다.

다. REEEP (솔로몬군도)

1) 사업의 배경

REEEP(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은 솔로몬군도 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솔로몬군도는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도서지역, 파푸아 뉴기니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8,896km^{2}의 섬나라이다. 총인구는 2011년 현재 약 57만명 정도이며 수도는 호니아라이다.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2,900불 정도이며, 산업구조는 어업, 광업, 목재업 등이 주를 이룬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이 경제적 강점이나 제조업이 미비하고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경제적 약점으로 꼽힌다.[131]

REEEP는 2002년 요하네스버스에서 열린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회변화추구 비영리 기관(change agent) 이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 군도와는 2009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131)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pp. 11-12.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REEEP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Pacific Micro Energy Service Companies(PMESCOs) 설립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솔로몬 군도와 키리바시에서 도시와 떨어진 시골지역에 소형 태양광 발전(PV) LED 광 시스템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규모 융자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마이크로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소형 태양광 발전(PV) LED 광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석유등을 교체하여 탄소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PMESCOs 사업의 주요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솔로몬군도와 키리바시에 Micro-Energy Service Companies(MESCOs)을 통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Light Up the World (LUTW)이 태양광 LED 시스템을 구매, 판매 및 설치한다. 두 번째로, 소규모 융자제도로 지원된 90개의 소형 태양광 발전(PV) LED 광 시스템을 조립, 설치, 유지, 관리할 현지 직원을 발굴하고 훈련한다. 세 번째로, 탄소 발생 감소를 위한 Project Identification Note(PIN)를 개발한다.

REEEP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공여국/원조기관에 민간 주체(REEEP)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공여(donor) 파트너십은 공통 주체(actor)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3. 물(수자원) 분야

<표 4-3> 물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JHUCCP	USAID 등 지원 JHCCP 수행	물을 포함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및 보건 교육·훈련 사업
Clean Water for Communities	코카콜라 등 기업 & 베트남 정부	우물 및 화장실 건축, 식수·위생에 관한 교육 강화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USAID, 코카콜라 등 & 가나 정부	식수·위생시설 제공 및 물자원 관리 개선

가. JHUCCP (인도네시아)

- 존스홉킨스 공공보건대학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센터 (JHUCCP: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

1) 사업의 배경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프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1,904,000km^{2}로 한반도의 8.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해있다. 총인구는 2011년 현재 2억 4천6백만에 이르며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에는 약 912만명(2009년)이 거주하고 있다.[132]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4,200불 정도이며,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4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업이 38.3%, 제조업이 12.8%로 이뤄져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부존자원과 2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노동력이 경제적 강점으로 뽑히며,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빈부격차가 큰 것이 약점으로 여겨진다.[133]

이와 같은 지리적, 경제 ·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주요한 환경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질오염 문제이다. 인도네시아의 하수처리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도시의 지

132)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pp. 11-12.
133) Ibid. pp. 8-9.

표수와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으로 위염과 장티푸스 전염을 초래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 블룸버그 공공보건대학 산하 연구소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센터(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는 보건과 개발 이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30여개국 현장에 600명 이상의 활동가가 활동 중이다. JHUCCP의 중점 분야는 사회 및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지식 관리 및 전파,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전략적 지지・지원, 연구 및 평가 등이다.

JHUCCP-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환경서비스 프로그램(Environmental Services Program, ESP)이 있다. 이 사업은 수자원 관리 향상 및 인도네시아의 깨끗한 물 접근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보건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AID 등의 기관이 지원하여 5년간(2004~2009)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DAI(Development Alternatives Inc.)의 지휘 하에 JHUCCP가 참여하고 있다. JHUCCP는 프로젝트의 행동변화(Behavior Change) 요소를 위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확립 및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동변화는 커뮤니티 그룹, 학교시스템에 집중되었고, 만연한 설사 등을 감소하기 위해 비누로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등의 위생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와 함께 정기적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통하여 보건 인지제고 노력을 하였으며, 중요한 물, 환경, 보건이슈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134)]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최초의 사업 발굴은 USAID와 같은 원조기관이 특정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JHCCP가 관련된 제안서(컨셉페이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JHUCCP-인도네시아는 환경 및 보건 부문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식수와 관련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USAID에서 60% 정도 재정지원(3년간 3백만불)을 하며, 나머지 40%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JHCCP가 민간영역의 파트너를 선택하고, 프로모션, 광고, 디자인, 홍보 등을 담당하며, 다른 기관들이 참여할 수

134) 인터넷 주소: http://www.jhuccp.org/whatwedo/projects/environmental-services-program-esp 접속일자: 2012년 2월 13일);

있도록 홍보한다. 기업은 생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기술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또한, 환경서비스(Environment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식수 제공 및 위생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JHCCP는 보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역할을 맡고 있다. USAID와의 계약을 통해 DAI가 사업 수행의 주요 부문을 맡고 있는데, DAI가 다수의 파트너들을 선정하여 각 주체들에게 맞는 역할을 배정한다. 이 사업에서 JHCCP는 USAID와 이미 계약을 맺은 하위의뢰인(sub-client)의 위치를 가진다. 사업에 따라 JHUCCP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 보통 3-4개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다. 파트너마다 계약(contract) 혹은 협약 체결(MOU)을 하는데, 단순한 관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프로젝트에 관한 것은 계약 관계로 사업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측면에서는 매 분기별로 JHUCCP가 USAID에게 평가 보고를 하는데, USAID 혹은 USAID가 지정한 독립 컨설팅 업체에 평가를 맡긴다. 사업에 따라 하위의뢰인(sub-clients) 및 하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이들이 JHCCP에 평가내용을 보고하는 내부 모니터링·평가 과정을 갖는다.[135]

JHCCP의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 주체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공여(donor) 파트너십은 공통주체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혼합 유형이다.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JHCCP가 USAID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평가'와 사업 파트너들을 수시적으로 평가하는 내부모니터링의 '내부(수시)평가'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나. Clean Water for Communities (베트남)

1) 사업의 배경 및 주요내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331,000km^2로 한반

135) 현지 인터뷰 (일자: 2012년 3월 1일, 대상: Fitri Putjuk)

도의 1.5배 정도이며, 아열대성 기후에 속해 있다. 총인구는 2011년 현재 약 9천 만명 정도이며 수도인 하노이에 약 2백7십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3,100불 정도이며,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41.1%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38.3%, 농업 20.6%로 그 뒤를 잇는다. 경제적 강점으로 정치·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꼽히며, 반면에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이 약점으로 여겨진다.[136)]

코카콜라는 막대한 양의 수자원 사용이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인식하고, 베트남에서의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물과 위생을 중점으로 Clean Water for Communities 사업을 개발하였다. 베트남 현지 보건 공무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현지 파트너로서 CEFACOM(Center for Research Family Health & Community)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와의 협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활동은 우물 및 화장실(latrines)건축,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학생 및 지역주민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Thu Duc District(호치민시), Lien Chieu District(다낭시), Thuong Tin District(하노이)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Clean Water for Communities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 주체(기업: 코카콜라)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에 수원국 기업이 협력하는 유형인 Type Ⅱ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공여국 기업이다.

다. WADA (가나)

1) 사업의 배경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WADA)는 가나에서 USAID와 코카콜라회사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PPP 사업이다. 가나는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136)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pp. 8-9.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38,533km^{2}로 한반도와 거의 같은 크기이고 열대성 기후에 속해 있다. 총인구는 2011년 현재 약 2천5백만명 정도이다. 경제적 현황으로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2,500불 정도이며,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4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업 33.7%, 제조업 2.7%이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이 경제적 장점이나 인프라가 미비하고 외채가 과중한 것이 위험요소로 나타난다.[137]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WADA)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식수와 위생시설을 제공하고 물자원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USAID와 코카콜라 회사가 협력해 일궈낸 파트너십이다. WADA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사이의 타노강 유역 수질관리사업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사이 경계지역에 흐르는 타노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두 지역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물과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 화재와 토양침식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노강의 물을 직접마시고 있고 학교에서는 화장실과 안전한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WADA는 이 강의 관리를 협력적이고 평화적으로 하기위해 양쪽 국가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서 양 당국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주요 실행파트너인 CARE International을 통해서 WADA는 타노강의 수질과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업은 재조림을 하고 현지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면서 채취산업과 환경악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파트너 기관들은 화장실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공급시스템을 포함하여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학교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약 8,000명의 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4,000가정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ADA는 양 지역 간의 협력과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자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이 동등하게 물을 개발하고 경계사이의 지역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에는 국제환경기술재단(Glob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Foundation, GETF)의

137)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pp. 8-9.

지원으로,가나의 중앙지역과 아크라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크라에 있는 Lekma 북부와 Teshie커뮤니티의 남부지역 학교들을 중심으로 여자 화장실 및 푹신(Puxin) 바이오가스 바이오 위생(Marma Loo/Puxin Bio-gas Bio-sanitation) 화장실 시설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목표지역 주민들의 위생시설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며 효율적인 비용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의 개발 및 기존 시설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WADA 사업을 통해 약 9,600개의 학생들이 위생적인 바이오 공중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약 1조 2687억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DA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 주체(기업: 코카콜라)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공여국 기업이다.

4. 산림(녹지) 분야

<표 4-4> 산림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GFTN	USAID 등 지원 WWF 수행	산림 보호를 통한 산림관리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
IPAC	USAID 등 지원 CONIC 수행	습지 보호 및 산림보존, 사회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SLP	USAID &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보전가치 지역에서 벌목 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
중부 베트남 자연재해 대응사업	JICA, 대학 & 베트남 정부	산사태 및 홍수의 빈번한 발생의 취약성 개선
베트남-HONDA 조림사업	JICA, HONDA, 대학 & 베트남 정부	야산 조림사업을 통한 산악지역 주민 빈곤감소 및 관련 인재 육성

가. GFTN (인도네시아)

1) 사업의 배경

인도네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문제들 중에 하나는 대기오염 문제로, 차량의 증가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들의 발전에 따라 대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빈번한 산불 역시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오존파괴물질 발생 문제도 중요한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방출자로서 산림벌채와 산불 등 토지이용의 변화를 통해 전체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의 80%가 발생되고 있다. 더불어 산림 및 생태계 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가공 산업의 많은 생산량에 의해 산림 파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은 빈곤층 주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시골에 사는 빈곤층의 절반 정도가 전 국토의 60%를 이루고 있는 산림훼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전 세계의 10%를 차지하고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아직 서식하고 있는 곳이며, 동시에 벌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0년~2010년 사이에 산림지역의 20%가 훼손되었는데, 이는 아시아의 높은 목재 수요와 불법벌목이 주요 원인이었다. GFTN-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보호와 산림관리 개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GFTN(Global Forest and Trade Network)은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채벌을 없애고 산림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프로그램이다. 1991년에 수립되었으며, 국제적인 산림과 무역 프로그램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장기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GFTN은 ‘책임있는 산림관리와 무역’에 뜻이 있는 동 산업 공급망(supply chain)에 있는 공급자, 생산자, 구매자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까지 ‘책임있는 산림관리 및 무역’을 전 세계적인 표준 또는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벌목과 관련해 신뢰할만한 인증제도를 수립하고, 동시에

산림관리와 책임있는 구매를 가로막는 문제 및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38]

국제적으로 GFTN은 해양, 기후, 산림 분야에 집중하며, 전세계 약 30여개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산림관리 관련 최적관리기법 (Best Management Practice, BMP)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제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를 시행하여 환경을 배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을 갖는 환경보전형 산림경영으로 유도하고 있다.[139]

WWF Indonesia에서도 FSC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최저임금 보장과 고용 확대, 노동조합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환경적 · 생태학적 측면에서 목재에 관한 연간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합관리계획(integrated management plan)을 통해 수목종 보호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계획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140]

사업의 발굴은 현지 제안자가 WWF 본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부에서 이를 평가 및 선별하여 선택하는데, 이러한 제안서 선별 과정을 위한 전담 직원이 있다. 또한, WWR 현지 사무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내부적으로 공고를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WWF 관련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발굴한다. 기업들은 각각의 관심분야가 있어서,상황에 따라 WWF에게 제안서 관련 사항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WWF가 기업들의 공모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WWF 인도네시아는 중앙정부(산림부 등), 지방정부, 지역정부 등과 빈번한 토론회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업 관련 인지를 제고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Sida, USAID 등 공여원조기관 및 IKEA 등 기업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관리자와 옥외용 가구, 합판, 제재목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협력하고 있는데, 26개 기업의 18,900명의

138) 인터넷 주소: http://awsassets.panda.org/downloads/gftn_indonesia_factsheet.pdf (접속일자: 2012년 2월 13일); WWF. Global Forest & Trade Network- Local Forests, Global Markets.
139) 인터넷 주소: http://www.fsc.org/ (접속일자: 2012년 3월 20일)
140) 현지 인터뷰 (일자: 2012년 2월 28일, 대상: Dita Ramadhani)

근로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기업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워크샵 등을 개최할 때 숙소 및 차량 등을 제공하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활동과 재정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두 사항에 관한 평가 내용이 WWF 본부로 보고된다.[141]

GFTN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 주체(비영리: WWF)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민간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사업활동 및 재정상황을 WWF 본부로 보고하는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나. IPAC (방글라데시)

1) 사업의 배경

방글라데시의 IPAC(Integrated Protected Area Co-management)은 산림영역에서의 PPP 사업으로, 개인 후원과 다국적기업, 수원국 기업이 협력한 사업 형태로 GDA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IPAC은 1280만불 규모의 USAID와 계약한 5년 프로젝트로 2008년 6월에 착수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부처(수산・축산부와 환경・산림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특히, USAID와 방글라데시 Nishorgo Support Project (NSP)가 함께 방글라데시 Lawachara 국립공원에 자연통역센터(Nature Interpretation Center)를 설립하기 위해 개인 및 민간 영역의 기부를 중개하여 추진하였다.

IPAC의 주요 목적은 습지보호와 산림보존이며 방글라데시의 2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순도르반 지역의 방대한 산림지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NSP의 프로젝트에 따라 IPAC은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141) 현지 인터뷰 (일자: 2012년 2월 28일, 대상: Dita Ramadhani)

NGO를 비롯한 현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방글라데시의 숲을 보호하는 공동관리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Community Owned, private funded, Nature Interpretation Center (CONIC)에서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데, 이 센터는 지역 커뮤니티 소유로 운영되며, 생태 여행자(eco-tourist)들을 위한 정보센터역할로도 활용된다. 관광객들에게 생태관광 가이드(Eco-tour Guide)와 생태별장(Eco Cottage) 등 생태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시설은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 · 관리된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차원에서 NGO를 비롯한 현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IPAC은 USAID가 주요 지원기관으로 공모 경쟁(bidding)시스템을 통해 선정되었다. 협력파트너로 민간기업과 가구 관련 현지기업인 Hatil Furniture, Arong, Otobi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IPAC은 현지의 지역 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이외에 현지 NGO인 CODAC, CNRS, Bela, Asiatic와 INGO인 World Fish centre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현지 파트너로 활동할 NGO의 발굴에 관해서는 USAID 자체에서 방글라데시 현장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지역에서의 기업, NGO, 지역커뮤니티,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IPAC가 자체 모니터링 수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모니터링은 각 사업장(cluster)의 사무소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된다. IPAC은 USAID 본부의 국제지표를 따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표는 프로젝트에 따라 고유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 USAID는 조사관을 보내 사업을 모니터하고 사업지역을 직접방문하기도 한다. 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IPAC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문제점을 우선 모색하고, 이와 연관되는 사업 파트너의 재훈련을 도모하며, 이후 또다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파트너를 퇴출한다.

IPAC의 방글라데시 사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방글라데시에서 혹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시 명확한 아이디어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목적과 적합한 기업 및 사업수행자를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IPAC의 PPP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위로는 USAID와의 계약 및 아래로는 지역 주체들(기업, NGO 등)과의 하위계약(sub-contract)으로 이뤄진 다각적 협력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현지에서의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시켜 파트너 기업 및 NGO를 선택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IPAC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제안 및 선별한 '공공 공모형' 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수원국 기업이 협력하는 Type II 유형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주체가 USAID에 하는 '정기평가' 와 사업 파트너들(sub-contractor 등)을 수시적으로 평가하는 내부모니터링의 '내부(수시)평가' 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 SLP (인도네시아)

1) 사업의 배경

SLP(Sustainable Landscapes Partnership)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USAID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높은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에 초점을 두고 저탄소 산업의 발전을 통해 벌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인 PPP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NGO, 민간분야(기업), 정부가 함께 특화된 (산림)지역 기반 산업 발전을 통해 녹색발전 경로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SLP는 경제성장, 지역사회 발전, 환경 보호를 함께 이뤄가기 위해 과학적인 시장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 및 혁신적인 접근방법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산림 보호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제발전 기회, 근린 생활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선택된 숲과 들판에서의 보전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벌목 및 산림훼손 개선사업인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토지이용변화 투자를 통해 잠재적 온실가스 배출을 50% 이상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행지역의 저탄소 배출 산업의 발전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142]

SLP의 주요한 재정적 파트너로는 CI(Conservational International), USAID, 왈튼가족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 등이 있다.

이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사업을 제안한 '공공 제안형' 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의 동등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3) 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기금 유형에 수원국 정부가 협력하는 Type I 유형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혼합 형태이다.

142) the Sustainable Landscape Partnerships 인터넷 주소: http://www.conservation.org/global/celb/Documents/2011.12.15._SLP_Fact_Sheet_Letter_Global_4pg.pdf; http://www.conservation.org/about/centers_programs/s lp/Pages/sustainable_landscapes_partnership.aspx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현지인터뷰 (일시: 2012년 2월 28일 대상: Thomas J. Cody, Rebecca Carter)

라. 자연재해대응 사업 (베트남)

베트남은 가파른 산과 좁은 평지로 인해 산사태 및 홍수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 베트남 지역 자연재해 대응 사업'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JICA의 지원을 받아 교토대학교(Kyoto University) 국제환경연구 대학원으로부터 자문을 얻고 베트남 후에 대학(Hue University) 농림대학과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대응 사업은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마. HONDA 조림사업 (베트남)

베트남의 나무 남벌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어온 야산에 대한 조림사업을 UN CDM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HONDA가 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자금을 제공한 사업이다. 황폐화된 산지 회복으로 인근 산악지역 주민의 빈곤 감소와 조림 CDM 사업관련 인재 육성 및 제도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JICA, Honda 베트남 현지법인, 베트남 지방정부 및 베트남 임업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은 JICA와 현지정부가 제공하고, 시범사업자금은 Honda 현지법인이 제공한다. 현재 베트남 Cao Phong현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HONDA 조림사업은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민간>공공'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수원국 정부가 협력하는 TypeⅠ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공여국 기업이다.

5. 농업 분야

<표 4-5> 농업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AMARTA	USAID 등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	농업/원예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교육·기술 지원
IRRI-CSISA	USAID 등 지원 IRRI 수행	쌀 관련 지식·기술 개발 및 보급, 미래세대 복지 증진
SUCCESS	USAID, WCF 등 & 베트남 정부	코코아 자작농 소득 향상 및 국제적 수확가공기술 발전
Water Resources Assistance Project	WB & 베트남 정부	관개수로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작물 다양화 및 생산성 증진
GHPPP	USAID, 대학, 기업, INGO & 가나 정부	식품 유통과정 발전 및 원예 공급과정의 기술 및 역량 발전

가. AMARTA (인도네시아)

1) 사업의 배경

AMARTA(Agribusiness Market And Support Activity)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위하여 농업분야 개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서비스 및 일자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Freeport McMoRan(미국 다국적 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력하여 견고한 농업사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5개년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가가치 농업 상품 및 원예생산품 등이 경제 성장, 고용 및 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낮은 투자, 부족한 인프라 및 저발전된 농업 기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AMARTA를 통해 기업, 농부 및 다른 주체들과 함께 효율성, 생산성, 생산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AMARTA 사업은 AMARTA Ⅰ(2006년~2011년)을 완료하고 AMARTA Ⅱ(2011년~2016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MARTA Ⅰ는 총 2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농산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국가 전역의 농부 및 마을 주민들에게 더 나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USAID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파트너십(U.S.-Indonesia Comprehensive Partnership)이 가

진 목표(번영 촉진,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민주주의 강화, 이해 강화 및 안전 보장)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작물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커피, 코코아, 원예에서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강조되었다. 관련 파일럿 사업들이 인도네시아 South Sulawesi, North Sumatra, Bali, West Java, and Papua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AMARTA II는 2012년부터 5년간 총 20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AMARTA I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며, West Java, North Sumatra, South Sulawesi, Bali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AMARTA II 사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①가치사슬(value chain) 개발(화훼원예, 코코아 및 커피 대상으로 기술 지원, 교육제공, 중소규모 농산업 기업 지원(수출입 마케팅 포함) 등), ②유상원조(credit)에 대한 접근 촉진(USAID 지원 대출담보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참여 등) ③농업정책 및 규제 분석(농업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규제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어드보커시 역량 강화 및 지원) 등이 있다.[143]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AMARTA 사업의 발굴은 USAID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MARTA I에 비해 AMARTA II는 더욱 참여자가 늘고 유연하며, 사업분야에서도 기존의 커피, 코코아, 원예 분야를 넘어서 전체적인 사회개발 차원으로 확대・발전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발굴 및 집행과정에서의 파트너십은 코코아, 커피, 원예 분야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이뤄져왔다. 예를 들어, 코코아의 경우, 네슬레, MARS와 같은 다국적 기업 외에도 Munitang Gran 이라는 현지 코코아 생산자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것은 World Coco Foundation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업들의 경우 CSR의 일환으로 AMARTA와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까르푸(Carrefour)가 지역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143) USAID Indonesia. 2011. AMARTA Factsheet. (인터넷 주소: http://www.amarta.net/amarta/EN/fact-sheets.aspx?mn=G7&la ng=EN; http://www.amarta.net/amarta/EN.aspx?mn=A1&lang=EN) (접속일자: 2월 16일)

있는 방식이다.

코코아, 커피, 원예 생산품의 질과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value-chain)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인증 제도를 구축하여 생산자(농부) 및 생산품에 적용 ·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품 생산과 가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AMARTA I 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기업인 DAI(Development Alternatives Inc.: 미국 워싱턴 DC 소재 기업)가 매달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반면, AMARTA II 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인 ACDI/VOCA(Agricultural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Volunteers in Overseas Cooperative Assistance) 본부와 USAID 본부 간에 협의를 통해 월별 재정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최소 2회 시행하며 6개월에 한번씩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외부 평가를 시행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파트너십의 효과와 파트너간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144)]

AMARTA I 과 AMARTA II 의 사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의 <표 4-6>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 · 정리 할 수 있다.

<표 4-6> AMARTA I 과 AMARTA II 사업 주요특성 비교

	AMARTA I	AMARTA II
기간	2006-2011	2011-2016
사업수행자	DAI	ACDI/VOCA
참여	제한적	유연함
분야	커피, 코코아, 화훼	개방적임
사업의 관점	투자, 사업효과성 등	사회개발
파트너	형태에 관계없이 개방적임, 국내/국외 관계없음	
평가 및 보고 주기	DAI 매달 financial statement 제출	ACDI/VOCA 본부와 USAID 본부 협의에 기초하여 매달 financial statement 제출할 필요 없음.

이와 같은 AMARTA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사업을

144) 현지 인터뷰 (일자: 2012년 2월 27일 대상: Anna Juliastuti, Dr. Donald Tambunan)

제안한 '공공 제안형' 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수원국 정부가 협력하는 Type I 유형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영리 컨설팅이다. 평가 부문은 사업시행 주체(DAI 및 ACDI/VOCA)가 UDAID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정기평가' 유형에 기반하고 있다.

나. IRRI-CSISA (방글라데시)

1) 사업의 배경

1960년에 설립된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본부가 있으며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장・단기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쌀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가의 미작연구 강화 지원을 통한 미작 농민과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IRRI는 USAID의 GDA사업 중 하나인 CSIAS(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남아시아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종(곡물)의 개발, 지속 가능한 경영기술 및 정책 제시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SIAS는 5년간(2009-2012)의 프로젝트로 USAID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공동 지원을 받고 있다. CSISA 사업은 IRRI, CIMMYT(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국제옥수수 밀 연구소), ILRI(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국제축산연구소)와 같은 농업과 관련된 연구개발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국제 빈곤퇴치 자선단체이자 어업 및 양식업 보급운동을 하는 Worldfish와도 협력하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본래 4년 전에 인도지역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 뒤로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현재는 남아시아 지역에 걸쳐 공공 및 민간부문과 파트너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CSIAS 사업은 6가지의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①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파종, ②경제적인 경작기술의 개발, ③다수확재배와 의 병충해에 강한 밀, 쌀, 옥수수 품종의 개발, ④규모와 장기적인 중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 (PPP), ⑤시장연결과 사업개발의 강화, ⑥교육훈련 및 장학금을 통한 역량강화 등이다.

방글라데시에는 6개의 중심 허브 지역(Rangpur, Mymensingh, Faridpur, Jessore, Barisal)에서 쌀과 밀 등 곡식의 품종 개발에 주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유사한 농업시스템 및 생산 기회와 과제들의 상호 결합을 추구하며, 공동연구, 교육, 파종을 위한 지리적인 조건에 기본적인 초점을 맞춘다.

IRRI의 CSISA 사업은 해당 사업은 경쟁(bidding)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IRRI가 직접 USAID에 제안하여 이뤄진 사업이다. 현재 USAID로부터 100% 무상원조로 지원받아 CSIS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노하우 전수, 산출, 정보, 재정의 4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IRRI는 주로 연구기관이 쌓은 노하우 전수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전 지역에 2개의 메인 센터와 6개의 허브지역(Rangpur, Mymensingh, Faridpur, Jessore, Barisal 등)을 두고 있다. 2010년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USAID의 관심은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국정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Feed the future’의 영향으로 USAID 기아와 관련된 사업에 전보다 더 주력할 것을 요청받으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파트너들은 주로 지역의 NGO들(60~80개)로 각 지역 현장에서 쌀 생산의 원활한 흐름, 농부들의 기술지식 향상, 시장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농업 사업과 관련된 주요 파트너는 INGO인 BRAC과 Proshika이다. 파트너 선정을 위해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그들의 사업목적에 대해 IRRI의 기본 목적과의 연관성 및 적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는 일년에 두번 USAID에 내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IRRI에서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IRRI를 비롯한 타 협력파트너가 함께 영역을 나누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분기 평가보고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를 넘어 모니터링 및 결과 관리 시스템(Monitoring & Result management system)에 기초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IRRI의 PPP 사업들을 살펴볼 때, 40년 이상의 역사 및 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IRRI 내부의 역량이 발전되어왔으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현지의 기업 및 NGO들과의 협력을 통한 풀뿌리(grass-root)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가지 주요방향, 즉 ①노하우 전수 ②투입(기술・자원) ③정보 전달(의사소통) ④재정 역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과 더불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모니터링 및 결과 관리 시스템(Monitoring & Resul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IRRI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 주체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Ⅵ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기구이다.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USAID에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평가'와 내부파트너 평가를 위한 '내부(수시)평가'가 복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 (베트남)

1) 사업의 배경

베트남 정부는 1980년대 카카오 재배를 시작했으며, 지난 몇 년 간 카카오 가격은 생산과 공급이 거의 평형을 이룬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카카오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베트남 정부는 큰 시련을 겪었고, 이에 따라 품질 좋은 카카오 재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베트남은 지리적, 기후적 이점을 바탕으로 카카오 재배와 수출에 주력하면서 미래전략산업으로 카카오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경제개방에 따른 급속한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이해와도 맞물려 카카오에 대한 전략적인 재배농가 육성 및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145)]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코코아 산업을 확대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한 농촌 비즈니스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 먼저 시행된 코코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베트남에도 이루어졌으며, 사업을 시행한 ACDI/VOCA가 갖고 있는 코코아 산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로 인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146)]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USAID의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SUCCESS Alliance)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규모 자작농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향상된 코코아 생산 시스템 및 국제 바이어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수확가공을 촉진하는 것이다.[147)]

이 사업의 주요 파트너는 USAID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정부기관, 세계코코아재단(World Cocoa Foundation, WCF)과 ACDI/VOCA(Agricultural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Volunteers in Overseas Cooperative Assistance) 등의 재단 및 NGO, 그리고 다국적 초콜릿기업인 Mars, Inc. 등의 기업이다.

2003년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의 초기 자금은 미국 농무부가 ‘Food

145) 인터넷 주소: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H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kBsaGhpR7ggAN5HZOQ!!/?id=2038993&workdist=read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146) 인터넷 주소: http://www.acdivoca.org/site/ID/vietnamUSDAfoodforprogress (접속일자: 2012년 7월 15일)

147) 인터넷 주소: http://gda.usaid.gov/alliances/detail.asp?s=SVHTWWJYBVBXBPDSHGDMHRBQYLYTQYNT&id=783&t=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for Progress funding’ 의 명목으로 지원해 준 550만 달러가 전부였지만, 점차 재정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부자들과 파트너 기관들 그리고 참여 농부들이 증가하였다. 이후 USAID 외 초콜릿 전문회사인 Mars, Inc. 등의 기업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정은 USAID와 미국 농무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148] 그리고 사업 시행은 코코아 산업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가진 ACDI/VOCA에 의해 이루어졌다.[149]

SUCCESS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사업을 제안한 ‘공공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영리 컨설팅이다.

라. GHPPP (가나)

1) 사업의 배경 및 주요내용

가나 식품산업발전 프로그램(Ghana Private-Public Partnership Food Industry)은 2002년에 USAID와 미시간주립대 식품산업발전 파트너십, PFID-F&V(과일과 야채 프로그램), 네덜란드 수퍼마켓 및 식품서비스 회사, 그리고 TIRP, AMEX 인터내셔널 등의 NGO들과 CARE 인터내셔널이 함께 협력하여 수립된 사업이다.

GHPPP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진다. ①식품의 특화된 신선도, 질,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통 과정 발전 ②원예 공급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의 기술과 역량 발전 ③지속가능하고 수익성있는 발전으로 원예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가나 현지 NGO들의 역량 강화 ④모든 원예 공급과정 부분에서 기관들에 필요한 기술 지원 제공 ⑤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천연 상품 및 다른 천연 생산품 개발 및 시장 판매 등이다.

---

148) 인터넷 주소: http://gda.usaid.gov/alliances/detail.asp?s=SVHTWWJYBVBXBPDSHGDMHRBQYLYTQYNT&id=783&t= (접속일자: 2012년 7월 15일)

149) 인터넷 주소: http://www.acdivoca.org/site/ID/vietnamUSDAfoodforprogress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이와 같은 GHPPP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주체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혼합 형태이다.

6. 교통 분야

<표 4-7> 교통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ITDP-Livable Community Innitiative	USAID 등 지원 ITDP 수행	BRT 시스템 구축, 자전거&릭샤 산업 발전/강화, 대기오염 완화

가. ITDP-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인도네시아)

1) 사업의 배경

ITDP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비영리단체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지지하는 그룹에 의해서 1985년에 미국에서 창설되었다. 온실가스와 빈곤 감소, 도시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지역의 도시와 지역 지지단체에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TDP는 Bus Rapid Transit (BRT) 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릭샤 산업의 발전·강화,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시설 계획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관리, 의료서비스 접근과 택배를 위한 수송,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 사업에도 정진하고 있다.

ITDP 시행 주요 사업 분야는 기후 및 교통정책, 자전거 및 도보 증진, 지원 및 인식 강화, 대중교통,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이다. 기후 및 교통정책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부와 관계자들의 교통수단과 관련된 배기가스와 교통 혼잡 개선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 설립을 장려한다. 자전거 및 도보 이용 증진 관련해서는 시와 협력하여 '차 없는 날'과 자

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품질의 자전거를 일반 시민들에게 지원한다. 지원 및 인식 강화 차원에서는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수단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 대중 인식을 제고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특정 교통수단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를 타켓으로 관련정보를 배포 및 제공하고 있다.

대중교통 부문에서 ITDP는 안전하고, 현재적이며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을 전 세계 도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Bus Rapid Transit (BRT)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측면에서 ITDP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지향의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자, 건축가와 정부 각료들과 협력하고, 도시생활의 개선뿐만 아니라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과 디자인, 건전한 교통시스템을 함께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통행료 징수제(road pricing),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 교통혼잡과 자가용사용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 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ITDP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사업기간 2002~2006)는 도시에서 대기 오염도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 청정도 향상, 연료소비 감소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DP는 2002년부터 자카르타의 첫 Bus Rapid Transit(BR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USAID 및 미국 기반 INGOs, 국제 전문가와 지역NGO와 함께 협력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고 교통문제 개선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ITDP는 BRT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2004년 첫 BRT 시스템인 TransJakarta[150]가 완공되었다.[151]

이와 같은 ITDP의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주체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150)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BRT 시스템 중의 하나로서, 하루 평균 28만명이 이용
151) ITDP. 2010. Annual Report; 인터넷주소:
http://www.itdp.org/our-work/where-we-work/indonesia/;
http://www.itdp.org/our-work/where- we-work/jakarta/ (접속일자: 2월 16일)

는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2)공여국 정부(공공)+자선적 기금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이다.

7. 기타 분야

<표 4-8> 기타 분야 PPP 사업 사례 개요 및 특성

사업명/기관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 내용
CBEP II	NCRC&Barclay 등 기업 & 가나 정부	생태관광의 하위부문 개발을 통해 농촌 빈곤 및 생물다양성 개선
PSES	GIZ & 방글라데시 정부 & 방글라데시 기업	노동 작업장 환경에서의 사회 및 환경기준(social and environment standard) 의 향상

가. CBEP II - 가나

1) 사업의 배경

가나는 국토의 5% 이상이 16개의 국립공원 및 보존 지역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에서 다양한 조류, 나비종, 원숭이가 서식하고, 폭포, 산림 등 다양한 종류의 환경자원이 있다. 최근 수년간 가나는 자연 보호론자, 관광객, 지역 사회라는 세 방향에서 상호이익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 분야의 선구자로 부상하였다. 가나의 주요 보호단체 중 하나인 자연 보전 연구센터(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er, NCRC)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센터는 경제발전과 자원 절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보호지역'을 위한 개발의 선두주자로 인정되고 있다. 동 센터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가나 최고의 원주민 보호 단체일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가나의 관광청은 농촌 관광의 발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동 센터의 모델을 채택하였고 이는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농촌 관광 사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152]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CBEP(Community-Based Ecotourims Project)Ⅱ는 가나에서 이뤄지는 산림 및 생태관광 분야의 PPP 사업이다. USAID는 2002년 이후로 가나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업체(SMEs)들을 지원해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가나 정부의 '마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빈곤 완화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는데, 식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효과가 증대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광객 및 관광수입이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나의 재정부가 소액 금융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향후 지역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153]

CBEPⅡ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하위 부문 개발을 통해 농촌 빈곤 문제 해결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Barclays Bank, Cadbury-Schweppes, Canadian Hydro Ltd, Newmont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NGO 파트너로는 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er(NCRC)가 있다. 자연보전연구센터(NCRC)는 사업시행의 주요 주체로서 정부와 NGO,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가나의 자연, 역사,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과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의 생태관광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연과 문화 자원의 보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CBEPⅡ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사업을 제안한 '공공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의 동등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공여국 공공=민간'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TypeⅣ(혼합) 유형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NCRC) 이다.

---

152) 인터넷 주소: http://www.ncrc-Ghana.org/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153) USAID. 2005. USAID AND SUSTAINABLE TOURISM: MEETING DEVELOPMENT OBJECTIVES. USAID : Washington DC.

나. PSES (방글라데시)[154]

1) 사업의 배경

PSES(Promo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프로젝트는 독일 경제협력발전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의뢰로 방글라데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가 200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으며, 독일 GIZ이 협력 및 컨설팅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 사업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개발(노동 환경 및 기준들을 포함한 social standard) 제반사항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녹색) 기술 개발 및 적용, 환경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경영 전략 전수 등에 이르는 전반적 분야에 지원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PSES 프로젝트는 환경 및 생태효율성(Environment and Eco-Efficiency) 측면에서 직물관련 공장(기업) 및 산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화학물 처리(Chemical management)에 초점을 두고 판매점관리, 건강과 안전이슈, 재고 시스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내수 섬유시장에 대 무역 쿼터가 2005년부터 철폐되었고, 이와 같은 무역 환경에서 독일 GIZ은 섬유산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PSES 프로젝트는 노동 작업장 환경에서의 사회 및 환경기준(social and environment standard) 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동환경, 경영, 노동기준과 같이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적, 생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여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SES와 관련하여 GIZ는 방글라데시의 직물제조 수출조합회사인 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와 니트제조 수출조합회사 BKMEA(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와 협력하며 노동자와 경영자에게 노동법에 대한 인지제고를 꾀

154) 인터넷 주소: http://www.pses.co/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52&Itemid=152 (접속일자: 2012년 2월 1일)

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및 환경기준 향상을 위해 방글라데시 현지 시민단체, 노동부(Ministry of labor), 고용주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BGMEA와 BKMEA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직물공장의 에너지소비 데이터(consumption data)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 작성을 위해 GIZ는 에너지전문가를 고용하여 진행하였다.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 감소와 관련하여서도 GIZ는 오수관리(waste managemen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경영 트레이닝 및 ETP(Employer Training Pilots)와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 사립대 및 국립대 뿐만 아니라 영국 워릭 대학과도 협력하여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글라데시에서의 녹색 전략(Green Strategies)의 시행을 위해 섬유 분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PSES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원조기관(USAID)이 사업을 제안한 '공공 제안형'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부문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 부문이 재정지원을 주도하는 '공여국 공공>민간' 형이며, 사업시행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여(donor) 파트너십의 공통 주체(actor)는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유형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인 TypeⅣ이며,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에서 주요 시행주체는 혼합 형태이다.

8. 소결: 수원국 현지사례 비교분석

본 소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각 분야(에너지, 물, 산림, 농업, 교통, 기타)에서의 현지 PPP 사업 사례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PPP 사업의 3가지 부문, 즉 발굴 부문, 집행 부문, 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유형화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앞서 제시한 '발굴-집행-평가' 분석틀에 맞추어 기후변화대응 PPP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 4-9>에서는 분야별 각각의 PPP 사업들을 3가지 발굴유형(민간제안, 공공 제안, 공공 공모), 집행에서의 3가지 재정분담 유형(공여국 공공>민간, 공여국 민간>공공, 공여국 공공=민간) 및 사업시행 파트너십 유형

(공여 파트너십(4가지) 및 시행 파트너십(5가지)), 그리고 평가(정기평가 및 내부평가) 양식에 따라 분석한 세부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9> 기후변화 PPP 사업 프로세스 분석

분야	사업명/기관명	발 굴	집 행			평 가
			재정 분담	사업시행 파트너십		
				공여 파트너십	시행 파트너십	
에너지	그라민 샥티	민간제안	공공>민간	(3)+TypeⅣ	①NGO	-
	PAKLIM-OSRAM	공공제안	공공>민간	(1)+Type Ⅰ	③공여국기업	-
	REEEP	민간제안	공공=민간	(3)+TypeⅣ	①NGO	-
물 (수자원)	JHUCCP	민간제안	공공=민간	(1)+TypeⅣ	⑤혼합(NGO+영리컨설팅)	정기평가+내부평가
	Clean Water for Communities	민간제안	-	(1)+TypeⅡ	③공여국기업	-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민간제안	공공=민간	(1)+TypeⅣ	⑤혼합(공여국기업+NGO)	-
산림 (녹지)	GFTN	민간제안	민간>공공	(3)+TypeⅣ	①NGO	정기평가
	IPAC	공공공모	공공>민간	(1)+TypeⅡ	①NGO	정기평가+내부평가
	SLP	공공제안	공공=민간	(3)+Type Ⅰ	⑤혼합(NGO+공여국기업)	-
	(중부 베트남) 자연재해 대응사업	-	공공>민간	(3)+TypeⅣ	①NGO	-
	HONDA 조림사업	-	민간>공공	(1)+Type Ⅰ	③공여국기업	-

분야	사업명/기관명	발 굴	집 행			평 가
			재정 지원	사업 시행		
				Type (파트너십)	시행 주체 (유형)	
농업	AMARTA	공공제안	공공>민간	(1)+Type Ⅰ	②영리 컨설팅	정기평가
	IRRI-CSISA	민간제안	공공>민간	(3)+TypeⅣ	①NGO	정기평가 + 내부평가
	SUCCESS	공공제안	공공>민간	(1)+TypeⅣ	②영리 컨설팅	-
	GHPPP	민간제안	-	(3)+TypeⅣ	⑤혼합(NGO+ 공여국기업)	-
교통	ITDP	민간제안	-	(2)+TypeⅣ	①NGO	-
기타	CBEP Ⅱ	공공제안	공공=민간	(1)+TypeⅣ	①NGO	-
	PSES	공공제안	공공>민간	(1)+TypeⅣ	⑤혼합(NGO+ 수원국기업+ 수원국 정부)	-

*발굴-집행-평가의 관련 세부내용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못한 부문에 관해서는 '-' 표시로 해둠.

기후변화 PPP 사업사례들의 발굴 과정 부문 분석에서는 '민간 제안형'이 9개 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 제안형'이 6개 사례에 나타났다. 집행 부문에서 재정 분담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민간' 유형이 8개 사례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공공=민간' 유형이 5개 사례에 나타나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공여국 공공(원조기관 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두드러졌다. 공여 파트너십에서는 공통 주체로 '(1)공여국 정부(공공)+기업' 및 '(3)공여국 정부(공공)+기업+자선적 기금' 유형이 거의 모든 사례에 적용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공여국 및 수원국 NGO 및 기업 등이 다층적으로 협력하는 혼합형인 TypeⅣ 유형이 12개 사례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국 정부가 공통 주체와 함께 협력하는 Type Ⅰ에는 4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집행 부문의 사업시행 파트너십은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다층적(multi-level)이고 다각적(multi-lateral)으로 협력하는 복

합적 네트워킹(network complexities)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유형 또는 주요 주체가 여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념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지역의 특성과 주체별 역학에 따라 다양하게 협력하여 PPP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기후변화대응 분야(에너지, 물(수자원), 산림(녹지), 농업, 교통, 기타)별 PPP 사업사례에서 특이한 차이점이 발굴/집행/평가 부문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각 부문을 포괄한 PPP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 및 민간의 주체들 간의 심도 깊은 협의과정과 이를 통한 네트워킹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양한 각 PPP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킹(협력관계)을 통해 단일 주체 또는 주체들 간의 위치와 관계의 노드(node)가 연결되고, 그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 또 다른 주체(행위자)들과 함께 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공유되고 나아가 제도화되는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킹(협력관계)은 일차적으로 해당 PPP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공적 또는 사적 이해관계(또는 가치 창출)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각 PPP 사업을 둘러싸고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다양한 참여자들(공공/기업/NGO) 간의 자발적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네트워크가 형성 및 발전하고 있는 측면이 보인다고 것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PPP 현황

1. 국내 PPP 사업

가. 개요

KOICA는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명칭으로 2010년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155]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간재원의 확충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ODA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을 통해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방식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모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KOCA의 PPP는 다음의 3가지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156]

- ㅇ 민간자금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ODA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ODA 재원 다양화 모색 등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
- ㅇ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 확대에 따른 ODA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요청 반영
- ㅇ 개발원조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저변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원조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KOICA의 PPP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사업기간은 1년이며, 1년 이상의 사업 또한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KOICA는 PPP의 대상을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중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 시 사업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 경감이라는 대외원조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155) KOICA PPP은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2012년 현재 글로벌사회공헌파트너십(Global CSR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56) 인터넷 주소: http://www.koica.go.kr/join/notice/1252193_1576.html (접속일자: 2012년 4월 29일)

나. 현황 분석

2010년 5개의 KOICA PPP 시범사업에는 4개의 기업과 2개의 NGO 등 6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약 5억 원이 지원되었다. 5개의 사업 중 2개는 KT가 각각 우즈베키스탄의 IT교육과 르완다의 초등학교 건립 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KT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과 르완다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 외 3개의 사업은 대성에너지와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가 진행했으며,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PPP는 국내 NGO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성에너지는 카자흐스탄의 전력 및 식수 공급 사업을 맡았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영기업들과 협력하였다. 삼성전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파트너로 해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등 6개 국가에서 풀뿌리교육 발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프리카 6개 국가의 유네스코위원회와 9개 지역의 NGO들, 그리고 18개의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포스코의 PPP는 몽골의 축산시범농장운영 및 교육센터건립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지구촌나눔운동이 파트너로 수행하였다.

이 중 KT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과 NGO들이 같은 사업을 2011년에도 지속하였다.

2011년 사업의 경우 3월에 첫 PPP 설명회가 있었고, 4월까지 공모가 이루어졌다. 공모를 통해 진행된 사업은 총 10개였으며, 약 22억 원이 지원되었다.

기업에서는 삼익악기, 한국중부발전, 구리청과, 아시아나항공, 포스코, 삼성전자, 대성에너지, 현대건설 등 8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NGO에서는 코피온,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굿피플, 지구촌나눔운동, 기아대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7개의 NGO가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10개의 사업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에서 PPP가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2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사업의 KOICA 매칭 비율은 50%였으며, 최소 8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었다.

<표 5-1> 2011년 KOICA PPP 현황

사업명	지역	기업	NGO
인도네시아 보고르 칠룽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 사업	인도네시아	삼익악기	코피온
인도네시아 그로보간 지역 초등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도네시아	한국중부발전	플랜한국위원회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아동 실명예방 사업	캄보디아	구리청과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가로등 지원사업	캄보디아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아이따족 색동마을 주택개량 사업(글로벌 1사 1촌 결연사업)	필리핀	아시아나항공	굿피플
몽골 주민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합숙교육	몽골	포스코	지구촌나눔운동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모잠비크	포스코	기아대책
아프리카 풀뿌리 교육발전프로그램 '브릿지'	아프리카 6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삼성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	카자흐스탄	대성에너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종합교육복지센터 지원	카자흐스탄	현대건설	기아대책

2012년에는 총 12개의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28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1년 사업 중 3개의 사업은 2012년 사업으로 연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의 PPP 사업에는 11개의 기업과 5개의 NGO, 그리고 2개의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의 사업에는 대기업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이루어졌다. 기업에서는 다비육종, 삼익악기, 한국중부발전, 아시아나항공, 구리청과, GS칼텍스, 현대자도차, 포스코, 세아상역 등 9개 기업이, NGO에서는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등 5개의 NGO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등 2개의 민간기관들도 참여한다.

<표 5-2> 2012년 KOICA PPP 현황

사업명	지역	기업 및 민간기관	NGO
베트남 빈증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베트남	다비육종	
2차년도 인도네시아 보고르 칠룽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훈련 사업	인도네시아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응옴박 마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인도네시아	한국중부발전	플랜한국위원회
중국지역 1지점 1교 결연 사업	중국	아시아나항공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아동 실명예방 사업	캄보디아	구리청과	하트하트재단
시엠립 주립병원 사후관리 사업	캄보디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	캄보디아	GS칼텍스	굿네이버스
필리핀 아이따족 자립기반 지원사업(글로벌 1사 1촌 결연사업)	필리핀	아시아나항공	굿피플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를 통한 가나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	가나	현대자동차	플랜한국위원회
에티오피아 아르시존 지역사회 가족계획 교육홍보사업	에티오피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퇴치	짐바브웨	포스코	기아대책
아이티공화국 북부산업단지(NIP)지역 시범학교 설립사업	아이티	세아상역	

12개의 사업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수행되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가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아이티에서 PPP가 수행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든 사업의 KOICA 매칭 비율은 50%였으며, 최소 1억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 중 삼익악기의 ‘인도네시아 보고르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훈련 사업’에서는 2012년 들어 협력파트너였던 코피온이 빠지는 변화가 있었고, 새롭게 대학이 2개의 PPP에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다. 특징

2010년의 PPP 시범사업부터 201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의 PPP 사업까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2010~2012년 KOICA PPP 참여 기관 현황

연도	사업 수	참여 기업 및 민간기관 수	NGO 수
2010	5	4	2
2011	10	8	7
2012	12	11	5

주: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함.

3년 동안 총 21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3년 동안 PPP에 참여한 기업과 민간기관의 수도 점차 증가하였으나, NGO 수는 감소하였다.

<표 5-4> 2010~2012년 KOICA PPP 수행 지역

연도	아시아	동구, CIS	아프리카	중남미
2010	1	2	6	0
2011	4	1	7	0
2012	5	0	3	1

주: 한 사업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기도 하여 지역과 총 사업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삼성전자와 유네스코위원회가 진행한 PPP인 ’브릿지 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의 6개국에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KOICA의 PPP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2010~2012년 KOICA PPP 사업 기간

연도	6개월 이하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사업 수	1	14	2	4

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21개의 사업 기간을 표시함.

KOICA의 PPP가 현재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수행된 21개 PPP의 기간을 보면 1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4개월을 지속해 온 PPP는 4개로 나타난다.

<표 5-6> 2010~2012년 KOICA PPP 예산 규모

연도	1억 이상~3억 이하	3억 초과~6억 이하	6억 초과~10억 이하	10억 초과~15억 이하	15억 초과~20억 이하	20억 초과~25억 이하
2010	3	0	2	0	0	0
2011	5	3	2	0	0	0
2012	4	4	3	0	1	0

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예산의 경우 주로 3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의 PPP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사업들도 비슷하게 수준이다. 해마다 규모는 증가한 편이고, 최대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든 사업도 2개가 있다.

또한 PPP는 기업들의 CSR 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 전략과도 맞물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몽골에서의 PPP를 시작할 때 몽골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현대건설은 2010년 카자흐스탄에 신규지사를 설립하면서 첫 해외사회공헌활동으로 청소년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PPP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2010년 인도네시아 쯔파티 탄중 자티 발전소에 대해 22년간 발전소 운전과 정비 업무 일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1년에 이 지역과 가까운 그로보간 지역에서 PPP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민간 참여주체의 PPP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15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PPP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평가와 이에 기반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 평가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국내 PPP의 상황을 고려하면 각 사업참여 주체들의 평가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기후변화 대응 민관협력사업의 유일한 국내 참고사례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P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NGO들과 기업 CSR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국내 PPP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가. 민관협력 사업의 장단점[158]

PPP가 기업의 독자적인 CSR이나 개별 NGO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단체지원사업과 비교해 갖는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기업의 경우 현지 사업지역에 이미 해외사업본부가 존재해 일정 정도 CSR을 하고 있던 경우와 현지 사업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에 따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체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이미 현지 지역에 진출했고 이에 따라 현지 지역의 정부와 협력이 강화되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KOICA라는 이름과 함께 처음 사업

157)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 연구팀인 지난 4월 18일~5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수행한 국내 간담회와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간담회는 국내 PPP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NGO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는 국내 P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 CSR-환경분야 연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NGO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함을 전제로 진행하였기에 본문 중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관련 인터뷰 대상자는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158) 이하에서 서술된 내용은 국내 PPP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체들의 의견과 제안에 기초하였고 있으며, 국내 P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 CSR-환경분야 연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주체들의 의견은 각 항목별로 고려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을 시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지 지역과의 소통이나 기타 법적, 제도적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정부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표 5-7> 국내 PPP 사업의 장점에 대한 기업의 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 국가를 방문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정부 고위급 관리를 만날 수 있었고, 덕분에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다.”. “문화유적지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도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KOICA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업허가가 쉽게 승인된 면이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해당 국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민관협력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당 국가의 산업자원부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사업과정에도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관협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단순히 예산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수월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할 것이다.

실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NGO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 민간단체사업에 있어 NGO가 부담해야만 하는 매칭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이 되는 셈이다.

<표 5-8> 국내 PPP 사업의 장점에 대한 NGO의 견해

“단체의 경우 매칭이 없으니까 가장 고민되는 자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규모보다 훨씬 큰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혜폭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추가자금 투입이 요청될 때 기업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수월하게 예산이 추가된다. 기업이 원래 계획서 상의 항목보다 50% 정도의 추가금액을 부담하였다. 총사업비가 늘어났고 당연히 사업의 진행도 빨라졌다.”

국내 PPP에 있어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PPP의 구조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자금을 매칭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에서 PPP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 현금 지원 뿐 아니라 기술제공 등의 내용도 민관협력의 틀 내로 받아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9> 국내 PPP 사업의 단점에 대한 기업/NGO의 견해

“ 기업이 영속적으로 가기 위한 여러 활동 중 기업의 사회공헌도 업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기업도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가 가능하다.”, “ CSR을 모두 사회공헌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사업을 PPP로 할 수도 없다. 이미 현지화 된 CSR을 추진하고 있다.”, “ 사실 KOICA 자금에 관심이 많은 곳은 중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헌실이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시행 중인 국내 PPP 사업은 기업에게는 단순한 예산지원이라는 측면 외에 해당 국가에서 사업 수행 시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풀기 쉽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여국의 정부기관과 함께 한다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NGO의 경우에도 매칭비율에 대한 부담이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단체지원사업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PPP 사업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각 민간주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 매칭 비율의 문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시작한지 3년 남짓한 국내 PPP 사업이 순조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9]

159) KOICA의 민관협력실에서 주관하는 PPP인 글로벌CSR의 경우 2012년부터 매칭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비 중 25%까지 간접비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PPP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업 CSR 차원에서 NGO와 함께 환경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주체들이 어떤 이유에서 국내 PPP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는 크게 지역적 문제, 재정적 문제, 사업의 효과성 문제로 나타난다.

먼저 지역적 문제의 경우 중국에서 조림 등의 환경 CSR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B2C(Business-to-Consumer)라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신흥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민관협력의 틀 내로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CSR의 필요성과 확대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지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 현재 KOICA의 매칭 자금의 규모가 크게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NGO의 경우 기업과의 CSR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인건비 문제 등 재정적 측면에서 좀 더 융통성이 있는 만큼 굳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PPP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표 5-10> KOICA의 PPP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2~3억을 기업이 더 부담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KOICA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엮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공적 영역에 참여한다는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영역은 실무자 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지 돈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의 틀 내에서는 단체의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업과만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PPP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기업과 NGO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전략적 CSR 차원에서 접근한 기업과 단순 CSR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에 따라 효과성에 대한 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해당 국가의 진출이나 진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CSR을 전개하는 경우는 효과성에 대해 평가가 높은 편이고, 단순한 사회공

헌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접근한 경우는 그에 비해 약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환경 분야의 CSR은 조림의 영역이 많은데, NGO의 경우 조림 면적이나 식수의 수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기업의 경우 그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나 홍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 기업의 경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 이외의 효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NGO의 경우는 조림 사업을 중심으로 농장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개발 사업이 결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 5-11> 환경분야 CSR 사업의 효과성

"사업 결과를 보고 중국 정부도 만족하게 되었고, 양국 학생단의 교류도 있고, 현지 법인도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영향이 점차 커졌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이니 나무는 심겨져 있는데, 실제로 홍보 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 기업 내에서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계속 같이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업 기간 내 많은 면적에 식수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조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농장을 만드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은 이들이 이후 수행될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 CSR과의 결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PPP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 사업 발굴 및 역할 분담

사업발굴에 있어 지역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타난다. 기업이 이미 진출한 국가나 신규 진출 예정 국가를 중심으로 PPP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의 경우 해당 기업의 CSR 규모를 고려해 진행된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의 구체적 사업지역 선정과 아이템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NGO의 사업지역,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당 사업지역 사회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NGO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2> 국내 PPP 사업발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 유전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헌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기업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기업이 먼저 국가와 규모를 선정한 후 NGO와 사업내용에 대한 조언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심을 갖는 분야가 농업이었다”,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라 PPP를 하게 되었다.”, “사업 국가의 경우 기업이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곳으로 하길 원했지만, 구체적 사업지역은 꼭 해외지사의 소재지를 고집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곳으로 협의가 가능했다.”

국내 PPP 사업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수행 주체인 NGO와의 협력 계기는 대체로 기존에 기업이 CSR 차원에서 협력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PPP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해당 사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나 지역에 맞는 사업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과 NGO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금의 측면에 있어 PPP에 투여되는 기업의 자금이 CSR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PPP 규모 확대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내 PPP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업 CSR 차원에서 NGO와 함께 환경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발굴 방식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 CSR 차원에서 형성된 이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해당 NGO와 기업의 의사결정 집단과의 네트워크에 따라 시작된 경우, 기업의 대표가 해당 NGO에 개인적으로 후원하다가 기업 차원으로 확장된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기업이든 NGO든 오너십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고려하여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해당 사업지역에서의 수익이 커지면서 현지 CSR에 대한 고려와 관심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3> 환경 분야 CSR 사업수행 계기

“ 기업에서는 창업주의 관심 분야를 이어간다는 명분이 있었고, 단체의 경우 개인적으로 단체대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기업의 대표가 단체 창립 시부터 함께 참여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CSR과 연계하게 되었다.”, “중국 지역에서의 수익이 크게 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 국가에 대한 선정에는 기업의 고려가 많이 반영되며, 사업 지역과 내용에 대해서는 NGO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국가에 기업의 현지 법인이 있을 경우 이와도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의 인재양성프로그램과 결합해 장기간에 걸친 협력을 구축하는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PPP가 시작된 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점이 도출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개선점은 PPP 사업의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차차 반영될 것이다.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사항으로는 KOICA, 기업, NGO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KOICA의 경우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 자금이라는 특성 상 사업의 책무성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기존 기업 차원의 CSR에서도 NGO와 협력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실제 사업의 수행은 해당 NGO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PPP 사업의 경우 기존의 CSR 사업에서 기업이 수행했던 자금 지원 및 사업 협의 이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아직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할 수도 있다. NGO는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CSR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기업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PPP 사업의 장점으로 지적되

었던 매칭 부담이 없다는 점과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리어 PPP 사업이 중단되었을 시 사업지역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계속 담보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각 주체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나타나는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이후 PPP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다른 분야의 PPP와 달리 사업의 장기성과 대규모라는 특성을 띨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방향성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5-14> 국내 PPP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

‘“가장 중요한 것은 PPP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KOICA는 기업에게 단순한 펀드 제공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혼란스러워하고....”, “기업의 사업적 특성 및 노하우 전수와 부합하는 사업내용을 찾으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본다. 같은 사업에 대해 기업과 NGO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특성보다 기업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을 위험에 대해 경계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실행 주체가 NGO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공문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OICA와 기업이라는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과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NGO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을 두 가지로 처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KOICA와 처리하는 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사업제도상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사업수행과정 관련된 행정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PPP 사업의 계약 주체는 KOICA와 기업이 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NGO가 되는 구조 속에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은 주로 사업 수행 NG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즉 모든 공문이나 예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작업을 NGO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사항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있어 공식적 주체가 기업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업이나 NGO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두 주체가 결합하다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업수행절차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공적 자금에 대한 책무성에 바탕한 조직문화를 가진 KOICA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의 조직문화간 차이이다. 즉 어떠한 경우든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신뢰성과 해당 수원국에 대한 책무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KOICA와 사회공헌활동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이 상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수행주체인 NGO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으며 앞서 제기한 KOICA, 기업, NGO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는 한편 각 주체간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 기타 고려사항

이러한 사항 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국내 PPP 참여주체들의 경우는 PPP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수행의 효과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업 CSR 차원에서 NGO와 함께 환경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환경 분야의 CSR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인다.

국내 PP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PPP에 대한 이해와 사업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해당 기업의 사업담당 주체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공헌, 사회문화, 사회개발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는 CSR 담당 부서가 주체인지, 홍보팀 혹은 총무팀에서 관할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이해, 전략적 CSR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 PPP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자원 확보나 시장개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나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인정되기도 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기업의 경우 글로벌 사업전략에 따라 CSR을 전개하기보다는 단순한 사회공헌에서 시작해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160]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160) 곽재성 외. 2011.『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21.

기후변화 대응 PPP의 잠재적 수요군으로 여겨지는 기업 CSR - 환경 분야 연계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환경 분야의 CSR 확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분야 CSR 확대에 대한 견해는 기업과 NGO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업의 경우 기업 CSR 내 우선 순위가 있으며, 사업 지역의 경우 철저히 글로벌 사업 전략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장기적 사업보다는 즉각적 반응과 가시적 타겟 그룹이 있는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 수익률과의 상관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 사업의 장기성과 큰 규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표 5-15〉 환경 분야 CSR 확대에 대한 기업의 견해

“기업의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을 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즉각적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환경 CSR의 주된 분야인 조림의 경우 너무 장기적이다.”.

NGO의 경우 조림이 환경 분야의 대표적 사업으로 여겨지는 국내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럽의 경우 환경 분야 사업에 있어 조림이 많지 않은데, 이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얼마나 심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림의 경우 지속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환경 분야 CSR의 내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환경 분야 CSR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개발 NGO의 경우 위생, 교육, 긴급구호 등 다른 분야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다 점차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사업 내용 발굴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사업의 내용도 환경 분야에 꼭 들어맞는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조림과 지역개발, 조림과 농업 등 중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 NGO 외 국내 환경 NGO의 경험

과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국내 환경 NGO의 경우 단순한 생태계 보전에서부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의제와 사업 내용에 대해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 활동 경험이 있는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CSR의 내용에 있어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조림만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분야 CSR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의 경우 지하수를 침출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마나 적은 사막화 지역의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림과 함께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내용이 결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6> 환경분야 CSR 확대에 대한 NGO의 견해

“국내 환경 관련 CSR은 지나치게 조림에만 국한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거의 조림을 하지 않는데 이는 그 효과성에 대해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 관련 정책부터 태양광, 풍력 이용 등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축적물이 환경 분야 CSR, ODA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야를 세분화하는 것 못지 않게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친환경적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도 사업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환경 분야의 CSR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은 것이 조림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PPP 설계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PPP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이뤄진 KOICA의 PPP는 대부분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들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분야의 사업으로는 6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에너지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는 대성에너지의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사업, 아시아나항공의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 GS칼텍스와 굿네이버스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농업 분야 사업으로는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다비육종의 베트남 빈증 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사업,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 퇴치사업 등이 있다.

재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PPP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코이카와 기업이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모두 5억 원 이상 든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 1개의 사업은 3억 이하, 4개 사업의 예산은 약 5억~6억 원 규모이며, 다른 1개의 사업은 약 15억 원이 드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는 현재 KOICA의 PPP들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또한 모든 사업의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구성되며, 연간 1회의 공공 공모형식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표 5-17> 기후변화 대응 관련 KOICA PPP 현황

사업명	분야	참여 기업 및 NGO	사업기간	규모 (단위: 천 원)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	에너지, 물	대성에너지	2년 (2010.7. ~2012.6.)	1,573,878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에너지	아시아나항공	1년	240,000

태양광가로등 지원사업			(2011.5. ~2012.4.)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농업	포스코, 기아대책	1년 (2011.7 ~2012.6)	500,000
베트남 빈증 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농업(축산)	다비육종	1년 (2012.1. ~2012.12.)	485,000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	에너지	GS칼텍스, 굿네이버스	1년 (2011.12.~ 2012.11.)	600,000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퇴치	농업	포스코, 기아대책	1년 (2011.12. ~2012.11)	600,000

각각의 사업 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PP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성에너지의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전기 공급을 위해 송전망이 없는 지역인 비계통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태양광 전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한 펌핑 시스템을 설치하여 깨끗한 식수까지 제공하고 있다. 태양광이란 저탄소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식수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 사업은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활용한 복합 시스템으로 추진되었지만, 현지 사업 대상지의 풍력 자원량의 부족으로 태양광 단독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대성에너지는 카자흐스탄 산업기술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인허가 및 기자재 통관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인 ‘Dostyk Energo’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에너지의 PPP는 태양광을 통해 전력 및 식수를 제공하여 에너지와 물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다른 PPP와 다르게 NGO가 수행을 하거나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가로등 지원사업은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사업으로, 앙코르 문화유산 내 태양광 가로등 18주를 설치하였다. 현재 가로등 50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앙코르유적

보전관리청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사회간접자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12명이 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업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지원금을 늘려 사업을 진행하였다.

포스코의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은 한국기아대책기구가 파트너로 수행한 사업으로, 농업 분야 PPP를 통하여 현지 지역민들의 의식개선과 농업 기술을 통한 소득증대까지 연결한 사업이다. 포스코와 기아대책은 2012년 2월 농업훈련센터를 개소해 현지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선 및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니싸 지역에서 공동농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벼농사 및 토마토 재배를 진행하였다.

또한 농업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되었으며, 인근 만찌아니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문맹퇴치학교와 성인 문맹퇴치교실을 열고 있다.

다비육종의 베트남 빈증 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농업 분야 중 축산업에 해당하는 PPP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인 Darby-CJ Genetics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Darby-CJ Genetics는 국내 사료업체인 CJ와 함께 2008년에 세운 현지법인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종돈 생산 및 양돈 농가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현지 양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과 연수 교육장 설치 및 현장 실습용 양돈사 개보수, 그리고 연수 교재 등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비육종은 베트남이 세계 4위 규모의 양돈시장이지만, 시스템의 부재로 생산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돈 교육연수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비육종은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업 수행 및 운영 등은 현지법인인 Darby-CJ Genetics가 담당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농업전문대학인 Binh Dudng 대학교와도 전문가교육 및 연구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은 굿네이버스가 파트너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여 인프라구축이 어려운 농촌지역 1,700 가정에 전기를 보급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부분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캄보디아에서 비싼 전력단가 때문에 전기와 가스 등의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92% 이상이 가정 내에서 등유램프를 사용하여 유해 연기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착안하여 시작되었고, 오프그리드(Off-Grid)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GS칼텍스와 굿네이버스는 적정에너지 기술센터 건축, 태양광 램프 제조, 태양광 배터리 충전소 운영 등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에너지 교육도 수행한다. 또한 GS칼텍스 임직원 10명과 국내 빈곤청소년 10명이 포함된 봉사단 운영 사업도 결합되어 있다.

포스코의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퇴치사업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파트너로 수행되고 있으며,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농업 분야와 교육이 중첩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훈련센터를 통한 가나안농군운동 및 선진 농업기술을 교육하고, 지역 농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및 판매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인근 네마상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IDS 환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농장 설립 및 운영, 농업기술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업내용에 기초해 사업수행 주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3개 사업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3개 사업의 경우 NGO가 현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8> 기후변화 대응 관련 KOICA PPP 참여 주체 현황

사업명	분야	참여 기업	현지 사업 수행 주체
카자흐스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	에너지, 물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가로등 지원사업	에너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농업	포스코	기아대책
베트남 빈증 지역 양돈 교육연수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농업(축산)	다비육종	다비육종 현지법인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	에너지	GS칼텍스	굿네이버스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퇴치	농업	포스코	기아대책

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6개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사업이다. 다비육종의 베트남 양돈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사업과 GS칼텍스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은 최소 3개년 연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짐바브웨 농업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사업은 5개년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 및 에너지 사업은 관련 시설 구축 및 교육 등의 사업내용을 볼 때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 관련 PPP는 대부분 크로스커팅 이슈를 포함하거나 다른 두 분야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대성에너지의 카자흐스탄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제공 및 태양광 시스템을 활용한 식수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에너지와 물 분야가 중첩되어 있다. 포스코가 기아대책과 수행하는 모잠비크의 농업개발 사업은 농업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문맹퇴치교육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어 농업과 교육이 크로스커팅 이슈로 포함

되어 있다. 또한 포스코가 기아대책과 짐바브웨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개발 사업 또한 AIDS환자들을 위한 농업 기술교육 및 의식개선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AIDS가 크로스커팅 이슈로 반영되고 있다. GS칼텍스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는 캄보디아 적정기술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 또한 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교육이 크로스커팅 이슈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PPP는 환경과 취약계층, 인권, 보건, 역량개발 등 다양한 크로스커팅 이슈가 함께 적용되어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는 기존의 개발 사업에 환경 분야가 가미된 성격의 사업들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나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로등 설치사업은 기존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환경 분야의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하였던 사업이며, 대성에너지의 카자흐스탄 태양광 사업도 기존의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의 개발 문제를 태양과 에너지를 활용한 식수 및 전력 제공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의 농업개발 사업 또한 지역의 빈곤문제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진행한 사업이며, GS칼텍스의 적정기술 사업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해 에너지와 교육 분야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민관협력의 체제에서 정부와 NGO, 현지 기관들이 가지는 전문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성에너지의 태양광 사업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에너지 전문 기업이 협력하였으며, 지역선정 등에도 카자흐스탄 지역정부의 협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앙코르와트 유적 내 가로등 설치사업 또한 캄보디아의 유적지 내 사업으로 현지 정부와의 협조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다. 다비육종은 자사의 현지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지법인의 사업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이게 한다. 또한 다비육종의 현지법인은 베트남의 농업전문대학인 Binh Dudng대학교와 협력하여 전문가 연구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GS칼텍스는 기존의 굿네이버스와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다른 기업인 LG의 연구소와 전문연구기관인 카이스트와도 협력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포스코 또한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아대책과의 협력 관계에 기반해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기술 전수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 PPP의 파트너십 유형에 기초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PPP의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5-1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KOICA PPP 파트너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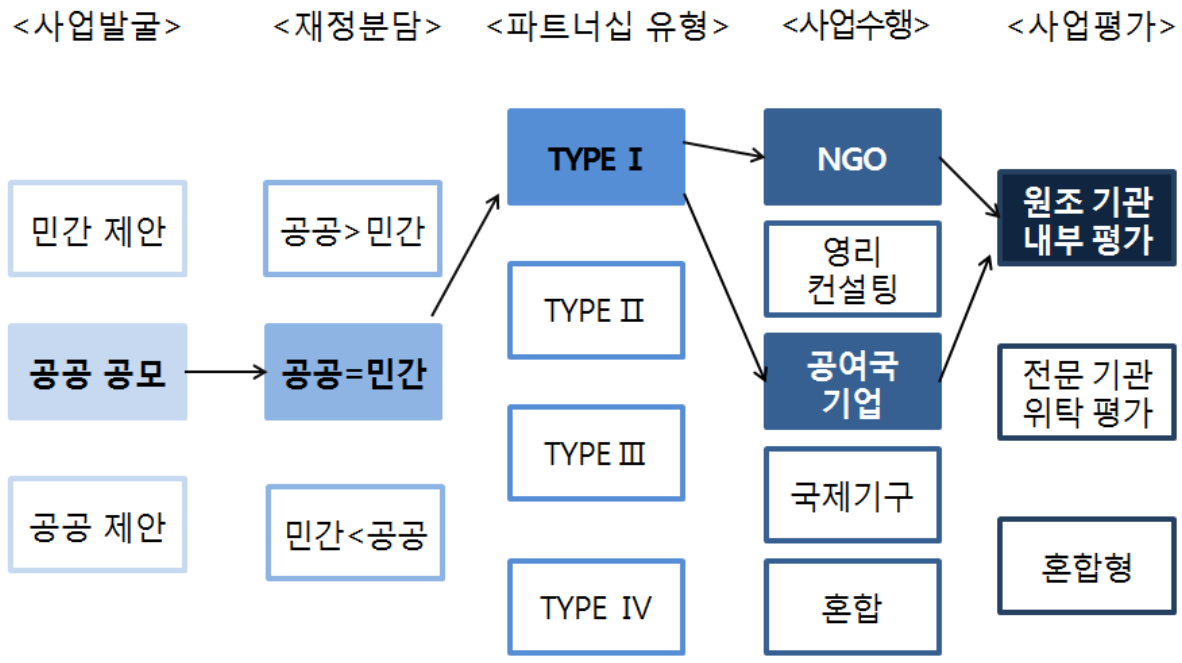
분야	사업명	공여국			수원국			파트너십유형(공여/수행)
		기업	NGO	기타 민간 기관	정부	기업	민간 기관	
에너지, 물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	대성에너지			산업기술부, 알마티주 지방정부	Dostyk Energo (국영)		Type I / 공여국 기업
에너지	캄보디아 앙코르유적내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	아시아나 항공			앙코르유적보전관리청			Type I / 공여국 기업
에너지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	GS칼텍스	굿네이버스	LG연구소, 카이스트	바탐방 에너지국			Type I / 비영리
농업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포스코	기아대책		국립농업연구소(IIAM)		농업훈련센터(SEFATE)	Type I / 비영리

농업 (축산)	베트남 빈증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다비육종				Darby-CJ Genetics (현지법인)	Binh Dudng University	공통(1) (공여국 정부+기업)
농업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 퇴치	포스코	기아대책		세케군 지방정부			Type I /비영리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다비육종이 진행하는 1개의 사업은 4가지로 구분된 공여 파트너십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여국 정부와 기업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십 유형의 공통요소(1)에 해당된다. 이 사업을 제외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의 PPP는 Type I 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로 공여국 정부와 기업이라는 형태를 기본으로 수원국의 정부와 협력하는 형식이며, 수원국 현지 기업이나 NGO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사업수행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공여국의 NGO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의 PPP를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1> KOICA PPP사업 프로세스



4. 소결: 기후변화 대응 PPP 활성화에 있어 시사점

현재 수행 중인 KOICA의 PPP 중 기후변화 대응 분야 PPP에 대한 분석과 PPP 참여주체들 및 환경 분야 CSR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분야 민관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경우 참여 대상 확장에 있어 기업의 성격과 관련한 다층적, 다면적 고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B2B를 중심으로 하는지, B2C를 중심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자금 투입 자체를 유용하게 여기는 기업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강한 유용성을 가지는 기업에 따라 각각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민관협력 사업 체계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업 발굴 방식 및 재정 분담 방식, 다양한 파트너십의 구축 등에 대한 고려와 PPP 참여 주체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발굴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인 상향식 공공 공모 외에 사업지역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 민간 제안 및 공공 제안 등 다양한 발굴 방식을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 및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받아냄과 함께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패러다임 내에서 사업 지역 및 의제, 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 분담 방식에 있어서는 매칭 비율과 매칭 한도, 다자간 매칭 등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에게 단순한 재정 지원 이상의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적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현재 공공과 민간이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매칭 비율과 한도의 증대를 고려하는 가운데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KOICA의 재정 지원 자체가 큰 매력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다자간 매칭 방식을 활용해 참여케 하는 방법과 함께 개별 기업 외 각종 협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도 요청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PPP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업과 NGO의 거래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참고하여 보다 수월하게 기후변화 대응 PPP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PPP에 참여할 수 있는 각 주체별로 이에 대한 이해도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 분야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우 전략적 CSR과 결합한 공공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한 인지제고가 CSR 담당자들을 넘어 의사결정 집단에까지 미쳐야 함을 의미한다. NGO의 경우에는 단순히 환경 분야의 사업내용, 사업지역, 사업 수혜 그룹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사업 방식에 있어 수원국의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그 책무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KOICA의 경우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업영역 외 정책적 환경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 기후변화 대응 PPP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넘어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한 국제적 합의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형성하였고, 이는 1992년의 UN기후변화협약(UNFCCC, 리우협약)을 필두로 하여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전협약 등 일련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환경 이슈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닌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연환경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및 개발 문제와 직결된 공동의 인식으로 발전했고 국제개발에 있어 환경 및 기후변화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 따라서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조 활동을 확대해 왔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도 2008년 이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왔다.

국제개발에 있어 환경은 하나의 섹터로서 또한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트 교토 시대, 특히 리우협약이 탄생한지 만 20주년이 된 2012년 오늘날에 가장 두드러진 담론의 변화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이다. 과거 국가간 수평적 차원에서 진행된 환경담론은 이제 수직적으로 확장되며,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여된 모든 행위자들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ISO26000, UN 중심의 민간기업 이니셔티브인 UN글로벌컴팩트의 등장은 국제개발 및 환경 분야에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환경문제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전통적인 공여자인 국가 중심으로 구조화된 거버넌스는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로 인해 보다 민주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은 자신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지원 활동을 통해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신흥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증진을 통한 개발목표 달성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수반되는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 정부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KOICA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순환도로 개선 사업에 이어 진행된 KOICA-아시아나의 태양광 가로등 PPP 사업(2011년)은 ODA 프로젝트의 결과(도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시민사회의 경우에도 환경관련 아젠다에 대한 전통적 감시 기능은 물론 관련 사업의 직접 수행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즉,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극적 참여에 더하여, 해당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개발(project development) 및 수행(implementation) 단계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네트워크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개발 NGO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공여국 정부의 경우에도 민간과의 재원 분담을 통해 ODA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개발의 참여그룹이 확대되고 현장과 수원국의 참여적 오너십이 강조되면서 수원국 정부, 기업, NGO 등도 매우 중요한 참여자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USAID의 AMARTA 프로그램과 같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현지의 수혜그룹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PPP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각종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구체적인 PPP 사업유형을 분류・제시하고, 셋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KOICA의 프로세스를 제시해 보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범사례를 습득하고 참여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PPP 정책 인프라 조성

무엇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를 위시한 섹터별 PPP 사업이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인프라가 다음과 같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민관협력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CSR' 공모사업을 지속하되,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거나 상호 협력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모제는 사업초기 단계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인큐베이션을 하기엔 적절한 방법이나, 규모 및 각 분야별 특징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민관협력실의 공모제는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당 최대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PPP 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년간 사업 및 민-관의 다양한 매칭 비율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발굴형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공여자를 파트너로 하는 수의계약 또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개별 부서에서 PPP를 전담해 관리하는 인력의 대한 추가 배치 및 적절한 교육 훈련 시스템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PPP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박스 6-1>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박스 6-1> PPP 교육훈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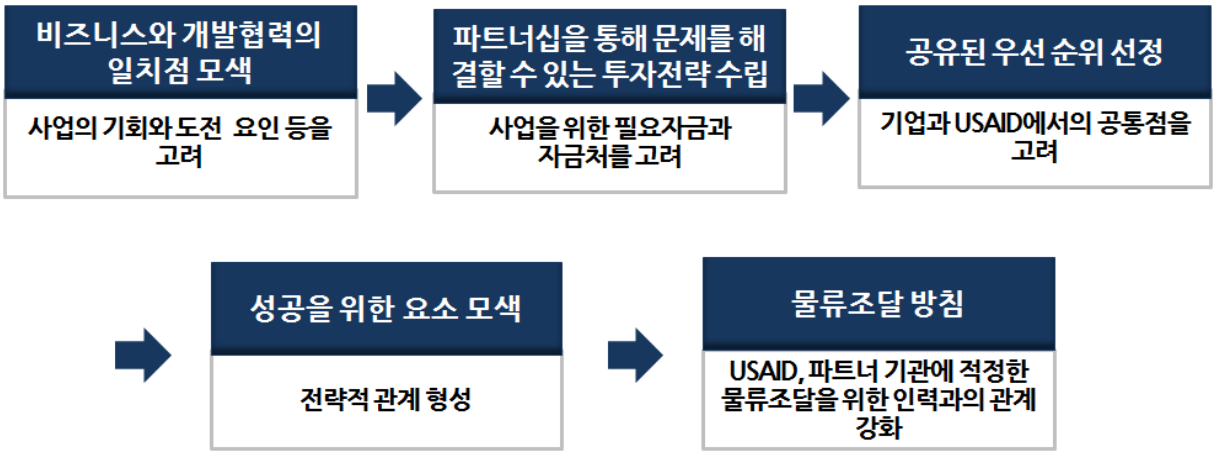
PPP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① 내부 직원에 대한 PPP 교육, 선진국 연수 및 개도국 현장에 대한 방문 통해 정책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위한 KOICA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② 기업 및 NGO 민간파트너의 역량강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해 파트너십의 적절성과 효과성 제고. 특히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 노력이 개발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의 윤리적 통합성(integrity) 강화 프로그램 도입
③ 수원국 참여자인 정부 공무원, 현지 기업 및 NGO에 대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참여자들이 현장 파트너십 구축 통해 원활하게 PPP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 제공

아울러 참여 기업을 위한 PPP 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6-1>에서 나타나는 GDA의 기업 참고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 민관협력 기금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GDA의 기업참고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둘째, 사업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따른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의 제한된 매칭 펀드로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해당 사업을 확장시켜 브랜드화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년도, 대규모 사업은 물론, 사업별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혁신적 예산 운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그림 6-2>에 도식화되어 있다.

우선 1)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신탁은 기존의 KOICA사업 또는 (앞으로 설치될) 민관협력 기금에 민간의 재원을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2) 민간에 대한 재원 보조는 현행 NGO 지원 사업의 형태를 포함하되, 기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3a)와 3b)의 경우 본격적인 민관협력 사업의 형태인데, 3a)협조 공여(Parallel)의 경우 사업 단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하나는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경

우이다. 예를 들면 도로를 ODA 재원으로 건설하고, 도로 위의 가로등을 민간 CSR 재원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3b)의 경우 현행 단계의 가장 일반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서, 민간재원과 공적재원을 하나로 묶어 단일 사업화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6-2> 혁신적 민관협력 예산 운용방식



셋째,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 NGO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CSR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사업 규모가 커지고 파트너십의 형태가 다양화되면 전문 PMC를 중심으로 사업이 개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 수행 방식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3장에서의 GDA 프로젝트 분석 중 파트너 수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대응 PPP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전문 PMC 중심의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사업수행자로서 NGO의 참여는 단순하게 '자선적 관점' 또는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분야별 전문

NGO들은 사업 개발 및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컨설팅 기업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 NGO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ODA와 기업 CSR의 생리를 잘 이해하며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사업수행기관'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 PPP의 사업유형

현재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PPP인 '글로벌 CSR 프로그램'은 모두 '공모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덴마크, 독일의 PPP는 대부분 '제안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제안형' 사업의 발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간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형'이다. 둘째, 원조기관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사업을 하는 '공공 제안형'이다. 셋째, 민간과 원조기관의 공동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공동 제안형'이다. 이와 같은 제안형은 모두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사업발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발굴형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도록 한다. 즉, 향후 KOICA의 기후변화 및 환경 영역을 비롯한 섹터별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유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크게 '공모형'과 '발굴형'으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한다.

'공모형'의 경우 KOICA 민관협력실의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기존의 글로벌 CSR 사업이 해당한다. '공모형'의 경우 현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섹터를 담당하는 부서와 민관협력실간의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글로벌 CSR 사업에 캄보디아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신청된 경우, 사업 선정 단계에서 이를 기후변화실과 민관협력실이 공동의 업무협력으로 심사-수행-평가 등 3단계에 있어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섹터와 사업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심사, 평가 방식을 개발하고, 사업 시행

시 민관협력실-기후변화대응실(섹터 부서) 및 아시아팀(지역관련 부서)간의 삼각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다. 첫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일 경우, 섹터 및 지역 부서 주관으로 대규모 후속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발굴형'은 다시 사업형, 지역형, 현장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업형은 기후변화대응실에서 자금공여 규모 및 비율, 중점분야와 지역,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 모듈이 형성되면 민간 기업의 CSR 부서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NGO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직접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여 다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형성-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형은 기존의 기후변화대응실 사업을 PPP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미 기업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림사업, 환경보호 사업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과 NGO가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형은 KOICA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부서에서 특정국가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는 형식이다. 선행조건은 사업형과 유사하게 PPP에 있어 전 지역부서가 자금공여 규모 및 비율, 중점 분야와 지역,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수행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장형은 각 지역사무소에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함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는 형식이다. 현장형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지에서 민(기업, NGO)-관(KOICA)이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신흥시장에 눈부시게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해외투자, 원부자재의 아웃소싱,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와 호흡해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사회공헌 활동(CSR)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CSR이 ODA와 결합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형 PPP사업이 원활하게 개발-시행되기 위해선 현장 사무소의 예산, 조직 등 지원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발굴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및 녹색 ODA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에 조응하고, CPS 주요협력국을 대상으로 정책적 고려가 가

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PPP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굴형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의 이니셔티브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을 정부의 재원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ODA로 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USAID의 GDA 프로그램인 Certified Sustainable Products Alliance(CSPA)는 열대우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NGO인 Rainforest Alliance(RA)가 이미 농업 및 산림분야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운용하여 농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활동을 하던 것에 USAID의 재원이 투입된 것이다. GDA 사업 중 가장 효과성이 크고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업은 Rainforest Alliance(RA)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에 USAID의 지원이 결합됨으로써 사업 규모가 확대된 사례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사업의 유형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민관협력 사업유형

		KOCIA 주관부서	협력부서	특이사항
공모 프로그램		민관협력실의 “글로벌 CSR” 프로그램	기후변화대응실 지역담당부서	글로벌 CSR 사업의 성과가 좋은 경우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 지원
발굴 프로그램	**사업형**	기후변화대응실	지역담당부서	민관협력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전문화 필요. 예산 및 조직 확대
	지역형	지역담당 부서	기후변화대응실	
	현장형	현지 사무소	지역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실	지역사무소의 예산, 조직 확대 등 실질적 현장화 필요

○ 기 종료된 PPP를 활용한 시범사업 후 기후변화 대응 PPP의 확대를 꾀하는 단계적 시행방식을 고려한다.

기후변화 대응 PPP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기후변화대응 PPP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 방식 사업발굴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대규모의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PPP의 경우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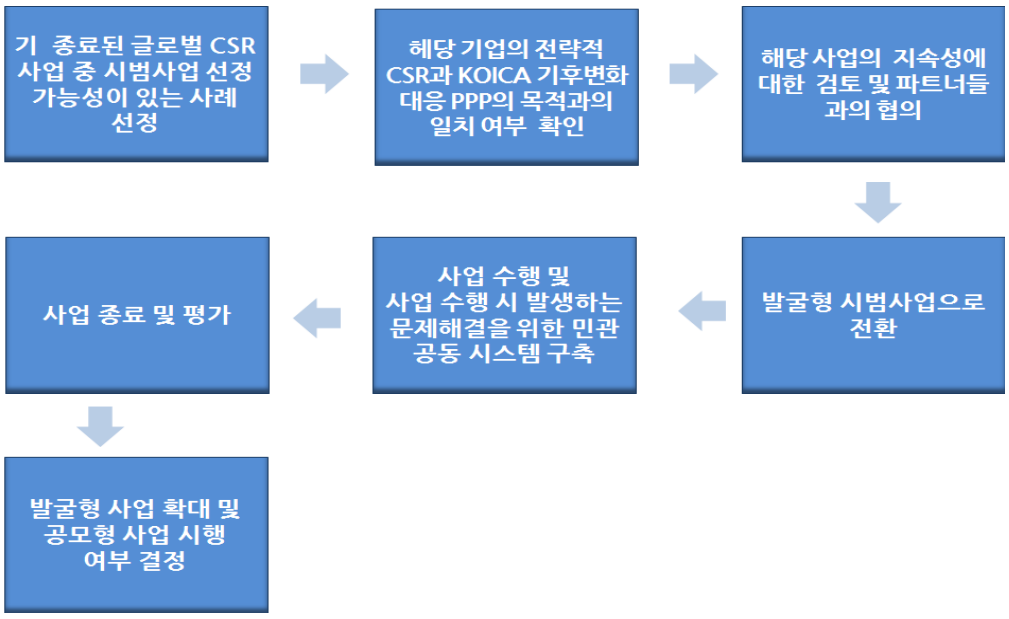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KOICA의 글로벌 CSR 사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내 PPP에 참여한 사업의 후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내 PPP가 시작된 지 불과 3년 남짓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기간과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히기 전에 기후변화 PPP의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그 해결방식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 사업을 주관하게 될 KOICA의 기후변화대응실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161] 통해 민간기관과의 논의 및 협의로 세부적인 사업수행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프놈펜 등에서 시행할 동 사업의 경우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사업 선정 후 기후변화대응실과 UNIDO가 사업 설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실은 삼성전자가 재정 투입 뿐 아니라 전문기술 인력 파견, 사업 관련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발굴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

161) 이 사업은 전기전자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체계구축과 처리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KOICA, 삼성전자, UNIDO가 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사업예산은 135만불로 이 중 KOICA가 100만불, 삼성전자가 30만불, UNIDO가 5만불을 지원한다. 사업지역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4년까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6-3>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굴형 PPP의 단계적 시행과 이를 통한 발굴형 PPP의 확대 및 공모형 PPP의 실시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6-3> 기후변화 대응 PPP의 단계적 시행 과정



○ 사업 분야 설정에 있어 사업 대상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3장에서 분석한 미국, 덴마크, 독일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의 사업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각 국은 사업 분야를 정형화기보다는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과 진출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각 국가별로 진출한 기업의 주 분야와 관심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의 사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6-2>는 CPS 주요협력국인 베트남과[162] 현지 사례조사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 현황을 보여준다.

162) 가나와 솔로몬군도도 CPS 주요협력국이지만 본 연구에서 참조한 KOTRA의 자료에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2>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국가	분야	진출 기업명
인도네시아	**목재, 가구, 펄프, 종이**	가야 인도네시아, 끼안자야, 동주 인도네시아, 만데 인도네시아, 보성인도네시아, 아스펙금봉, 에바다 인도네시아, 오리엔트클래식퍼니처, 유신 인도네시아, 인꼬뿌리마우따마자야, 인니동화개발(주) 코린도 그룹, 인도박스, 인화, 죠지안퍼니처 크리스안틱, 코린도그룹, 코린띠가후타니, 화이트로즈, 빠빤인다
방글라데시	**목재, 가구, 펄프, 종이**	태흥 패키징 방글라데시(주)
베트남	**목재, 가구, 펄프, 종이**	데코빌, 팀스 주식회사, 비나 코리아연합, 에넥스, 인텍가구(주), 고미프로덕트, 골든퍼시픽, 김치흥, 나무비나, 다텍코, 리바트비나, 리스퍼니처, 브이알제이 동화, 비나지이, 산림조합비나, 삼광에어테크, 덕부, VITA CONSTRUCTION CO., LTD, SG 비나, LACQUER WORLD CO., LTD, DONGWHA WOODIKO TRADING, 황김가구, 한빛플라스틱, 한미슈페른, 톰슨퍼니처, 유니임펙스 베트남, 에스엔케이 비나, 선우드비나
	수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플라스틱재생	금강, JKC VINA, 강산비나, 한빛플라스틱 등
	농림, 수산업, 임업	㈜서룽상사, 다비씨제이제네틱, 바나비다, 한비코
	에너지환경, 자원, 산업소재	삼성물산
	환경정책기술 전파, 환경산업 진출지원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태양광 전지	비나아폴로테크(주)
	수산물	블루시
	광업, 자원개발	비나듀크
	건설중장비업체	두산인프라 코어

출처: KOTRA. 2012.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pp. 61-544.

덴마크의 경우 Danida의 B2B Environment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에서만 수행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덴마크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물 공급 및 처리, 고형폐기물 관리를 집중 분야로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PPP를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예를 참고하여 위의 표에서 나타난 우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목재, 가구, 펄프, 종이 등의 분야는 조림, 에너지 환경, 태양광 전지 등의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PPP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KOTRA나 KOICA 현지 사무소, 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덴마크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Danida는 덴마크의 기업들과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의 연계를 촉진시켜 파트너 국가가 덴마크의 기술과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PPP 사업에 관심이 있는 덴마크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현지 기업과의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며, 특히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시장 현황 및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관련 기관과 KOICA 현지 사무소 및 재외 공관 등을 활용하여 사업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연결한다면 단순히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수원국의 이해와 요구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PPP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PPP 사업 프로세스

기후변화 및 환경 등 각 섹터별 PPP사업은 KOICA와 같은 전문 원조기관의 입장에서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굴형’을 중심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발굴형 PPP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KOICA 내부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단계 이후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승인까지의 본 절차는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의 프로세스는 3년을 주기로 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본형으로 활용하여 사업기간별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 PPP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 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 제안	- 기 종료된 PPP 사업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PPP 사업 중 선정 - 민간으로부터의 사업제안 - KOICA 지역부서 및 현지사무소를 통한 제안 ・해당 민간 주체의 성격 및 사업 현황 파악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목표와 기업의 전략적 CSR과의 부합성 검토	전년도 2/4분기
↓		
사업 컨셉노트 제출	- 민간주체로부터의 사업 개요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받음	전년도 3/4분기
↓		
사업 타당성 검토	- 기후변화대응실 뿐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와 함께 타당성 검토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 예정 지역의 KOICA 현지 사무소에도 타당성 검토 의뢰	전년도 3/4분기
↓		
1차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민간 주체와의 협의 ・사업세부 내용 확정, 지원기간 및 지원액에 대한 구체적 협의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KOICA 내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전년도 4/4분기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민간기관 대표자간 MOU체결	사업1년차 1/4분기(1월)
1차 자금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 ・예산 지급비율은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에 따름.	약정 후 14일 이내
사업착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 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 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사업2년차 2/4분기
사업결과 중간평가	- 사업평가 결과 및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보완 및 권고 사항	사업2년차 2/4분기
중간 평가 결과 및 보완사항에 대한 계획 접수 및 승인	- 사업평가 결과 고지 시 보완 및 권고했던 사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검토	사업2년차 2/4분기
2차 자금 지원	- 중간평가 결과 반영 계획 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 2차 지원금 지급 ・예산 지급비율은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에 따름.	사업2년차 3/4분기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사업결과 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KOICA본부 및 현지사무소가 종합적으로 실시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사업결과 공유 포럼 개최	- 당기 사업 참여 기관 및 차기 사업 참여 대상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업무단계의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제안

PPP사업의 첫 단계는 사업제안이다. 사업제안은 민간 공여 파트너인 기업 또는 기금 단체가 KOICA에 사업 제안을 하는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기후변화 대응 PPP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임을 고려해 KOICA가 자체적으로 민관협력 대상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NGO 등의 잠재적 PMC가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제안 주체는 민간 공여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KOICA에서는 발굴형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제안 형식 및 방법에 대해 각 섹터별로 요건과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PPP의 시행을 위해 사업 발굴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전 준비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미국, 덴마크, 독일 등에서는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단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명확한 파트너십 구성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발굴부터 체계적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USAID는 가장 구체적으로 PPP를 통한 기업의 협력 목적과 GDA 파트너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독일도 명확한 파트너십 구성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선정, 발굴하고 있다.

<표 6-3> 주요 공여국의 PPP 파트너십 구성기준

	기업의 협력목적	GDA 파트너십 가이드라인
미국의 파트너십 구성 기준	Business Drivers Market • 시장 지향적 접근 • 기업의 도전 • 리스크 감소 • Value Chain • 국제적 공급망: 아웃소싱 및 생산 • 현지 비즈니스 행위자와의 관계구축	• 행위자들 간의 신뢰 • 평등 • 권한 • 포용성 • 파트너십 조정 • 공동의 이익 • 투명성

	CRS Drivers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 홍보 • 가시성(visibility) • 자선활동	
덴마크의 파트너십 구성 기준	• 지역 파트너의 경쟁력 강화 • 녹색기술의 사용증가 및 외부 환경보호 개선 • 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접근을 통한 가치 부가 • 식량안보 강화 •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empowerment) 강화 • 지역경제통합 강화 (여섯 가지 중 1~3개를 만족시켜야 함)	
독일의 파트너십 선정 기준	• 개발목표 지지(compatibility) • 보완 (complementarity) • 보조 (subsidiarity) • 민간부문의 기여(Contribution) •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	

USAID는 이러한 명확한 협력 목적과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 분문과의 비공식적 회의를 주요한 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초기 미팅을 위한 지침”을 통해 회의 전 민간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163)]

덴마크의 경우는 PPP 수행에 있어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고 준비단계를 1년, 사업실행단계를 3년 이내로 구성하며, 준비단계인 1년간 총예산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기업이 사업내용에 관한 간략한 컨셉 노트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한 후 DEG, GIZ, Sequa가 함께 예산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업 실행 이전 단계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민간주체와의 사전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실제 사업실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공여국의 사례와 함께 현재 국내 PPP의 시행 기간이 짧아 축적된 경험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PP도 충분한 사전준비단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3개월에 걸친 민간참여주체와의 사전 미팅 및 협의를 통해 그들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한다.

16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3장에서 분석한 USAID 관련 내용과 USAID 홈페이지를 참조. http://gda.usaid.gov/

○ 사업 컨셉노트 제출 및 KOICA의 기후변화대응실(섹터 부서) 차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민간주체로부터의 사업 개요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고 검토하는 단계이다. 기후변화대응실 뿐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 예정 지역의 KOICA 현지사무소에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사업 타당성이 도출되면 민간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Due Diligence'를 시행하며, 점검해야 할 항목을 표준화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민간공여자의 개요와 재무 건전성, 해외사업 경험과 비전, PMC의 사업 수행역량 등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한 실사를 시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USAID의 GDA에서 사용하고 있는 섹터별 가이드라인 중 민간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과 독일의 PPP 프로젝트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6-4> 미국과 독일의 PPP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독일의 PPP 프로젝트 체크 리스트	프로젝트 실행주체	• 민간영역과의 장기적인 계약관계 체결에 대한 공공관료의 의지이해 • 정부 관료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 실행 경험이 있는지 • 프로젝트 팀의 관련된 경험 및 교육경험 평가 • 프로젝트 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규명
	프로젝트	•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장과 수요 규명 • 공공과 민간이 프로젝트 시행 시 수반될 위험을 공평하게 부담하는지 • 예상되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프로젝트 전체 규모 평가 • 핵심 PPP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PPP 모델을 발전시킴 • PPP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될 특정 서비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역/공공 관료의 목표 규명 • 입찰평가를 위한 기준 설립 • 프로포절 평가를 위한 기준 설립 • 투명성과 반차별을 보장하는 원칙 설립 • 출구전략 설립

미국 GDA의 에너지 분야 민간 파트너 선정 기준	• 해당 지역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된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존재하는가? 또는 인근 지역 또는 국가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할만한 에너지 이슈가 존재하는가? • 전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지역의 다른 경제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가? • 기후변화가 해당 국가의 에너지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한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할 만한 기회가 있는가? • 해당 지역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가 존재하는가? • 해당 지역에서 파트너십 및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연구기관이 이미 민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가? • 파트너십에서 누가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인가? 민간 행위자들이 이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재단 또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이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 소규모 사업자 및 기업가들이 관여되어 있는가?

○ 1차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1차 선정 이후의 작업은 KOICA와 민간주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민간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민간과의 협력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예산항목 조건, 재원 부담 비율 및 방식, 추진계획 및 체계, 평가방법 등을 최종결정한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절차만을 남겨 둔 단계이므로 민간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 계획수립부터 심의, 승인까지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약정 체결

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각 공여자들의 내부 승인 철차를 완료한다. 필요한 경우 양측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사전 준비단계에서 구축한 파트너십을 기초로 하여 매 사업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중간평가 및 사업계획 수정, 보완

사업 2년차에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는 사업의 지속적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완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업수행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즉, 사업계획에 따른 현지에서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KOICA와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 개선점 및 보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남은 기간의 사업수행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진다.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PPP의 특성에 따라 한 국가 안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USAID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성과 결과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정부차원의 조사관을 직접 현장에 보내 사업을 모니터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의 IPAC(Integrated Protected Area Co-management)의 경우는 IPAC이 자체 모니터링 수행계획을 가지고 수행하지만 USAID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하여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존스홉킨스 공공보건대학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센터 (JHUCCP: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의 경우는 독립 컨설팅 업체에 평가를 위탁하고, GFTN(Global Forest and Trade Network)의 경우는 수행주체인 WWF 본부에서 6개월 마다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AMARTA II (Agribusiness Market And Support Activity) 의

평가에 있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외부 평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경우는 Business Partnership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덴마크 대사관과 파트너십 참여 행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파트너십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기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각 세부 단계가 마무리될 때마다 대사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경우 덴마크 대사관이 직접 행한다.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번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된 결과를 확인, 사업 실행의 과정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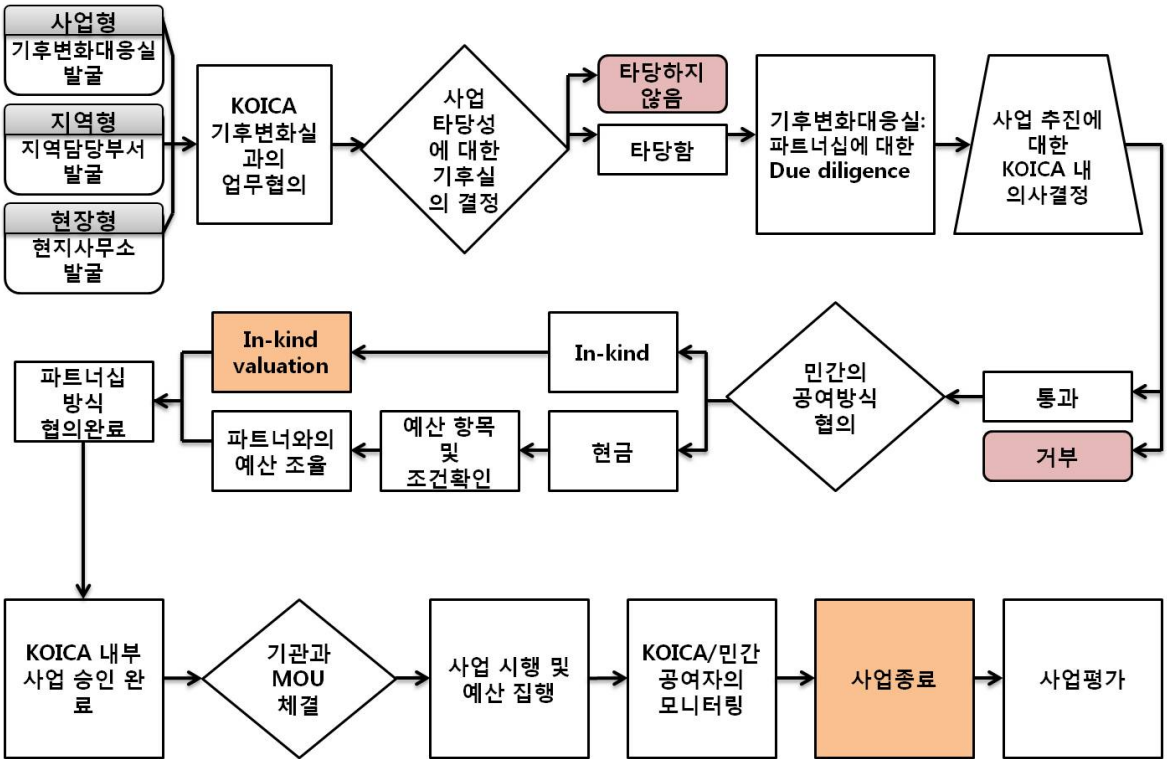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른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각 프로젝트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고정된 평가방식보다는 가장 적절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되 민간주체와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업결과 공유 포럼 개최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안에 사업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 뿐 아니라 차기 사업 대상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업결과 및 효과성에 대해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식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 대응 PPP에 대한 인지제고의 효과 뿐 아니라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을 통한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단계별 주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6-5〉 발굴형 민관협력 사업 추진 프로세스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대응 PPP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간 내부에서, 특히 공여자인 기업 또는 자선적 기금 조직과 사업 수행주체인 NGO 또는 컨설팅, 대학 등과의 네트워킹 형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로 노력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기업과 NGO는 심리적인 이질성으로 인한 인식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각각의 비교우위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교류의 장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주도로 '민관협력 연대' 등을 발족시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및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인식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어 지역별,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NGO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PPP 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면 인식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다.

<표 6-5>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구분	대상	내용
포럼	중소기업 대기업	• 녹색 ODA 및 기후변화 PPP의 필요성, 목적에 대한 이해 • PPP 실제 수행 사례에 대한 지식 공유: 지역별, 분야별 사례
컨퍼런스	기업 NGO CSR 정책담당자 기타	• 해외 주요 사례 • 국내 시행사례 • USAID IDEA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 해외 기업 CSR 담당자 초청 (코카콜라의 WADA 프로젝트 담당자 등)
인지제고	**주요내용**	
	• KOTRA, 전경련, 중소기업진흥원 등 기업관련 협회와 협력 • CEO - 국제개발 CSR 포럼 구축 • KOICA-기업-NGO 등을 연결하는 정기적 모임	

둘째, 사업의 발굴 및 공모와 별개로 역량강화 및 관심 유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지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기업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는 KOICA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혜적인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의 한계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종 연합회, 협회 등을 활용한 인지제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OTRA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PPP에 대한 인지제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앞의 <표 6-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관련하여 주로 목재・가구・펄프・종이/수자원/농림・수산업・임업/에너지환경・자원・산업소재/태양광전지 분야 등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KOTRA와 협력하여 이러한 해외진출 기업 혹은 해당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내외 주요 PPP 사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PPP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꾀함과 동시에 기업의 CSR를 비롯하여 개발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PPP

분야 확대 및 진출기업의 참여 확대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녹색 ODA 및 민관협력에 대한 정보 전달, 해외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 및 사회공헌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인지강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EO 중심의 국제개발 CSR 포럼 구축을 통해 사업 결정권자들의 인식 개선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제고 활동이 직접적인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NGO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비록 늦게 원조 공여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한국의 PPP를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연화. 2009.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ODA”. 『국제개발협력』. 제4호.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곽재성. 2012. “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국제개발협력』. 제1호.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외. 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재경. 201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통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2012. “Rio+20 재무장관 세미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2012.6.21.

김귀곤 외.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노한균. 2011.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 2009.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박효진・윤순진. 2011. “한국의 대외원조 녹색화 담론 분석: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89호.

손혁상. 2012.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사업(PPP) : 미국 USAID의 GDA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제1호.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제13권 1호.

이택근. 2011. “녹색 ODA 분류 기준”. 『국제개발협력』. 제3호.

이태주. 2006. 『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성

과 제고를 위한 다중적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포럼 발표자료).
임소영. 2010. “OECD/DAC ENVIRONET(환경과 개발 네트워크)의 기후변화와 개발 논의 동향, 『국제개발협력』. 제2호.
임소영. 2012 『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청와대. 2008.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 2008.8.15.
청와대. 2012. “Rio+20 개막식: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2012.6.20.
최민경. 2008.『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최민경. 2008.『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 Mode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연구회 발표자료).
최민경. 2008. “국제개발원조와 Public Private Partnership. 『국제개발협력』. 1호.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2008. “Executive Briefing: ECA, 국제기구 및 국제수출금융시장 이슈와 지원 사례”. 2008.7.28.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2008. “Executive Briefing: ECA, 국제기구 및 국제수출금융시장 이슈와 지원 사례”. 2008.9.8.
한바란 외. 2010.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일표 외 3인. 2011. 『한국의 물 분야 대 개도국 PPP 구축 기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환경부&OECD. 2010. 『OECD 환경정책 논의동향』.
CIA The World Factbook. 2011. 『아시아 지역별 개발전략』. 수출입은행.
KIEP. 2012. 『아시아개발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협력 현황과 시사점』. KIEP.
KOTRA. 2009. 『아시아 개발은행 수주가이드』. KIEP.
KOTRA. 2012.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KOTRA.

2. 국외문헌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11. HLF4 Outcome Document: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Hicks, Robert L., Bradley C. Parks, J. Timmons Roberts, and Michael J. Tierney. 2008. Greening Ai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Kim, Soyeun. 2009. “Trans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reening of Japan’s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la Environmental Politics. 9:2.

Klein, A.-M., Vaissière, B. E., Cane, J.H., Steffan-Dewenter, I., Cunnigham, S. A., Kremen, C., Tscharntke, T. 2007. Importance Of Pollinators In Changing Landscapes For World Crop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274.

Porter and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Tim J. Ward1외. 2007. “Development of the Masters of Science Degre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Engineering at the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Kazakhstan: A Global Partnership’“. 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education: Portugual(발표자료)

3. 국외 정부 및 기관 발간 문건

ADB. 2008. Annual Report 2008. ADB.

ADB. 2010. Annual Report 2010. ADB.

ADB. 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ndbook. ADB.

ADB. 2008.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ADB.

ADB. 2008. Strategy 2020: Working for an Asia and Pacific Free of Poverty. ADB.

BMZ. 2011. develoPPP.de-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GIZ.

BMZ. 2011.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MZ.

Chia Partner Alliance. 2008. Chia Lagoon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Final Report. USAID.

Danida. 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pport Facilities i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Danida.

Danida. 2011.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nd Support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Danida.

Danida. 2012. Danida Business Partnerships.

GIZ. 2011. PPP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an overview and approach. GIZ, BMZ.

GTZ. 2011. Guidelines for iPPPs - Indonesia. GTZ.

IPCC. 2007. IPCC 4th Assessment Report.

ITDP. 2010. Annual Report. ITDP.

Keva. 2003. Keva annual report for 2003.

OECD. 2006. Promoting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 OECD.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OECD.

OECD-DAC Secretariat. 2012.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OECD.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49. PPIAF.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3. PPIAF.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5. PPIAF.

PPIAF. 2011. Way Forward for World Bank Support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eveloping Countries. July. PPIAF.

PwC. 2011. PPP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 an overview and approach. GIZ.

Rainforest Alliance. 2010. Nicaragua Sustainable Forestry, Agriculture and Tourism Alliance(NIFATA) Final Report.

The Reality of Aid. 2011. PPP: Private Gains, Public Costs.

UNDP. 2004. UNDP and the Private Sector: Building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UNDP.
UNEP. Medium-term Strategy 2010-2013. UNEP.
UNEP. 2009. UNEP Policy on Partnership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UNEP.
Utting, Peter. & Zammit, Ann.. 2006. Beyond pragmatism : appraising UN-business partnerships.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SAID. 2005. USAID and Sustainable Tourism: Meeing Development Objectives. USAID : Washington DC.
USAID. 2007.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USAID. 2009. Evensen Dodge International Alliance for Sub-National Infrastructure Financing.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11. HLF4 Outcome Document: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4. 인터넷 자료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글로벌윈도우(KOTRA) http://www.globalwindow.org
녹색성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47#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세계은행 http://ppp.worldbank.org
세계은행 PPI 통계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WBI)
http://wbi.worldbank.org/wbi/about/topics/public-private-partnerships
UNEP/부퍼탈 연구협력센터(Wuppertal Institute Collaborating Centre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SCP) http://www.scp-centre.org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keri.koreaexim.go.kr
ACDI/VOCA http://www.acdivoca.org
ADB(Asia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
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AMORE)
http://amore.org.ph
AMARTA(USAID) http://www.amarta.net
CADEFOR http://www.cadefor.org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ttp://www.carecinstitute.org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s http://www.jhuccp.org
Cleanairinitiative http://cleanairinitiative.org
Conservation International http://www.conservation.org
Danida Business Partnership http://um.dk/en
DeveloPPP http://www.developpp.de
Eco-Index http://www.eco-index.org
Forest Strardship Council http://www.fsc.org
GDA(USAID) http://gda.usaid.gov
GTZ http://www.gtz.de
IDEA(USAID) http://idea.usaid.gov/newsroom
Institut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http://www.i4ei.org
ITDP http://www.itdp.org
JHUCCP http://www.jhuccp.org
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er http://www.ncrc-Ghana.org
OECD 미국 ODA 통계 http://www.oecd.org
Promo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http://www.pses.co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PPIAF) http://www.ppiaf.org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http://www.tist.org
Total Land Care http://www.totallandcare.org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http://www.unglobalcompact.kr

UNEP(UN Environment Program) http://www.unep.org
UNESCAP www.unescap.org
USAID http://idea.usaid.gov
Winrock International http://www.winrock.org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1) 코이카 PPP사업 참여 기업 대상자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금호타이어	최범진	기업문화팀 부장
		나태현	기업문화팀 차장
2	아시아나항공	최석병	사회공헌팀 대리
		우지현	사회공헌팀 대리
		권희준	녹색환경팀
3	포스코	염은애	사회공헌실 대리
4	한국중부발전	남기산	기획처 협력팀 대리
5	GS칼텍스	박필규	사회공헌팀 차장

2) 코이카 PPP사업 참여 NGO 대상자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굿네이버스	윤보애	해외사업팀 대리
		강혜린	해외사업팀 간사
2	기아대책	권수현	국제사업본부 팀장
3	코피온	최진경	국제협력팀장
4	플랜한국위원회	홍세나	대외협력/프로그램팀 차장
5	하트하트재단	이현윤	해외복지사업부 팀장
6	기아대책	권수영	간사
		박종호	기업개발팀 팀장
		한두리	간사

3) 기업 CSR-NGO 파트너십 대상자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기아대책	이대영	기업개발팀 간사
2	미래숲	박준동	과장
		이성길	대외협력팀 팀장
3	에코피스아시아	이태일	사무처장
		사은혁	대외협력팀 간사
		심보영	대외협력팀 간사
4	팀앤팀	안혁준	대외협력팀 팀장
5	푸른아시아	제진수	사무처장
6	SK	김낙준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박준석	커뮤니케이션팀 차장
7	효성그룹	김영태	홍보실 과장
8	현대자동차	서진원	사회문화팀 차장

4) KOICA 관계자 대상자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강민경	기후변화대응실 연구원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용환	민관협력실 직원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1) 미국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offatt K. Ngugi	Program Analyst, Climate Change in Agri
		Michael Hanowsky	AA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ellow, Transport Policy, Global Climate Change Team
		Andre Mershon	Climate Change Program Specialist
		Helen Cho	Program Officer
		Linda Lee	Analyst
2	**Technoserve**	Tim McLellan	Chief Operating Officer
3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Laura Henderson	Director, Government Partnerships
		Hisayo Fujikawa Harlan	Operations Manager, Global Forest & Trade Network
4	**Rainforest Alliance(RA)**	Silvina Weihmuller	Director of Institutional Giving
		Josh Tosteson	Director of RACert
		Maya Albanese	Coordinator of Sustainable Value Chains
5	**ACDI VOCA**	Carl H. Leonard	President&Chief Execution Officer
		Paul Guenette	Senior Vice President Corporate Affairs

2) 방글라데시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Farah Nayer Zabeen	Programme Officer, The Trade council & B2B Programme
2	**IPAC (USAID's Integrated Protected Area Co-Management Project)**	Reed Merrill	Chief of Party
		Mahmud Hossain	Manager of Enterprise Development & PPP
		Ram Sharma	Deputy Chief of Party
3	**GIZ(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Magnus Schmid	Program Coordinator
		Elke Shrestha	Senior Business Advisor
		Ashiqur Rahman Ripon	Advisor
4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odd Andrews	Deputy Program Office Director
		Jason Seuc	Environment Officer/Economic Growth Office
		Risalunnabi Khan	Program Specialist
5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Christian Portal	Chief of Party

3) 인도네시아

번호	기관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Amarta USAID**	Anna Juliastuti	Economic Growth Office (AMARTA)
		Dr. Donald Tambunan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 (Agriculture)
2	**USAID Environment**	Thomas J. Cody	Strategy Implementation Advisor, Program office
		Rebecca Carter	Natural Resources Officer
3	**WWF Indonesia**	Dita Ramadhani	Responsible Trade and Networking Coordinator
4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이원국	이사
		박규영	차장
5	**DANIDA**	Devina Fitrika D. Anasruron	Programme Officer
		Diyanto Imam	Commercial Advisor
6	**GIZ**	Michael Marien	Advisor of Priority Area, Private Sector Development
		Dr. Maren Breuer	Policy Advic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AKLIM)
		Zulazmi	Deputy Country Director Indonesia and Timor-Leste
		Dr. Dieter Brulez	Principal Advisor, Policy Advic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AKLIM)
7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s**	Hari Fitri Putjuk	Country Representative

2. USAID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GDA 사업 섹터별 자료

가. 농업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Building Business Linkages and Developing Business Skills	2002	2002	10	Mozambique	750,000	753,000
2	Finance Assistance for Sustainable Trade (FAST)	2005	2007	1	Guatemala, Mexico, Nicaragua, Panama, Peru	1,999,000	N/A
3	Abiotic stress tolerant rice and wheat for India - Arcadia Biosciences	2009	2012	1	India(Asia Region)	N/A	N/A
4	Agro Enterprise Development Alliance	2007	2010	1	Afghanistan	2,629,077	2,527,646
5	ADP (Agriculture Development Partnership)	2008	2008	1	Sri Lanka	45,000	65,750
6	Advancing Afghan Agriculture Alliance (A4)	2006	2010	4	India, Afghanistan	7,000,000	7,000,000
7	African Agricultural Technology Foundation	2003	2008	10	Burkina Faso, Kenya, Nigeria, Tanzania, Uganda	5,513,000	26,000,000
8	African Cashew Alliance	2006	2006	3	Africa Region	200,000	5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9	African Market Garden	2004	2008	7	Burkina faso, Ghana	1,250,000	1,098,000
10	AgDepot (AFSA)	2008	2010	1	Afghanistan	2,629,077	27,905,719
11	Agribusiness (MIDAS)	2005	2009	7	Colombia	86,000,000	710,000,000
12	Agribusiness in Sustainable Natural Plant Products	2002	2002	38	Ghana, Madagascar, South Africa, Zambia	2,385,000	3,078,500
13	Agribusiness Promotion	2006	2011	3	Afghanistan	4,375,285	13,559,905
14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AEGIS)	2003	2004	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204,000	1,966,250
15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inance Program	2006	2011	5	Angola	2,700,000	3,000,000
16	Alliance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Assistance in the Zambia Copperbelt	2003	2007	14	Zambia	1,635,000	5,826,325
17	Alliance for Sustainable Coffee Production	2005	2008	4	Africa Region	450,000	N/A
18	Allia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mallholder Rubber Sub-sector	2007	2009	2	Liberia	2,250,000	1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9	Alliance to Create Opportunities for Rural Development through Agro-enterprise Relationships	2007	2010	11	Nicaragua	7,589,398	18,571,396
20	Amazon Cacao Development Alliance	2003	2006	5	Ecuador	737,670	831,788
21	Aquaculture	2008	2008	1	Nigeria	N/A	N/A
22	Arcadia Biosciences	2008	2008	1	India	N/A	N/A
23	Benue State Rice Alliance	2005	2010	1	Nigeria	500,000	30,500,000
24	BOMOHSA GDA to promote the use of agricultural technology	2009	2010	1	Honduras	20,000	200,000
25	Cabinda Agribusiness Development Alliance	2002	2005	2	Angola	1,010,000	6,000,000
26	Captive Fisheries for Income and Strengthened Households (C-FISH)	2007	2007	7	Malawi	1,011,903	1,012,000
27	CARE	2004	2008	2	Kenya	450,000	1,289,502
28	Cargill/ Embrapa	2009	2010	2	Brazil	64,950	N/A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29	Cashew Alliance	2004	2007	3	Guinea	500,000	250,000
30	Cassava 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	2003	2008	2	Nigeria	5,500,349	28,204,730
31	Central American Coffee Initiative (Technoserve and P&G)	2002	2007	13	El Salvador, Honduras, Nicaragua	2,250,000	7,345,000
32	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 (CSISA)	2009	2012	2	Bangladesh, India, Nepal, Pakistan, Asia Region	N/A	N/A
33	Ceresm Inc. - Abiotic Stress Tolerant Bio engineered Rice	2009	2009	1	Worldwide	N/A	N/A
34	Certified Sustainable Products Alliance (CSPA)	2003	2007	38	Costa Rica, Nicaragua, El Salvador, Panama, Mexico, Guatemala, Honduras	12,840,000	94,663,623
35	Chevron Texaco Pro-Plan Alto	2003	2005	2	Angola	1,802,000	2,117,000
36	Chevron Texaco Seed Recovery	2003	2005	2	Angola	2,000,000	2,300,000
37	Coffee Corps	2002	2004	2	Costa Rica, Ethiopia, Guatemala, Honduras, Kenya, Rwanda, Tanzania, Uganda, Zambia	800,000	8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38	Conservation Coffee Alliance (CI and Starbucks)	2002	2007	2	Costa Rica, Mexico, Panama	1,380,000	2,212,907
39	Consortium for Development Relief in Angola	2003	2004	6	Angola	87,678,752	13,923,197
40	Cotton Sector GDA - Dunavant Uganda Ltd	2006	2009	1	Uganda	550,000	1,352,876
41	Dairy Sector GDA	2007	2009	5	Uganda	620,000	1,654,013
42	Diary Enhancement in Eastern Province	2009	2012	1	Sri Lanka	N/A	N/A
43	East Africa Alliance for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2003	2006	1	Kenya, Rwanda, Tanzania, Uganda	1,950,000	2,250,000
44	East Africa Cashew Industry Alliance	2005	2008	4	Kenya, Mozambique, Tanzania	588,000	2,340,000
45	East African Fine Coffees Alliance	2002	2007	1	Burundi, Congo (Kinshasa), Ethiopia, Kenya, Malawi, Rwanda, Tanzania, Uganda, Zambia	3,485,000	13,297,000
46	East Timor Investment Alliance	2007	2009	1	Timor-Leste	300,000	1,0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47	Expanded Program	2009	2010	1	Timor-Leste	400,000	400,000
48	Food Resources Bank	2002	2004	5	Ghana, Global, Kenya, Malawi, Zambia	1,800,000	3,022,304
49	Food Security and Development Relief	2003	2006	6	Angola	83,000,000	4,800,000
50	Food Security and Income Improvement	2003	2008	2	Nigeria	5,000,000	20,100,000
51	Four Thousand Tons Per Day Alliance	2008	2012	1	Egypt	7,000,000	35,521,531
52	Fresh Vegetable Exports	2001	2004	3	Zambia	1,400,000	3,409,980
53	Genetic Improvement of Cowpea (NGICA)	2004	2004	8	Benin, Burkina Faso, Côte d'Ivoire, Ghana, Mali, Nigeria, Togo	1,030,000	26,276,700
54	Greater Number of More Competitive Enterprises in Agro-business	2006	2010	5	Guatemala	3,500,000	821,071
55	Greater Number of More Competitive Enterprises in Agro-Industry	2006	2010	3	Guatemala	4,140,756	2,120,000
56	Horticulture Marketing (CARE)	2004	2007	2	Kenya	450,000	45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57	Hybrid Corn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Monsanto)	2003	2004	1	Philippines	42,000	112,100
58	Ibero Coffee Alliance	2002	2008	7	Uganda	1,000,000	1,785,000
59	Land O' Lakes Dairy Sector (Consolidated Alliance Information)	2003	2006	7	Uganda	191,725	202,000
60	Livestock Trade Commission for the Greater Horn of Africa and Arabina	2002	2008	2	Kenya, Somalia (Horn of Africa, Middle East Region)	1,100,000	4,170,000
61	Markala Sugar Project Mali	2002	2005	2	Mali	1,392,000	1,692,000
62	Milk Collection Centers Alliance	2002	2005	5	Zambia	1,700,000	7,897,650
63	North-South Institute Alliance	2006	2009	2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Saint Lucia	558,305	809,490
64	Organic Quinoa Alliance	2007	2010	10	Bolivia	638,702	3,388,000
65	Partnerships for Innovation and Knowledge in Agriculture-World vision	2008	2010	5	India	1,555,000	4,703,139
66	Partnerships for Innovation and Knowledge in Agriculture (PIKA) - IFPRI	2008	2010	5	India	700,000	4,090,27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67	Partnerships for Innovation and Knowledge in Agriculture (PIKA) -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8	2010	4	India	1,395,000	9,194,052
68	Partnerships for Innovation and Knowledge in Agriculture (PIK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2008	2010	4	India	950,000	3,006,000
69	Producer Owned Trading Company (POTC)	2007	2010	14	Mozambique, Zambia	748,584	2,193,990
70	Pyrethrum Alliance	2009	2011	2	Rwanda	143,660	183,777
71	Reintegration, Conservation and Community Recovery Project (Re-commit)	2006	2008	2	Congo	870,000	1,008,000
72	Root Capital Alliance	2005	2008	3	Ethiopia, Kenya, Rwanda, Tanzania, Uganda	950,000	15,600,000
73	Rural Economic Growth	2002	2005	2	El Salvador, Nicaragua, Peru	3,750,000	5,250,000
74	Rural Employment Generation Activity II	2008	2013	2	Bosnia and Herzegovina	400,000	700,000
75	Rural Employment Generation Alliance (REGA)	2006	2008	3	Bosnia and Herzegovina	282,609	N/A
76	Rwanda Essential Oils Alliance	2005	2008	2	Rwanda	500,000	505,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77	Safe Agricultural Chemical Use	2005	2008	2	Colombia	120,000	120,000
78	SEMINIS GDA to get discounted prices	2009	2010	1	Honduras	50,000	166,000
79	Sorghum Supply Enhancement Project	2008	2009	2	Nigeria	550,000	550,000
80	Specialty Coffee Agribusiness	2002	2008	2	Colombia	9,870,000	15,000,000
81	Specialty Coffee II	2007	2010	5	Colombia	6,000,000	6,000,000
82	SPREAD	2008	2008	22	Rwanda	N/A	N/A
83	STCP - Sustainable Tree Crops	2007	2012	1	Cameroon, Nigeria, Côte d'Ivoire, Ghana, Guinea,	5,000,000	20,000,000
84	Sustainable Agriculture through Commercialization Program	2009	2012	1	Sri Lanka	N/A	N/A
85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 (SUCCESS Alliance)	2003	2010	2	Vietnam	1,624,795	70,000
86	Sustainable Cocoa Production	2006	2009	3	Côte d'Ivoire	600,000	1,37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87	Sustainable Coffee Program	2004	2006	7	World wide	150,000	850,000
88	Tea and Coffee Smallholder Mobilization Through Improved Governance	2004	2007	14	Nepal	350,000	2,735,087
89	Tree Crop	2002	2005	8	Nepal	500,556	1,441,534
90	Warehouse Receipts Program (WRP)	2002	2007	12	Zambia	800,000	14,547,253
91	West Africa Sustainable Tree Crop Program (STCP)	2002	2002	38	Cameroon, Nigeria, Côte d'Ivoire, Ghana, Guinea,	2,181,200	7,550,300
92	West African Seed Alliance	2007	2011	4	Burkina Faso, Ghana, Mali, Niger, Nigeria	6,125,000	53,891,000
93	Africa Agricultural Technology Foundation (AATF)	2005	2008	1	Kenya(Africa Region)	2,500,000	N/A
94	PRIME/West: Rwenzori Finest Coffee	2005	2007	1	Uganda	105,613	344,057
95	Sustainable Cocoa Extension Service for Smallholders (SUCCESS) Alliance	2002	2005	1	Ecuador,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738,763	361,118
96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IST)	2005	2008	4	Kenya	1,167,500	1,234,834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97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And Tree Planting Program (TIST)	2009	2014	4	Kenya	6,660,000	12,775,000
98	APEP Consolidated Alliance Information	2004	2007	37	Uganda	3,289,391	11,515,573
99	Transforming the Marine Aquarium Trade (TMAT)	2003	2007	10	Philippines	821,000	2,313,535

나. 에너지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CREST)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2008	2011	1	Ukraine	N/A	N/A
2	Alliance for Mindanao Off Grid Renewable Energy 2 (AMORE2)	2005	2009	17	Philippines	10,999,999	5,209,894
3	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 (AMORE) Program	2002	2006	4	Philippines	9,990,202	5,067,656
4	Alliance for the Development of Insurable Methane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2007	2009	3	Russia, Ukraine	363,000	363,000
5	Central America Renewable Energy/Clean Production	2005	2007	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150,000	N/A
6	Clean Energy Alliance	2002	2003	3	Egypt	1,000,000	1,700,000
7	Developing the Municipal Energy Efficiency Market in Ukraine	2008	2010	2	Ukraine	N/A	N/A
8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Bulgaria	2006	2008	3	Bulgaria	350,000	381,856
9	Eco-Housing in India (IIEC)	2004	2009	6	India	831,176	1,723,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0	Energy Sector Reform	2005	2007	1	Colombia	150,000	150,000
11	Environment and Energy Programs	2003	2006	6	Philippines	1,500,000	5,350,000
12	Gel fuel Renewable Energy Technology	2003	2004	1	Malawi	100,000	326,755
13	India Rural Electrification Prog	2006	2008	2	Malawi	600,000	2,000,000
14	Loan Guarantees to Implement Energy Improvement Projects	2004	2006	1	Kazakhstan	7,500,000	7,500,000
15	Market Initiative for Advanc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le Green Business Development	2005	2009	2	India	1,548,000	6,145,155
16	Methane to Markets (Consolidated Alliance Information)	2006	2008	15	India	549,938	455,357
17	Micro-Hydro	2008	2010	2	Afghanistan	N/A	N/A
18	NRECA - National Rural Electrification Alliance	2003	2008	5	Dominican Republic	5,319,000	6,220,000
19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Water and Energy	2005	2007	1	India	270,212	906,891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20	Rural Electrification Alliance	2005	2007	3	Nepal	580,701	1,784,250
21	SIDF Promotion of Pro-Poor Investments in Small Scale Water and Energy Development	2006	2008	5	India	203,000	453,000
22	Solar Finance Capacity Building Alliance	2003	2006	4	India	404,210	1,389,474
23	Sustainable Energy Use Alliance	2005	2007	2	Brazil, India, Morocco, Worldwide, Zambia	750,000	N/A
24	US-China Clean Energy Partnership Program	2008	2011	5	China	1,999,305	2,022,000
25	West Africa Gas Pipeline	2002	2006	7	Benin, Ghana, Togo	7,570,000	616,632,000
26	West Africa Power Pool	2002	2007	14	Benin, Burkina Faso, Côte d'Ivoire, Gambia, Ghana, Guinea, Togo, Guinea-Bissau, Liberia, Mali,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15,124,000	32,493,000
27	Clean Cities Program	2003	2006	11	Philippines	1,500,000	5,374,125
28	Solar Energy for Rural Electrification and Development (SERED)	2004	2007	4	Philippines	410,000	102,500
29	WEC Supply Chain Management Partnership	2006	2008	1	El Salvador	649,802	649,802

다. 산림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Central Africa Regional Program for the Environment (CARPE)	2002	2017	20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Guinea, Rwanda, Congo (Brazzaville, Kinshasa), Equatorial Gabon, Sao Tome and Principe	32,528,000	23,500,000
2	Non-Timber Forest Products	2002	2005	9	Nepal	501,655	1,894,914
3	Amazonian Forest Management (Sustainable Forestry Alliance)	2002	2004	15	Brazil	475,000	1,912,100
4	Asia Regional Biodiversity Program	2007	2008	2	Cambodia	155,000	155,000
5	Atlantic Forest Region Conservation	2003	2004	5	Brazil	1,000,000	141,891
6	Certified Forests and International Markets	2002	2005	6	Bolivia, Brazil, Mexico, Peru	2,000,000	4,020,000
7	Chikweti Forests of Niassu USFS / Niassa Diocese	2006	2007	2	Mozambique(Africa Region)	400,000	2,400,000
8	Community Forest Support Program	2003	2005	1	Cambodia, India	525,000	43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9	Community Forestry (Ecomadera)	2003	2005	5	Ecuador	125,000	225,330
10	Conservation of the Tapyta Private Reserve	2004	2007	3	Paraguay	220,000	418,000
11	Empresa de recuperación de residuos forestales	2008	2009	2	Bolivia	N/A	N/A
12	Forest Certification in the Peruvian Amazon: A Civil Society-Public-Private Alliance	2009	2011	1	Peru	1,100,000	1,358,560
13	Madagascar Minerals (QIT)	2002	2004	1	Madagascar	450,000	450,000
14	Public Private Conservation Alliance for Protected Areas Management	2004	2013	3	Bangladesh	125,000	1,053,000
15	Responsible Asia Forestry and Trade (RAFT)	2006	2009	20	Asia Region	1,000,000	28,969,608
16	Responsible Asia Forestry and Trade Program	2006	2011	11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Papua New Guinea, Vietnam	9,782,050	15,280,000
17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ombatting Illegal Logging, Certification)	2002	2007	39	Indonesia	6,645,000	32,144,900
18	Sustainable Forest Products Global Alliance (SFPGA)	2002	2007	7	Worldwide	5,500,000	27,5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9	Sustainable Forestry Alliance	2002	2003	3	Bolivia	850,000	1,083,000
20	Sustainable Forestry Alliance	2002	2002	3	Peru	300,000	550,000
21	Timber for Aceh	2005	2006	1	Indonesia	594,847	1,405,293
22	Biodiversity Trust Fund	2003	2008	3	Madagascar	2,000,000	2,300,000
23	International Tree Planting Program (TIST)	2003	2005	2	Tanzania	500,000	4,200,000
24	Wood Supply and Processing Center	2004	2008	3	Bolivia	4,725,000	3,775,000

라. 물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Asian Innovations in Infrastucture Financing	2007	2010	1	Vietnam	300,000	300,000
2	West Africa Water Initiative II (WAWA II)	2007	2010	1	Africa Region, Western Sahara	N/A	N/A
3	Mbita Ice Plant	2005	2008	4		300,000	889,200
4	Coca-Cola-USAID Brazil Rainforest Water Project	2008	2011	1	Brazil	50,000	2,000,000
5	Community Watersheds Partnership Program	2006	2008	6	Bolivia, Indonesia, Malawi, Mali	250,000	829,000
6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Chia Lagoon Watershed	2004	2007	7	Malawi	2,074,952	2,712,042
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Upper Egypt	2009	2009	2	Egypt	350,000	750,000
8	Environmental Service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Management (AESIWQM) in Rural Areas in Egypt	2007	2008	2	Egypt	250,000	500,000
9	Greater Amm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Construction	2000	2007	3	Jordan	78,077,000	92,923,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0	Global Community Watershed Parternships Program	2005	2006	1	Angola, Bolivia, Côte d'Ivoire, Ethiopia, Ghana, Indonesia, Kenya, Mali, Mozambique, Nigeria, Uganda	9,125,000	11,125,000
11	Incentive Fund West Africa Water Initiative (WAWI)	2002	2006	11	Ghana, Mali, Niger	3,919,520	35,400,000
12	India Business Alliance for Water	2005	2007	4	India	200,000	368,000
13	Market-based Approaches to Scaling Sustainabl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Initiatives in the Mekong Region	2008	2013	6	Cambodia, Laos, Vietnam	8,500,000	8,483,000
14	Panama Canal Watershed Incentive Fund	2005	2007	1	Panama	2,500,000	2,500,000
15	Philippine Sanitation Alliance (PSA)	2007	2010	9	Philippines	519,000	3,078,206
16	Urban Water and Sanitation	2002	2002	5	India, Panama, Philippines, South Africa	2,000,000	20,400,000
17	USAID-ACP Fund for the Conservation and Recovery of the Panama Canal Watershed	2007	2009	1	Panama	3,700,000	3,700,000
18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WADA)	2007	2008	7	Angola	250,000	33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9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tanzinia	2006	2008	1	Tanzania	350,000	500,000
20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tanzinia	2009	2010	2	El Salvador, Honduras	157,500	157,500
21	West Africa Water Initiative	2002	2006	13	Ghana, Mali, Niger	4,994,000	56,000,000

마. 교통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2002	2006	1	India, Indonesia	2,038,807	5,600,000
2	Kathmandu Electric Vehicle Alliance	2002	2006	7	Nepal	967,624	2,671,553
3	Air Pollution Reduction in Land Transport Sector	2002	2005	10	Sri Lanka	215,000	2,802,000
4	Developing Integrated Emission Strategies for Existing Land(DIESEL) Transport Alliance	2004	2006	9	Thailand (Asia Region)	500,000	4,946,962

바. 기타(생물다양성, 에코투어리즘, 역량강화, 인지제고 등)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	Green Fund	2006	2008	3	Paraguay	500,000	500,000
2	Living Museums in the Sea: A network of underwater archeological preserves in Southeastern Dominican Republic with Indiana University	2008	2010	2	Dominican Republic	200,000	200,000
3	Simandou Alliance	2004	2007	2	Guinea	100,000	250,000
4	Community-Based Ecotourism Project-ll	2005	2011	5	Ghana	677,430	1,087,324
5	Ecotourism (SENCE)	2003	2005	1	Sri Lanka	900,000	1,980,000
6	Ethiopia Sustainable Tourism Alliance	2008	2012	5	Ethiopia	7,000,000	7,000,000
7	Global Sustainable Tourism Alliance (GSTA)	2006	2012	15	Dominican Republic, Ecuador, Ethiopia, Mali, (Worldwide)	800,000	1,600,000
8	Global Sustainable Tourism Alliance Ecuador	2007	2009	5	Ecuador	3,000,000	3,690,000
9	PRIME/West: The Uganda Safari Company Eco lodge	2006	2007	3	Uganda	225,000	25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0	Radisson Hotel & Nishorgo	2005	2015	1	Bangladesh	70,000	55,000
11	Supporting Environmental and Community through Ecotourism (SENCE)	2005	2007	1	Sri Lanka	900,000	2,000,000
12	Sustainable Coastal Tourism in Asia (SCOTIA) Project	2004	2008	7	Philippines	1,479,101	5,724,195
13	E-Central American Mexico (E-CAM) GDA	2006	2009	1	Dominican Republi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100,000	400,000
14	Climate Change Tracking Alliance	2006	2008	5	Belize, Central America Region,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Nicaragua	500,000	876,500
15	Environmental Compliance Capacity Building Program	2003	2006	3	India	99,999	200,000
16	Environmental Management Masters of Science Degree Program	2005	2010	5	kazakhstan	483,000	757,000
17	Environmental NGO Strengthening	2005	2007	1	panama	30,000	1,500,000
18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Fund	2003	2009	2	Dominican Republic	1,200,000	1,2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19	Integrated Conservation of Indigenous Lands	2007	2011	2	Ecuador	6,095,000	1,213,049
20	Exxon USAID Mamirauá Environment Educational Program	2009	2010	1	Brazil	50,000	40,000
21	Marketing Sustainable Briquettes	2007	2009	2	tanzania	203,250	209,655
22	Dow do Brasil-USAID Ambassadors of the Environment Program	2009	2010	1	Brazil	N/A	N/A
23	African Parks/Majete National Reserve	2005	2008	1	Malawi	800,000	5,861,643
24	Cordillera Azul National Park	2003	2007	1	Peru	5,250,000	5,628,752
25	Cordillera Azul National Park Phase Out Activity	2008	2011	4	Peru	2,800,000	2,943,000
26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or Conservation in Tarangire-Manyara (INTACT)	2003	2006	5	tanzania	1,450,000	2,410,000
27	Biodiesel for Rural Development	2008	2010	1	Guatemala	250,000	467,913
28	Forestry, Agriculture, and Ecotourism Alliance	2006	2010	5	Nicaragua	3,657,415	6,100,000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29	Grameen Shakti & Nishorgo Fuel Wood Energy Reduction	2006	2013	1	Bangladesh	21,000	15,000
30	Guangdong Environmental Partnership Project	2008	2011	4	China	1,500,000	3,000,000
31	Nepal Clean Transport Employment Alliance	2006	2007	7	Nepal	149,946	188,450
32	Sustainable Tree Crops	2002	2007	5	Guinea	1,000,000	1,250,000
33	The Moises Bertoni Found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of Paraguay (DAP)	2008	2010	1	Paraguay	634,692	634,692
34	Lesser Known Species	2002	2005	3	Peru	550,000	550,000
35	Community Owned, private funded, Nature Interpretation Center (CONIC) - IPAC	2009	2009	4	Bangladesh	N/A	25,000
36	5F Program: Forests, Finance, Food, Fuel and Future	2006	2007	3	Mozambique	400,000	2,400,000
37	Agriculture Water Initiative	2005	2007	3	India	36,775	75,000
38	Mulanje Mountain Community Watershed Partnership Program	2006	2007	12	Malawi	273,304	578,269

번호	사업명	시작 연도 (년)	종료 연도 (년)	파트너 수	국가 및 지역	LOP (USAID)	LOP (파트너)
39	Protecting Water Sources to Conserve Biodiversity	2007	2012	2	Ecuador	3,002,000	1,347,000
40	Mesoamerican Reef Alliance	2002	2004	2	Belize, Guatemala, Honduras, Mexico	1,500,000	1,500,000
41	Manyara Partnership for Innovative Natural Resource Governance (MPINGO)	2003	2006	5	Tanzania	1,700,000	2,410,000
42	Reef Check	2004	2007	6	Dominican Republic	300,000	952,000
43	PRIME/West: Lake Albert Safaris Limited	2006	2007	1	Uganda	65,139	68,785

3. Danida 기후변화관련 PPP 사업

번호	분야	사업명	파트너 수	파트너기관	국가 및 지역	사업 개요
1	에너지	Landfill Gas to Energy	3	• Gikoko Kogyo • Panca Bhakti Utama • GasCon ApS	Indonesia	매립지 가스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
2		Sustainable Design	2	• Pandega Desain Weharima • ag5 A/S	Indonesia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3	기타	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2	• Hyprowira Adhitama • Weel & Sandvig	Indonesia	오염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기술 적용 지원

4. GIZ 기후변화관련 PPP 사업

번호	분야	사업명	파트너 수	파트너기관	국가 및 지역	사업 개요
1	에너지	Solar Energy for Madagascar	2	• Solar World AG • Tritec International AG	Madagascar	농촌지역에 태양열 에너지 장비 설치를 통한 전기 제공
2		Energy for India	2	• MPPPL • Envi Tec	India	인도 농촌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지원
3	물	German technology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3	• Enviro Chemie GmbH • DEG • Universities in Sao Paulo and Maringa	Brazil	중소기업의 산업 폐수를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설치
4		Composting plant opens up market opportunities	3	• Waterman GmbH • sequa • Agroklina	Kosovo	친환경적인 농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5		Water treatment plants for Mexico	2	• Leipzig-based Bio Planta GmbH • DEG	Mexico	가죽 제품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수 처리 지원
6	농업	Certified sha nut products from Mali	3	• Börlind GmbH • sequa • Jigiya Bon Soikoro	Mali	시어버터 인증제도를 도입을 통한 유기농 공정무역 제품 생산

번호	분야	사업명	파트너 수	파트너기관	국가 및 지역	사업 개요
7	농업	Indian organic spices	2	• DEG • Ecoland	India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유기농 향신료 생산
8		Organic Farming in Cote d' Ivoire	3	• Biotropic GmbH • sequa • Abobo Adjamé Univ.	Côte d'Ivoire	유기농 농업 생산 지원 및 판매 경로 개척
9		Quality Honey from Vietnam	2	• DEG • Alfred L. Wolff (food trader)	Vietnam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꿀의 품질향상 지원
10		Strategic alliance "cotton made in Africa"	5	• Otto Group • Deutsche • Welthungerhilfe • WWF • African cotton producers	Burkina Faso, Zambia	면화 생산품의 품질 향상 지원
11	교통	the future of Mega cities	1	• Siemens AG	Thailand, Vietnam, Colombia, Indonesia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문제 해결 지원
12	기타	Eco-friendly plastics from Brazil	3	• TECNARO • sequa • SENAI-CIMATEC	Brazil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 생산 지원

번호	분야	사업명	파트너 수	파트너기관	국가 및 지역	사업 개요
13	기타	Community center for Kenyan flower farmers	2	• Mount Elgon Orchards Ltd. • DEG	Kenya	케냐 화훼산업에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14		Quality wood and metal from Belarus	3	• Hecht Electronic AG • Industrial Pedago -gical College (IPC) • The Republican Institute for Vocational Training	Belarus	목재 및 철강 제품의 품질 향상 지원
15		Promo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5	• BGMEA • BKMEA •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Awaj Foundation • Karmajibi Nari	Bangladesh	노동 작업장에서의 사회 및 환경 기준 개선

5. 기후변화 관련 PPP 국제기구 현황

가. 세계은행(World Bank, WB)

1) PPP 개념 및 역사

세계은행의 PPP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합의'이며,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 인프라의 제공을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감 하에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와 사업[164]'을 일컫는다. 세계은행의 PPP는 주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나눠 이뤄진다. 기술지원은 PPP 프로젝트를 설계와 실행을 위한 지원이며, 재정지원은 주로 개별 정부가 다양한 PPP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민간재원을 이끌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지원을 위한 계획이나 기후변화 특별기금 조성 등의 활동도 한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초기부터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을 중심으로 PPP를 추진해 왔으며, 에너지와 운송, 통신과 수자원 등 4개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또한 인프라 서비스 조달에서의 PPP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법 등 다양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자문활동도 하고 있다.[165]

세계은행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인근 지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인근지역, 중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등 여섯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은행이 PPP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으로 알 수 있다,

---

164) Broadly, PPP refers to arrangement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ereby part xof the services or works that fall und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ublic sector ar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with clear agreement on shared objectives for delivery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or public services, 인터넷주소: 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165) 곽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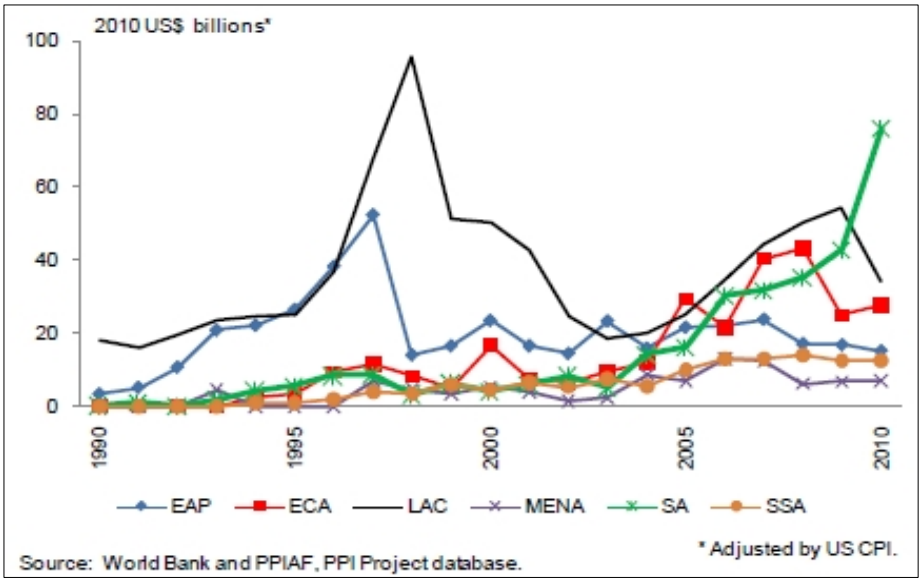
<표 1-1> 1990~2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PPP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역	투자 규모	사업 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629,044	1,533
동아시아와 태평양	326,138	1,462
남아시아	297,395	699
유럽과 중앙아시아	253,021	68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08,458	400
중동과 북아프리카	81,121	134

출처: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s Database, 인터넷 주소: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그림 1-1> 1990~2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PPP 현황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5. PPIAF. p.2.
주: East Asia and the Pacific (EAP), Europe and Central Asia (E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South Asia (SA), Sub-Saharan Africa (SSA)

최근 세계은행은 클린테크(Clean Tech),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운송, 수자원 및 위생 그리고 고형 폐기물 등 6개 분야에서 PPP를 실행하고 있으며[166], PPP 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한다. 그 중 1990년부터 2011년

166) 인터넷 주소: http://ppp.worldbank.org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까지 세계은행은 통신 분야의 PPP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왔으며, 사업 수로는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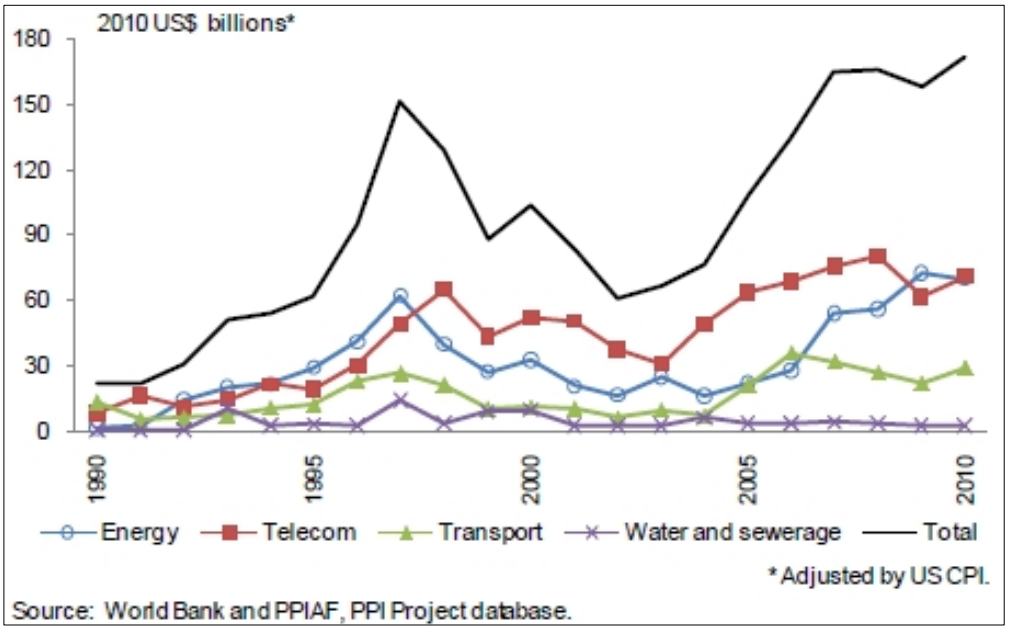
<표 1-2> 1990~2011년 세계은행의 분야별 PPP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투자 규모	사업 수
에너지	572,006	2,027
운송	293,138	1,331
통신	765,906	807
수자원 및 하수도	64,126	743

출처: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s Database,
인터넷 주소: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그림 1-2> 1990~2011년 세계은행의 분야별 PPP 현황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5. PPIAF. p. 2.

167) 인터넷 주소: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접속일자: 2012년 5월 7일)

2) 사업방식

세계은행의 PPP사업지원방식은 크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과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으로 나뉜다.[168]

기술지원은 기술원조 자금제공을 통한 정부의 PPP의 개발 지원과 사업의 준비나 합법적인 환경의 개발을 위해 민관 인프라 자문기금(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169]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원조 자금융자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다. PPIAF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기술지원을 위한 다자간 자문기금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법, 규정, 정부의 역량 및 제도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PPP사업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PPP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170]

세계은행의 기술지원은 개발도상국의 PPP 체계 구축 및 사업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PPP 개발기법 및 정부의 PPP 재정지원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PPP 정책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PPP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업 준비 단계에서 PPP 전문가와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PPP 사업이 세계은행 및 민간시장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PPIAF는 PPP 사업으로 이뤄지는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업무 지향적인(transaction-oriented) 원조를 제공하며, 이는 정부가 가능한 PPP개발을 위한 사업 확인 및 심사, 타당성조사, 적절한 계획 수립, 주요한 계약서 작성 등 입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고문을 고용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세계은행의 재정지원 방식은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며 진행된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

---

168) 인터넷 주소: http://www.ppiaf.org/ppiaf/sites/ppiaf.org/files/documents/World_Bank_Group_Support_to_PPPs_July_2011.pdf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169) PPIAF는 저소득국의 정부를 위한 세가지유형의 기술원조를 제공한다. 세 가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법적 환경조성, 'bankable'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와 국민들의 인지제고가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PPIAF의 홈페이지 (www.ppiaf.org)를 참고.

170) 인터넷 주소: http://www.ppiaf.org/ppiaf/page/about-us/what-we-do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해결본부(ICSID)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세계은행과는 별도기관이지만 운영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세계은행그룹들과도 PPP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 협력한다. 즉,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을 통해 PPP사업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은 차관지원과 보조금지원 등이며, 특히 IDA와 IBRD의 부분 위험 보증(Partial Risk Guarantee)[171] 또한 제공하고 있어 특정한 PPP사업에 대한 정부 약속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정치적, 규정상의 위험이나 계약상의 주요 관계자의 계약 불이행 위험들이 포함되며, 부분 위험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 더욱 신뢰를 얻고 민간 재원투자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PPP 사업이 자본집약적인 운송 사업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경제적인 조달이 필요하여 공공자금 지원을 요구받는데, 이때 세계은행은 정부가 PPP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돕고 있다.

한 예로 체제전환국의 고속도로를 위한 PPP지원을 위해 세계은행의 보증제도를 들 수 있다.[172] 사실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구축의 민간기업의 재정투자가 낮은 이유는 법적기반이 약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이에 따를 고위험 때문이다. 이에 세계은행은 이러한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로 민간 기업을 이끌기 위해 투자주체에게 투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보증은 다양한 소버린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물, 운송, 텔레콤, 석유・가스, 광석 등과 같은 분야에 장기적인 상업금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보증은 또한 PPP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국가는 세계은행과 보증협약을 맺으며, 세계은행은 이 보장협약에 기초하여 투자주체인 민간 기업이 투자자금을 대출받는 상업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세계은행그룹 내의 PPP사업 지원을 할 때 관련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고문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는 정부가 실행 가능한 PPP사업을

171) 세계은행의 보증제도는 PPP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PPP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IBRD/IDA에서 여신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172) 인터넷 주소: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TRANSPORT/Resources/336291-1227561426235/ trp-9-PPPs_Highways.pdf. p.7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개발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의 개발자를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해 경쟁적인 입찰을 수행하도록 한다. 입찰 진행과정 동안에 세계은행은 PPP사업이 은행의 융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입찰자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입찰의 경쟁을 증가시킨다. 또한 국제금융공사 투자부서와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와 많은 국가들의 PPP사업 지원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협력한다. 특히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PPP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와 세계은행과의 해당 부문에 대한 대화가 IFC, MIGA를 포함한 기타 자금제공자에게 안심하게하고, 동시에 세계은행의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는 IFC와 MIGA와의 협력이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PPP 인프라자원센터(PPP in Infrastructure Resource Center, PPPIRC)를 두어 PPP에 관한 계약 및 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WBI)는 지난 50년 동안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PPP와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BI는 PPP를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기술, 재정 등의 재원들을 공공 영역의 인프라, 교육, 보건에 제공하는 것으로 명명하며, 접근가능한 지식과 사례들을 제공하는 기회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173] WBI는 법 및 규제, 정부와 기업의 역량강화, PPP 프로젝트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학습 등을 제공한다. 특히 학습 방식도 대면방식 외에 화상 회의와 전자학습(e-learning)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WBI는 2006년 PPPI(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의 날 행사를 만들어 PPP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2일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Global PPP Network를 만들어서 PPP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것을 통해 회의나 세미나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며, PPP 관련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PPP 계약방식은 주로 계약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 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s), 구매계약(Lease Contracts), 양도계약(Concession) 그리고 BOT계약(Build-Operate-Transfer)[174] 등 5가지의 계약

173) 인터넷 주소: http://wbi.worldbank.org/wbi/about/topics/public-private-partnerships (접속일자: 2012년 4월 20일)

174) BOT 방식은 건설 회사가 도로·교량 따위를 자비로 건설 개통하여 통행료 징수로 건설 자금을 회수 후 그 도로·교량을 정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형태를 띤다. 이 외에도 BOO(Build, Own, Operate), DBO(Design- Build-Operate), 민영화, 지방분권(Corporatization, Utility Restructuring, Corporatization, Decentralization), 계약 계획 및 성과 계약(Contract Plans/Performance Contracts), 합작투자 등이 계약 형태가 있다.

3) 기후변화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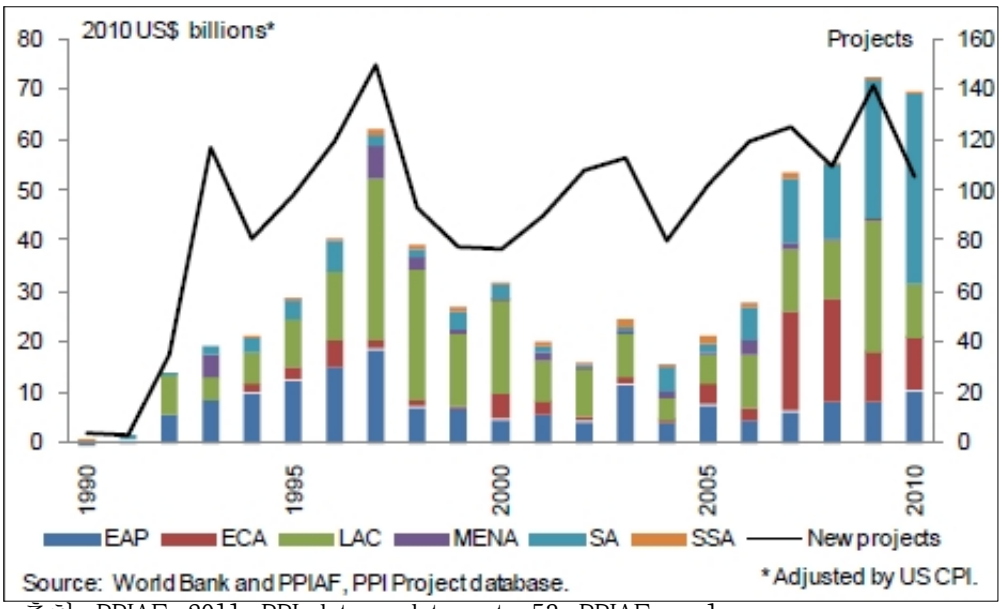
세계은행은 클린테크(Clean Tech),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운송, 수자원 및 위생 그리고 고형 폐기물 등 6개 분야에서 PPP를 실행하고 있다.[175] 그 중 기후변화 및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클린테크,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고형폐기물 등 4개 분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이 통신 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이다. 특히 세계은행의 에너지 분야 PPP 사업은 민간 참여와 프로젝트 투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세계은행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105개 국가에서 2,027개의 에너지 PPP 사업을 추진하였다.[176] 특히 2010년에는 106개의 에너지 PPP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그 중 28개의 사업이 중소 소득국가에서 이뤄졌다. 2010년 민 간 기업의 참여로 에너지 분야의 PPP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6백 9십 9억 달러에 달한다.

에너지 분야의 PPP 사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규모는 2007년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인근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방식은 그린필드형(Greenfield)이며, 계약방식은 BOO(Build, Own, Operate)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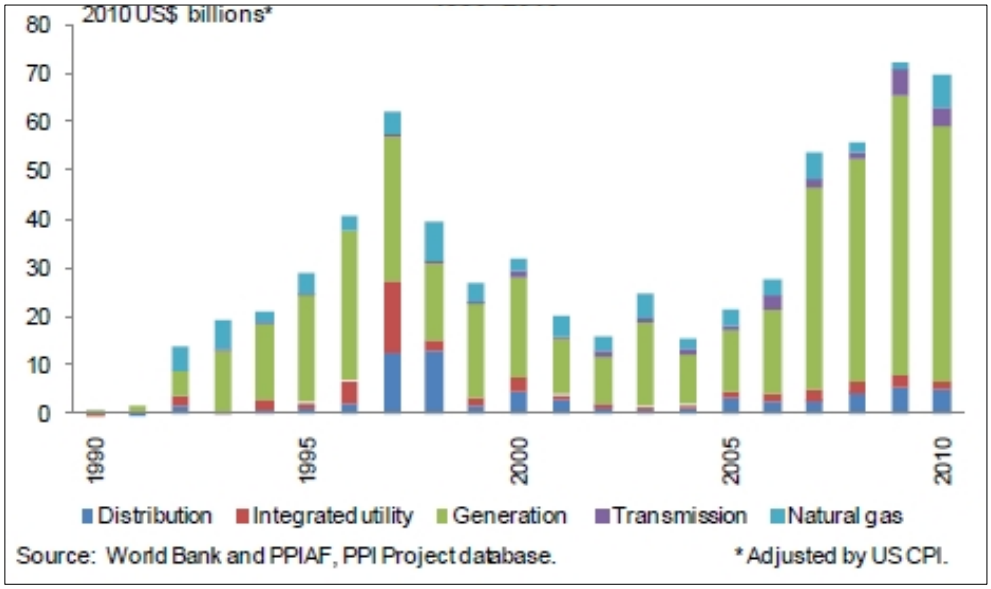
175) 인터넷 주소: http://ppp.worldbank.org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176) 인터넷 주소: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Sector.aspx?sectorID=2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그림 1-3> 1990~2011년 세계은행의 에너지분야 지역별 PPP 현황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3. PPIAF. p. 1.
주: East Asia and the Pacific (EAP), Europe and Central Asia (E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South Asia (SA), Sub-Saharan Africa (SSA)

<그림 1-4> 1990~2011년 세계은행의 에너지 분야 PP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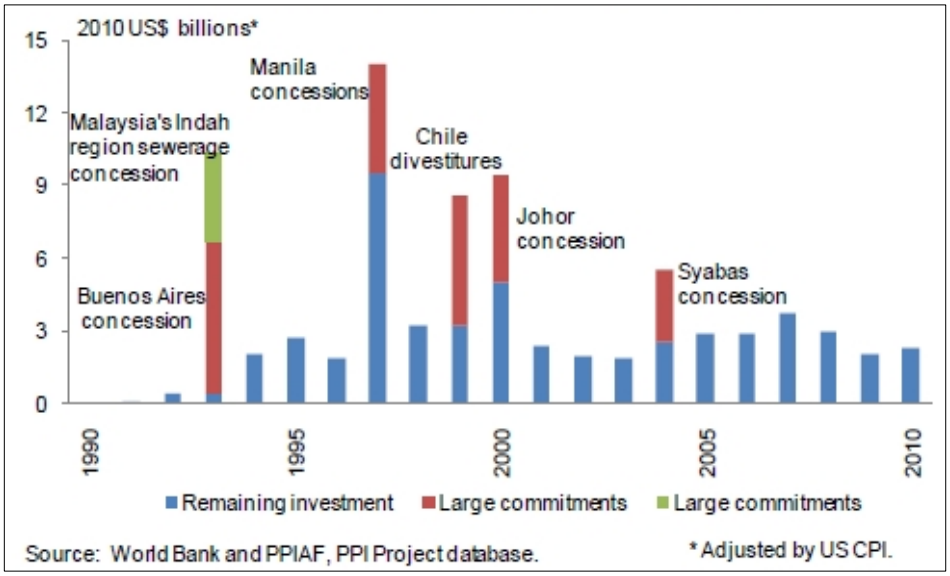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53. PPIAF. p.1.

또한 민간 기업이 에너지 분야의 PPP 사업 중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발전(Generation)이다. 에너지 다음으로 세계은행이 환경 분야에서 PPP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야는 수자원 및 하수도 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에너지 분야에 비해 제한된 상태이지만, 1990년부터 2011

년까지 62개의 국가에서 743개의 PPP 사업이 이루어졌다.[177]

2010년에 이뤄진 물 분야 PPP 사업은 25개로, 총 23억이 투자되었다. 특히 7개의 중소 소득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에서 13개의 PPP 사업이 진행되었다. 물 분야의 PPP 사업은 대부분 하수처리 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실제로 투자의 많은 부분이 몇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림 1-5> 세계은행의 물 분야 민간 부문 PPP 투자 규모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49. PPIAF. p. 1.

물 분야의 PPP 사업은 200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멕시코와 이집트, 중국에서 총 PPP 투자의 76%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PPP 사업[178]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2010년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 시작된 PPP 사업은 전무하다.

세계은행의 물 분야 PPP 사업은 관개 수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이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사업의 계약 형태도 다양하다. 주로 계약은 물과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대량 공급 계약(Bulk Supply Agreements for Water and Sewerage Services), 관리 및 운영 및 유지 보수 계약(Management and Operation & Maintenance Contracts), Lease and Affermage Contracts(임대

177) 인터넷 주소: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Sector.aspx?sectorID=4(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178) 멕시코와 이집트의 폐수처리장 설립, 중국의 물 산업시설의 일부 매각을 포함한다.

및 임대료 계약), 물과 위생 양허 및 BOT(Water & Sanitation Concession and Build-Operate-Transfer)[179] 등 4가지의 계약 형태를 띤다. 이 외에도 양허, BOT, DBO(Design-Build-Operate) 프로젝트, 실용 구조 조정, 민영화, 지방분권(Corporatization, Utility Restructuring, Corporatization, Decentralization), 계약 계획 및 성과 계약(Contract Plans/Performance Contracts), 합작투자 등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베트남의 Water Resources Assistance Project를 들 수 있으며, 이 사업은 베트남의 6개 대표적인 관계수로의 기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통한 농작물의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가구의 소득을 증진하여 농촌의 저소득층 인구를 감소하고 댐의 안전성을 확보고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Thu Bon Basin 지역 수자원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기술적 지원,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경영을 지원하였다. 지원기간은 2004년 3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176.2 million을 지원받았다.[180] 실제 사업의 집행은 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맡았으며, 세계은행은 관개 수로를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하였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2008년 세계은행은 5억 달러 규모의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s, CIF)를 만들었다. 이 기금은 청정기술펀드(Clean Technology Fund)와 전략기후펀드(Strategic Climate Fund)로 나눠져 지원되었다. 청정기술펀드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저탄소 선진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금이며, 전략기후펀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181] 이 기금은 다른 국제개발금융기구와 국가들에서 공여 받으며, 기금을 시작으로 열대·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한 개도국의 열대우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산림탄소파트너십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까지 만들었다.

---

179) BOT 방식은 건설 회사가 도로·교량 따위를 자비로 건설 개통하여 통행료 징수로 건설 자금을 회수 후 그 도로·교량을 정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180) 홍일표 외 3인. 2011. 『한국의 물 분야 대 개도국 PPP 구축 기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74.
181)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2008. “Executive Briefing: ECA, 국제기구 및 국제수출금융시장 이슈와 지원 사례.” 2008.7.28. p. 1.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2008년 7월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 지원 실행계획(Sustainable Infrastructure Action Plan, SIAP)을 발표하여 향후 4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최대 72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 계획은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교통과 상수도 그리고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의 4개 핵심 인프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182]

세계은행의 일반적인 PPP의 특징과 같이 기후변화 분야의 PPP사업 또한 인프라 중심의 재정지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PPP 사업은 물과 에너지 관련된 것으로 전력 시설 및 관개 수로 건설 등의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분야의 PPP 사업에도 일반적인 PPP 사업과 동일하게 주로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우간다 배전 PPP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처음 이루어진 배전 PPP 사업이다.[183] 이 사업을 위해 세계은행은 3가지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첫 번째로 IDA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에 1천만 달러의 신용을 제공한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 과정을 업그레이드 하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세금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 지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기 위한 IDA의 부분 위험 보증이다. 세 번째는 세계은행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보장하는 보험인데 이는 4가지를 포함한다. 현지통화를 FX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의 보장, 전쟁과 시민 반란으로 인해 기인하는 손해, 투자자와의 계약 불이행, 마지막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특정의 경우 그 사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재매각 조항을 포함하여 보증한다. 이 사업은 다국적기업인 Sithe Global Power, LLC, 우간다 정부, 세계은행이 협력하였으며, 7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이 컨소시엄형태로 지원된 사업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차관 외에 부분 위험 보증 및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다. 한 예로 라오스 수력전력 사업[184]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라오스에서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기를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개발협회(IDA)는 이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상업기관에 부분 위험 보증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을 얻기 위

182) Ibid. p. 1.
183) 홍일표 외 3인. 2011. 『한국의 물 분야 대 개도국 PPP 구축 기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 74.
184) 인터넷 주소: http://www.ppiaf.org/ppiaf/sites/ppiaf.org/files/documents/World_Bank_Group_Support_to_PPPs_July_2011.pdf (접속일자: 2012년 3월 27일)

해 중요하게 간주되는 국가의 위험 요소들 즉, 정부의 수용이나 법, 세금이나 의무의 변화 등을 보증하였다. IDA는 또한 정부가 PPP사업에 지분을 제공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PPIAF의 자금제공은 정부가 프로젝트 계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법적 고문을 고용하도록 하게 하였다.

<표 1-3> 세계은행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PPP사업 유형과 부문

분 야	사업명
에너지	· Lao PDR-Nam Theun2 Hydropower Project(라오스) · Sakon Nakorn and Nakorn Phanom Solar Power Plants Project(태국) · CLP Andhra Lake wind farm(인도) · Gansu Guazhou Xiehe Wind Power Project(중국) · Saint-Louis - Dagana - Podor Rural Electrification(세네갈)
물 (수자원)	· Water Resources Assistance Project(베트남) · Qinzhou Economic Development Zone Wastewater Treatment Plant(중국) · Andradina Water and Sewerage System(브라질)
기타	· Knowledge Exchange through Practitioner Networks · South-South Learning · Structured Learning[185] (대면학습 및 화상회의, e-러닝(e-learning) 학습법을 제공함)

출처: PPIAF. 2011. PPI data update note 49, 53. PPIAF. p.1.
주: 세계은행의 2010년 PPP 물 분야 종료사업 25개는 모두 기후변화적응에 해당함.

185) 인터넷 주소: http://wbi.worldbank.org/wbi/about/topics/public-private-partnerships (접속일자: 2012년 4월 21일)

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1) PPP 개념 및 역사

ADB는 PPP를 '인프라와 기타 서비스의 맥락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간의 가능한 관계의 범위'라고 정의한다.[186] 이 유형의 다른 활동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와 '민영화'를 포함하며 이 세 가지 용어는 종종 상호 교환 사용되어왔다.

PPP는 정부가 사회적 책임의 충족과 성공적인 부문 개혁 및 공공 투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조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PPP의 공공영역 파트너는 정부, 정부부처, 또는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기관이며, 민간영역 파트너는 현지 및 해외의 파트너,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술, 금융전문지식을 가진 기업이나 투자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정부행위자는 사회적 책임, 환경 인식, 지역 지식 및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민간영역 행위자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상거래에서의 전문성 사용, 관리, 운영 및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한다.[187]

ADB의 PPP는 1988년부터 개발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목해왔다. PPP는 중요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성요소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해 민간부문이 필수적인 요소라 인식한다. ADB의 역할은 인프라 투자, 각국 정부에의 안정적인 규칙·규정 조언, 기업 친화적인 기초환경 조성 유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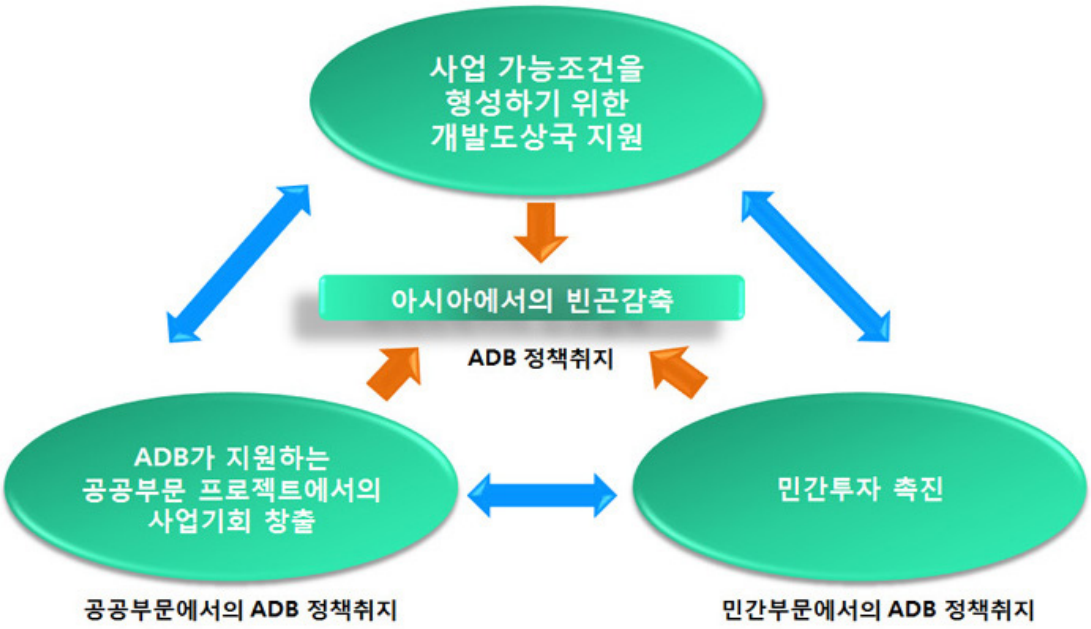
2008년까지 주로 전력, 운송, 물 분야의 PPP를 지원하면서 공공/민간부문의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38개 차관 프로젝트를 통해 PPP에 대한 원조를 제공, 33개 PPP 사업을 위해 총 31억 달러의 채권과 주권을 제공했다. 73개의 기술원조 사업을 통해 PPP 프레임워크와 역량 개발 등을 지원했다.

---

186) "public-private partnership" describes a range of possible relationships among public and private entities in the context of infrastructure and other services.
인터넷 주소: http://www2.adb.org/India/PPP/about-definition.asp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187) 인터넷 주소: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2008/Public-Private-Partnership.pdf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그림 1-6> ADB의 민간부문 전략[188]



출처: ADB. 2000.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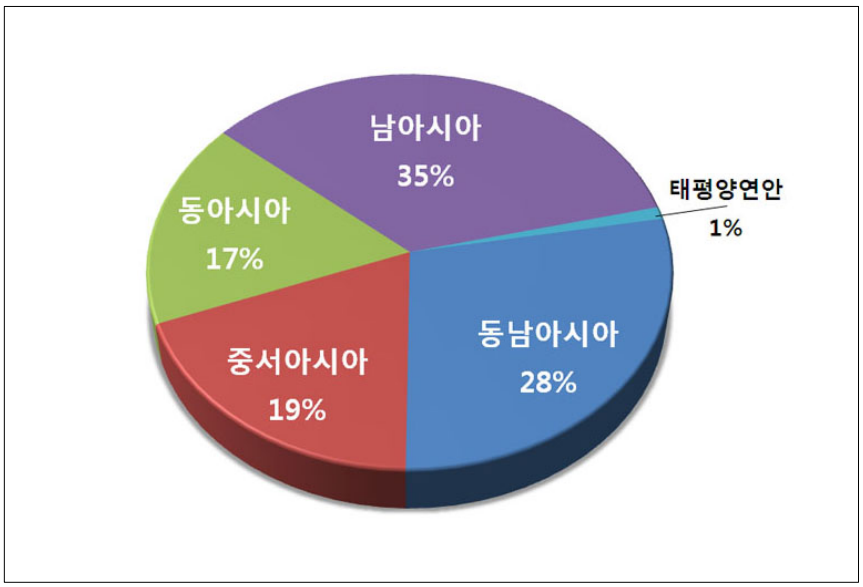
ADB의 주요 목표는 개발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 경제 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이며, 동시에 회원국과 함께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하여 민간 투자자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와 국제적인 경제 통합은 ADB가 여러 국가에서의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의지를 증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ADB의 PPP지원은 실제 개도국에서의 PPP 사업을 확대 시키지는 못했는데 이는 국가의 투자환경 상황과 제도적인 역량 부족 등의 이유에서였다.

ADB는 'Strategy 2020' 이라는 개발전략 프레임워크 하에 산업별 비중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며, 2008년 기준 지역별 프로젝트 지원 자금 배정 현황을 보면 남아시아 35%(37억 달러), 동남아 28%(29억 달러), 중서아시아 19%(20억 달러), 동아시아 17%(18억 달러), 태평양연안 1%(1.2억 달러) 순으로 남아시아에 주로 ADB 프로젝트의 자금이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88) 인터넷 주소: http://beta.adb.org/sites/default/files/pub/2012/psod-brochure.pdf p.8.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그림 1-7> 지역별 ADB 프로젝트 자금배정 현황



출처: KOTRA. 2009. ADB 수주가이드. p. 28.

<표 1-4> ADB의 지역별 프로젝트 지원자금 내정 현황(2008)

단위: 백만 달러

지역	투자규모
남아시아	3,713.7
동남아시아	2,868.5
중서아시아	2,043.7
동아시아	1,750.1
태평양연안	118.3

출처: ADB. 2008. Annual Report 2008. p. 5.

ADB의 분야별 주요지원 부분은 인프라와 환경, 기타로 나뉘는데 인프라에는 운송, 에너지, 수자원 IT등이 포함되며 환경에는 기후변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분야 중 ADB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회시설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운송, 에너지 분야와 같은 인프라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의 ADB의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20% 운송 분야가 25%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5> ADB의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1967-2010)

단위: 백만 달러

분야	차관(Loan)		보조금(Grant)		총합	
	투자규모	사업수	투자규모	사업수	투자규모(%)	사업수
농업 및 천연자원	19,624.2	523	926.1	88	2055.3 (12%)	611
에너지	32,957.4	356	650.6	31	33608 (20%)	387
운송 및 통신	41,141.2	416	1,546.1	44	42687.3 (25%)	460
수자원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14,060.8	245	289.2	29	14350 (8%)	274

출처: ADB, 2010. Annual Report 2010. p. 226. 통계를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ADB는 효과적인 정책수행과 최대의 결과를 위해, 인프라, 환경, 지역협력 및 통합, 금융부문 개발, 교육 분야[189]에 재정과 제도적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포괄적인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지원에 대한 ADB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프라는 빈곤감축과 포괄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요소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ADB의 인프라 지원은 다시 에너지, 공공보건, 농어촌지역 인프라, 도시지역 인프라, 무형자산(non-physical asset)으로 구분된다. ADB는 개발도상국의 교통과 통신 시설 개선에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 부문의 재정 인프라(financing infrastructure)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ADB의 PPP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를 이루며, 이 중에도 전력 부문이 물류 또는 수자원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에서 전력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한 정책적 의지, 원활한 투자비 회수, 전력부문 사업에의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타 부문에 비해 우월한 기관의 역량, 중앙에 집중된 정책결정 방식, 그리고 이미 체계화 된 PPP 조달양식(procurement modalities)에 따른 결과이다.

두 번째, 환경분야의 PPP는 기후변화, 살기좋은 도시(livable cities), 보완계획(complementary actions)으로 구분된다. ADB는 이 분야의 인프라 개발

189) infrastructure, environment, RC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inance sector development, and education

과 재정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환경 관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에 있다.

세 번째, 지역협력 및 통합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CI)는 개발도상국의 성장 촉진, 경제적 파트너십 증대, 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ADB의 Strategy 2020에 따르면 ADB는 RCI에서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① RCI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적 지원에 재정적 지원 증가, ② 개발도상국에게 RCI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량의 증가, ③ RCI를 관리하는 제도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④ RCI 관리자이자 촉매제로서의 ADB의 역할 강화이다.

네 번째, 금융부문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민간 분야가 이끄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ADB는 Strategy 2020에 따라 금융 인프라, 금융 기구,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국가 단위의 재정 분야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미소금융, 농촌지역의 금융기구, 중소기업운영이 가능한 환경 조성, 정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의 도구를 활용할 계획에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다. 이용하기 쉽고 수준이 높은 초·중등교육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특정 고등교육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관여한다. 이는 교육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도 포함한다.

2) 사업방식

ADB의 PPP지원방식은 크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과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술지원은 ADB 및 회원국들의 공여에 의해 수행하게 되고 ADB가 자체 수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ADB 의 중요 지원수단 중 하나이다. 비용은 '기술지원 특별펀드(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TASF)' 를 통해서 조달된다. 기술지원은 2005년 1억 9천 7백만 달러이던 지원 규모가 2008년에는 2억 7천만 달러(299개 프로젝트 건수)를 넘어섰다.

두 번째, 재정지원은 차관(Loan), 보조금(Grant), 지분투자(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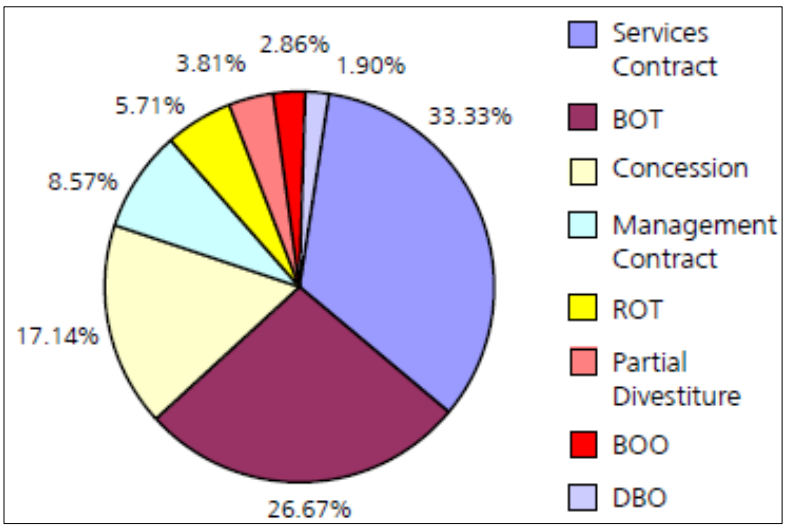
Investments)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ADB의 차관의 집행은 일반자금(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으로 사용되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ADB 전체 차관의 76%인 1,343억 달러, 2008년에는 전체 차관 105억 달러 중 83%인 87억 달러(61건)가 OCR에서 집행되었다. 그 밖에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이라는 공여성 차관으로 동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형식으로 조성되어 최빈 회원국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되는 기금이 있다. 2008년 기준 ADF 차관 규모는 17.9억 달러(37건)로 ADB 전체 차관의 24%를 차지했다. 최근 회원국들은 아시아개발기금 프로그램에 2005~2008년까지 70억 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했으며, 이 중 15억 달러는 이미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확정된 상태다. 보조금 지급(Grant)은 공여성 지원으로, 2008년 수행실적은 프로젝트 49건, 8억 1천 1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는 주로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건이며, 2008년 수행실적은 7건, 1억 2천 3백만 달러다.

그 밖에 ADB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특별펀드(Special Fund)를 조성하여 회원국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2004년 12월 남아시아 쓰나미 재해 당시 6억 달러의 아시아 쓰나미 기금(Asian Tsunami Fund) 조성,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 발생 당시 파키스탄 지진 기금(Pakistan Earthquake Fund) 조성 등이 그 예다.[190]

ADB의 PPP 계약방식은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s), 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s), 구매계약(lease contracts), 양도계약(concessions), 사업수주방식(Build-Operate-Transfer, BOT)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191] 이 중 서비스계약의 비율이 전체의 33.3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수주방식인 BOT (26.67%), 양도계약(17.14%), 경영계약(8.57%) 순서이다.

190) KOTRA. 2009. 『아시아 개발은행 수주가이드』. pp. 23-27.
191) ADB. 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ndbook. p. 28

<그림 1-8> ADB의 PPP 계약방식에 따른 비율



출처: ADB Public Private Partnerships Handbook. p. 27.

첫 번째, 서비스계약의 계약 범위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자 형태의 계약이고, 자산 소유권(Asset Ownership), 운영·관리책임(O&M Responsibility),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 위험 부담(Commercial Risk)은 공공의 분야이다. 사업 위험 수준은 낮은 편이며 기간은 1 - 3년, 보상 체계는 단위 가격 (Unit Price), 입찰 경쟁은 높은 편이며 지속적이다. 국영기업의 효율 증진에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수 계약을 관리할 행정적 능력이 충분해야 하고, 계약에 관한 법 집행이 강력해야 한다.

두 번째, 경영계약의 계약 범위는 전체 운영이나 주요 부분에 대한 관리이고, 자산 소유권, 자본 투자, 위험 부담은 공공의 분야, 운영·관리 책임은 민간분야, 사업 위험 수준은 낮거나 중간이다. 기간은 2 - 5년, 보상 체계는 정해진 가격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입찰 경쟁은 한번으로 끝나고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특징으로는 차후에 더 강한 민간 참여를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점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관리 측에서 예산이나 직원들에 대한 정책 등 적절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구매계약의 계약 범위는 운영·시행, 특정 재건 사업에 대한 책임이며, 자산 소유권, 자본 투자는 공공부문, 운영·관리 책임은 민간에 있다. 위험부담은 공동이다 (Shared). 기간은 10-15년, 사업 위험 수준은 중간(Moderate)이며 보상 체계는 세입의 일정 부분이다 (Portion of tariff

revenues). 입찰 경쟁은 최초 계약에 국한되며, 다음번 계약들은 주로 협상에 따른다. 특징으로는 운영적, 영리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방 운영진의 능력개발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투자에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과 민간 운영자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있다.

네 번째, 양도계약의 계약 범위는 특정한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모든 시행에 대한 책임이며, 자산 소유권은 공공 혹은 민간에게 있고, 운영・관리 책임, 자본 투자, 위험 부담은 모두 민간에게 있다. 기간은 25-30년이고 사업 위험 수준은 높다. 보상 체계는 세입의 부분 또는 전체이다. 입찰 경쟁은 최초 계약에 국한되며, 다음번 계약들은 주로 협상에 따른다. 특징으로는 운영과 사업적 효용증진이고, 투자 자본의 유동성, 지방 운영진의 능력개발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5-10년간의 계약에서 투자 보상과 적절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마지막 사업수주방식(Build-Operate-Transfer, BOT)의 계약 범위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특정한 주요 사업에 대한 운영과 투자이며, 자산 소유권은 공공 혹은 민간에게 있으며 운영・관리 책임, 자본 투자, 위험 부담은 모두 민간에게 있다. ADB는 특히 PPP초기부터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을 민간이 건설・운영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인 사업수주방식(build-operate-transfer)을 체계화하여 전력과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 기간은 각각 상이하며, 사업 위험 수준은 높다. 입찰 경쟁은 한 번 뿐이고, 종종 경쟁 없이 협상 하에 이루어진다. 특징은 투자 자본의 유동성, 지방 운영진의 능력개발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보증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효율성 증진을 하지 않는 것이다.

3) 기후변화 PPP

ADB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과 재정지원능력을 강화 시키고, 안정적인 환경 매니지먼트 개발에 투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92] 환경분야의 지원은 기후변화, 살기에 적합한 도시(livable cities), 보완 활동 (complementary actions)으로 나뉜다.

192) ADB. 2008. Strategy 2020: Working for an Asia and Pacific Free of Poverty. p.19.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ADB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 경제가 저탄소 성장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1) 에너지 효율의 증대 2) 청정에너지 자원의 사용 증대 3) 온실가스 방출 감소 (쓰레기 매립지의 탄소 배출 등) 4) 대중교통수단의 현대화 5) 벌목 제한 등이 있다.

ADB는 국가적/지역적 계획, 방어수단에 대한 투자, 보험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위험대비 기구, 이상기후 예방지침(Climate Proofi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외 숲과 다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깨끗한 물의 공급, 생물다양성의 보호, 온실가스 방출을 보완(offset) 할 수 있는 탄소 억제 정책도 ADB가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한 부분이다.

‘살기에 적합한 도시’를 위해 ADB는 아시아 내 도시들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 개발도상국들이나 지방자치 단체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 섹터에는 물과 공기의 오염방지, 더 깨끗한 교통수단의 도입, 폐기물・쓰레기 감축과 처리 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보완 활동’ 부문에서 ADB는 법적 구속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이나 투자 프로그램들 속에 환경적인 고려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지역적 협력을 지원하며, 환경 경영과 새로운 기술의 전파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최근 지원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프로젝트에서의 비율은 에너지 분야가 49%로 가장 많았고, 교통관련 39%, 물 공금 7%, 통신 분야는 4%로 나타났다.[193]

에너지 분야에서 ADB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시아 태양에너지 구상(Asia Solar Energy Initiative)’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태양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 태양에너지

193) 인터넷주소: http://www.carecinstitute.org/uploads/events/2010/PPP-Workshop-TAJ/ADB-PPP-Strategy-and-Experience.pdf. p. 8.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구상’ 은 2010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오는 2013년까지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총 3,000MW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아시아 지역에 건설하고, 이와 연관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총 22억 5천만 달러를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계획이며, 이를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67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관련 ADB의 PPP 사업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ADB의 기후변화관련 PPP 사례

분야	사업명
에너지	· Technical Assistance for Solar Power Development (우즈베키스탄) · Gujarat Paguthan Wind Energy Facility (인도) ·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인도)
물 (수자원)	· Ho Chi Minh City Water Supply Project (베트남) · Integrated Eco-system & Water Resources Mgt. in the Bayangdian Basian Project (중국) · Uttarakhand Power Sector Investment Program (인도)
교통	·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gram (아르메니아) · 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캄보디아) · Road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ject (필리핀)

ADB는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개발(Technical Assistance for Solar Power Development in Uzbekistan) PPP 프로젝트에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동 사업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은 태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구축, 개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이 사업에는 러시아 석유회사인 루코일 사가 100MW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194]

베트남에서도 기후변화 관련(Technical Assistance for Climate Change) PPP 프로젝트가 활발하며 ADB는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와 다낭시(Da Nang City) 등 주요 도시와 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베트남 정부부처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금 250만 달러를 제

194) KIEP. 2012. 『아시아개발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협력 현황과 시사점』. p. 2.

공하기로 밝혔다. 베트남 국가 소속 연구기관에 의하면 베트남은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에 민감한 저지대 삼각주로, 21세기 말에는 기온상승 및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메콩강(Mekong river)과 홍강(Red river) 주변의 주요 쌀 생산 지역을 비롯하여 호치민시와 다낭시 등의 주요 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기후변화가 경제부문과 지역공동체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평가하고 기후 변화 완화 및 대응 방법 규명 등 포괄적인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이 기술지원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건설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게 되며 사업운영기관은 베트남의 산업통상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5월에서 2013년 5월까지이다.

수자원 분야에서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합된 방식의 수자원 관리 정책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ADB는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수자원 관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수자원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수자원 문제는 국가를 초월하는 사안으로, ADB는 수자원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공유를 통해, 역내 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195] 물 관련 PPP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수도공급 개선 사업인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Water Supply Project)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개발계획은 신규 수도관 설치, 기존 수도관 보수 및 확장을 통하여 대도시의 수도공급을 개선하는 한편, 수도회사의 운영 역량 및 수익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ADB는 베트남 정부의 전국 상수도 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수도공급 개선사업에 10억 달러의 금융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파트너는 사이공 수도회사(Saigon Water Corporation)가 수행한다. ADB는 1억 3,8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ADB를 비롯 원조기관과 베트남 정부 등이 총 28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동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전체인구의 90%, 2025년에는 전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196]

교통 관련 PPP사업으로 최근 아르메니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투자 프로그램(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gram)'[197]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 도시 내 교통부문에 대한 첫 지원이다. 이 사업으

195) KOTRA. 2009. 『아시아 개발은행 수주가이드』. p. 40.
196) 인터넷주소: http://keri.koreaexim.go.kr/keri/bbs/noti/list.jsp?bbs_code_id=1311913572813&bbs_code_tp=BBS_2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197) 인터넷주소:http://pid.adb.org/pid/LoanView.htm?projNo=42417&seqNo=01&typeCd=3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로 도심 인프라 건설과 지하철 및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대기오염, 소음, 교통 체증 및 이로 인한 손실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순환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을 분산시키고 시 외곽 지역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5,000만 달러는 수도인 예레반(Yerevan)내 5.3km에 달하는 순환도로 건설 자금이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실시기관은 아르메니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며, 예레반시(Municipality of Yerevan)가 수도인 예레반의 사업 수행기관이다.[198]

198) 인터넷주소: http://keri.koreaexim.go.kr/keri/bbs/noti/list.jsp?bbs_code_id=1311913572813&bbs_code_tp=BBS_2 (접속일자: 2012년 3월 15일)

다. UN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 UNEP)

1) PPP 개념 및 역사

UNEP는 UN 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기구로,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정책합의 조정 및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199] UNEP의 민관협력은 UN 체제 아래에서 특히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과 NG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사안들과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는 한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UNEP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N은 2000년대에 들어와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UNGC)를 창설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지하고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 그리고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의 10대 원칙[200]을 내세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시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02년 UN의 개발원조계획을 조정하는 기관인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구상(Growing Sustainable Business Initiative, GSB Initiative)'을 제창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기업과의

---

199) UNEP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UNCHE)의 결의에 설립되었음

200)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인터넷 주소: http://www.unglobalcompact.kr/ (접속일자: 2012년 4월 20일)
① 인권(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노동규칙(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③ 환경(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④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연계된 사업이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과 개발도상국의 필요 충족 그리고 빈곤감소를 위한 투자 사업의 선정과 실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UNDP는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장려하여 다국적 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였다.[201]

이렇게 2000년대에 이르러 UN은 빈곤감소를 위한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사업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UNDP는 카자흐스탄의 소규모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유회사인 셰브런(ChevronTexaco) 등의 에너지 회사들과 씨티은행 카자흐스탄 지부와 협력하였으며, 이러한 민관협력 과정에서 씨티은행그룹 등의 국제은행들의 보조금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UNDP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에는 83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의 연합체(Quality Brand Protection Coalition)와 중국 정부기관 그리고 중국의 관련 학자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와 보호방안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2001년에 하였다.[202] UN 내에서는 UNDP가 중심이 되어 정부, 기업, NGO 등과 협력하는 PPP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UNDP는 인권, 기술, 커뮤니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UNEP는 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기업과 NGO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재난 및 충돌, 환경경영, 생태계 관리, 유해물질, 자원효율성 등 6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203]

2) 사업방식

UNEP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6개의 대륙별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서아시아 지역은 바레인의 마나마,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태국의 방콕,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의 나이로비, 유럽 지역은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북미 지역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지역사무소

201)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p. 29.
202) UNDP. 2004. UNDP and the Private Sector: Building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UNDP. p. 19, p. 37.
203) 인터넷 주소: http://www.unep.org (접속일자: 2012년 4월 20일)

가 위치해 있다.

특히 UNEP 본부에서 다른 국제조직, 정부, 기업 및 NGO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는 기술, 산업 및 경제국(Division of Technology, Industry and Economics, DITE)이며, NGO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은 지역 협력국(Division of Regional Cooperation)에서도 맡고 있다.

UNEP는 국제기구, 정부, 기업, NGO, 학자 등의 연구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UNEP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UNEP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소비 프로그램(Sustainable Consumption Program, SCP) 전략과 행동지침들을 지원하여 주며,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UNEP는 기업과도 SCP 제고를 위하여 협력하며, 기업의 환경사회공헌활동(Corporate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ESR)의 정책과 전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들과 노동조합, 협회, 지역 중소기업 등이 이러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UNEP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NGO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204] 특히 NGO들과는 지역마다 자문 및 논의를 갖는 과정을 갖고 있다.

또한 UNEP는 과학자 및 연구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UNEP는 전문가들로부터 환경문제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통계와 지식들을 제공받고 있으며, 실제로 UNEP는 SCP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전문가 집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5년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UNEP/부퍼탈 연구협력센터(Wuppertal Institute Collaborating Centre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SCP)를 설립하여 소비와 생산에 대한 연구 및 자원 경영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205]

---

204) 인터넷 주소: http://www.unep.org/resourceefficiency/Partners/tabid/376/Default.aspx (접속일자: 2012년 4월 21일)

이렇게 UNEP는 정부와 NG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특히 UNEP는 '2010-2013 중기전략'에서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이 점차 증대되어야 하며, 기술협력 외 공공정책 및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기관들의 역량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06]

이렇게 UNEP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지역 기반 활동들을 통해 기업과 NGO 등 민간 영역의 주체들이 환경 분야의 민관협력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상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3) 기후변화 PPP

UNEP는 UN 내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조정 및 촉진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로, 기후변화와 재난 및 충돌, 환경경영, 생태계 관리, 유해물질, 자원효율성 등 6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UNEP는 정부, 기업, NGO 그리고 전문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창안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UNEP는 민관 영역 주체들과의 대화 및 세미나를 가져 교육 교재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의 환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및 민간기관들의 역량 및 인지 제고를 하고 있다.

또한 UNEP는 1989년 청정 생산(Cleaner Production, C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청정기술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원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UNEP는 42개 국가에서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를 촉진시켰다. 특히 1994년부터 UN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와 공동으로 국가별 청정생산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Programme on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s, NCPCs)를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청정기술

205) 인터넷 주소: http://www.scp-centre.org (접속일자: 2012년 4월 21일)
206) UNEP. Medium-term Strategy 2010-2013. UNEP. p. 17.

을 통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207] 또한 UNEP는 환경마크(Eco-labelling)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업과 정부들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시작된 이 사업은 브라질, 중국, 인도, 케냐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유럽위원회와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UNEP는 이러한 환경마크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EU Eco-label 등을 받아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은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기업과 정부 등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UNEP의 파트너십은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행되며,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 변화 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UNEP는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GeSI)'와 '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 'Tour Operators Initiative', 'Global Partnership toward Cleaner Fuels', 'UNEP-UNDP Poverty and Environment Initiative', 'Green Economy Initiative' 등의 이니셔티브를 창안하였으며, 정부 및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달성할 수 있었다.[208]

녹색경제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 GEI)는 UNEP가 2008년 창안한 것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청청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자원 서비스, 폐기물 관리 및 다양한 지속가능 전략에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녹색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9] 특히 환경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빈곤 감소 등에 기여하며, UN 기후변화협약 등의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 등을 통해 환경관리체계 및 장기적인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독일 및 노르웨이가 약 4백만 달러를 지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및 국제 계정(account)에 자연의 편익(services)을 평가하고 내재화하는 것과 녹색 일자리(green jobs)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정책의 설계 그리고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킬

207) 인터넷 주소: http://www.unep.org/resourceefficiency/UNEPsWORK/PartnershipsWithBusinessAndIn dustry/tabid/364/Default.aspx (접속일자: 2012년 4월 21일)
208) UNEP. 2009. UNEP Policy on Partnership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UNEP. p.5.
209) 인터넷 주소: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647&ArticleID =6742&l=en&t=long (접속일자: 2012년 4월 21일)

수 있는 방안(instrument)과 시장의 신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①청정에너지 및 재활용을 포함한 청정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농촌 에너지, ②유기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 ③생태계 기반(Ecosystem Infrastructure), ④산림 파괴 및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⑤계획, 교통 및 녹색 빌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 등 5가지의 분야를 주요 중점 분야로 정한다. 실제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 기업, 세계은행 등의 금융기구, UN 산하 전문기구 등의 국제기구, NGO들이 협력하여 공동성명 발표 및 정책 반영 등 민관협력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르웨이는 2008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가연구기금을 34억 달러로 두 배 증액하였으며, 구글(Google) 및 아마존(Amazon) 등의 창업을 지원한 벤처자본 투자기업 Kleiner Perkins Caufield&Byers는 이산화탄소 감축 분야의 신규 기업들에게 100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이니셔티브는 농업과 지속가능한 도시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민간기관들과 정부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UNEP는 기상변화 및 대기오염에 의한 인간의 건강 변화와 해양오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구환경감시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GEMS), 환경변화 요인의 관측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컴퓨터로 분석하는 지구지리 정보시스템, 공해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제환경정보조회시스템(INFOTERRA),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 IRPTC) 등을 운영한다.

또한 UNEP는 미국의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연합 NGO인 세리즈(CERES)와 1997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입안하여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정도를 평가하여 주고 있다.

6. 해외 현지조사 사례의 국가별 PPP 사업 지역

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PAKLIM
(자카르타 등 도시 지역)

(물/수자원) JHCCP

(농업) AMARTA

(산림) GFTN (전반의 산림지역)

(교통) ITDP

나. 베트남



- JICA '중부 베트남 지역 자연재해 대응 사업'
- WB 'Water Resources Assistance Project'
- Coca-Cola 'Clean Water for Communities'
- HONDA의 조림사업

-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s for Smallholders (농업)

다. 방글라데시

(에너지) 그라민 샥티(Grameen Shakti)

(산림) IPAC

(농업) IRRI(국제미작연구소) - CSISA



라. 가나



WADA

GHPPP

CBEP II

연구자료 기후변화 2012-04-24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2012년 7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기후변화대응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 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121-2 93320